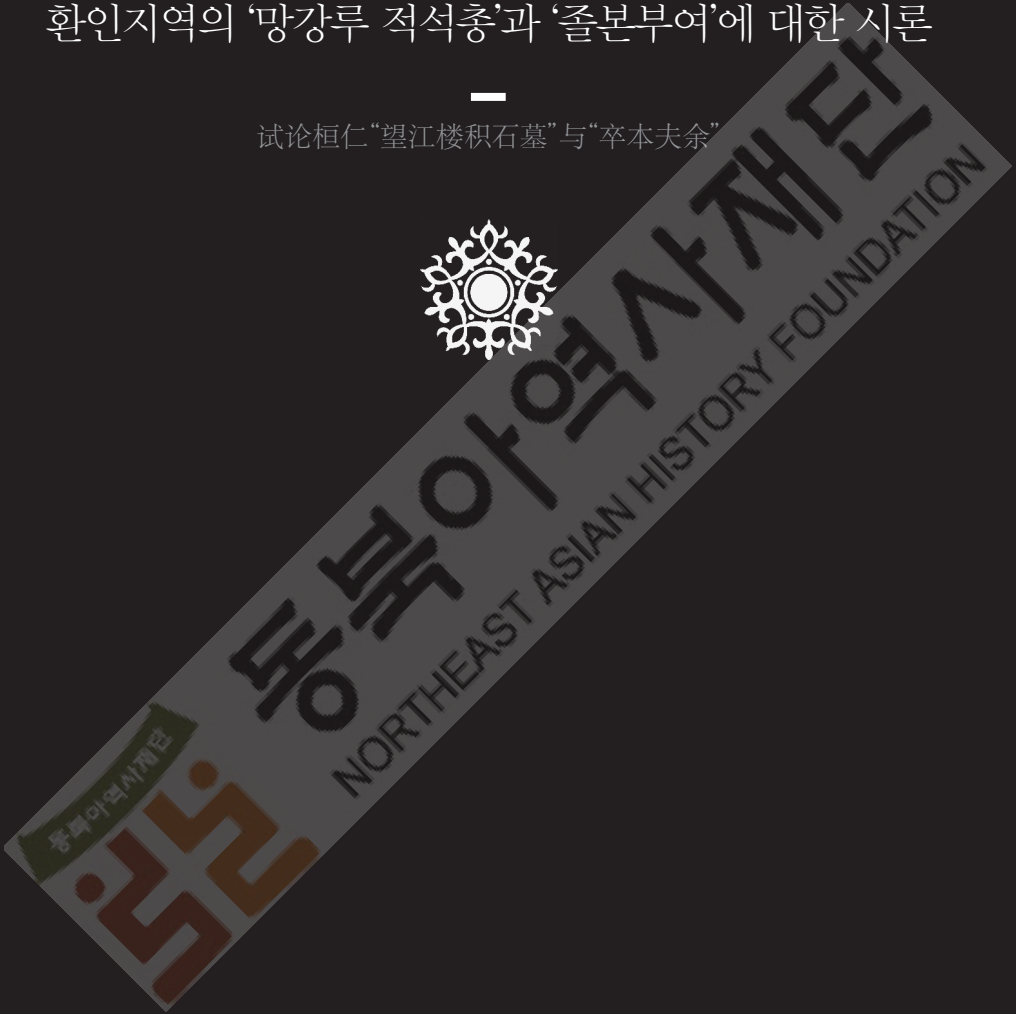


환인지역의 ‘망강루 적석총’과 ‘졸본부여’에 대한 시론

—
试论桓仁“望江楼积石墓”与“卒本夫余”



왕면허우 | 王綿厚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환인지역의 ‘망강루 적석총’과 ‘졸본부여’에 대한 시론

-고구려의 기원과 초기 문화의 내적 함의와 분포를 중심으로

- **왕맨허우** (중국 요령성박물관 연구원)

I. 환인지역의 ‘망강루 적석묘’와 관련된 유적은 ‘졸본부여’의 사적이라는 것에 대한 재증명

20세기 후반에 발견된 망강루(望江樓) 적석묘(積石墓)는 혼강(渾江) 오른쪽 연안의 환인현(桓仁縣) 서남에 위치하고 있어 ‘하고성자(下古城子)’ 남쪽의 아하향(雅河鄉) 남합달촌(南哈達村)과 북으로 약 100m 떨어진 산언덕에 있다. 산 북쪽은 절벽이고 그 밑으로는 혼강이 흘러 지난다. 이 지역에 혼강옛 명칭은 졸본천(卒本川)이다]과 가까이에 인접하고 있는 적석고분군이 있다. 고분은 혼강 서쪽 연안의 산등성이에서 남북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총 6기이다. 1974년에 발견되었으나 이미 파손되고 도굴된 상태였다. 고분의 외부에 그나마 원구형(圓丘形) 적석들이 남아 있다. 가장

【 환인지역의 망강루 적석총, 과 졸본부여, 에 대한 시론 】

큰 무덤은 고분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길이 10.5m, 너비 9m에 달한다. 서쪽 측면에 남아 있는 무덤 돌의 높이는 1.5m이다. 무덤의 남쪽 변두리는 약간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 무덤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무덤 안의 도굴당한 금은기(金銀器)·동기(銅器)·철검(鐵劍) 등 유물들은 이미 많이 산실(散失)되었고 철차(鐵車)와 구슬(珠)장신구만 회수하였을 뿐이다.¹⁾ 2004년에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 등 부문에서 재차 무덤구조와 유물들을 발굴·조사한 자료들과 일찍 도굴당한 유물들을 서로 대조(對照)한 바에 의하면 망강루의 적석묘는 그 구조와 출토된 유물들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망강루의 고분은 혼강의 오른쪽 태지(臺地)에 위치하고 있고 북으로 하고성자, 동으로는 오녀산성에 가까우며, 서로는 청동기시대 말기에 속하는 ‘남합달촌 유적’과 가깝다. 이들 세 유적지의 거리는 서로 수천 m 떨어져 있다. 지리위치상으로 볼 때 이들 유적지들은 「호태왕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졸본천(홀본(忽本))’에 도읍을 정한 고구려의 제1도성과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졸본부여(卒本夫餘)’ 문화를 살펴보는 데 가장 유력한 지리적 우세를 갖고 있다.

둘째, 망강루의 고분은 전형적인 ‘지상식(地上式)’ 적석묘이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시대는 서한(西漢) 중·말기 고구려가 혼강에서 건국된 초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환인지역에서 발견된 적석묘 중 시대가 가장 이른 무덤 유형의 하나이다. 시대적으로도 서한 중·말기에 주몽이 남하하여 혼강(졸본천)에서 ‘건국’한 시기와 서로 부합된다.

1) 梁志龍·王俊輝(1994), 「遼寧 桓仁에서 출토한 청동기시대의 무덤과 그와 연관된 문제」, 『博物館研究』 2期.

셋째, 망강루 적석묘는 장식(葬式)과 장구(葬具) 및 장속(葬俗)으로 볼 때 혼강유역(졸본천)의 ‘맥계(貊系)[비류부(沸流部)]’에서 고구려 초기의 ‘적석위봉(積石爲封)’과 화장(火葬)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출토된 관주(串珠, 꿰구슬) 중 일부 구슬들이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적석묘에 화장풍속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들 적석묘는 요동의 ‘이강(二江)’유역, 토착민족인 맥족과 고구려 초기의 전통적인 ‘적석화장(積石火葬)’ 문화특징을 갖고 있다.

넷째, 부장품(隨葬品)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 예맥족의 부동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북계(北系)’에 속하는 부여[夫餘, 북계(北穢)]의 특징이 뚜렷하다. 망강루 적석묘에서 출토된 부장품들과 이미 공인된 ‘유수대파(楡樹大坡)’와 ‘서풍서차구(西豐西岔溝)’ 등 ‘부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서로 비교해볼 때 도기(陶器)의 조형(造型), 철기와 관식(串飾) 등 유형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도기의 다수는 소면(素面), 수제(手製), 협사(夾砂), 회갈색(灰褐色), 색상이 불균형하고 태질(胎質)은 조잡하며, 조형은 서차구식(西岔溝式)인 수제, 회갈색, 염구(斂口), 고복관(鼓腹罐) 단직령(短直領), 평저(平底), 고복호(鼓腹壺) 위주로 되어 있다. 소량의 토기는 고구려 초기의 협사, 갈도(褐陶), 판이(板耳), 통식관(筒式罐) 혹은 고사령(高斜領), 수이관(豎耳罐)과 사계이(四系耳), 치구도호(侈口陶壺) 조형을 하고 있다. 수집하거나 출토된 직병장인철검(直柄長刃鐵劍)·차식(車飾)·석관주(石串珠) 등 유물들은 ‘서차구 유형’과 많은 면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북부여와 초기 고구려의 문화가 많이 결합된 특징을 나타낸다.

다섯째, 이미 발굴한 6기 적석묘 중에서도 4호(동쪽의 가장 큰 무덤)무덤이 가장 중요하다. 무덤의 규모가 크고 또한 무덤구조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직경이 10여 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도 상당히 많다. 남아

있는 무덤구조로 볼 때 혼강유역에서 고구려 초기의 ‘지상식 적석 화장묘(地上式積石火葬墓)’를 주된 양상으로 하는 고구려 부족무덤의 기본형태를 갖고 있다. 출토유물로 볼 때 수환이(고경갈도호(豎環耳高頸褐陶壺)·한식철착(漢式鐵鑿)·철검·고령고복관(高領鼓腹罐)·삼관용녹송석(三串用綠松石)·마소(瑪瑙)·수정(水晶) 등으로 제작된 관식은 상당히 독특한 특색을 띠고 있어 무덤 주인의 높은 신분을 말하여 준다. 부장품 중에는 전형적인 한식(漢式) 철기(鐵器)와 차(車)·마구(馬具) 등이 있어 무덤 주인이 요동의 한군(漢郡) 문화를 이미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장품 중에 대량으로 출토된 무기와 토기 및 장식품은 이 지역에서 존속했던 맥족(고구려의 선조)과 부여족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특징이 있다. 시간적으로도 서한 중·후기에 고구려가 혼강유역에서 건국된 시기보다도 해당되기 때문에 혼강유역 고구려 초기의 전형적인 무덤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환인지역의 망강루 적석묘와 서쪽에 인접하여 있는 상합달(上哈達)유적들에 대한 고고발굴은 지리위치와 무덤구조 및 부장품들의 특징상 일찍이 지난 1970년대에 고분군이 도굴·파손된 후 조사인원들은 이미 고구려 건국 초기의 ‘졸본부여’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었다.²⁾ 근년의 공식적인 발굴을 통하여 이들 유적과 유물들의 특징이 더욱 분명한 바, 연구자들에게 고구려의 기원과 관련된 혼강과 부이강(富爾江)유역의 ‘졸본부여’ 사적(史蹟)을 인증(認證)하는 면에서 명확한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다.

총체적으로 혼강 서안(西岸)의 망강루 적석묘의 발견은 고립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가까이에 있는 고분군들 중 현재까지는 혼강유역의 고분들이 시기

2) 李新奎 등 인원들이 새로 망강루 유적을 발굴하여 출토된 유물들은 현재 요령성 문물고고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다.

적으로 이를 뿐이다. 예컨대 망강루 적석묘와 유사한 성격의 사도하자(四道河子)·이호래(二戶來)·풍가보(馮家堡) 석개묘(石蓋墓) 등 지역과 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주몽의 건국 초기 ‘졸본부여’ 유적지들의 존재를 심층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나아가 현존하고 있는 혼강·부이강유역의 고구려 초기 유적들의 성격은 문헌에 기록된 ‘졸본부여’를 지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 유적들은 혼강유역 청동기시대의 ‘소수맥’과 ‘비류부’ 등 민족문화전통을 계승한 후에 형성된 고구려에서 가장 이른 ‘서부(西部)[연노부(涓奴部)]’의 문화유적들이다. 이에 따라 고고학적으로 요동에서 고구려기원의 중심구역은 압록강·혼강·태자하·소자하 등 ‘이강(二江)’과 ‘이하(二河)’유역이었음을 확인하였고³⁾ 그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핵심적인 지역은 혼강과 부이강유역의 ‘적석 석개묘(積石石蓋墓)’유적들이다.

II. ‘졸본부여’ 고고문화가 갖추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확인

요동의 혼강·부이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 초기 ‘졸본부여’의 고고문화에 대한 연구는 기왕에는 문헌기록의 결핍과 존속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의 ‘5부(部) 문화’에서 그 분별이 상당히 어려웠다. 오녀산 성과 하고성자 주위에서 발견된 ‘망강루 적석묘’와 ‘상합달’·‘왕의구(王義溝)’유적 등 최신 고고학적 발견에 의거하여 ‘졸본부여’가 존속한 상대연대(相對

3) 王綿厚(2005), 「“二江”과 “二河”上流 청동문화와 고구려기원에 대한 再論」, 『고구려와 예맥 연구』, 하얼빈출판사, 37쪽.

年代)와 지역범위를 결합하여 ‘졸본부여’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인 요소들을 귀납하면 아래와 같다.

1. ‘졸본부여’가 출현한 시간적인 상한은 주몽이 ‘졸본천’으로 남하한 서한 후기이다

‘졸본부여’는 혼강유역의 고유한 민족적 칭호가 아니라 주몽이 ‘졸본천(지금의 혼강)’으로 남하한 후 당시 특정한 역사적 환경에서 형성된 고구려 초기의 부족집단이다. 「호태왕비문」의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로서 …… 물을 건너 비류곡의 흘본 서쪽 산 위에 도읍을 세웠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地 出自北夫餘天帝之子 …… 造度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⁴⁾ 기록과 서로 대조해보면 비문의 ‘흘본(忽本)’은 ‘졸본(卒本)’임이 명확할뿐더러 『삼국사기』에서도 입증된다. 즉 ‘추모왕(주몽)’이 ‘북부여’에서 ‘졸본천(흘본)’으로 남하한 후 ‘졸본부여’가 등장하게 된다. 시간적으로는 기원전 37년 이후이다.

2. ‘졸본부여’의 고고문화 분포는 오녀산성과 하고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혼강 중류와 부이강유역이다

졸본부여의 문화적 분포와 졸본부여가 등장한 시간은 서로 연관되는 두 개의 문제이다. ‘졸본부여’의 문화적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서 졸본부여의 문

4) 「好太王碑 碑文」.

화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구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하나는 혼강유역 ‘전고구려(前高句麗)시대’의 청동기문화유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몽이 수행자들을 데리고 ‘북부여’에서 ‘졸본천(혼강)’으로 ‘남하’하면서 갖고 온 ‘북부여’의 전통문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몽이 남하하는 도중에서 포섭한 ‘재사(再思)·‘무골(武骨)·‘묵거(默居)’ 등 세 부락과 토착문화인 ‘비류국’ 문화로⁵⁾ 그 당시의 혼강과 부이강의 토착민족문화이다. 이 토착문화는 최근에 혼강 중류와 부이강에서 발견된 ‘용두산(龍頭山) 석개묘(石蓋墓)·‘상합달’유적·‘왕의구(王義溝)유적과 대리수향(大梨樹鄕) 괴마자(拐磨子) 등 지역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모두 전형적인 ‘소수맥’ 유적에 속한다. 이 유적들은 문화적인 분포지역으로 볼 때 주몽의 남하(南下) 초기에 해당되는 ‘졸본부여’의 중심지역이다. 이들 문화야말로 ‘졸본부여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민족적 요소와 지역적인 내적 함의를 이루고 있다.

3. 문화적으로 ‘졸본부여’의 고고유적은 부여와 고구려 초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장속은 주로 ‘맥계’인 고구려 초기 특징을 계승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망강루 적석묘의 고고발굴로 볼 때 유적의 무덤구조와 출토유물의 특징은 고구려의 초기 특징과 부여와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 유물(특히 도기와 철기)에서는 부여 문화의 특징이 더욱 명확하고 묘제(墓制)와 장속에서는 고구려 초기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중 문화 요소는 혼강유역에서의 간단한 조합이 아니라[合二爲一] 그중에는 내재

5) 『삼국사기』 권13, 동명성왕본기.

된 문화의 주체성이 있다. 그 주체성은 혼강과 부이강유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량의 ‘적석묘’와 ‘석개묘’ 문화이다. 전반적인 구조특징으로 볼 때 지상적석(地上積石)·화장습속(火葬習俗)과 ‘영석숭배(靈石崇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혼강유역의 ‘소수맥’과 부이강유역의 ‘비류부(소수맥의 한 갈래)’의 문화적 요소는 여전히 이들만의 주된 내적 함의가 있다. 이와 같이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는 송화강유역 부여왕국(夫餘王國) 중심지역의 예계(穢系)에 속하는 ‘서단산(西團山)’ 문화와 후세의 서한시기 부여의 ‘모아산(帽兒山)’ 문화와는 서로 다르다.⁶⁾ 따라서 주몽이 혼강유역으로 남하한 후 형성된 ‘졸본부여’ 문화에는 ‘부여’라는 두 자(字)가 붙었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송화강유역의 ‘북부여 문화’와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4. ‘졸본부여’ 문화는 고구려 초기 문화의 내재된 주체적 함의를 대표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고학적으로 혼강과 부이강유역의 ‘졸본부여’ 문화에 대한 내적 함의에 관해 분석했다. ‘졸본부여 문화’ 중에서도 ‘맥계(초기 고구려)’를 위주로 한 문화특징과 그에 겸하여 ‘부여’ 문화와의 일부 관계를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혼강유역에서도 전국(戰國) 말엽에서 서한 중·후기에 이르는 시기의 지역문화를 놓고 볼 때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즉 서한시기 이 지역의 ‘졸본부여’ 문화에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시기 이 지역의 졸본부여 문화에는 ‘한군(漢郡)’ 문화의 일부 요소들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⁷⁾ 이와 같은 요소들은 ‘망강루 적석묘’와 ‘용

6) 길림시박물관(1988), 「길림 모아산 漢代 木槨墓」, 『遼海文物學刊』.

두산 석개묘'와 같은 유형의 고분유적들에서 주로 동기(銅器)·금속주폐(金屬鑄幣)와 회갈도기(灰褐陶器)를 특색으로 하는 양질의 도기 및 장식품 등 '한식(漢式)' 유물들에서 나타난다. 2004년 5월 필자는 환인현 문물관리처(文物管理處)의 왕권후이(王俊輝) 선생과 함께 사도하자·이호래 등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들을 고찰하면서 여러 곳의 태지(台地)와 촌(村) 민가(民家) 등 넓은 지역에서 전국 말기에서 서한에 이르는 시기의 철제 도구와 연도폐(燕刀幣) 및 한(漢) 오수전(五銖錢) 등 유물들을 발견하였다. 이 지역은 신빈현(新賓縣) 이도하자(二道河子)에서 동쪽으로 환인현의 사도하자를 경유하여 혼강 환인분지에 이르는 문화지대(文化地帶)에 속한다. 아울러 한소제(漢昭帝) 시원연간(始元年間(기원전 1세기))부터 고구려 건국 이전(졸본부여 이전), 즉 '제2현도군'이 소자하 상류에 위치한 신빈현 '이도하자'고성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미 '한군' 문화가 혼강 중류로 전파되던 중요한 통로였고 후에 와서는 고구려의 '남도(南道)'가 되었다. 따라서 주몽시대에 환인의 망강루 적석묘를 대표로 하는 '졸본부여' 문화의 내적 구성요소는 요동 '양강(兩江)' 유역의 '맥계'에 속하는 석(石)구조 무덤과 영석승배를 주체로, 이와 겸하여 '북부여 문화'와 '한군 문화'의 요소들을 포섭하여 형성된 고구려 초기의 '5부 문화' 함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혼강과 부이강유역인 요동의 '이강(혼강과 압록강)'은 고구려 기원의 문화모체발원(상)지(文化母體發源(祥)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근년에 고고학적으로 고구려의 민족기원 문화연구에 대한 중요한 심화와 인식상의 돌파를 가져왔다.

7) 王綿厚, 『요동 '漢郡文化'에 대한 역사 解讀』(미간행).

III. ‘졸본부여’를 ‘고구려’로 개칭한 시기와 역사적 원인에 대한 추정

고구려의 기원과 초기 건국사에서 ‘졸본부여’를 ‘고구려’로 개칭(改稱)한 문제는 『위서(魏書)』·『삼국사기』 등 중외(中外) 여러 문헌에서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위서』에는 “고구려는 부여에서 출자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는 주몽이라 하였다. …… 흘승골성에 이르러 마침내 정착하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성을 고씨로 하였다(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 自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高爲氏焉)⁸⁾”라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에는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씨이고 휘는 주몽이다. …… (재사 등 3인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곳의 토양이 비옥하고 산하가 험고함을 보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는데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수가에 집을 짓고 거처하면서 나라를 고구려라 하고 고(高)로써 씨를 삼았다(始祖東明聖王姓高氏 諱朱蒙 …… 俱至卒本川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考焉 而未遑作宮室 但結蘆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爲高氏)”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부식은 이에 대하여 “혹은 이르되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마침 왕이 이들이 없었던 바 주몽이 보고나서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어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더니 왕이 돌아가매 주몽이 그 위(位)를 이었던 것이다(一云 朱蒙至卒本夫餘 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死朱蒙嗣位)”라는 소주(小注)를 달았다.⁹⁾

8) 『魏書』 권100, 「高句麗傳」.

9) 『삼국사기』 권13, 「동명성왕본기」.

『삼국사기』와 중국 문헌인 『위서』 기록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동남으로 갔으며 출발 시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陜父)’ 등 ‘3인(三人)’과 ‘벗[友]삼아 가면서 도중에서 추병(追兵)들을 계교(計巧)로 물리치고 남쪽으로 강을 건넜다고 전한다. 이 기록은 주몽이 북부여에서 남하할 당시, 혼자의 몸이 아니라 ‘3인(실제로는 3개 부락의 수령이다)’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중에서 귀부한 ‘재사’·‘무골’·‘묵거’ 등 3인은 ‘모곡둔(毛谷屯)’지역에 있던 토착종족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몽은 남하 도중에서 적어도 이미 수행해 오던 ‘북부여’ 사람들과 중도에서 만난 ‘재사’ 등 토착부족들이 계속 가담하면서 이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몽이 남하하여 건국한 후에 형성된 ‘졸본부여’의 민족적 기반이다.

둘째, 김부식은 『삼국사기』 「동명성왕본기」 정문(正文)의 양쪽에 협주(夾注)를 달았는데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는 ‘졸본천’ 문구 밑에 “『위서』에서는 흘승골성이라 하였다[『위서』 운(云) 흘승골성(紇升骨城)]”라는 주를 달았고 다른 하나는 ‘이위고씨(以爲高氏)’, 문구 밑에 “혹자는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다(一云 朱蒙至卒本夫餘)”라는 주를 달았다. 이 기록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대조해 보면 서로 중복된 서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본기」에서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自北夫餘逃難 至卒本夫餘)”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은 주몽이 남하하여 ‘졸본천’에 도착한 초기에는 확실히 ‘졸본부여’라고 자칭(自稱)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셋째, 『위서』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서로 대조하면 ‘졸본부여’라는 명칭의 유래는 주몽이 남하하면서 ‘북부여’의 세 부락의 무리들과 ‘모곡둔’ 등 세

부락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함께 ‘졸본천에 이른’ 후 형성된 새로운 부족연맹인 ‘졸본부여’이다. 주몽이 남하하기 전 ‘부여’의 지리적 위치는 ‘구려(句麗)’의 북쪽에서 1천리 떨어져 있었으며 요동 혼강유역에서도 종래 ‘부여’와 직결되는 유적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주몽이 건국한 초기의 ‘졸본부여’ 고지(故地)는 ‘졸본천’이며, 이 ‘졸본천’과 ‘비류수’ 및 ‘홀승골성’은 모두 지금의 혼강유역인 환인현 경내에 있었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사서의 기록과 현재 고고발굴로 볼 때 모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구려의 기원과 건국사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주몽이 남하한 초기의 ‘졸본부여’를 ‘고구려’로 개칭한 시간과 그 역사적 원인이다.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문헌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서(漢書)』, 『위서』,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서로 대조하면서 논증할 수밖에 없다.

『한서』 「왕망전(王莽傳)」에는 “왕망이 고구려 군사를 동원하여 오랑캐를 치고자 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가기를 원치 않으므로 군(郡)에서 강박하였으나 모두 새외(塞外)로 도망하였다. ……이에 주군(州郡)은 고구려 후(侯)인 추(騶)에게 죄를 물었다(莽發高麗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 州郡歸咎於高句麗侯騶)”, “(왕망이) 시건국원년(9년)에 …… 명하기를 천하는 사망 구석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동쪽에 있는 자들로는 현도, 낙랑, 고구려, 부여에 이른다. …… 그들의 왕을 모두 후로 바꾼다(始建國元年 …… 莽命曰 普天之下 迄于四表 靡所不致 其東出者 至玄菟 樂浪 高句麗 夫餘 …… 盡改其王爲侯)¹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서』 「왕망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위(漢魏) 시기에 ‘사이(四夷)’의 부족

10) 『漢書』 권99, 「王莽傳(中)」.

수령들에게 왕(王) 혹은 후 호칭을 주었으나, 한과 여러 변군(邊郡)과의 정세 수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한서』 「왕망전」에는 “한대에 제후들은 혹자 왕으로 칭하였으며 사이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이와 같았으나 이는 고전(古典)에 위배되고 통일에 어긋나므로 제후왕들의 호칭을 모두 공으로 칭한다. 또 사이에서 호칭을 참(僭)하여 왕으로 칭한 자는 모두 후로 고친다(漢代諸侯或稱王 至于四夷亦如之 違于古典 繆于一統 其定諸侯王之號皆稱公 及四夷僭號稱王者 皆更爲侯)”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적어도 왕망이 ‘시건국원년(始建國元年)’까지 ‘동출자(東出者)’ 중에는 이미 ‘현도·낙랑·고구려·부여’가 있었음을 뜻한다. 이 기록에서 현도·낙랑 2군과 고구려·부여 2후국(侯國)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서한시기 군과 국의 설치를 병행한 행정제도를 말해준다. 그 당시 왕망이 ‘盡改其王爲侯’라는 기록으로 놓고 볼 때 이미 ‘고구려왕’과 ‘부여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삼국지』 「부여전」의 “한나라 때 부여왕이 옥갑(玉匣)을 사용하며 항상 현도군에게 건네주었으며 그들 주인이 죽으면 영취(迎取)하여 장사를 지냈다. …… 그 인문(印文)에는 ‘예왕지인(穢王之印)’이라 하였다(漢時夫餘王用玉匣 常予以付玄菟郡主死則迎取以葬 …… 其印文言 穢王之印)”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검증된다.¹¹⁾ 또한 한대(漢代)에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 왕(王) 혹은 후(侯)에 책봉되었으며 한(漢) 조정에서는 각자 ‘옥갑(玉匣)’과 ‘조복의책(朝服衣幘)’을 하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어도 왕망의 ‘시건국원년’인 서한 말기 이전까지 요동지역에는 이미 ‘고구려왕’과 ‘고구려후’라는 칭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년에 따르면 왕망의 ‘시건국원년’은 고구려 제2대왕 유리명왕 28년에 해당하며 ‘홀승골성’에서 ‘국내(國內)’로 천도한

11) 『삼국사기』 권13, 「동명성왕본기」.

6년차에 해당된다.

『삼국사기』와 『한서』 「왕망전」에서도 입증이 된다. 즉 서한 왕망의 ‘시건국원년’ 이전에 이미 고구려와 부여는 낙랑과 현도 등 변군새외(邊郡塞外 : 변방의 군현과 장성 밖)에서 왕으로 칭하고 있었으며 왕망 대에 이르러 사이의 부족들을 ‘왕국(王國)’에서 ‘후국(侯國)’으로 개칭하기 시작하였다. 12년(한 왕망 시건(始建) 4년)에 ‘고구려후’를 강박하여 호(胡)를 토벌하는 전쟁에 군사를 동원하게 하였으나, 고구려가 이에 따르지 않으니 ‘고구려후’를 강등(降等)하여 ‘하고구려후(下高句麗侯)’로 칭하였다. 따라서 『한서』 「왕망전」과 『삼국사기』 「유리명왕본기」 등 두 사서의 입증은 상당히 명확하다. 즉 ‘졸본부여’로 개칭하거나 ‘고구려’ 명칭을 붙인 시기는 늦어도 왕망의 시건국원년 이전(기원전 8년)이 된다. 그것은 이 해에 왕망이 ‘고구려’를 ‘하고구려’로 개칭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몽이 ‘졸본천’에 남하한 기원전 37년부터 ‘졸본부여’라고 칭하기 시작하였다면, ‘졸본부여’를 고구려왕 혹은 고구려 후국으로 개칭한 시기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후 8년에 이르는 40여 년간이 된다. 이 40여 년간은 고구려의 건국초기인 주몽과 유리명왕 2대에 해당한다.¹²⁾ 이와 같은 상황은 서한 무제(武帝) 시기를 전후하여 남방에서 선후로 ‘구장(句章)·구정(句町)·구용(句容)’ 등과 관련된 사이 족칭(族稱)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가 같다. 이것은 서한이 존속하고 있던 그 당시에 ‘구용·구정’ 등 남방의 부족들을 명명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써 동북지역에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며 서한 중앙정권이 사이와 변군 부족들을 책봉하는 한어(漢語 : 중국어)칭호로써 자주 그리고 널리 행해졌던 하나의 작법(作法)이었다.¹³⁾

12) 『삼국사기』 권13, 「유리명왕본기」.

IV. 맺음말

위에서 기술한 바를 통해 환인 ‘망강루 적석묘’와 그에 인접한 ‘남상합달’ 등의 유적을 대표로 하는 혼강과 부이강유역의 고고문화와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졸본부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서한시기의 망강루 적석묘와 그 서쪽에 인접하고 있는 용두산(龍頭山) 석계묘(石蓋墓)를 대표로 하는 청동기문화 말기의 유적과 부이강유역의 대리수구(大梨樹溝) 등의 지역을 포함한 관련된 유적들은 『삼국사기』에서 일컫는 ‘졸본천’의 ‘졸본부여’ 및 그들 선조들의 고고문화유적들이다. 주몽이 ‘졸본천’으로 남하한 후 그들의 내재적인 문화 함의에는 ‘북부여’와 토착인 ‘구려’부족(소수맥) 문화를 겸용한 이중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중에서 부여 문화요소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출자(出自)해 북부여 습속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묘제(墓制)와 장속에서는 혼강유역의 토착맥족(소수맥), 즉 고구려의 초기문화는 맥족문화를 위주로 계승하였다는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둘째, ‘졸본부여’의 부족구성은 주몽을 추종하여 ‘졸본천’으로 남하한 소수의 북부여의 왕족과 혼강유역의 토착족인 ‘소수맥’ 및 부이강유역의 ‘비류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소수맥과 비류부는 세대(世代)에 거쳐 요동 ‘이강(二江)’에 위치한 맥족의 거주지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종족적 계통은 같다. 맥계 문화는 그들이 ‘졸본부여’에서 차지하는 인구(人數)가 많고 문화 전통이 두텁기 때문에 ‘졸본부여’ 문화 중에서도 요동 ‘이강(혼강과 부이강)’ 유역의 맥계 문화가 줄곧 주도적인 내용을 차지하였다. 또한 후세에 고구려

13) 王綿厚(1987), 「古代 高句麗 族稱 探源」, 『遼海文物學刊』 2기.

초기의 '5부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가게 되는 모체발원지(母體發源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졸본 문화는 고구려 초기 '5부제'와 '5부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었다.

셋째, '졸본부여' 문화와 민족의 지역지리 분포는 주몽이 '졸본천'으로 남하한 초기의 지역으로 놓고 볼 때 본문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오녀산성과 하고성자 및 상합달령을 중심으로 북쪽의 부이강(비류강)유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서쪽으로 '고구려현[신빈(新賓) 이도하자(二道河子) 한성(漢城)]과 인접하고 있어 '한군 문화'가 가장 일찍 혼강유역으로 유입된 중요한 지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 지리적으로 '졸본부여'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혼강상류의 통화(通化)와 그 이북 지역까지 과대하게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¹⁴⁾ 즉 요동의 혼강 중하류유역과 부이강유역은 고구려 문화가 기원한 모체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주몽이 남하한 '졸본부여', 즉 초기 고구려 '5부'의 왕족인 '연노부'의 핵심지역이다.

넷째, '졸본부여'는 주몽이 졸본천에 남하한 후 자칭한 민족정권이다. 그 하한선은 서한이 '고구려왕' 혹은 '고구려후'로 책봉한 그 이후 시기가 된다. 『한서』 『왕망전』 기록에서 추정해 보면 가장 늦더라도 기원전 9년(왕망 시건국 원년) 이전이 된다. 그 이후 『삼국사기』와 같은 사서에 실려 있는 '졸본부여'에 관한 기록은 단지 이들 역사에 대한 일종 추술(追述)일 뿐이다.

다섯째, 고고문화에서 볼 때 '졸본부여'의 문화적인 구성은 고구려 초기에는 주로 요동의 '소수맥'과 '북부여' 및 현도군을 위주로 한 '한군 문화'의 영향이 많다. '졸본부여' 문화는 고구려가 '국내(집안)로 천도하기 이전 시기

14) 王貴玉 외(2006), 『通化 강변 遺蹟群의 소재지는 졸본부여의 초기 거주지이다』, 『東北史地』 6기.

의 사회제도와 초기 '5부' 문화의 기반이다. 따라서 '졸본부여' 문화의 확인 작업은 고구려 민족의 초기 생활지역과 문화적인 기원을 해명할 수 있는 키워드임이 확실하다.

여섯째, '졸본부여'를 '고구려'로 개칭하게 된 것은 고구려 민족이 초기에는 변강민족정권이라고 자칭하다가 점차 한(漢) 중앙정권의 책봉을 승인하면서 현도군 소속인 '왕국'과 '후국'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적인 전변(轉變)을 말해준다. 이 전변의 완성 시기는 유리명왕이 기원후 3년에 '졸본'에서 '국내'로 천도한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졸본부여'시대의 결속을 의미한다.

试论桓仁“望江楼积石墓”与“卒本夫余” —兼论高句丽起源和早期文化的内涵与分布

●
王绵厚(中国辽宁省博物馆研究员)

I. 对桓仁“望江楼积石墓”相关考古遗存为“卒本夫余”史迹的再举证

发现于二十世纪后半叶的望江楼积石墓，位于浑江右岸的桓仁县城西南，距“下古城子”南雅河乡南哈达村北约100米的山岗上。岗北为峭崖，崖下即浑江。这是一处紧靠浑江(古称卒本川)的积石墓群，墓地沿浑江西岸山坡呈南北布列。现存墓葬共六座。1974年已发现遭破坏盗掘。墓葬外部仅存圆丘状积石，最大的一座位于墓群东部，长10.5，宽9米，西南侧残石高1.5米，南侧墓边缘较直，分析墓葬平面初应是长方形。……墓内盗掘出的金银器、铜器、铁剑等遗物多已散失，仅追回铁车车口和一批珠饰¹⁾。其中经2004年辽宁省文物考古

研究所等再次清理的墓葬结构和遗物，与早年盗掘出土的遗物互相对照，望江楼积石墓在墓制结构和出土遗物上有如下特点：

- 1、该墓地处于浑江右岸台地上，北邻下古城子，东北临近五女山城，西靠青铜时代晚期“南哈达遗址”。三者均在数千米之间，从地理位置上看，与《好太王碑》等记载，建都于“卒本川”（忽本）上的高句丽第一都城的关系极其密切，最具有考察“卒本夫余”文化的地理优势。
- 2、该墓地为一较典型的“地上式积石墓”。从其出土的器物看，时代应在西汉中、晚期高句丽在浑江建国初期。是同区域发现的目前桓仁地区高句丽积石墓中年代最早的类型之一，在时代框架内与西汉中、晚期朱蒙南下浑江（卒本川）的“立国”时代相合。
- 3、望江楼积石墓从其葬式、葬具和葬俗上看，具有浑江流域（卒本川）“貊系”（沸流部）到高句丽早期“积石为封”与火葬相结合的特征。从其出土的部分串珠有明显的火烧痕迹看，该积石墓中的火葬习俗比较明显。具有辽东“二江”流域，土著之貊族和高句丽早期“积石火葬”的传统文化特点。
- 4、该墓葬中的随葬品特点显著。总的看具有秽貊族南北不同的民族特征，而以其“北系”的夫余（北秽）的特征突出。与已被公认的吉林“榆树大坡”和“西丰西岔沟”等“夫余”古墓群的出土文物比较，在陶器造型、铁器和串饰上类型均相近。如陶器多数为素面手制夹砂灰褐，色泽不匀、胎质较粗糙。造型以“西岔沟式”的手制灰褐陶敛口鼓腹罐、短直领平底鼓腹壶为主。少量的

- 1) 梁志龙、王俊辉：〈辽宁桓仁出土青铜时代墓葬及相关问题〉，《博物馆研究》，1994年2期。

陶器造型，兼有高句丽早期的夹砂褐陶板耳筒式罐或一种高斜领竖耳罐和四系耳侈口陶壶。而采集和出土的直柄长刃铁剑、车饰、石串珠等，则多与“西岔沟类型”相同，具有较多的“北夫余”与早期高句丽结合的文化特征。

- 5、在已发掘的六座积石墓中，以M4(即东部最大的一座墓)最为重要。其墓规模较大，遗存结构较明显，径宽10余米，出土遗物丰富。从其残存的墓葬结构看，具有浑江流域高句丽早期以“地上式积石火葬墓”为主的高句丽部族墓葬的基本形制。从出土文物看，其中竖环耳高颈褐陶壶、汉式铁镞、铁剑，高领鼓腹罐和三串用绿松石、玛瑙、水晶组成的串饰极具特色。标志着墓主人的高等级身份。随葬品中有典型汉式铁器和车马具的存在，表明墓主人已接受辽东“汉郡”文化的事实。而大量的随葬武器、陶器和装饰品，则更多地具有当地貊族(高句丽先世)和夫余族影响的特征，其时代又应在西汉中、后期，与高句丽在浑江流域建国相当，应属于浑江流域高句丽早期遗存的典型代表。

总观桓仁望海楼积石墓及其西邻上哈达遗址的考古发现，从其地理位置、墓葬结构和随葬品的特点看，早在上一个世纪七十年墓群被盗掘破坏后，调查者已考虑到与高句丽建国初期“卒本夫余”的关系^①。经近年的正式考古发掘，其遗迹和遗物的现象更加突出²⁾。为我们认证与高句丽起源有关的浑江、富尔江流域的“卒本夫余”史迹，提供了明确实证。

2) 由李新全等新发掘出土的望海楼墓地遗物，现存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总之，浑江西岸“望江楼积石墓”的发现并不是孤立的。相近的墓群，至今还有浑江流域稍早，类似的如四道河子、二户来、冯家堡石盖墓、龙头山石盖墓等地考古遗存的不断发现，这些都为我们进一步确认朱蒙建国初期“卒本夫余”的史迹存在，提供了重要线索。进一步说明了，浑江、富尔江流域现存高句丽的早期遗存性质，就是文献中记载的“卒本夫余”，它是在继承了浑江流域青铜时代的“小水貊”和“沸流部”等民族文化传统后，形成的高句丽最早的“西部”（涓奴部）的文化遗存。从而从考古学上确认了辽东高句丽起源的中心区域在鸭绿江、浑江和太子河、苏子河等“二江”和“二河”流域³⁾，而其最早的核心地区则应在浑江、富尔江流域的“积石石盖墓”遗存。

II. 确认“卒本夫余”考古学文化应有的诸要素

关于辽东浑江、富尔江流域高句丽早期“卒本夫余”的考古文化，以往由于文献记载少、而且其存在时间短暂，所以以往很难从高句丽早期“五部文化”中分辨出来。今据五女山城和下古城子周围发现的以“望江楼积石墓”和“上哈达”、“王义沟遗址”等最新考古发现，结合“卒本夫余”存在的相对年代和地域范围，将其应具备的文化要素归纳如下。

3) 王绵厚：〈再论辽东“二江”和“二河”上游青铜文化与高句丽起源〉，《高句丽与秽貊研究》，哈尔滨出版社，第37页，2005年。

1. “卒本夫余”出现的时间上限，应在朱蒙南下“卒本川”(今浑江)的西汉后期。

“卒本夫余”不是浑江流域固有的民族称谓，而是朱蒙南下“卒本川”后，在特定历史条件下形成的高句丽早期部族集团。对照《好太王碑》看，也有明确记载“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地，出自北夫余天帝之子，……造度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⁴⁾。碑文中的“忽本”即“卒本”，可与《三国史记》印证。即当“邹牟王”(朱蒙)由“北夫余”南下“卒本川(忽本)”后，开始出现“卒本夫余”。其时间应在公元前37年以后。

2. “卒本夫余”考古文化的分布，应以五女山城和下古城子为中心的浑江中游和富尔江流域。

卒本夫余的文化分布，与卒本夫余出现的时间，是有关联的两个问题。分析“卒本夫余”文化的分布，首先应考虑其文化的构成，至少包括三方面因素。其一是浑江流域“前高句丽时代”的青铜文化遗存；其二是朱蒙及随行者由“北夫余”南下“卒本川”(浑江)带来的“北夫余”文化传统；其三是南归途中收纳的“再思”、“武骨”、“默居”三部落及土著“沸流国”文化⁵⁾。即当时浑江和富尔江流域的土著民族文化。这一土著文化，从近年在浑江中游和富尔江上发现的“龙头山石盖

4)《好太王碑》碑文。

5)《三国史记》卷十三，东明圣王本纪。

墓”、“王义沟遗址”、“上哈达遗址”和大梨树乡拐磨子等地的石棺墓出土文物看，均属典型的“小水貂”遗存。而这一文化分布区，正是朱蒙南下初期的“卒本夫余”的中心地区。它构成了“卒本夫余文化”构成的基本民族因素和地域内涵。

3. “卒本夫余”的考古遗存，从文化特征看，应兼有夫余和高句丽早期特征，而在葬俗上应主要继承了“貂系”的高句丽早期特点。

从上举望江楼积石墓的考古遗存看，其墓葬结构与某些出土文物特点，兼有高句丽早期和夫余的共同特征。其中遗物中(特别是陶器和铁器)夫余文化特征较明显，而墓制和葬俗上高句丽早期的特点明显。但总观这种双重文化因素，在浑江流域并不是简单的合二为一，而有其文化内涵的主体性。这种主体性，就是遍及浑江和富尔江流域的大量“积石墓”和“石盖墓”文化。从总的结构性特点看，具有地上积石、火葬习俗和“灵石崇拜”传统。可见，浑江流域的“小水貂”和富尔江流域的古“沸流部”(小水貂一支)的文化因素，仍是其主导内涵。这种具有鲜明地域特点的文化，有别于松花江流域夫余王国中心地区的秽系“西团山文化”和后来的西汉夫余“帽儿山文化”⁶⁾。从而证明朱蒙南下浑江流域形成的“卒本夫余”文化，虽然冠以“夫余”二字，但在文化内涵上明显有别于松花江流域“北夫余文化”的地域特征。

6) 吉林市博物馆：〈吉林帽儿山汉代木槨墓〉，《辽海文物学刊》2期，1988年。

4. “卒本夫余”文化代表着高句丽早期文化的主体内涵

上述对浑江、富尔江流域“卒本夫余”考古学文化内涵的特征分析，主要在于界定“卒本夫余文化”中以“貊系”(早期高句丽)为主的文化特征，以及兼与“夫余”文化的一些联系。从浑江流域相当于战国末至西汉中、后期的地域文化看，还有一个值得注意的现象，就是该地区西汉时代的“卒本夫余”文化，有一个较明显的特征，就是具有某些“汉郡”文化的因素⁷⁾。这种因素从“望江楼积石墓”和“龙头山石盖墓”一类的墓葬遗存看，主要反映在存在着“汉式”铜器、金属铸币和以灰褐陶为特色的优质陶器，以及装饰品等。2004年5月，笔者偕桓仁县文管处王俊辉先生在四道河子、二户来等地考察高句丽史迹，在几处台地和村民家中，即发现因整地发现战国晚期至西汉时代的铁工具和燕刀币、汉五铢钱等。这一由新宾二道河子、东经桓仁四道河子至浑江桓仁盆地的文化带，从汉昭帝始元间(公元前一世纪)开始，早在高句丽建国前(卒本夫余以前)，即“第二玄菟郡”内迁至苏子河上游新宾“二道河子”古城以前，即成为“汉郡”文化，传播至浑江流域中游的重要通道。以后发展为高句丽“南道”。所以朱蒙时代以桓仁望江楼积石墓代表的“卒本夫余”文化，从其文化构成的因素看，应以辽东“两江”流域的“貊系”石构墓葬和灵石崇拜为主体，兼融“北夫余文化”和“汉郡文化”的因素，而形成的高句丽早期“五部文化”的基本内涵。从这

7) 王绵厚：《关于辽东“汉郡文化”的历史解读》，未刊。

个意义上说，浑江和富尔江流域，是辽东“二江”(浑江、鸭绿江)高句丽起源的文化母体发源地。这是近年对高句丽民族起源的考古学文化探索中，具有突破性的关键性的认识深化。

III. “卒本夫余”改称“高句丽”的时代与史因推证

在高句丽的起源和早期建国史上，“卒本夫余”改称为“高句丽”国号的问题，是见于《魏书》、《三国史记》等中外文献的重要问题之一。《魏书》中记载，“高句丽者，出於夫余，自言先祖朱蒙。……至纥升骨城，遂居焉，号曰高句丽，因以高为氏焉”⁸⁾。而《三国史记》东明圣王本纪又记载：“始祖东明圣王姓高氏，讳朱蒙。……(与再思等三人)俱至卒本川，观其土壤肥美、山河险固，遂欲考焉。而未遑作宫室，但结庐於沸流水上居之。国号高句丽，因以为高氏”。同书金富轼小注：“一云朱蒙至卒本夫余，王无子，见朱蒙知非常人，以其女妻之。王死朱蒙嗣位”⁹⁾将《三国史记》与中国的《魏书》相比，有三点值得注意：

其一，《三国史记》中记载，朱蒙由“北夫余”东南走，出发时“与乌伊、摩离、陕父等三人为友，”途中为追兵所击，施巧计却敌南渡。说明朱蒙由北夫余南下时，并非只身一人。而有“三人”(实

8) 《魏书》卷一百，高句丽传。

9) 《三国史记》卷十三，东明圣王本纪。

际为三部首领)结众而行。而途中归附的“再思”、“武骨”、“默居”的三人，应代表“毛屯谷”一带的三个的土著民族。这说明朱蒙南下途中，至少已有随行的“北夫余”和中途的“再思”等土著部族不断加入，并与其“俱至卒本川”。这是朱蒙南下建国后的形成“卒本夫余”的民族基础。

其二，《三国史记》中，金富轼在正文的两段夹注，也很重要。其一是“卒本川”下注“《魏书》云纥升骨城”；其二为“以为高氏”下注，“一云朱蒙至卒本夫余”。对照同书《百济本纪》也重述：“(朱蒙)自北夫余逃难，至卒本夫余”。三者互证说明，朱蒙南下“卒本川”之初，确实先自称为“卒本夫余”。

其三，以《魏书》与《三国史记》对照可知，“卒本夫余”名称的由来应是“卒本夫余”由朱蒙南下携“北夫余”三部众和“毛屯谷”等三部众等，“俱至卒本川”后，形成的新的部族联盟“卒本夫余”。因为在朱蒙南下前，“夫余”的地望在“句丽”北千里，辽东浑江流域也从无单纯的“夫余”遗存的发现。

但是无论如何，朱蒙立国之初的“卒本夫余”故地应在“卒本川”，而“卒本川”与“沸流水”和“纥升骨城”，都在今浑江流域的桓仁县境，从以上诸史记载和当代考古发现看，都是确凿可据的。

与此相关，作为高句丽起源和建国史的另一个重要问题，是朱蒙南下初期的“卒本夫余”，改称“高句丽”的时间及其史因。这一问题直接的史记记载很少，只能从《汉书》、《魏书》和《三国史记》等有关著录中对比索证。

前引《汉书·王莽传》记载：“莽发高句丽兵，当伐胡，不欲行，郡强迫之，皆亡出塞。……州郡归咎於高句丽侯貉”。同传又记载，王莽“始建国元年(公元九年)，……莽命曰：‘普天之下，迄于四表，靡所

不致’。其东出者，至玄菟、乐浪、高句丽、夫余。……尽改其王为侯”¹⁰⁾。

从《汉书》王莽传可知，汉魏时，对“四夷”部族首领授以王、侯之称，多因汉与诸边郡情势的需要有变化。如《汉书》王莽传记载“汉代诸侯或称王，至于四夷亦如之，违于古典，缪于一统。其定诸侯王之号皆称公，及四夷僭号称王者，皆更为侯”。从《汉书》王莽传的记载可知，至少在其始建国元年(公元九年)，其“东出者”，已有“玄菟、乐浪、高句丽、夫余”。这里把玄菟、乐浪二郡与高句丽、夫余二侯国并提，反映了西汉时代郡、国并行的建置制度。而从当年王莽“尽改其王为侯”看，在王莽之前，应当已存在“高句丽王”和“夫余王”。这同《三国志》夫余传记载，“汉时夫余王用玉匣，常予以付玄菟郡，主死则迎取以葬。……其印文言‘秽王之印’相印证¹¹⁾。说明在汉代夫余和高句丽均被册封为王、侯，并分别由汉朝赐予“玉匣”和“朝服衣帻”。由此也可以证明，至晚在王莽始建国元年(公元九年)的西汉末期以前，辽东地区已有“高句丽王”和“高句丽侯”之称。而王莽始建国元年，在《三国史记》的高句丽纪年中，正值高句丽第二代王琉璃明王二十八年，并由“纥升骨城”迁都“国内”后的第六年。

《三国史记》与《汉书、王莽传》可以互为印证：西汉王莽始建国元年以前，高句丽与夫余俱称王于乐浪、玄菟边郡塞外。至王莽始改四夷之部族“王国”为“侯国”。所以公元12年(汉王莽始建4年)，因强迫“高

10) 《汉书》卷九十九，王莽传(中)

11) 《三国史记》卷十三，东明圣王本纪。

句丽侯”出兵伐胡，高句丽不从，而降“高句丽侯”为“下句丽侯”。由此《汉书·王莽传》，与《三国史记》琉璃明王本纪两书印证十分明确，“卒本夫余”改称或冠以“高句丽”的名称，至晚应在王莽始建国元年以前(公元八年以前)。因为在这一年已出现了王莽改“高句丽”为“下句丽侯”。如果从朱蒙南下“卒本川”方始称“卒本夫余”的公元前37年算起，由“卒本夫余”改称“高句丽”王或高句丽侯国，应在公元前37年至公元8年这四十余年。而这四十余年，正是高句丽建国初期的朱蒙、琉璃明王两代的初创时期¹²⁾。这与西汉武帝前后，先后出现于南方的“句章”、“句町”、“句容”等四夷族称出现的历史背景和意义相同。反映了西汉当时对“高句丽”部族的命名，同对“句容”、“句町”等南方部族命名一样，并不是孤立地存在于东北地区，而是西汉中央政权正式册封四夷边郡部族的汉语称谓的一种普遍行为¹³⁾。

IV. 结论

通过以上相关讨论，可以对以桓仁“望江楼积石墓”和相临的“南上哈达遗址”等代表的浑江、富尔江流域的考古学文化，与文献中记载的“卒本夫余”的关系，归纳如下。

一。西汉望江楼积石墓及西临龙头山石盖墓等代表的青铜文化晚期遗存，包括富尔江流域大梨树沟等地的相应遗存，应是《三国史记》

12) 《三国史记》卷十三，琉璃明王本纪。

13) 王绵厚：〈古代高句丽族称探源〉，《辽海文物学刊》，1987年第2期。

中称为“卒本川”上的“卒本夫余”及其先世的考古学文化遗存。当朱蒙南下“卒本川”(浑江)后,其文化内涵中反映出兼有“北夫余”和土著“句丽”部族(水小貊)的双重特征,其中夫余文化因素,反映了朱蒙出自“北夫余”的习俗影响,而在墓制和葬俗上,则表现出以浑江流域之土著貊族(水小貊),即高句丽早期文化继承貊族文化为主的显著特征。

二。“卒本夫余”的部族构成,应是由追随朱蒙南下“卒本川”的少数北夫余王族,融入浑江流域的土著之“水小貊”及富尔江上的“沸流部”等组成。由于水小貊和沸流部世居辽东二江之貊地、族系相同。在“卒本夫余”中人数众多,文化传统深厚,所以在“卒本夫余”的文化中,辽东“二江”(浑江、富尔江)流域的“貊系”文化,一直占主导成分,并成为以后高句丽早期“五部”文化不断扩大的母体发源地。即卒本夫余文化,是形成高句丽早期“五部制”和“五部文化”的基础。

三。“卒本夫余”的文化分布和民族区域地理,从朱蒙南下“卒本川”初期的区域看,应如上述分析,以五女山城、下古城子和上哈达为中心,包括其北部的富尔江(沸流部)流域。是西临“高句丽县”(新宾二道河子汉城)的“汉郡文化”,最早进入浑江流域的重要地区之一。因此在文化地理上,不宜把想象中的“卒本夫余”的范围无限制地扩大到浑江上游的通化及其以北地区¹⁴⁾。即辽东浑江中下游和富尔江流域,既是高句丽文化起源的母体发源地,也是构成朱蒙南下之“卒本夫余”,即早期高句丽“五部”之王族“涓奴部”的核心地区。

14) 王贵玉等:《通化江沿遗址群所在地当即卒本夫余初居地》,《东北史地》,2006年6期。

四。“卒本夫余”作为朱蒙南下卒本川后自称的民族政权，其下限应在西汉册封“高句丽王”或“高句丽侯”之后。从《汉书·王莽传》记载推断，不会晚于公元九年(王莽始建国元年)以前。自此以后如《三国志记》等对“卒本夫余”的记载，只是一种历史的追述。

五。从考古学文化看，高句丽早期的“卒本夫余”文化的构成，主要有辽东“小水貊”、“北夫余”和以玄菟郡为主的“汉郡文化”影响。而“卒本夫余”文化，正是高句丽迁都“国内”(集安)前，奠定其社会制度和早期“五部”文化的基础。因此确认“卒本夫余”文化，无疑是解决高句丽民族早期地域和文化起源的一把钥匙。

六。“卒本夫余”改称“高句丽”，反映了高句丽民族，由早期其自称的边疆民族政权，向由汉中央政权承认册封的玄菟郡所属“王国”和“侯国”的历史性转变。这一转变的完成，应以琉璃明王公元三年，由“卒本”迁都“国内”地区为标志。这一变迁，也同样标志着“卒本夫余”时代的结束。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초기 5부의 형성과 변천

—
高句麗初期五部的形成與變遷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기환 | 林起煥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초기 5부의 형성과 변천

-
-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형성 및 그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해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부(部)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가 삼국 중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부는 백제나 신라의 부를 연구하는 데 일정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¹⁾

1) 5부에 관한 연구사의 개관은 다음 논문 참조.

盧泰敦(1975),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연구」; 林起煥(2003), 「고구려 정치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31.

고구려의 부에 관한 자료는 다양한 계통이 있으며, 자료에 따라 부의 명칭이나 성격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계통에 따라 양상을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부의 종류도 크게 나부(那部)와 방위부(方位部)로 나뉘어지고 있고 또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위의 두 과제를 중심으로 고구려 5부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부 관련 자료의 검토

고구려의 부(部)에 관한 자료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이하 「고구려본기」로 약칭)의 기사가 그 중심이 되겠다. 그런데 그 대개가 기년(紀年) 기사에 분산되어 있음에 반하여, 중국 측 사서(史書)에 전하는 부 관련 기사는 전체 모습이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금석문(金石文)에 전하는 부의 용례도 당대적 사료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일본 측 사서에도 최말기 고구려 부의 용례가 전하고 있으나, 본 검토에서는 제외한다.

[A. 중국 측 사서에 보이는 부의 용례]

- A-1. 本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鄒加 亦得立宗廟 祠靈臺社稷 絕奴部 世與王婚 加古鄒之號. (『三國志』 卷 30, 「高句麗傳」)
2. 凡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按 今高驪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卽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卽絕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卽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卽灌奴部也 五曰西

部一名右部 卽消奴部也」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後漢書』卷85, 「高句麗傳」)

3. 分五部 曰內部 卽漢桂婁部也 亦號黃部 曰北部 卽絕奴部也 或號後部 曰東部 卽順奴部也 或號左部 曰南部 卽灌奴部也 亦號前部 曰西部 卽消奴部也. (『新唐書』卷220, 「高麗傳」)
4. 部貴五種 魏略曰 其國大本有五族 有消奴部 (絕奴部) 順(奴部) 准[灌]奴部 樓桂樓部 (本消奴部) 爲王 (稍)微弱 桂樓部代之 五部皆貴人之族也 一人[云]內部 卽後漢書桂樓部 一名黃部 二曰北部 卽絕奴部 一名後部 一名黑部 三曰東部 卽順奴部 一名在[左]部 一名上部 一名青部 四曰南部 灌奴部 一名前(部) 一名赤部 五曰西部 卽消奴部也 一名右部 其北[內]部 如燕內部 姓高卽王族也 高麗稱無姓者 皆內部也 又內部雖爲王宗 列在東部之下 其國從事 以東爲首 故東部居上. (『翰苑』, 高麗條)²⁾
5.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 各將下戶三萬餘口 詣康降 還住沸流水. (『三國志』卷30, 「高句麗傳」)
6.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位宮.
7. ㉑ 貞觀 16年(642) 西部大人蓋蘇文讎讖有犯. (『舊唐書』卷199, 「高麗傳」)
㉒ 有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 父爲東部大人 大對盧死 蓋蘇文當嗣……. (『新唐書』卷220, 「高麗傳」)
8. ㉑ 貞觀 19年(645) …… 於是 高麗北部僣薩 高延壽 南部僣薩 高惠眞. (『新唐書』卷220, 「高麗傳」)
㉒ 高麗 位頭大兄里大夫後部軍主 高延壽 大兄前部軍主 高惠眞. (『冊府元龜』卷170, 帝王部來遠條)

2) () 는 보입, [] 는 교정한 것으로, 竹內理三 校訂本(1977, 太宰府天萬宮文化研究所)을 근거로 하였다.

[B.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부의 옹례]

- B-1. 大武神王 5年(22) 秋七月 扶餘王從弟 ……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
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 洛文 賜姓洛氏
2. 大武神王 15年(32) 春三月 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 有不與者 卽鞭之人皆忿死 王聞之欲殺之 以東明舊臣 不忍致極法 黜退而已 遂使南部使者鄒敦素 代爲部長
3. 太祖大王 20年(72) 春二月 遣貫那部沛者達賈 伐藻那
4. 太祖大王 22年(74)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 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
5. 太祖大王 80年(132) 秋七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貫那于台彌儒桓那于台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謀遂成
6. 次大王 2年(147) 春二月 拜貫那沛者彌儒爲左輔 秋七月 左輔穆度婁稱疾退老 以桓那于台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冬十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台皆王之故舊
7. 次大王 20年(165) 冬十月 椽那皂衣明臨答夫 因民不忍弑王
8. 故國川王 2年(180) 春二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9. 故國川王 13年(191) 秋九月 中畏大夫於昇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執國權柄 其子弟并恃勢驕侈 掠人子女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
10. 東川王 20年(246) 秋八月 魏遣幽州刺史田丘儉 將萬人 出玄菟郡來侵 …… 王奔南沃沮 至于竹嶺 軍士分散殆盡 唯東部密友獨在側 謂王曰 …… 下部松屋句前對曰 …… 東部人紐由進曰 …… 王復國論功 以密友紐由爲第一 賜密友巨谷青木谷 賜屋句鴨淥杜訥河原 以爲食邑 追贈紐由爲仇使者
11. 中川王 1年(248) 冬十月 立掾氏爲王后
12. 中川王 4年(251) 夏四月 王以貫那夫人 置革囊 投之西海
13. 中川王 7年(254) 夏四月 國相明臨於湫宰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14. 中川王 9年(257) 冬十一月 以掾那明臨笏觀向公主 爲駙馬都尉
15. 西川王 2年(271) 春正月 西部大使者于湫之女爲王后
16. 烽上王 2年(292) 秋八月 慕容廆來侵 王欲新城避賊 行至鵠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將及 王懼 時新城宰北部小兄 高奴子領五百騎 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并賜鵠林爲食邑
17. 烽上王 3年(293) 秋九月 國相尙婁卒 以南部大使者倉助利爲國相 進爵爲大主簿
18. 美川王 卽位年(300) 是時國相倉助利將廢王 先遣北部祖弗 東部蕭友等
19. 榮留王 2年(619) 王命西部大人蓋蘇文 監長城之役
20. 平岡王少女兒好啼 王戲曰 …… 及女年二八 欲下嫁上部高氏. (『三國史記』卷45, 「溫達傳」)

[C. 금석문에 보이는 부의 용례]

- C-1. 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道使□□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奴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中原高句麗碑)
2. 漢城下後部小兄文達(平壤城石刻)
 3. 前部小大使者於九婁(籠吾里山城 磨崖石刻)
 4. 上部兒奄造釋迦文像(建興5年銘 佛像光背)

고구려 부명(部名)을 전하는 각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중국 측 기록을 검토하자. 사료 A를 보면, 고구려 부의 전모를 전하는 중국 측 사서는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고구려전』과 『신당서(新唐書)』, 『고려전』 및 『한원(翰苑)』이다. 물론 『양서(梁書)』, 『고구려전』과 『남사(南史)』, 『고려전』에도 고구려의 5부 기록이 전하나, 이는 『후한서』, 『고구려전』의 단순한 전

재에 불과하므로 제외한다.³⁾ 『후한서』 「고구려전」의 기록도 대체로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를 참고로 한 것이다.⁴⁾ 또 『후한서』 「고구려전」의 5부 기사
의 주는 당 장희태자(章懷太子) 이현(李賢)의 주로서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며,
약간의 착오도 있다. 『한원』의 기사는 오자, 탈자가 많아 그대로 참고하기 어
려우며, 『위략(魏略)]을 인용한 기사 가운데 ‘五部皆貴人之族也’ 이하의 기사
는 『위략』의 본 기사가 아니라, 『후한서』 「고구려전」의 이현의 주에 근거한 당
고예(高叡)의 주이다. 그러나 『후한서』 「고구려전」에 수록된 이현의 주에서 찾
아볼 수 없는 내용이 남아 있어 도움이 된다. 『신당서』 「고구려전」의 기사도 『한
원』과 동일 계열의 자료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측 자료로는 일단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와 『한원』의 기
사를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삼국지』 「고구려전」은 3세기 무렵의 고구려 초
기 사정을 전하는 것이고, 『한원』은 말기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서, 대략 4
~6세기의 기록이 빠져 있다.

다음 사료 B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보면, 그 대부분이 대무신왕(大武神
王)~미천왕(美川王) 대에 집중되어 있고, 후기 기록은 단 2예 뿐이다. 「고구
려본기」의 기사로는 4세기 초엽까지의 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데, 부명이
개별 인물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대의 실상을 좀 더 풍부하게 전
해준다.

사료 C의 금석문에 보이는 부명은 그것이 당대 기록이라는 점은 물론,

- 3) 5부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順奴部를 愼奴部라 한 것은 避諱한 것이고, 또 『梁書』 高句麗傳에는 灌奴部를 藿奴部라 기록하고 있는데, 오식일 것이다.
- 4) 全海宗(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149쪽. 다만 『三國志』, 『高句麗傳』의 涓奴部 가 『後漢書』, 『高句麗傳』에는 涓奴部로 기록된 차이가 있다.

문헌사료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5·6세기의 사정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는 장수왕(長壽王)이나 문자왕(文咨王) 대로 비정되고, 2예의 석각(石刻) 자료는 6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 다양한 계통의 자료를 합하여 살펴보면, 고구려 부에 관한 기사는 사서의 계통별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전 시기에 걸쳐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체적인 추이는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료 A·B·C에 보이는 고구려 부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첫째, 「고구려본기」의 부명과 『삼국지』 「고구려전」의 부명의 관계이다. 「고구려본기」의 부명은 ‘나(那)’, ‘나부(那部)’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것으로 모두 ‘나부’로 볼 수 있다. 다만 B-3·4의 조나(藻那)와 주나(朱那)는 부명이 아니라 나국명(那國名)이다. 조나와 주나를 제외한 부명은 연나부(椽那部)·비류나부(沸流那部)·관나부(貫那部)·환나부(桓那部)·제나부(提那部) 등 다섯이 보이는데, 이 중 제나부는 B-9·10의 기사로 보아 연나부의 오기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4부가 남는데,⁵⁾ 『삼국지』에서 ‘노부(奴部)’로 표현되지 않고, 또 왕실을 배출한 계루부(桂婁部)가 「고구려본기」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상정하면, 모두 5부가 되어 『삼국지』 「고구려전」의 5족(族)과 그 수가 일치한다. 「고구려본기」의 4나부(那部)가 『삼국지』의 5족 중 계루부를 제외한 4노부(奴部)와 동일한 실체임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⁶⁾ 논지의 전개상 이를 간

5) 「高句麗本紀」에서 那部の 용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椽那部：椽那部·椽那·四椽那·掾那·提那部.

沸流那部：沸流那部·沸流那·沸流.

貫那部：貫那部·貫那.

桓那部：桓那部·桓那.

6) 盧泰敦(1975), 앞의 글, 5~7쪽.

단히 다시 살펴보자.

먼저 연나부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말에 걸쳐 계속 왕비를 배출하고 있는데(사료 B-8·9·11·14·15), 이 점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의 ‘세여왕혼(世與王婚)’하는 절노부와 동일한 실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류나부는 비류국과 관련이 있는데, 그 왕은 송양(松壤)이었다.⁷⁾ ‘松壤’의 ‘壤’은 나(那)·노(奴)와 통하는 것으로, ‘松那·松奴’로 보아 『삼국지』 「고구려전」의 연[소]노부(涓消奴部)와 동일한 부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중천왕(中川王) 대의 소후(小后)는 관나부 출신이고(사료 B-12), 산상왕(山上王)의 소후 주통촌(酒桶村) 출신 후녀(后女)는⁸⁾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관노부 출신임을 알 수 있다(사료 A-6). 그런데 이 시기는 연나부(절노부)가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던 때로서 소후도 동일한 나부에서 배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나부와 『삼국지』 「고구려전」의 관노부를 동일한 부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의 연나부·비류나부·관나부는 각각 『삼국지』 「고구려전」의 절노부·소노부·관노부와 동일한 실체임을 알 수 있다. 환나부와 순노부의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다른 용례에 비추어 동일한 실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둘째, 방위명(方位名)·위치명(位置名)·색명(色名)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명인데[이하 방위부(方位部)로 약칭], 사료 A-8에서 북부=후부(後部), 남부=전부(前部)의 대응이 A-4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7) 『三國史記』 卷13, 始祖東明聖王 卽位年條.

8)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4, 山上王 12·13年條 및 東川王 卽位年條.

셋째, 나부(노부)와 방위부와의 관계이다. 『후한서』 「고구려전」의 이현의 주에는 방위부와 나부를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는 두찬(杜撰)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 검토하듯이 나부와 방위부는 그 기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동일한 실체로 대응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구려 부의 변천과정을 「고구려본기」를 중심으로 기타 기록을 참고하면서 정리하면, 대략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제1기는 나부만 등장하는 시기로(B-1~7), 신대왕(新大王)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는 나부와 방위부가 같이 등장하는 시기로서(B-8~15), 고국천왕(故國川王)에서 서천왕(西川王)까지이다. 제3기는 방위부만 나타나는 시기로(B-6~10), 봉상왕(烽上王)에서 말기까지의 시기이다.

그런데 제1기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볼 수 있을 듯하다. 즉 대무신왕 이전에는 나부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기이고(1-1기), 대무신왕에서 태조대왕(太祖大王) 초년은 나부명과 나국명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이며(1-2기 : B-1~4), 태조대왕 중기 이후 신대왕까지는 나부명만 나타나는 시기이다(1-3기 : B-5~7). 이러한 변화는 나국이 나부로 편제되는 나부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전체적으로 고구려 부의 변천과정을 보면, 대무신왕 이후 태조대왕을 전후한 시기에 5나부가 형성되고, 그 후 고국천왕을 전후한 시기에 방위부가 출현하여 나부와 더불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친 후, 봉상왕·미천왕 이후에는 나부가 소멸하고 방위부만이 그 기능을 갖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이상의 변천과정을 전제로, 1-1·2기의 나부와 나(국)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정해본다면, 1-1기는 나국이 존재하는 시기이고, 1-2는 나(국)에서 나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나(국) 및 나부와 방위부가 일정 시기의 특정한 역사적 성격을 띤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나(國)와 나부의 구분이다. 나부는 사료 B에서 보듯이 「고구려본기」에는 나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란 말은 노와 통하고 지(地壤) 또는 내(川)나 천변(川邊)의 평야를 뜻하는 말로서, 곧 나란 명칭의 집단은 대개 천변 또는 계곡의 어떤 지역집단을 뜻하며, 그것은 씨족공동체가 붕괴된 이후 각 지역별로 성립된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⁹⁾

그러나 「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나의 역사적 실체는 이러한 어의적(語義的)인 이해와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본기」의 나는 부의 원형 또는 구성 단위로서의 나국과 부로서 성립된 이후에 나타나는 나부를 구분해보아야 한다.¹⁰⁾

나국으로서의 나의 용례로는 사료 B-3·4의 조나(藻那)와 주나(朱那)가 주목된다. 조나와 주나에는 각각 왕·왕자가 있고, 관나부 패자(沛者) 달고(達賈)와 환나부 패자 설유(薛儒)의 정벌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도 지니고 있었다. 동일 기사 안에서 고구려왕의 명령을 받는 패자가 있는 ‘나부’와 독자적인 왕의 존재가 확인되는 독립소국인 ‘나’가 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부와 나국이 그 성격을 달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나부가 중앙국가권력의 통제를 받는 나라는 의미에서 ‘나부’로 표현되고 있다면, 조나·주나 등은 독립적인 정치체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나’라고만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는 같이 나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 관계가

9) 盧泰敦(1975), 앞의 글, 4쪽.

10) 部란 용어의 사용은 빨라야 3세기 말 이후일 것이며, 그 이전에는 나란 지명어미가 이를 대신하였을 것이다(盧泰敦, 앞의 글, 25쪽). 그렇다고 하여도 후대에 那部로서 史書에 기록되기 시작한 大武神王 이후의 ‘那’는 그 이전의 那(國)와 구별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있음도 생각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나부라는 고구려 중앙권력 아래의 하부 단위정치체로 편제되기 이전에는 ‘나’라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체로 존재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이를 나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나국의 존재는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위의 조나와 주나가 나타나는 1세기 중엽 전후가 그 하한이 되겠다.

둘째, 사료상 확인되는 나부는 다섯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는 사료상 다섯 개의 이름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나국이 5나부로 개편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부는 고구려연맹체의 형성과정의 역사적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나부에서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방위부로 재편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나부의 구성과 성격

압록강·동가강 유역에 존재했던 세력집단들의 통합 움직임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전 128년의 예군(濊君) 남려(南閔)의 존재나 기원전 75년의 현도군(玄菟郡)의 이치(移置) 등은 이 지역에서의 이러한 운동력이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현도군 내의 고구려현이란 존재를 통해 그러한 운동력이 일찍부터 고구려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은 주몽(朱蒙)집단의 남하(南下)를 계기로 좀더 가속화한 듯하다. 주몽집단의 남하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고구려본기」의 동명왕(東明王)의 출현은 늦어도 기원전 40여 년 경에는 주몽집단이 이 지

역 연맹체의 영도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말해준다.¹¹⁾ 그러면 주몽집단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D-1. ㉠ 東明聖王 1年 王見沸流水中 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往尋至沸流國 其國王松讓出見曰 寡人僻在海隅 未嘗得見君子 今日邂逅相遇不亦幸乎 然不識吾自何而來 答曰我是天帝子 來都於某所 宋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曰淺 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 辭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 ㉡ 東明聖王 2年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 ㉢ 大武神王 15年 春三月 黜大臣仇都·逸苟·熒求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사료 D-1의 비류국(沸流國)은 비류수 유역의 토착세력으로 주몽집단이 남하하기 이전까지는 이 지역의 영도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비류국은 내항 후 다물도(多勿都)가 되고 송양은 그 왕(主)이 되고 있다. 특히 송양이 유리왕·대무신왕 대에도 다물후(多勿侯)·다물국왕(多勿國王)으로 나타남을 보면,¹²⁾ 내항 이후에도 자기 세력기반을 그대로 온존한 채 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명왕 2년에 비류국의 내항은 주몽집단이 주도하는 연맹체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다.

11) 消奴部에서 桂婁部로의 고구려 연맹체의 주도권 교체는 姓氏의 변화(解→高)나 ‘太祖’라는 王號 등을 이유로 太祖王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철준(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1975) 所收 및 金龍善(1980), 「高句麗琉璃王考」, 『歷史學報』 87.

1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 1, 琉璃王 2年 秋7月條,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 같은 책, 卷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卽位年條, “母松氏 多勿國王 松讓女也”.

그런데 대무신왕 15년 이후에는 비류나(부)[漣流那(部)]가 나타난다. 이 비류나부는 아마도 이전의 비류국이 나부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었던(나국 단계) 비류국이 주몽집단과 연맹관계를 맺었다가(다물국 단계), 후에 다시 나부로 개편되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비류나부 단계).

고구려 연맹체를 구성하는 나머지 나부 즉 환나부·관나부·연나부를 구성하는 중심 세력들도 비류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고구려본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들도 독립된 나국들로 존재하다가 태조대왕 이전 어느 시기엔가 주몽집단·비류국 등과 더불어 연맹관계를 맺고 나부로 개편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¹³⁾

그런데 고구려 연맹체를 구성하는 나국이나 세력집단들은 위의 나국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가 찾아진다.

- D-2. 大武神王 5年 秋七月 扶餘王從弟 ……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安置椽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
3. 太祖大王 11年 秋八月 曷思王孫都頭 以國來降 以都頭爲于台
 4. 太祖大王 20年 春二月 遣貫那陪沛者達賈 伐藻那 虜其王
 5. 太祖大王 22年 冬十月 王遣桓那陪沛者薛儒 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

사료 D-2·3의 부여왕종제(扶餘王從弟)집단과 갈사국(曷思國)은 대무신왕 5년에 고구려의 정벌로 해체되기 시작한 같은 부여계세력이다. 부여왕종제는 대무신왕의 정벌 직후 곧바로 고구려에 내투하였고, 갈사국은 이때 부

13) 「高句麗本紀」에서 각 那部の 初見 기사는 大武神王 5年 7月條(椽那部), 太祖大王 20年 春2月條(貫那部), 同王 22年 冬10月條(桓那部)에 각각 보인다.

여왕제(扶餘王弟)가 남하하여 건설한 소국으로¹⁴⁾ 그 손 도두(都頭)가 태조대왕 때에 내향한 것이다.

부여왕종제는 내투(來投) 후 봉왕(封王)되고 연나부에 안치(安置)되었다. 이때 봉왕되었다 함은 송양을 다물도주(多勿都主)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D-1-⑥), 그가 거느리고 온 부여인 만여 명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나부에 안치되었음은 곧 부여왕종제집단이 나부 내로 편제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갈사왕손(曷思王孫) 도두(都頭)는 내향 후 우태(于台)라는 관(官)을 받고 고구려 지배세력 내로 편입되었으며, 아마 이때 갈사국이라는 종래의 세력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부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사료 D-4·5의 조나와 주나는 사료상으로는 고구려 연맹체에 복속되는 인근지역 최후의 나국들로서, 조나는 관나부에게, 주나는 나부에게 각각 정벌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주나와 조나는 정복된 후 어떠한 형태로 고구려 연맹체 안으로 편입되었을까?

먼저 주나(朱那)의 경우를 보자. 이 정벌이 비록 왕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정벌의 주체는 나부로서, 패자(沛者) 달고(達賈)는 환나부의 대가(大加)이며, 이때 동원된 군사는 환나부 병사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정벌에서 얻어진 성과의 상당한 부분은 환나부 내로 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때 포로가 된 주나왕자 을음(乙音)이 고추가(古鄒加)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을음은 환나부의 중요 지배세력이 되고, 그의 종래의 세력기반인 주나는 환나부 내로 편입되어 여전히 을음이 지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나왕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나왕자의 경우와 크

14)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5年條.

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조나와 주나 역시 앞의 나국들과 마찬가지로 나부로 편제되어 고구려 연맹체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D-6. ㉠ 大武神王 9年 冬十月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毋虜掠 但
以其地爲郡縣

㉡ (上同) 十二月 句茶國王聞蓋馬滅 懼害及己 舉國來降

위 사료 D-6-㉠의 개마국(蓋馬國)은 복속 후 군현(郡縣)으로 편제되고 있다. 이 군현의 성격은 속민(屬民)집단으로 편제한 '성읍(城邑)'과는 구분된다.¹⁵⁾ 이때의 정벌이 대무신왕의 친정(親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개마국은 왕실의 직할령이나 계루부 내로 직접 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차국(句茶國)의 경우도 그 위치가 개마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보이며, 역시 개마국과 동일한 형태로 복속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구려 연맹체로 통합되어지는 몇몇 세력집단의 예를 살펴봤는데, 대개 이들은 그 세력의 규모가 '나(那)'·'국(國)'으로 표현되는 세력 집단들로서 통합되기 이전에는 '왕(王)'¹⁶⁾이란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편입 후에는 자기 세력기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부로 편제되었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연맹체로 통합되는 세력 중 위의 집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다음과 같은 세력집단을 찾을 수 있다.

- 1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10月條, “王命烏伊·扶芬奴伐太白山東南荇人國 取其地爲城邑”; 上同, 東明聖王 10年 11月條, “王命扶尉厭伐北沃沮 滅之 以其地爲城邑”; 같은 책,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年 7月條,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 16) 고구려왕을 제외하고는 당시 '王'이란 漢語式 용어를 사용했으리 없지만, 「高句麗本紀」에 '王'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치적 지배자로 간주된다.

- E-1. 東明聖王 1年 朱蒙行至毛屯谷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問曰 子等何許人也 何姓名乎 麻衣者曰名再思 衲衣者曰名武骨 水藻衣者名默居 而不言姓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遂揆其能 各任以事
2. 琉璃王 21年 九月 王如國內觀地勢 還至沙勿澤 見一丈夫坐澤上石 謂王曰願爲王臣 王喜許之 因賜名沙勿姓位氏
3. 琉璃王 24年 秋九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兩腋有羽 登之朝 賜姓羽氏 俾尙王女
4. 故國川王 14年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5. 大武神王 4年 冬十二月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忽有一壯夫 曰 是鼎吾家物也 我妹失之 王今得之 請負以從 遂賜姓負鼎氏……上道有一人 身長九尺許 面白而目有光 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取扶餘王頭 王悅許之 又有人曰 臣赤谷人麻廬 請以長矛爲導 王又許之

사료 E-1의 모둔곡(毛屯谷) 3인은 주몽의 남하 시에 합류하는 세력으로, 부여에서부터 주몽과 같이 남하하는 3인세력과 더불어 초기 주몽집단을 형성하는 기초세력이었다. E-2의 위사물(位沙勿)은 유리왕의 ‘관국내(觀國內)’를 계기로 내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지방의 토착세력으로 보이며, E-3의 우씨(羽氏)도 국내 천도 후의 왕실 전령지인 기산(箕山) 출신인 점에서 역시 국내지역의 토착세력으로 추측된다. 또 E-4의 을소(乙素)도 서압록곡(西鴨淥谷)이란 출신으로 볼 때 유리왕 대 국내 천도를 전후하여 계루부에 흡수된 압록강 유역의 토착세력일 것이다. E-5의 부정씨(負鼎氏)·괴유(怪由)·마로(麻廬) 등 3인은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 시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는데, 이들 역시 압록강·혼강 일대의 세력집단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사료 E그룹은 사료 D그룹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

아볼 수 있다. 첫째, 복속 시부터 계루부 왕권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복속 후에는 왕의 가신(家臣)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¹⁷⁾ 모둔곡 3인이 주몽집단을 이루는 기본 세력임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고, 나머지 세력집단도 왕의 순행(巡幸)·전렵(田獵) 또는 대외정벌을 계기로 계루부왕에게 직접 복속되는 것을 보면, 계루부 왕권과 좀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다물도주 송양, 봉왕되는 부여 왕중제 등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유지하며 계루부왕권에 대한 신속도(臣屬度)가 미약한 사료 D그룹과 구별된다.

둘째, 그 세력의 규모가 곡(谷) 단위의 소세력집단이라는 점이다. 모둔곡·적곡(赤谷)·서압록곡은 물론 사물택(沙勿澤)·기산지야(箕山之野)·북명산(北溟山) 등도 기본적으로 곡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사료 D그룹의 나·국의 규모와 비교된다. 또 E그룹과는 달리 왕의 존재가 찾아지지 않는 점도 그 세력의 규모가 나·국에 미치지 못하는 소세력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계루부 왕권에 대한 신속도의 차이도 이러한 세력 규모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들 세력의 내투(來投)가 초기 3왕 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동명왕 대에 졸본 지역의 세력(E-1), 유리왕 대에 국내 지역의 토착세력(E-2·3·4), 대무신왕 대에 압록강 유역의 세력(E-5)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계루부의 발전과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보건데, 사료 E그룹은 졸본·국내·압록강유역의 토착 소세력집단으로, 주몽집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계루부 내로 직접 편제

17) 井上秀雄(1976), 「神話に現われた高句麗王の性格」, 『朝鮮學報』 81, 55~57쪽 및 井上秀雄(1979), 「高句麗大武神王王觀の變遷」, 『朝鮮歷史編集』 上, 63~68쪽.

되어 그 하부단위집단을 이루며 계루부왕권의 실질적인 세력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료 E그룹의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사료 D그룹의 나(那)·국(國)으로 표현된 세력집단과 사료 E그룹의 곡(谷)집단과의 관계를 좀 더 검토해보자.

계루부에 의한 사료 E그룹의 통합과정은 곧 주몽집단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하나의 나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국으로서의 계루부는 다수의 곡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집단은 고구려 지역의 기본적인 단위정치집단으로서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읍락(邑落)에 비견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나국으로서의 계루부는 다수의 읍락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정치체로 볼 수 있거니와, 이러한 성격은 위에서 살펴본 다른 나·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나국(那國)도 국읍(國邑)¹⁸⁾을 중심으로 다수의 읍락 즉 곡집단이 결속된 존재로 파악할 수 있겠다. 예컨대 나국 단계의 계루부의 경우를 보면, 주몽집단의 읍락인 졸본·국내가 국읍이 되어 사료 E의 곡집단인 모둔곡·적곡·북명산·서압록곡·사물택(沙勿澤) 등 제 읍락을 통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각 나국은 삼한(三韓) 소국의 경우처럼 그 규모의 대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니, 나부명(那部名)에 그 이름을 남긴 나국은 대체로 대국(大國)의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검토한 나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나부의 구성과 그 성격을 살펴보자. 앞에서 독립 나국이 고구려 연맹체에 편입되면

18) ‘國邑’이란 용어는 三韓 小國에 한정되어 사용된 용어이지만, 필자는 역사발전단계에 있어서 三韓 小國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고구려의 那國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 나부로 편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성립된 5나부 체제는 주변 나국의 복속이 마무리되는 태조대왕 대에 완성된 것으로 짐작된다.¹⁹⁾ 그런데 고구려 연맹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압록강·혼강 유역에는 상당수의 나국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통합되어 나부로 편제되었다면, 그 결과 성립된 5나부의 각 나부는 다수의 나국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또 사료 D-1-㉔를 보면 3인의 비류부장(沸流部長)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비류부가 3개의 세력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연나부의 경우도 '사연나(四椽那)'라는 4개의 나집단(那集團)²⁰⁾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²¹⁾ 사료 D-2의 부여왕중제집단은 그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 초기의 나부가 다수의 나집단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²²⁾ 이와 관련하여 당시 나부의 규모를 살펴보자.

F-1.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
 ……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涓奴加]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
 康降 遷住沸流水. (『三國志』卷30, 「高句麗傳」)

위 사료 F-1은 산상왕 즉위 당시 발기(拔奇)와 소노가(涓奴加)가 각각 3만여 인을 거느리고 공손강(公孫康)과 제휴하여 산상왕에 대항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위의 '환주비류수(遷住沸流水)'의 뜻은 소노가와 발기가 이끄는 세력

19) 盧泰敦(1975), 앞의 글, 14쪽.

20) 那國이 那部로 편제된 이후 이들의 성격을 본 발표에서는 那集團이라고 한다.

2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年 秋9月條.

22) 盧泰敦은 部 내부의 소단위집단을 部內部라 이름하였는데, 타당한 용어라 생각된다(앞의 글, 26쪽).

집단의 본거지가 비류수 부근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소노가는 곧 비류부의 지배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비류부는 적어도 3만여 인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나머지 4나부도 비류부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는 것으로 상정할 때, 당시 고구려 5나부의 총인구 수는 15만여 인, 즉 3만여 호에 달하게 된다. 이는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당시 고구려의 전주민 수인 3만 호와 일치한다. 이것은 3세기 당시 고구려 연맹체의 전 주민이 5나부로 나누어져 지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나부는 고구려 전지역을 포괄하는 편제단위로 기능했던 것이다.²³⁾

이상의 추측이 용인될 수 있다면, 5나부의 성립 당시 즉 대무신왕~태조대왕 대의 나부의 인구규모는 150여 년 간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5,000인을 넘는 규모가 된다. 특히 5나부 사이에는 세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니, 왕위(王位)나 왕비위(王妃位)를 계승하는 계루부나 연나부는 부의 평균 규모를 훨씬 넘었을 것이고, 실제 산상왕 대에 발기가 상당한 세력을 따로 거느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3만 인에 가까운 인구를 갖는 세력을 하나의 나국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 F-2. ㉠ 建武 23年 冬 句麗蠶支落大加戴升等萬與口詣樂浪內屬. (『後漢書』 卷85, 「高句麗傳」)
- ㉡ 朝鮮相歷谿卿 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三國志』 卷30, 「韓傳」)

23) 那部를 전국적인 편제단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구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那部가 갖는 지역적 범주는 那國간의 상호운동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서, 그 자체가 단위정치체였다.

◎ 大武神王 2年 百濟民一千餘戶來投

위 사료를 보면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는 단위집단들은 대략 1천~2천 호의 규모를 갖고 있다. 특히 잠지락대가(蠶支落大加) 대승(戴升)과 부여 왕중제가 거느린 만여 인은 고구려 나국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3만 인에 가까운 인구 규모를 갖는 고구려의 나부는 성립 당시 적어도 둘셋 이상의 나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인구의 규모에서 볼 때에도 고구려 초기의 5나부는 하나의 나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나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나부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수 나집단의 결합이 나국 자체의 운동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중앙권력에 의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 사료 G-2를 보면 연나부가 고국천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킬 때 사연나(四椽那)가 행동 통일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연나부를 구성하는 4개의 나집단이 고구려 왕권에 의해 의제적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로 성장해왔음을 추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류나부의 경우도 비류국이 원래 이 지역의 영도세력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세력집단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고려하면, 비류국 단계에서 이미 3개의 나국이 연맹으로 결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산상왕 때 소노가가 3만여 구를 이끌고 이탈해갔듯이 하나의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운동력을 보인 것은 연나부 반란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고구려 연맹체를 성립시키기 이전부터 다수의 크고 작은 나국이 각 지역 별로 완만하나마 정치적 통합체를 형성해갔음을 추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5나부연맹체를 형성하

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겠다.

압록강·혼강 유역의 각 지역에 분산적으로 성립되어 있던 곡집단(읍락)은 중심 읍락을 중심으로 다수의 곡(谷)집단이 연맹 결속하여 나국(那國)을 성립시켰으며, 이들 제나국(諸那國) 중 세력이 강한 나국은 다시 자기 성장을 계속하면서 다른 나국이나 읍락을 흡수하여 소연맹체(小聯盟體)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고구려 초기 5나부의 존재는 곧 압록강·혼강 유역에 존재했던 나국이나 읍락들의 상호 통합과정의 결과, 최후로 5개의 소연맹체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소연맹체 중 좀 더 강대한 세력기반을 가진 자가 고구려 연맹체의 영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소노부 즉 비류부가 연맹왕권을 차지하였다가, 그 후 새로 성장하는 계루부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계루부는 연맹왕권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면서 이들 소연맹체 단위를 나부로 편제하여 태조대왕 때에는 5나부 체제를 확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나부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본 나부의 내부 구조는 ‘나부-나집단(나국)-곡집단(읍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나부의 구조는 고구려의 제가세력이 고추가 및 대가(大加)·소가(小加)로 구분되는 데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대가와 소가는 ‘제가별주사출도 대자주수천가 소자수백가(諸加別主 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인 부여의 경우로 보아 세력집단의 대소(大小)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사료에서도 대가와 소가 사이에는 정치력이나 신분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 F-3. ④ 諸大加 亦自置使者·皂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皂衣·先人同列. (『三國志』卷30, 「高句麗傳」)

⑤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上同)

위 사료 F-3-④을 보면 사자(使者)·조의(皂衣)·선인(先人) 등을 자치(自置)하는 것은 대가에 한정된다. 즉 소가는 자체 관료조직을 성립시킬 만한 정치적 성장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소가의 구분이 단순히 세력기반의 양적인 차이 만이 아니라 지배권력 성장도의 질적인 차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F-3-⑥에서 보듯이 대가와 소가 사이의 뚜렷한 신분적 격차도, 이들의 세력기반이나 정치력에 일정한 단계적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즉 압록강·혼강 유역의 제나국이 고구려 연맹체를 형성할 때, 나국의 지배자 즉 국읍의 수장층은 대가로, 각 읍락(곡집단)이나 세력이 작은 나국의 수장층은 소가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나부를 형성한 소연맹체의 중심이 되는 나국의 대가는 여타의 대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고추가(古雛加)로 칭해진 것으로 추측된다.²⁴⁾

24) 『三國志』, 「高句麗傳」에는 桂婁部·消奴部·絕奴部の 大加만이 古雛加를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3세기 단계에 봉작적 성격을 갖는 古雛加의 모습이고, 초기에는 각 那部の 중심세력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을 것이다. 朱那王子 乙 暉이 古雛加가 된 것이 그 예이다(사료 D-5). 그러나 이후 세력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던 桂婁部·沸流部(消奴部)·椽那部(絕奴部) 등이 왕족·왕비족·前왕족으로 등장하여 國相을 차지하고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연맹왕권과의 결합에 의해 이들 3那部の 大加에게만 古雛加의 칭호가 제한적으로 주어졌을 것이다.

IV. 나부에서 방위부로의 재편

II장에서 부의 용례를 검토하면서 나부(那部)와 방위부(方位部)가 구분되고, 나부에서 방위부로 변천되었음을 보았다. 이제 방위부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러한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사료상 방위부가 처음 등장하는 고국천왕 대의 정치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방위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1. 故國川王 12年 秋九月 …… 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

故國川王 13年 夏四月 聚衆攻王都 王徵機內兵馬平之 遂下令曰 …… 令汝四部 各舉賢良在下者 於是 四部共舉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 以卑辭重禮聘之 …… 王知其意 乃除爲國相 令之政事 …… 冬十月 王謂晏留曰 若無子之一言 孤不能得巴素以共理 今庶績之凝 子之功也 乃拜爲大使者

위 사료에서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한 고국천왕이 ‘汝四部 各舉賢良在下者’라고 하명하였는데, 이 ‘4부(四部)’의 해석에 논란이 있다. 이를 계루부를 제외한 4나부나, 연나부를 제외한 4나부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4부가 공거(共舉)한 안류(安留)가 동부(東部) 출신임을 볼 때, 이때의 4부는 동·서·남·북 즉 방위부의 4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이 4방위부의 실체는 무엇일까? 위 사료를 보면 연나부의 반란군이 왕도(王都)를 공격하였을 때, 고국천왕은 기내병마(畿內兵馬)를 동원하여 이를 평정하였다. 여기서 왕도란 곧 국내성이며, 기내란 왕도 주위의 일정지

역 즉 계루부 내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내세력을 동원하여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한 후 고국천왕의 하명을 받은 4부도 계루부 내의 4방 위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때 방위부는 계루부 내의 4부로서 곧 왕의 정치적·군사적 세력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동천왕 대에 방위부 출신들의 활동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G-2. 東川王 20年, 八月 魏遣幽州刺史毋丘儉 將萬人 出玄菟來侵 王將步騎二萬人 …… 我軍大潰 死者一萬八千餘人 王以一千餘騎 奔鴨綠原 冬十月 儉攻陷丸都城屠之 乃遣將軍王頎追王 王奔南沃沮 至于竹嶺 軍士分散殆盡 唯東部密友獨在側 謂王曰 今追兵甚迫 勢不可脫 臣請決死而禦之 …… 下部劉屋句 前對曰 臣試往焉 遂於戰地 見密友伏地 乃負而至 …… 魏軍追不止 王計窮勢屈 不知所爲 東部人紐由進曰 勢甚危迫 不可徒死 臣有愚計 請以飲食往犒魏軍 因伺隙 刺殺彼將 若臣計得成 則王可奮擊決勝矣 …… 王復國論功 以密友·紐由爲第一 賜密友巨谷·青木谷 賜屋句鴨綠·杜訥河原以爲食邑 追贈紐由爲九使者 又以其子多優爲大使者

관구검군(毋丘儉軍)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동천왕이 거느린 보기(步騎) 2만 군은 아마도 왕의 직속군대인 계루부병(桂婁部兵) 이외에 각 나부의 군대들로 구성된 연합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양곡(梁谷) 전투에서 패한 후 압록원으로 도망할 때 국왕을 호위한 1천여의 군대는 대개 친위군으로서 계루부의 군대로 믿어지며, 이때 국왕을 보호한 동부 밀우(東部 密友)·하부 유옥구(下部 劉屋句)·동부인 유유(東部人 紐由) 등도 친위군의 지휘관으로서 계루부 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즉 방위부가 계루부 내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다. 이들 방위부 출신들이 국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사대

를 조직하거나 직장을 살해한 사실은, 방위부가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직속 세력기반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방위부가 국왕의 직접적인 정치적·군사적 세력기반임을 전제로 해서 보면, 고국천왕 13년 동부 안류나 을파소(乙巴素)의 국상(國相) 임명에 나부의 제가(諸加)세력들이 크게 반발한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계루부 내에 5방위부가 설치되는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방위부는 본래 계루부 내에서 독자적 세력기반을 갖는 지배세력이 왕도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새로이 편제되는 조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방위부는 이전의 단위정치체로서의 부내부(部內部)가 아니라, 왕도로 결집·형성되는 새로운 지배자집단을 편제하는 방식인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부 내 지배세력의 새로운 존재형태를 뜻한다.

한편 부내의 제가세력들을 방위부로 편제해 나가는 데에는 체계화된 지배세력의 편제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관계조직이나 식읍(食邑)의 사여 등이 그것이다. 고국천왕 대 안류나 을파소에게 관계(官階)를 준 예나(사료 G-1),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 동천왕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공훈을 세운 밀우나 유옥구·유유 등에게 식읍을 사여하거나 관계를 수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사료 G-2).

따라서 5방위부 내의 지배세력은 더이상 자기의 독자적 세력기반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중앙정치권력에 참

25) 東部 密友·下部 劉屋句·東部人 紐由 등의 官階는 보이지 않지만, 『北史』 卷94, 「高麗傳」의 「正始六年 儉復討之 位宮輕將諸加奔沃沮」란 기사에서 이들도 「諸加」에 속하는 존재로 볼 것이다. 아마도 桂婁部 내의 세력가로서 왕권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인물들로 파악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여하여 얻어지는 보다 풍부한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따라 움직여갔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근신(近臣) 혹은 친위적 성격은 태조대왕 이전 단계의 근신적 존재들과는 달리, 좀 더 강고하게 왕권과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5방위부가 계루부라는 하나의 나부 내의 조직이라면, 여타 나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조직의 존재를 상정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²⁶⁾ 그러나 필자는 여타의 나부에서는 계루부의 5방위부와 같은 부(部)조직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계루부 내의 지배세력이 5방위부를 구성하는 데에는, 계루부가 가장 강력한 나부로서 좀 더 많은 단위집단을 포괄하고 있고, 이러한 세력기반에 기초하여 고구려 연맹체의 왕권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왕권을 매개로 해서 정복활동 등을 통한 분배물의 참여 폭이 확대됨으로써, 좀 더 일찍부터 나부 내 지배세력의 결집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부(那部)가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부의 제가 세력들은 집권체제의 발달과 중앙관계조직의 운영체계 속에 흡수되어 점차 왕경(王京)으로 이거하여 방위부로 편제되어 갔다. 제가세력을 중앙귀족관료로 편제하는 중앙정치조직이나 신분제는 태조대왕 대에 이미 성립되었으나, 소수의 중앙관직을 갖는 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본거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료 G-1을 보면 4연나의 반란을 평자(評者) 좌가려(左可慮)가 주도하고 있는데, 실제 연나부의 대표자인 패자(沛者) 어비유(於界

26) 李鍾旭은 여타의 4那部에서도 桂婁部の 5方位部와 유사한 형태의 통치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1982,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 94, 95, 125쪽).

留)가 이 반란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중외대부(中畏大夫)란 관직을 갖고 중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좌가려를 비롯한 대부분 연나부의 제가들은 자기 본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천왕(西川王) 이후에는 이러한 제가들의 운동양식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료 B-15를 보면 그 이전에는 연나부에서 왕비를 내었던 것²⁷⁾과는 달리 서부 출신인 우수(于濼)의 딸이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우수와 고국천왕비(故國川王妃)의 아버지인 연나부 우수(于素)가 동일 부족 출신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²⁸⁾ 위의 사실은 왕비 출신부의 전환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본래 연나부 사람인 우수가 서부를 출신 단위로 한 것에 불과하다.²⁹⁾

이와 같이 나부에서 방위부로의 출신의 변화는 당시 제가세력의 존재양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방위부를 수도 국내성 일대의 행정구역으로 보는 바, 그렇다면 우수는 본거지인 연나부를 완전히 떠나 왕경[王京 : 왕기(王畿)]에 거주하면서 중앙귀족관료화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출신지의 변화나 거주지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제가세력들의 나부 지배력이 약화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나부의 제가세력이 방위부로 재편이 가능한 것은, 나부의 성격이 3세기

27) 李基白(1959), 「高句麗王妃族考」, 『震壇學報』 20, 83~89쪽.

28) 李基白(1959), 위의 글, 86쪽. 물론 필자는 椽那部를 하나의 部族으로 보는 李基白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于素와 于濼를 동일한 성씨 집단으로 보는 볼 수 있겠다.

29) 李鍾旭(1982), 앞의 글, 123쪽.

단계에 이미 본래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고, 지배자집단으로서 변질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나부 내에서의 이러한 변동과정은 대체로 고국천왕에서 봉상왕 대 기간에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곧 나부체제를 유지하던 기반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부 제가세력의 방위부로의 결집과정이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는 당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왕비나 국상(國相)의 자리를 방위부 출신의 인물이 차지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서천왕 때에는 처음으로 방위부 출신의 왕비[서부 대사자(西部大使者) 우수의 딸]가 등장하고, 봉상왕 때에는 대사자(大使者)에서 대주부(大主簿)로 승급한 남부 출신의 창조리(倉助利)가 국상으로 임명되고 있다.³⁰⁾ 특히 봉상왕의 폐위와 미천왕의 즉위에 공을 세운 인물이 창조리를 비롯하여 북부 조불(北部 祖弗), 남부 소우(南部 蕭友)라는 점 등은 이 시기 정계 운영의 주도권이 나부에서 방위부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사료상 미천왕 이후에는 나부명(那部名)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곧 초기 고구려의 나부 지배 세력이 수도 왕도로 결집하여 방위부로의 편제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부와 방위부는 비록 부(部)로 같이 표현되었으나, 부로서의 기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방위부는 왕도를 중심으로 결집된 '왕경 지배자집단'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방위부의 부는 행정적인 편제단위의 성격이 강하여 부 자체의 독자적인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부와 구분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 차이는 부의 역사적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방위부로 재편된 지배세력의 존재양식은 나부 단계와는 전혀 달

3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峰上王 3年 9月條.

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세력이 방위부로 재편되면서 혹 나부와 방위부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볼 만하다. 특히 『후한서』의 이현의 주에 나부와 방위부를 대응시키고 있는 기사에서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국원왕 이후의 귀족세력의 동향을 통해 보건데, 일단 그 가능성은 배제하여도 좋겠다.

- H-1. 大使者 牟頭婁 …… 奴客祖先□□□□餘隨聖王來 …… 慕容鮮卑
 □滅使人□知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之來□ 北夫餘大兄冉牟 ……
 世遭官恩. (『牟頭婁墓誌』)³¹⁾
2.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 已後
 代爲公侯宰相 至後漢末 高麗與燕慕容戰大敗 國幾將滅 二十代祖密
 當提戈 獨入斬首尤多 因破燕軍 重存本國 賜封爲王 三讓不受 因賜
 姓高 食邑三千戶 乃賜金文鐵權. (『高慈墓誌』)

위 묘지를 보면 모두루(牟頭婁)묘지나 고자(高慈)묘지를 보면 고구려는 고국원왕 대를 전후하여 이미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가계(家系) 의식은 기본적으로 귀족세력이 가문단위로 분화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두 가문의 가계(家系)의식이 뚜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방위부로 재편된 귀족들의 존재양식은 부가 아닌 각 가문별 귀족집단으로 분해 결집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장수왕 대의 평양천도(平壤遷都) 역시 귀족세력의 존재 방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평양천도 이후에도 5방위부의

31) 『牟頭婁墓誌』와 『高慈墓誌』의 釋文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에 의함.

존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수도의 행정지역적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 부도(副都)로서 국내성과 한성(漢城)이 설치되어 3경제(京制)가 실시되면서, 한성 등에도 평양성과 마찬가지로 5부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사료 C).

V. 맺음말

고구려 부(部)의 용례를 살펴보면 나부(那部)와 방위부(方位部)의 두 유형이 나타난다. 시기상 변천과정으로 볼 때 초기는 나부만 나타나고, 2세기 후반 이후에 나부와 방위부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3세기 후반 이후에는 방위부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용례상의 변화는 곧 부의 성격 변화를 뜻한다.

나부는 국가 형성과정에서 그 내부에 다수의 나국(那國)이나 곡집단(谷集團)을 포함하는 소연맹체 구조로 형성되었으며, 고구려 연맹체를 구성할 때 이 소연맹체가 나부로 편제되었다. 이렇게 단위 정치체인 나부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치체제나 국가체제를 나부체제라고 할 수 있다.

2세기 말 이후에 사회 분화에 따라 단위 집단의 자치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제가세력(諸家勢力)의 존재양식도 변화하였다. 즉 제가세력이 수도 국내성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국내지역의 행정적 편제 방식으로서 방위부가 성립하였다. 성립 초기의 방위부 세력은 주로 계루부 출신들로서 고구려왕의 친위적 세력기반이었으나, 점차 나부의 제가세력도 수도인 국내 지역으로 결집해 방위부로 편제되어 ‘왕경지배자집단(王京支配者集團)’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관동 조직의 운영이나 식읍의 사역을 통한 왕권의 집권화 정책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집권화의 과정은 나부가 갖는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또한 제가세력이 가문별로 분화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서천왕~미천왕 대에는 나부가 소멸하고 제가세력은 중앙귀족으로 전신하여 방위부로 편제되었다. 이는 곧 5나부체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句丽初期五部的形成与变迁

- 林起焕 (首尔校育大学校教授)
-

I. 序言

在韩国古代史研究中阐明国家的形成与其政治、社会发展进程时，不可或缺的课题就是对部的形成过程及其性质的理解。特别是高句丽在当时三国中最为先进的社会这一点上，高句丽的部会对百济与新罗部的研究提供一定的基准而很早便受到了关注。

关于高句丽部的资料有多种体系，根据资料的不同，其名称与性质也显现出一定的差异。因此，有必要先检讨与部有关的资料，然后明确指明根据资料体系而呈现出现象。其次，因为部的种类从大的方面来看，可以分为那部与方位部，又存在着时间上的差异，有必要把握两者间的关系。本论文将以上述两个课题为中心，考察高句丽五

部的形成与变迁的过程。

II. 与部相关史料检讨

关于高句丽部的史料以《三国史记》高句丽本纪(以下略称为〈高句丽本纪〉)中的记事为中心,大部分散见于纪年的记事中。与此不同,中国史书所载的与部有关的记事,阐明了部的整体形象,值得关注。其次,虽说只是少数,金石文中所传的有关部门的用例,因为是属于同一时代的史料,同样不可忽视。另外,日本史书上虽也有最晚时期关于部的用例,本稿未将其纳入到考察范围之内。

[A. 中国史书所见部的用例]

- A-1. 本有五族 有涓奴部 绝奴部 顺奴部 灌奴部 桂娄部 本涓奴部为王 稍微弱 今桂娄部代之 涓奴部本国主 今岁不为王 适统大人得称古邹加 亦得立宗庙 祠灵星社稷 绝奴部 世与王婚 加古邹之号。(《三国志》卷30高句丽传)
2. 凡有五族 有涓奴部 绝奴部 顺奴部 灌奴部 桂娄部 按“今高骊五部一曰内部 一名黄部 即桂娄部也 二曰北部 一名后部 即绝奴部也 三曰东部 一名左部 即顺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即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即涓奴部也”本涓奴部为王 稍微弱后桂娄部代之。(《后汉书》卷85高句丽传)
3. 分五部 曰内部 即汉桂娄部也 亦号黄部 曰北部 即绝奴部也 或号后部 曰东部 即顺奴部也 或号左部 曰南部 即灌奴部也 亦号前部 曰西部 即涓奴部也。(《新唐书》卷220高丽传)
4. 部贵五种 魏略曰 其国大本有五族 有涓奴部 (绝奴部) 顺(奴部)

准[灌]奴部 楼桂楼部(本消奴部)为王(稍)微弱 桂楼部代之 五部皆贵人之族也 一人[云]内部 即后汉书桂楼部 一名黄部 二曰北部 即绝奴部 一名后部 一名黑部 三曰东部 即顺奴部 一名在[左]部 一名上部 一名青部 四曰南部 灌奴部 一名前(部) 一名赤部 五曰西部 即消奴部也 一名右部 其北[内]部 如燕内部 姓高 即王族也 高丽称无姓者 皆内部也 又内部虽为王宗 列在东部之下 其国从事 以东为首 故东部居上。(《翰苑》高丽条)

5. 拔奇怨为兄而不得立 与涓奴加 各将下户三万余口 诣康降 还住沸流水。(《三国志》卷30高句丽传)
6.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位宫(同上)
7. ①. 贞观十六年(642) 西部大人盖苏文摄职有犯。(《旧唐书》卷199高丽传)
 - ②. 有盖苏文者 或号盖金 姓泉氏(中略) 父为东部大人 大对卢死 盖苏文当嗣(下略)。(《新唐书》卷220高丽传)
8. ①. 贞观十九年(645)(中略) 于是 高丽北部偃萨 高延寿 南部偃萨 高惠真。(《新唐书》卷220高丽传)
 - ②. 高丽 位头大兄里大夫后部军主 高延寿 大兄前部军主 高惠真。(《册府元龟》卷170帝王部来远条)

[B. 〈高句丽本纪〉所见部的用例]

- B-1. 大武神王五年(22) 秋七月 扶余王从弟(中略) 乃与万余人来投王 封为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 洛文 赐姓洛氏
2. 大武神王十五年(32) 春三月 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为庶人 此三人为沸流部长 资贪鄙 夺人妻妾牛马财货 恣其所欲 有不与者 即鞭之 人皆忿死 王闻之欲杀之 以东明旧臣 不忍致极法 黜退而已 遂使南部使者邹敦素 代为部长
3. 太祖大王二十年(72) 春二月 遣贯那部沛者达贾 伐藻那
4. 太祖大王二十二年(74)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 伐朱那 虜

- 其王子乙音为古邹加
5. 太祖大王八十年(132) 秋七月 遂成猎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贯那于台弥儒桓那于台烟支留 沸流那皂衣阳神等 阴谓遂成
 6. 次大王二年(147) 春二月 拜贯那沛者弥儒为左辅 秋七月 左辅穆度娄称疾退老 以桓那于台烟支留为左辅 加爵为大主簿 冬十月 沸流那阳神为中畏大夫 加爵为于台
 7. 次大王二十年(165) 冬十月 椽那皂衣明临答夫 因民不忍弑王
 8. 故国川王二年(180) 春二月 立妃于氏为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9. 故国川王十二年(190) 秋九月 中畏大夫于昇留 评者左可虑 皆以王后亲戚执国权柄 其子弟并恃势骄侈 掠人子女夺人田宅 国人怨愤 王闻之怒欲诛之 左可虑等与四椽那谋叛 故国川王十三年 夏四月 聚众攻王都 王征机内兵马平之 遂下令曰(中略) 令汝四部 各举贤良在下者 于是 四部共举东部晏留 王征之 委以国政
 10. 东川王二十年(246) 秋八月 魏遣幽州刺史田丘俭 将万人 出玄菟郡来侵 王将步骑二万人(中略) 王以一千余骑 奔鸭绿原 冬十月 俭攻陷丸都城屠之 乃遣将军王颀追王 王奔南沃沮 至于竹岭 军士分散殆尽 唯东部密友独在侧 谓王曰(中略) 下部松屋句前对曰(中略) 东部人纽由进曰(中略) 王復国论功 以密友纽由为第一 赐密友巨谷青木谷 赐屋句鸭绿杜讷河原 以为食邑 追赠纽由为仇使者
 11. 中川王一年(248) 冬十月 立掾氏为王后
 12. 中川王四年(251) 夏四月 王以贯那夫人 置革囊 投之西海
 13. 中川王七年(254) 夏四月 国相明临于漱卒 以沸流沛者阴友为国相
 14. 中川王九年(257) 冬十一月 以掾那明临笏覩尚公主 为驸马都尉

15. 西川王二年(271) 春正月 西部大使者于湫之女为王后
16. 烽上王二年(292) 秋八月 慕容廆来侵 王欲新城避贼 行至鹄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将及 王惧 时新城宰北部小兄 高奴子 领五百骑迎王 逢贼奋击之 廆军败退 王喜 加高奴子爵为大兄 并赐鹄林为食邑
17. 烽上王三年(293) 秋九月 国相尚姿卒 以南部大使者仓助利为 国相 进爵为大主簿
18. 美川王 即位年(300) 是时国相仓助利将废王 先遣北部祖弗 东 部萧友等
19. 荣留王二年(619) 王命西部大人盖苏文 监长城之役
20. 平冈王少女儿好啼 王曰(中略) 及女年二八 欲下嫁上部高氏 (《三国史记》卷45 温达传)

[C. 金石文所见部的用例]

- C-1. 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道使□□
 新罗土内幢主下部拔位使者补奴□□奴
 古牟娄城守事下部大兄耶□(中原高句丽碑)
2. 汉城下后部小兄文达(平壤城石刻)
3. 前部小大使者于九姿(笼吾里山城 磨崖石刻)
4. 上部儿奄造释迦文像(建兴五年铭佛像光背)

简单考察一下(上述)记载高句丽部名的各资料内容。先看一看中国史料。根据史料A, 记载高句丽部全貌的史书有《后汉书》、《三国志》高句丽传和《新唐书》高丽传及《翰苑》。当然,《梁书》高句丽传和《南史》高丽传中也有关于高句丽五部的记载, 但只不过是简单地转载了《后汉书》高句丽传的内容, 因而将其排除在外。而且《后汉书》高句丽传的记录也大体上是参考了《三国志》高句丽传的记事。同时《后汉书》

高句丽传中关于五部记事的注为唐章怀太子李贤的注，是由后人填补进去的，有一些错误。《翰苑》记事中误字、漏字较多，直接参考较难，引用《魏略》的记事中“五部皆贵人之族也”以下的记事，不是《魏略》的原文版，而是唐高叡根据《后汉书》高句丽传中李贤的注加以注明的。但也有《后汉书》高句丽传中收录的李贤注中找不到的内容，具有参考价值。据推测《新唐书》高丽传的记事同《翰苑》均以相同系列的资料为依据。

因此，中国方面的史料暂可以《三国志》高句丽传的记事与《翰苑》记事为基础，其中《三国志》高句丽传记载的是三世纪初期的情况，《翰苑》则记录了末期的情况，缺少四至六世纪的记录。

其次史料 B〈高句丽本纪〉记载中，大部分集中在大武神王～美川王代，后期的记录仅有两例。依据〈高句丽本纪〉的记事，能够探寻四世纪初为止的部的情况，部名与个别人物相结合，可以充实地传达当时的实际情况。

史料 C 金石文中所见的部名因不仅为当时的记录，且弥补了文献资料上所缺的五、六世纪的情况而受到瞩目。中原高句丽碑被推测为长寿王或文咨王代，平壤城石刻资料被推测为六世纪。

将上述多种体系的资料综合起来进行考察，可以推知关于高句丽部的记事，在史书上虽不是完整的，但因为见于历史的各个时期中，可以据此推测大体上的趋势。

下面综合分析一下史料 A·B·C 中所见的高句丽部名。

第一，〈高句丽本纪〉中的部名和《三国志》高句丽传中的部名的关系。在〈高句丽本纪〉中部名表现为‘那’、‘那部’等，其实是相同的，

都可看作‘那部’。只是B-3、4的藻那与朱那不是部名，而是那国名。除藻那和朱那之外的部名，可见的是椽那部、沸流那部、贯那部、桓那部、提那部等五部，其中提那部从B-9、10的记事来看，是椽那部的误记。如此一来，将剩下四部，如果考虑在《三国志》中未被标示为‘奴部’，曾为王室的桂娄部在〈高句丽本纪〉中缺记的情况，则共成为五部，与《三国志》高句丽传中的五族之数一致。早已有学者指出〈高句丽本纪〉的四那部是《三国志》五族中除桂娄部以外的与四奴部一致的实体。为便于论证的展开，再作一些考察。

首先，在二世纪末至三世纪末王妃一直出自椽那部(史料B-8、9、11、14、15)这一点来看，可以推知是与《三国志》高句丽传中‘世与王婚’的绝奴部相一致的实体。沸流那部与沸流国有关，其王为松壤，‘松壤’之‘壤’是与那、奴相通的，由‘松那、松奴’来看，与《三国志》高句丽传中的涓[消]奴部为同一部名。其次，可知中川王代之小后是贯那部出身(史料B-12)，山上王之小后酒桶村出身的后女在《三国志》高句丽传中为灌奴部出身(史料A-6)。但是，这一时期为王妃代代出自椽那部(绝奴部)时期，小后也有可能是由同一那部出身，因此将贯那部与《三国志》高句丽传中的灌奴部视为同一部，也是可以的。

根据上述考察可知〈高句丽本纪〉中的椽那部、沸流那部、贯那部分别与《三国志》高句丽传中的绝奴部、消奴部、灌奴部为同一实体。虽尚未找到桓那部与顺奴部有互相对应的可能性史料，从其它用例来看，将它们看作同一实体应该没有大碍。

第二，方位名、位置名、色名等表现方式多样的部名(以下略称为方位部)，在史料A-8中 北部=后部，南部=前部的对应关系与A-4的记事

一致，因此虽名称不同，却可视为同一(实体)。

第三，是那部(奴部)与方位部的关系。《后汉书》高句丽传中李贤的注中，将把方位部与那部对应起来，笔者认为这是杜撰。因为如下文所探讨的，那部与方位部的基本性质不同，绝不能视为同一实体。

以上述探讨为基础，以〈高句丽本纪〉为中心并参考其它记录来整理高句丽部的变迁过程的话，大致可分为三个时期。第一期是只有那部登场的时期，即(B-1~7)，新大王之前的时期。第二期为那部与方位部一同登场的时期(B-8~15)，即从故国川王至西川王的时期。第三期为只有方位部出现的时期(B-6~10)，即烽上王至高句丽末期。

但是，第一期似乎可以分得更为详细一些，即大武神王以前为那部名全不见的时期(1-1期)，大武神王到太祖大王初为那部名与那国名同时出现的时期(1-2期：B-1~4)，太祖大王中期以后至新大王时为只有那部名出现的时期(1-3期：B-5~7)。这种变化为理解那国被编入到那部的过程提供了重要线索。

从整体上来看高句丽部的变迁过程可整理如下：大武神王以后至太祖大王前后时期形成五部，其后故国川王前后时期出现方位部，经过与那部一起出现的过渡期阶段，到烽上王、美川王时期那部消失，只有方位部具有其机能。同时如以上述变迁过程为前提，条理性地推定1-1·2期的那部与那(国)的关系，可将1-1期视为那国存在的时期，1-2视为由那(国)走向那部的过渡期。即可知那(国)及那部与方位部是在一定的历史时期内，具有特定历史性质的用语。

在此，可提出如下课题。首先，是那(国)与那部的区别。那部如史料 B所示，在〈高句丽本纪〉中表示为那。那这句话与奴相同，是含有

地(壤)或川或川边平野之意的句子，即叫做那的集团，大概意味着川边或溪谷之某一地区的集团之意，被理解成具有以各地区为界而成立的单位政治体性质。

但是，在〈高句丽本纪〉中出现的那的历史实体，有必要将其与这种语义上的理解区别开来进行考察。即〈高句丽本纪〉中的那，要区分为部的原型，乃至作为组成单位的那国，以及作为部而成立之后出现的那部来看。

作为那国的那用例，史料B-3、4中的藻那与朱那引人注目。在藻那和朱那，有王、王子，并具有抗拒贯那部沛者达贾与桓那部沛者薛儒征伐的军事实力。在同一记事中区分接受高句丽王命令的沛者‘那部’和独自存在王的独立小国‘那’，从中可知那部与那国的性质是不同的。即如果说那部在意味着接受中央权力控制的那之意上表现为‘那部’的话，藻那、朱那等则以独立政治体之意，单纯地表记为‘那’。

但是，既然两者均以“那”来表示，可以认为两者间有密切的关系。按条理性地推敲，可推知在被编入到高句丽中央权力下级政治单位之“那部”之前，作为独立的政治组织“那”已经存在，即可视为“那国”。这一那国的存在，根据〈高句丽本纪〉的记载，以上述藻那与朱那出现的一世纪中叶为其下限。

第二，史料所确认的那部局限在五部。但是这并非史料上仅保留了五那的名称，而是意味着如后文将要论述的，多数的那均被改编进五部。因之，那部应被看成高句丽联盟体形成过程中的历史产物。

第三，是对于那部经由过渡期，再编为方位部过程的理解。对

此，有必要与高句丽政治的、社会的发展过程结合起来，进行综合探讨。本文仅从支配势力的编入方式这一层面来探讨。

III. 那部的构成与性质

在鸭绿江、佟佳江流域存在的势力集团的统合动向，据推测从很早时期便开始了。公元前128年濊君南间的存在、公元前75年玄菟郡移置等，均意味着在这一地区的这种活动力，在公元前一世纪前后，取得了相当的进展。

但是，这种统合运动，似因朱蒙集团的登场而得到加速发展。虽不能确知朱蒙集团的登场时间，但《高句丽本纪》中东明王的出现，说明至迟在公元前40年间，朱蒙集团作为这一联盟体的领导势力，已经登场了。下面考察一下以朱蒙集团为中心的高句丽联盟体的形成过程。

- D-1. ④ 东明圣王一年 王见沸流水中 有菜叶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猎往寻至沸流国 其国王松让出见曰 寡人僻在海隅 未尝得见君子 今日邂逅相隔不亦幸乎 然不识吾自何而来 答曰我是天帝子 来都于某所 宋让曰 我累世为王 地小不足容两主君立都曰浅 为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与之嗽斗辩 亦相射以校艺 松让不能抗
- ⑤ 东明圣王二年 夏六月 松让以国来降 以其地为多勿都 封松让为主
- ⑥ 大武神王十五年 春三月 黜大臣仇都 逸苟 茨求等三人为庶人 此三人为沸流部长

史料D-1中的 沸流国，推测是沸流水流域的土著势力，在朱蒙集团南下之前，是这一地区的领导势力。但是，此沸流国内降后成为多勿都，松让成为其主。从松让在琉璃王、大武神王时也被标示为多勿侯、多勿国王来看，可知即使在内降以后，仍在完整地保留了自身势力的状态下，维持了政治上的独立性。即东明王二年沸流国的内降，意味着由朱蒙集团主导的联盟体的形成。

但是，大武神王十五年之后，沸流那(部)开始出现。此沸流那部可能是由此前的沸流国改编成那部的。即作为独立政治势力的沸流国(那国阶段)，经历了同朱蒙集团结成联盟关系(多勿国阶段)之后，重新被编入到那部(沸流那部阶段)的进程。

组成高句丽联盟体的其它那部，即构成桓那部、贯那部、椽那部的中心势力可能经历了与沸流国相同的历程。推测它们也是作为独立的那国存在以后，在太祖大王以前的某一时期与朱蒙集团、沸流国一起结成联盟关系，改编为那部的。但是，组成高句丽联盟体的那国或势力集团，除上述那国之外，还可从如下的例子中找到。

- D-2. 大武神王五年 秋七月 扶余王从弟(中略)乃与万余人来投 王封为王 安置椽那部 以其背有络文 赐姓络氏
3. 太祖大王十一年 秋八月 曷思王孙都头 以国来降 以都头为于台
 4. 太祖大王二十年 春二月 遣贯那部沛者达贾 伐藻那 廬其王
 5. 太祖大王二十二年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 伐朱那 廬其王 子乙音为古邹加

史料D-2、3的扶余王从弟集团和曷思国是大武神王五年因高句丽

的征伐而开始解体的同一支扶余系势力。扶余王从弟是大武神王征伐以后随即来投于高句丽，曷思国为此时扶余王从弟南下后建立的小国，其孙都头于太祖大王时内降。扶余王从弟来投，被封为王，安置在椽那部。这时被封为王与任松让为多勿都主一样(D-1-⑥)，意味着获得了可照旧维持对其带来的一万多扶余人的支配权。而被安置在椽那部，即意味着扶余王从弟集团被编入到了那部。同时，曷思王孙都头来降后，被授予“于台”之官职，被编入到高句丽支配势力中，也许这时是在仍照旧维持曷思国之势力地盘的状态下，被编入到那部的。

史料D-4、5的藻那和朱那，从史料上看是附属于高句丽联盟体的邻近地区中的最后的那国，藻那受贯那部征伐、朱那受到了桓那部的征伐。那么，这一朱那和藻那被征服后以怎样的形态被编入到高句丽联盟体的呢？

首先看朱那的情况。这一征伐虽依王命而执行，但实际上其征伐的主体是桓那部，沛者达贾是桓那部的大加，这时被动员的军队是桓那部的兵。而且，在这一征伐中取得的成果中相当一部分是归属于桓那部内。但是，从这时成为俘虏的朱那王子乙音成为古邹加来看，乙音成为桓那部的重要支配势力，其原来的势力地盘一朱那被编入到桓那部，推测仍受到乙音的支配。藻那王的情况虽然没有具体记事，但与朱那王子的情况不会有大的不同。由此推测，藻那与朱那与上述各那国一样，被纳入到那部，构成了高句丽联盟体。

D-6.⑥ 大武神王九年 冬十月 王亲征盖马国 杀其王 慰安百姓 毋虜
掠 但以其地为郡县

㉑(上同)十二月 句茶国王闻盖马灭 惧害及己 举国来降

史料 D-6-㉑的盖马国在附属后被编为郡县。这一郡县的性质区别于被编入到属民集团的城邑。从这时的征伐是大武神王亲征来看，盖马国可能是王室的直属领或直接编入到桂娄部内。句茶国位于与盖马国相邻的地区，可能也是以相同的方式附属的。

以上考察了统合为高句丽联盟体的几个势力集团的例子，大体上他们的势力规模为以“那”、“国”来表现的势力集团，在统合之前，可知“王”已存在，编入以后，在维持自身势力基础的状态下，被编入到那部。

但是，在〈高句丽本纪〉里，被统合的联盟体势力中，还能找到如下所示的与上述集团性质不同的势力集团。

- E-1. 东明圣王一年 朱蒙行至毛屯谷 遇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朱蒙问曰子等何许人也 何姓何名乎 麻衣者曰名再思 衲衣者曰名武骨 水藻衣者名默居 而不言姓 朱蒙赐再思 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遂择其能 各任以事
2. 琉璃王二十一年 九月 王如国内观地势 还至沙勿泽 见一丈夫坐泽上石 谓王曰愿为王臣 王喜许之 因赐名沙勿姓氏
 3. 琉璃王二十四年 秋九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两腋有羽 登之朝 赐姓羽氏 俾尚王女
 4. 故国川王十四年 西鸭渌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孙也
 5. 大武神王四年 冬十二月 王出师伐扶余 次沸流水上(中略)忽有一壮夫曰 是鼎吾家物也 我妹失之 王今得之 请负以从 遂赐姓负

鼎氏(中略)上道有一人 身長九尺许 面白而目有光 拜王曰 臣是北溟人怪由 窃闻大王北伐扶余 臣请从行取扶余王头 王悦许之 又有人曰 臣赤谷人麻卢 请以长矛为导 王又许之

E-1的毛屯谷三人是朱蒙南下时与其汇合的势力，是形成初期朱蒙集团的基础势力。E-2的位沙勿是以琉璃王之“观国内”为契机来投的，由此可见是国内地方的土著势力，从E-3的羽氏也是迁都国内后王室专猎地一箕山出身来看，可推知是国内的土著势力。来自西鸭绿谷的乙素(E-4)也是琉璃王时被桂娄部吸收的鸭绿江流域的土著势力。E-5的负鼎氏、怪由、麻卢等三人参与了大武神王的扶余征伐战，并立下功勋，推测他们也是鸭绿江、浑江一带的势力集团。

史料E集团与史料D集团有如下的不同特点：第一，从附属时起便与桂娄部王权有着直接的密切关系，附属后则带有王的家臣的性质。已在上文指出毛屯谷三人为形成朱蒙集团的基本势力，其余集团也是王以巡幸、田猎或对外征伐为契机直接服属于桂娄部王的情况看，可想而知与桂娄部王权形成非常密切的关系。从这一点来看，是与多勿都主松让、被封为王的扶余王从弟等维持着独自势力基础且对桂娄部王权的臣属度较微弱的史料E集团是相区别的。

第二，其势力规模是以谷为单位的小势力集团，即谷集团。不仅毛屯谷、赤谷、西鸭绿谷，就是沙勿泽、箕山之野、北溟山等也基本上都是不超过谷范围的势力。在这一点上，史料D集团的那、国的规模可作比较。而且与E集团不同，找不到王的存在，反映着其势力规模不及那、国的小势力集团。对桂娄部王权的臣属度差异也与这些势

力规模的差异无不关系。

第三，引人注目的是这些势力的来投集中在初期三王时期。即东明王代卒本地区的势力(E-1)，琉璃王代国内地区的土著势力(E-2·3·4)，大武神王代扩大到鸭绿江流域的势力(E-5)，这与桂娄部的发展过程相一致。

综上所述，史料E集团是卒本、国内、鸭绿江流域的土著小势力集团，在朱蒙集团势力扩张时，被直接编入到桂娄部内，成为其下级集团，也可能成为桂娄部王权的实质性势力基础。把这些史料E集团的性质综合思考的前提下再探讨一下史料D集团所示的以那、国来表现的势力集团与史料E集团谷集团间的关系。被桂娄部统合的史料E集团的统合过程，反映的即是随着朱蒙集团扩张势力，发展成为那国的过程。即作为那国的桂娄部是由多支谷集团构成的。谷集团是高句丽地域最基本的单位政治集团，可理解为与见于《三国志》东夷传中的邑落相对应的存在。那么，作为那国的桂娄部可视为由多数邑落构成一个单位政治体，而且这一性质与上面已考察的其它那、国一致。

高句丽的那、国也是由国邑为中心，把多数邑落，即谷集团集结的存在来把握。如那、国阶段的桂娄部的情况看，估计朱蒙集团的邑落卒本、国内成为国邑，统率着史料E的谷集团毛屯谷、赤谷、北溟山、西鸭绿谷、沙勿泽等诸邑落。当然，各那国与三韩的小国情况一样，其规模的大小有差异，那部名中留有名的那国大体上是具有大国势力基盘的可能。

下面，以上文探讨的对那部的形成过程的理解为基础，探讨一下那部的构成与其性质问题。上文已考察了独立那国被编入到高句丽联

盟体时被编为那部的经过。经过这种过程，成立的五那部体制是在周边那国附属结束的太祖大王代完成的。但是在高句丽联盟体形成之前，可能在鸭绿江、浑江流域已有不少那国，如果它们统合后被编入到了那部，其结果成立的五那部各那部是由多支那国来构成的。

并且史料D-1-㉔中出现三位沸流部长，意味着沸流部是由三个势力集团构成的。椽那部也是由被称为‘四椽那’的四个那集团来构成的。史料D-2的扶余王从弟诸集团可能就是其中之一。以上指出了初期的那部是由多支那部集团构成的可能性，与此相关联，再考察当时那部的规模。

F-1. 伯固死 有二子 长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国人便共立伊夷模(中略)拔奇怨为兄而不得立 与涓[消]奴加各将下户三万余口 诣(公孙)康降 还住沸流水。(《三国志》卷30高句丽传)

史料F-1是山上王即位当时，拔奇与消奴加各率三万人，同公孙康一起对抗山上王的实事。“还住沸流水”是指消奴加和拔奇率领的势力集团的根据地是在沸流水附近，即可将消奴加看作沸流部的支配者。由此可知，当时沸流部至少有三万余人。另外，从其它四部的人口规模同沸流部相类似来推论，当时高句丽五部的总人口达十五万人，即与三万余户相一致。这与《三国志》高句丽传所载的当时高句丽的全体居民总数为三万户的记载是一致的。这预示着三世纪当时高句丽联盟体的全体居民是被分为五那部来统治的。即那部是涵盖全地域的编制单位职能。

如果承认以上的推测，那么，五那部成立当时即大武神王～太祖大王代的那部人口规模如考虑到150年间的人口增长因素，可达到二万五千人规模。特别是五那部之间存在着实力上的差异，继承王位或王妃位的桂娄部或椽那部，已大大超越平均部的规模，也不能排除山上王代拔奇拥有相当实力的可能性。

那么，能将拥有近三万人口规模的势力看成那国吗？

- F-2. ㉑ 建武二十三年 冬 句丽蚕支落大加戴升等万与口诣乐浪内属。《后汉书》卷85高句丽传)
- ㉒ 朝鲜相历溪卿以谏右渠不用 东之辰国 时民随出居者二千余户。《三国志》卷30韩传)
- ㉓ 大武神王二年 百济民一千余户来投

根据上述史料，离开原居住地移动的单位集团的规模大概为一千至二千户。特别是由蚕支落大加戴升和扶余王从弟率领的万余人，可以成为理解高句丽那国规模的标准。那么具有近三万人口规模的高句丽那部，在成立之时，至少是由两个以上的那国来组成的见解比较妥当。从以上人口规模来看，也可确认高句丽初期的五那部是由多支那集团构成的。

但是，为了更好地理解那部的性质，应考察这些多支那集团的结合，是出自那国自身的意愿，还是在改编到那部的过程当中受到了中央权力的影响。

从下面史料G-2的椽那部发动针对故国川王的叛乱时，四椽那采取一致行动的事实中可推知：组成椽那部的四个那集团并不是依靠高句

丽王权编制而成的，而是在此前已成长为达到某种层次的一个政治统一体。并且，考虑沸流那部的情况，即沸流国原来作为该地区的领导势力，已成长为具有相当规模的势力集团的事实，在沸流国阶段，三个那国结成联盟的可能性是较大的。尤其是正如山上王时，消奴加率三万余口脱离所显示的，作为一个政治统一体的活动能力应该可以和椽那部的叛乱在同一线上进行理解。

如此看来，高句丽联盟体形成以前，多数的大小那国以各地域为单位缓慢地形成政治上的统合体。以上述探讨为基础，高句丽形成五那部联盟体为止的历史过程，可推论如下：鸭绿江、浑江流域各地分散地存在的谷集团(邑落)以中心邑落为核心，多数谷集团结成联盟而成立那国，在诸那国中实力最强的那国吸收其它那国或谷集团，形成了小联盟体。高句丽初期五那部的存在，即为鸭绿江、浑江流域存在的那国或谷集团相互统合的结果，意味着五个小联盟体的最后成立。同时，这些小联盟体中，具有强大势力基础的，作为高句丽联盟体的领导势力登场，推测初期由消奴部即沸流部占领了联盟王权，其后让位给了新登场的桂娄部。桂娄部在巩固联盟王权的基础上，将这些小联盟体编制成那部，在太祖大王代时，确立了五部体制。

根据上述对那部形成过程的考察，那部的内部构造可推知为“那部-那集团(那国)-谷集团(邑落)”。这种那部的构造，从高句丽的诸加势力分为古邹加、大加、小加的状况中也可得到推知。从大加与小加“诸加别主四出道 大者主数千家 小者数百家”的扶余情况来看，是由势力集团的大小差异引起的。从以下史料中也得到确认大加和小加之间在政治力或身份上有着相当大的差异。

F-3. ㉑ 诸大加 亦自置使者 阜衣 先人 名皆达于王 如卿大夫之家臣
会同坐起 不得与王家使者 阜衣 先人同列。(《三国志》卷30
高句丽传)

㉒ 其公会衣服 皆锦绣金银以自饰 大加 主簿头着帟 如帟而无
余 其小加着折风形如弁。(同上)

从上引史料F-3-㉑看自置使者、阜衣、先人等只限定于大加，即小加在政治上还没有成长为自己成立官僚组织的地位。这一点不仅是反映着大、小加的区分并不是单纯的实力基础在量上的差异，也意味着支配权力成长度在质上的差异。上引史料F-3-㉒中显示的大加和小加之间明显的身份差距，反映的是他们的实力基础或政治力上存在着一定的阶段性差异。即鸭绿江、浑江流域的诸那国形成高句丽联盟体时，推想那国的中心势力的领导层编制成大加，各谷集团或势力较小的那国的领导层编制成了小加。同时，在形成那部过程中成为小联盟体中心的那国的大加，相对于其它大加，可能被称为相对来说较为优越的古维加。

IV. 自那部至方位部的再编

在第一章中探讨部用例的时候，已知那部和方位部相区分，由那部变迁为方位部。下面，探讨一下方位部的性质和这种变化的背景。先考察一下在史料上最初出现方位部的故国川王代的政治状况，可能有助于理解方位部的性质。

G-1. 故国川王十二年 秋九月 (中略) 左可虑等与四椽那谋叛

故国川王 十三年 夏四月 聚众攻王都 王微机内兵马平之 遂下令曰 (中略) 令汝四部各举贤良在下者 于是 四部共举东部晏留王微之 委以国政 晏留言于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参大政 西鸭濠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孙也 性质刚毅 智虑渊深 不见用于世 力田自给 大王若欲理国 非此人则不可 王遣使 以卑辞重礼聘之 (中略) 王知其意 乃除为国相 令之政事 (中略) 冬十月 王谓晏留曰 若无子之一言 孤不能得巴素以共理 今庶绩之凝 子之功也 乃拜为大使者

上引史料中镇压椽那部叛乱的故国川王下令“汝四部 各举贤良在下者”。对这一四部的解释上有争议。这一“四部”，被解释为除去桂娄部的四部，或除去椽那部的四部。但是，从四部共举的安留来自东部来看，此时的四部应看成东、西、南、北，即方位部之四部。

那么，这四方位部的实体是什么呢？从上引史料看椽那部的叛乱军在攻击王都时，故国川王动员了畿内兵马来平定了它。这里的王都就是国内城，畿内应该看成王都周围的一定地区，即桂娄部内的地区。因此，动员畿内势力镇压椽那部的叛乱之后，将接受故国川王命令的四部看作桂娄部内的四方位部是比较合理的。即方位部是桂娄部内的四部，是王的政治、军事势力基础。

这一点如果考察东川王代方位部出身们的活动就更为明显。

G-2. 东川王二十年，八月 魏遣幽州刺史毋丘儉 将万人 出玄菟来侵 王将步骑二万人 (中略) 我军大溃 死者一万八千余人 王以一千余骑 奔鸭濠原 冬十月 儉攻陷丸都城屠之 乃遣将军王頔追王

王奔南沃沮 至于竹嶺 军士分散殆尽 唯东部密友独在侧 谓王曰 今追兵甚迫 葢豢擅" 臣请决死而禦之 (中略)下部刘屋句 前对曰 臣试往焉 遂于战地 见密友伏地 乃负而至 (中略) 魏军追不止 王计穷势屈 不知所为 东部人纽由进曰 势甚危迫 不可徒死 臣有愚计 请以饮食往犒魏军 因伺隙 刺殺彼将 若臣计得成 则王可旧击决胜矣 (中略) 王復国论功 以密友、纽由为第一 赐密友巨谷、青木谷 赐屋句鸭渌、杜訥河原以为食邑 追贈纽由为九使者 又以其子多优为大使者

在同毌丘俭军的战斗中，东川王第一次率领的步骑两万人，除王的直属军队桂娄部兵外，可能是由其它那部军队组成的。但是，在梁谷战役失败后，护卫国王的一千余名组成的亲卫军，相信来自桂娄部，这时保护国王的东部密友、下部刘屋句、东部人纽由等可能也是桂娄部出身。即这是在桂娄部内有方位部存在的例证。这些来自方位部的人，为了国王可以舍弃自己的生命，组织敢死队，杀害敌将，这些事实说明方位部是向国王尽忠的直属势力基础。如此，把方位部看作国王直接指挥的政治上，军事上的势力基础为前提，故国川王十三年把东部安留或乙巴素任命为国相时，对此作坚决反对的那部诸加势力的情况是可以理解的。

那么，桂娄部内设置五方位部的背景是什么呢？方位部原来是在桂娄部内拥有独自势力基础的支配势力，以王都为中心重新集结编制而成的组织。即方位部并非以前的作为单位政治体的部内部，而是采取向王都集结而形成新的支配集团的方式。这即意味着那部内支配势力的新的存在形态。

另一方面，在将部内的诸加势力编进方位部的过程中，系统化的支配势力的编制方式也起了重要作用。如官阶组织或食邑的赐予等是其例。故国川王时授予安留或乙巴素官阶(史料G-1)，在毋丘俭入侵，东川王身陷危机时立下功劳的密友或刘屋句、纽由等授予食邑或官阶等都是具有代表性的实例(史料G-2)。

因此，五方位部内的支配势力不是依靠自身独立的势力基础而存立，而是以与王权结合为基础，参与中央政治权力来取得更加丰富的政治、经济成果而行动的。因此，他们所具有的近臣乃至亲卫性质与太祖大王以前阶段的近臣存在不同，与王权结合的更加巩固。如此，五方位部是桂娄部的那部内组织，其他那部的情况也可以设想为与此相同的组织存在。但笔者认为其他那部还没有具备桂娄部五方位部相同的部组织。因为桂娄部内的支配势力构成五方位部中桂娄部成为最强有力的那部，包含着很多单位集团，以这些势力为基础掌握高句丽联盟体的王权。即以王权为媒介，通过征服活动，参与分配物的幅度扩大，很早就开始了那部内支配势力集结过程。

那部在作为单位政治体的性质在发生变化过程中，那部的诸加势力随着集权体制的发达和中央关系组织的吸收，逐渐移居到王京，或被编入到方位部中。将诸加势力编入到中央贵族官僚的中央政治组织或身分制度，虽在太祖大王时已成立，但除少数有中央官职的人之外，大部分还是居住在自己的原居住地。例如，从史料G-1看，四椽那叛乱是评者左可虑主导的，而椽那部的实际代表沛者于畀留并未参与叛乱，推测是因其任中畏大夫之职，驻在中央之故。反过来，正说明以左可虑为代表的大部分椽那部的诸加势力是居住在原居住地的。

但是，西川王以后诸加的活动方式产生了一定的变化。从史料 B-15看，以前王妃来自椽那，但这时来自西部的于濑之女成为王妃。但是，如果接受于濑和故国川王王妃的父亲—椽那部的于素属于同一部族出身的见解，上记事实并非意味着王妃出身部的转换这种政治变动只不过是原本椽那部的于濑将西部当作自己的出身单位而已。

如此，那部向方位部的出身变化，显示当时诸加势力在存在方式上产生了重大变化。笔者认为把方位部看作都城国内城一带的行政地域，那么可理解为于濑完全离开根据地椽那部，住在王京(王畿)而中央贵族官僚化。同时，这种出身地的变化或居住地的移动，意味着诸加势力对那部支配力的弱化。

那部诸加势力之所以能够再编入到方位部，是因为那部正在三世纪阶段以失去原来作为单位政治体的性质，开始变为具有支配者集团的性质。那部内的这种变动过程，大体上是在故国川王到烽上王时期展开的。这即意味着维持那部体制基础的解体，伴随这种变化，那部诸加势力向方位部的集结过程逐步扩大。这可以从当时在政治上占有非常重要地位的王妃或国相之位，由方位部出身的人物担当来得到确认。

例如，西川王时首次登场方位部出身的王妃(西部大使者于濑之女)，烽上王代由大使者升任为大主簿的南部出身仓助利被任命为国相。尤其，在烽上王的废位与美川王的即位过程中立过功的人物包括仓助利在内的北部祖弗、南部萧友等情况显示着这一时期政界运营的主导权从那部完全转移到方位部。特别是，美川王之后在史料上再也见不到那部之名，这意味着初期高句丽的那部支配势力向首都王都集结，方

位部的编制业已完结。

那部与方位部虽都表示为部，但作为部的基本性质是完全不同的。方位部具有以王都为中心集结而成的“王京支配者集团”性质。方位部的部，有很强的行政编制单位的性质，不具备作为部自身独自单位政治体的性质，在这一点上是与那部区别的。这种性质上的差异，意味着部的历史性阶段。

因而，再编为方位部的支配势力存在形式只能完全不同于那部阶段。但是，诸加势力再编为方位部时或许在那部和方位部之间存在着一定的对应关系。特别是《后汉书》李贤注中那部和方位部相对应的记事中也预示着这种可能性。但是，通过故国原王以后的贵族势力动向看，也可以排除这种可能性。

H-1. 大使者 牟頭婁 (中略) 奴客祖先 □□□□ 餘隨聖王來 (中略) 慕容鮮卑 □ 滅使人 □ 知河泊之孫日月之子所生之來 □ 北夫餘大兄冉牟 (中略) 世遭官恩 (牟頭婁墓誌)

2.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國 已後代爲公侯宰相 至後漢末 高麗與燕慕容戰大敗 國幾將滅 二十代祖密 當提戈 獨入斬首尤多 因破燕軍 重存本國 賜封爲王 三讓不受 因賜姓高 食邑三千戶 乃賜金文鐵權 (高慈墓誌)

从上記牟头婁墓志或高慈墓志看，高句丽以故国原王代为前后，已经而且这种家系意识基本上是以贵族势力向家族单位分化的背景下才有可能。

第三，与此相关联，应注目两家族的家系意识非常明显这一点。

即再编为方位部的贵族存在形式不是以部而是以家族系贵族集团来分化集结。进而，在长寿王代的平壤迁都也是决定性的改变贵族势力存在方式的契机。平壤迁都以后也能找到五方位部的存在，这也不过是首都的行政地域性区分而已。特别是设置副都国内城和汉城，实行三京制，推测汉城等地也与平壤城一样设置了五部的行政区域(史料C)

V. 结语

考察高句丽部的用例，可知有那部和方位部两种类型。从时间变迁上看，初期只出现那部，在经过了二世纪以后那部和方位部同时出现的过渡期后，三世纪后半以后只出现方位部，这种用例上的变化即意味着部在性质上的变化。

那部在国家形成过程中形成为在其内部包含多支那国或谷集团的小联盟体构造，在构成高句丽联盟体时，此小联盟体被编入到了那部。这种以单位政治体那部为基础而构成的政治体制或国家体制，可称作那部体制。

二世纪末以后，随着社会的分化，单位集团的政治性质开始弱化，诸加势力的存在方式也产生了变化。即随着诸加势力以首都国内城为中心集结，在国内地区的行政方式上出现了方位部。成立初期方位部的主要势力主要是桂娄部出身，是高句丽王的亲卫性质的势力基础，但诸加势力也开始逐渐集结到首都国内地区，被编进方位部而形成“王京支配者集团”。这种过程随着官等组织的运营与食邑的赐予等王权集权化政策，得到进一步的发展。

这种集权化的过程是以那部所含的作为单位政治体性质的弱化，诸加势力按家族分化的社会变化为背景的。结果，西川王到美川王代，那部消失，诸加势力转化为中央贵族，被编进方位部。这即意味着五那部体制的解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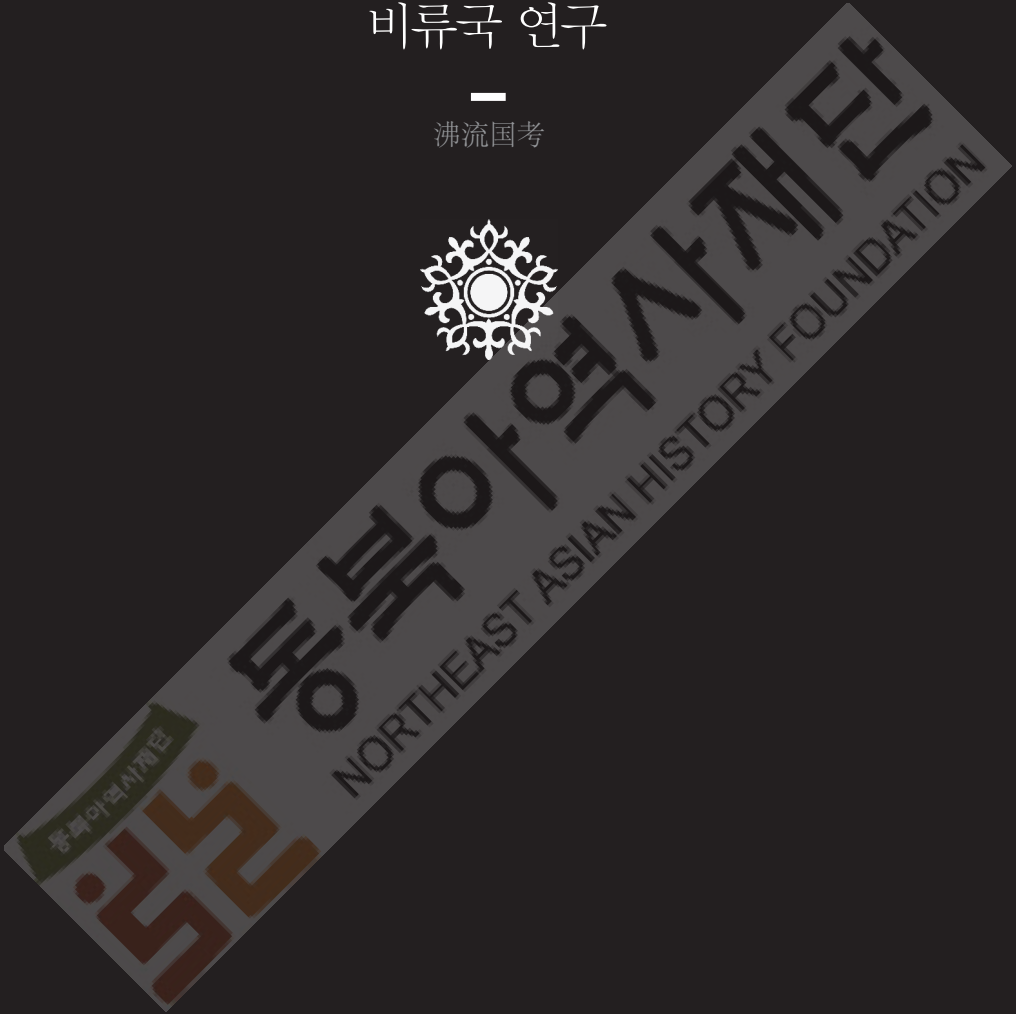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류국 연구

—
沸流国考



피아오찬쿠이 | 朴燦奎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류국 연구

-
- **피아오찬쿠이** (중국 연변대학 교수)
-

고구려 건국 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고구려의 족원(族源), 고구려 건국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고구려와 주변민족 및 정권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구려 건국 전의 사회상황에 대한 사서(史書)의 기록이 희소하기 때문에 고구려 건국 전의 역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비류국(沸流國) 기록을 고찰하여 구려(句麗)지역에서의 비류국 지위, 비류국과 연노부(涓奴部)와의 관계, 비류국왕(沸流國王)과 구려후(句麗侯) 및 비류국의 지리위치 문제 등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출하려 한다. 논문 중에 이러저러한 오차와 부적절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면서 학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평과 조언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I. 구려인과 비류국

고구려족의 연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주몽(朱蒙) 건국신화에서 부여(夫餘)가 남하한 이야기와 진수(陳壽)의 대소수맥(大小水貊)에 대한 기록, 혹은 예맥(穢貊)에 대한 기록에서 찾는다.¹⁾ 유독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구려국가가 고구려국의 전신이라는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²⁾ 필자는 주몽이 건국하기 전의 고구려인이 이미 예맥에서 분리되어 구려만이(句麗蠻夷) 또는 구려호(句麗胡)라고 불렸다고 생각한다. 이 구려호가 바로 한고구려현(漢高句麗縣)을 구성한 원고구려주민이었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 구려국이 이미 성숙된 국가형태를 갖추었다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고대 고구려인에 대한 기록은 일찍 반고(班固)의 『한서(漢書)』³⁾에 기재되어 있었다. 『한서』 「지리지(地理志)」에 기록된 데 의하면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穢貊, 句麗蠻夷”⁴⁾라 하였다. 고구려족이 예맥계통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공인된 것이다. 그럼 반고는 왜 여기에서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穢貊蠻夷”라 하지 않고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

1) 莊嚴(1978), 「高句麗族源初探」, 『朝鮮史研究』 제5기; 李址鱗·姜仁淑(1984), 「고구려의 기원」, 『東北亞歷史와 考古信息』 제4기; 孫進己(1986),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134~142쪽.

2) 孫永鐘(1990), 「고구려사」 1, 조선백과사전종합출판사, 13~14쪽.

3) 제일 일찍 ‘구려’를 기재한 책은 『尙書』이다. 『尙書』 「賄肅慎之命序」에는 “海東諸夷, 句麗, 夫餘, 貊之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僞書라는 견해가 있어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張傳璽 주편, 『中國歷史要籍介紹 및 選讀』 上, 고등교육출판사, 5~7쪽.

4) 『漢書』, 「地理志下」.

穢貊, 句麗蠻夷”라고 하였겠는가? 즉 ‘예맥(穢貊)’이란 단어에서 이미 고대 고구려인이 포함되었는데 굳이 또 ‘구려(句麗)’ 단어를 붙였겠는가? 반고의 이 기술(記述)은 당시 구려인이 벌써 예맥에서 분리되어 나와 단독적으로 새로운 민족 집단을 형성하여 구려만이(句麗蠻夷)라고 불리웠음을 설명해준다. 이 점에 대하여 응초(應劭)도 고구려현이 ‘고구려호(古句麗胡)’⁵⁾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도(玄菟)의 고구려현은 고대의 구려인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현도의 고구려현의 이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역시 이점을 증명할 수 있다.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下句麗)라고 고친 것은 고구려가 합성어(合成語)임을 표명한다. 그 조합방식은 형용사 ‘고(高)’에 명사 ‘구려(句麗)’를 붙인 것이다. 즉 서쪽으로 옮긴 현도에 속하는 현을 설치할 때 한(漢)은 구려인 거주지역에 한 개의 현을 설치하고 그 주민 이름인 ‘구려(句麗)’ 앞에 ‘고(高)’자를 붙여 고구려현이라 불렀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찍이 고구려현을 설치하기 전에 벌써 구려인이 존재하였다. 그럼 이 구려호(句麗胡)가 당시에 부락연맹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국가를 건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역도원(酈道元)이 쓴 『수경주(水經注)』의 기록에 따르면 구려호는 현도의 고구려현을 설치하기 전에 벌써 국가를 건립하였다. 역도원은 “又玄菟高句麗縣有遼山, 小遼水所出, 西南至遼水縣入于大遼水也”, “縣, 故高句麗胡之國也”⁶⁾라고 주를 달았다. 여기에서 역도원은 비록 고대 구려호가 구려인가 아닌가를 명확히 제기하지 않았지만 고구려현은 고대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

5) 『漢書』, 『地理志』 玄菟郡條.

6) 漢桑欽撰, 北魏酈道元撰注, 『水經注』 卷14, 『小遼東』의 어떤 부분에는 “故高句麗胡之國也”라고 기재되어 있다. 잠시 “古高句麗胡之國也”로 사용하고 뒤에 고찰한다.

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고구려인은 고구려현을 설치하기 전에 국가를 건립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만일 이 기록을 반고와 응초의 말과 연결하면 “고구려호”는 ‘구려만이’ 또는 ‘구려호’이고 “故高句麗胡之國”은 ‘구려호’ 또는 ‘구려만이’의 국가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역도원 한 사람의 말과 『수경주』가 늦게 편찬된 점을 고려하면 구려인이 고구려현을 설치하기 전에 벌써 국가를 건립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비류국과 그 국왕 송양(松讓)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비류국과 그 국왕 송양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만 일부 자세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비류국과 송양왕을 연구할 때, 『삼국사기』의 아래의 몇 가지 사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東明王一年(기원전 37년),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容二主, 君立都日淺; 爲我附庸可乎.”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 東明王)
- B. 東明王二年(기원전 36년),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爲多勿, 故以名焉.”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 東明王)
- C. 琉璃王二年(기원전 18년), “秋七月, 納多勿 侯松讓之女爲妃.”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1, 東明王)

사료 A를 볼 때 주몽이 건국하기 전에 혼강(渾江)유역에 이미 비류국이 존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송양의 ‘누세위왕(累世爲王)’이란 말은 비류국이 이 지역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앞에서 서술한 고대 고구려가 구려호 혹은 구려만으로 불리웠다는 기록을 기반으로 하면 송양왕이 말한 ‘누세위왕’을 한 곳은 반드시 구려지역인 것이다. 송양왕

이 주몽에게 한 ‘地小不容二主’는 송양왕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졸본지역을 포함한 구려지역의 패주(覇主)라는 것을 설명한다. 주몽의 졸본지역에서의 통치지위를 승인하는 시점에서 주몽이 자기에게 복속(服屬)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구려지역에서 비류국의 패권지위는 구려지역 부락연합체(部落聯合體) 내의 영도권이지, 성숙된 국가형태의 최고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몽이 나라를 건립하기 전에 구려지역에는 이미 비류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락연합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인류문화학과 문화분류의 개념으로 볼 때 이러한 이미 부락연맹(部落聯盟)을 초월하고 아직 성숙된 국가형태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부락연합체를 초기 국가 혹은 국가의 추형(雛形)이나 추방(酋邦)⁷⁾이라고 볼 수 있다.

사료 B, C 중의 ‘封松讓爲主’와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란 기록을 볼 때 주몽에게 항복한 비류국은 고구려 초기에 상당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류국에 대한 이런 특수한 대우가 바로 앞서 기술한 비류국이 원 고구려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지위의 체현(體現)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견해를 심층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중국 정사 중의 연노부(涓奴部)와 구려후(句麗侯)에 대한 기록을 더 분석, 고증할 필요가 있다.

7) 酋邦은 현대 인류문화학과 문화분류의 한 개념이다. 동시에 인류 초기 정치조직 발군의 단계성이라는 함의를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응당 초기국가 혹은 국가의 雛形으로 인정해야 한다. 추방은 부락연맹과 달리 정복결과의 부락연합체를 의미한다. 반대로 부락연맹은 최고 수령이 없는 부락연합체를 의미한다. 부락연맹 중 연맹에 참가한 각 부락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존하고 있고 상호관에 동등한 지위를 소유한다. 謝維揚, 『中國初期國家』 3, 4장 참조.

II. 연노부와 구려후

비류부는 『삼국사기』에서 유일하게 ‘나(那)’를 부치지 않았던[잠지부락(蠶支部落)을 제외] 부이므로 고구려 여러 부 중에서 특수지위를 가진 부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비류국을 항복시키는 과정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연나부(椽那部), 관(貫)나부, 환(桓)나부를 항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이로부터 비류부는 고구려의 기타 부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중국 정사 중에 나타난 고구려 5부 중 어느 부가 이러한 특수 지위를 가지는 비류부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의 관련 내용을 주목해 보자.

- D. 本涓奴部爲王，稍微弱，今桂婁部代之，…… 涓奴部本國主，今雖不王，適統大人，得稱古鄒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三國志』卷30，「魏書」，高句麗傳）
- E. 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還住沸流水。（『三國志』卷30，「魏書」，高句麗傳）
- F. 正州，本沸流王故地，爲公孫康所併。渤海置沸流郡，有沸流水。（『遼史』卷38，「地理志」8，東京道）

사료 D에서 볼 때 연노부(涓奴部)는 고구려의 5부 중 기타 다른 부와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특수 지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고구려 초기 연노부가 5부 중의 왕이었는데 후에 계루부(桂婁部)에 의해 대체되었다. 둘째, 5부 내에서 연노부의 지위가 계루부로 대체된 후에도 여전히 왕실에서만 향수할 수 있는 ‘입종조(立宗廟), 사영성(祠靈星)·사직(社稷)’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통대

인(適統大人)할 수 있으며, 왕의 종족의 대가(大加)만 사용할 수 있는 ‘고추가(古鄒加)칭호를 소유하고 있다. 사료 A, B에서 송양의 ‘累世爲王’과 ‘封松讓爲主’란 기록과 결합해보면 비류부가 바로 본국주(本國主)인 계루부에 의해 대체된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특수지위를 보존하고 있는 연노부일 것이다.

사료 E에서 보면 발기(拔奇)와 연노부가 예강항(詣康降)하여 비류수에 환주(還住)하였다는 것은 연노부가 원래 비류수에서 살았음을 의미하며 ‘還住沸流水’란 비류수에서 요동으로 가서 공손강(公孫康)에게 투항한 것이어야 ‘환주(還住)’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이 지역은 발기와 연노가의 투항으로 요동공손씨(遼東公孫氏)의 관할지역으로 되었을 것이다.

사료 F와 연결시켜 보면 연노부의 거주지역이 공손강에게 병합(併合)된 비류왕고지(沸流王故地)인 비류수유역인 것을 한번 더 확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還住沸流水’란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연노부의 거주지역이 비류왕고지인 기록은 연노부가 바로 비류부인 것을 증명한다.

그럼 비류국은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고, 현도고구려현(玄菟高句麗縣)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사서에도 비류국의 형성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지 않다. 『삼국사기』에 송양의 ‘我累世爲王’이란 모호한 기록만 있을 뿐이다. ‘누세(累世)’의 시간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를 구려지역에서 비류국을 중심으로 하는 5족연합체 형성의 시간표로 볼 수 있다.⁸⁾ 필자의 견해로는 비류국의 형성시간은 한소제원봉(漢昭帝元鳳) 6년(기원전 75년), 현도가 요

8) 高句麗 5族에 대하여 『三國志』에는 ‘本有五族’으로 기재되었고 『後漢書』에는 ‘凡有五族’으로 기록되었다. 비록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本’은 본래 五族이 있다는 뜻이고 ‘凡’은 모두 五族이었다는 뜻이다. 『三國志』는 『後漢書』보다 일찍 成書되었기에 『三國志』의 기록을 택했다.

동으로 서천(西遷)하여 고구려현을 설치하기 전이다.

비류국과 현도고구려의 관계에 대하여 사서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서한(西漢)왕조가 구려지역에 고구려현을 정할 때 이미 구려 지역에서 영도(領導)지위를 소유한 비류국국왕을 후(侯)로 책봉(冊封)하였다는 것이다.

사료 B를 보면 송양왕이 귀속한 후 고구려는 비류국의 땅을 다물도(多勿都)라고 명명한다. “麗語謂復舊土爲多勿，故以名焉”이란 말은 비류국이 귀속되기 전에는 다른 정치세력에 귀속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復舊土’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혼강유역의 주변정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류국을 자기 관할범위 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나라는 다만 비류국의 서부에 위치해 있는 한(漢)왕조의 현도군(玄菟郡)이었을 것이다.

사료 C의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다물후 송양의 딸을 비로 맞았다는 기록을 보면, 송양에 대한 고구려인의 칭호는 비류국왕 혹은 주몽이 내린 비류국주(沸流國主) 뿐만아니라, ‘다물후(多勿侯)’라는 칭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초기의 역사를 보아도 고구려는 가작위후(加爵爲侯)라는 예가 없었고 다만 “가작위대주부(加爵爲大主簿), 패자(沛者), 우대(于臺)”라는 예만 있다. 한왕조는 많은 변경지역 각 민족의 국왕, 거수(渠帥) 혹은 항장(降將)을 ‘가작위후’한 예가 있다. 예를 들면 전한(前漢) 때의 장가군(婁柯郡) 소속의 현인 누와(漏臥)와 구정(句町)에는 각기 누와후(漏臥侯)와 구정왕(句町王)이 있었고, 고조선(古朝鮮)을 멸망시킨 후 5명의 항장과 항상(降相)을 후(侯)로 봉한 적이 있다.⁹⁾ 때문에 다물후 송양이라는 후의 작위(爵位)는 고구려가 봉한

9) 『漢書』, 『地理志上』, 婁柯郡條; 『漢書』, 『西南夷兩粵朝鮮傳』, 朝鮮傳.

것이 아니라 한왕조에서 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필자의 추측에 의하면 비류국왕 다물후 송양의 작위는 세습이 가능했을 것이다. 즉 전한왕조가 고구려지역에서 고구려현을 설치할 때 이미 구려지역에서 패주 지위에 있는 비류국왕을 후로 봉하였을 것이다.

전한왕조가 동예(東穢), 동옥저(東沃沮)지역에서 봉후수작(封侯授爵)한 정황을 볼 때 전한왕조가 구려지역에서 봉후수작을 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전한왕조가 진번(眞番), 임둔(臨屯), 현도 등에 군을 설치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의 정복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점령한 후 그 위력으로 이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관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그들의 정복전쟁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에 대해 처음에는 ‘취리후요동(取婁于遼東)’이라는 방식을 취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현후(縣侯), 후국(侯國)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이런 과정은 그 지역의 통치계급에 대한 봉후수작과 동반되었을 것이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서 모두 이러한 기록을 볼 수 있다.

G. 漢以土地廣遠，在單單大領之東，分置東部都尉，治不耐城，別主領東七縣，時沃沮亦皆爲縣。漢(光)[建]武六年，省邊郡，都尉由此罢，其后皆以縣中渠帥爲縣侯，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三國志』，「魏書」，東夷傳，東沃沮)

H. 自漢以來，其官有侯·邑君·三老，統主下戶。……自單單大領西屬樂浪，自領以東七縣，都尉主之，皆以穢爲民，後省都尉，封縣中渠帥爲侯，今不耐穢皆其種也。(『三國志』，「魏書」，東夷傳，穢傳)

위의 사료에서 보면 옥저(沃沮)와 예인(穢人)이 거주하는 영동칠현(領東七縣)에 대하여 현도가 서쪽으로 옮기고 그 땅이 낙랑에 귀속된 후에는 도위(都

尉)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현지의 상층인물에게 ‘후(侯, 읍군(邑君), 삼로(三老) 등의 작위와 관직을 내려 ‘통주하호(統主下戶)’ 하도록 하였다. 후한(後漢)의 광무(光武)시기에 와서는 ‘도위(都尉)’를 파하고 ‘현중거수(縣中渠帥)’를 ‘현후(縣侯)’로 봉하여 ‘불내(不耐), 화려(華麗), 옥저’ 등 ‘여러 현[諸縣]’이 모두 ‘후국(侯國)’이 되었다.

현도가 서쪽으로 옮긴 후 고구려인이 구려지역에 대한 통치도 위에서 서술한 전한시기 옥저와 예지(穢地)에서 실시한 이런 절충적인 관할 방식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즉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현후(高句麗縣侯)는 당시 구려지역에서 패주지위에 있었던 비류국왕을 가리킬 것이다.

III. 비류국의 지리위치

비류국(沸流國)의 지리위치에 대하여 이전에는 모두 『삼국사기』 중의 주몽에 대한 “結廬于沸流水之上居之, 國號高句麗”라는 기록과 「호태왕비」의 “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建都焉”이라는 기록에 의하여 비류수는 지금의 혼강이고, 비류국은 비류수의 상류, 즉 지금의 통화 경내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어 지금의 신빈(新賓) 경내의 부이강(富爾江)유역에서 세 곳의 초기 고구려산성 유적지를 발견하고, 또 그 주위 지역에서 초기 고구려 적석묘(積石墓)를 발견한 후 비류국의 위치를 찾는 노력을 부이강유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¹⁰⁾

비류국에 대하여 『요사(遼史)』 「지리지」에는 “桓州, 高句麗中都城, ……晉

10) 撫順博物館(1991), 「遼寧省新賓縣轉水湖山城」, 『北方文物』 제1기; 撫順博物館·新賓縣文化局(1985), 「遼寧省新賓縣黑溝高句麗山城」, 『文物』 제2기.

康帝建元初爲慕容櫛所敗，宮室焚蕩，隸涿州。在西南二百里……正州，本沸流王故地，公孫康所併，渤海置沸流郡，有沸流水，戶五百，隸涿州，在州西北三百八十里”¹¹⁾라고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비류국의 정확한 지리위치를 알려면 『삼국사기』 중 주몽이 비류국으로 갈 때 “逆沸流水爾上”이란 기록과 위에서 말한 『요사』 「지리지」의 관련 기록을 연관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발해의 녹주(涿州)는 지금의 길림성 임강현(臨江縣)이고 환주(桓州)는 지금의 집안(集安)이다. 그렇다면 정주(正州)는 녹주 서북 380리(149.25km)로 지금의 신빈(新賓)과 환인(桓仁) 사이에 있는 부이강유역이어야 할 것이다.

‘공손강(公孫康)에게 ‘소병(所併)’된 비류국의 위치가 만약 통화(通化)지역에 있었다면 임강(臨江)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왜냐하면 임강은 환주와의 거리가 200리(78.55km)이고, 임강과 현재 통화지역인 혼강상류와의 거리는 집안과의 거리보다도 더 짧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에서 기술한 정주가 임강 지역과 380리 떨어져 있고 집안지역과는 200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없다. 만약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는 비류국이 비류수 상류에 있다는 기록과 결합하여 고찰한다면 비류국은 혼강 상류의 통화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부이강유역 혹은 그 서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비류국이 통화지역에 위치했다면 요동, 현도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비류국이 부이강유역에 있었다면, 비류국이 요동과 가깝고 또 현도군과도 이어져 있고 ‘위공손강소병(爲公孫康所併)’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외 『환인현지(桓仁縣志)』에 기록되어 있는 “富爾江發源于興京之金廠崖，長約三百里，自北爾南……土人以下流甚急，衆多巨石參差錯列，水激石鳴，故呼曰響水河子”라는

11) 『遼史』, 「地理志」, 東京道涿州條.

기록에서도 부이강을 ‘수격석명(水激石鳴)’ 하기 때문에 ‘향수하자(響水河子)’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비류수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높다. 고대의 비류수라는 이름은 비류수의 주지류(主支流)에 대한 속칭일 가능성도 있다. 부이(富爾)와 비류(沸流)의 음이 아주 비슷하기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더욱 비슷하다) 비류의 전음(轉音)일 가능성도 있다. 즉 고대인들이 지금의 혼강 및 그 지류인 부이강을 모두 비류수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비류국이 부이강유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말은 『삼국사기』에서 비류국이 비류수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부이강유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기 고구려산성으로는 신빈현 홍묘자향(紅廟子鄉) 사도구촌(四道溝村)의 흑구산성(黑溝山城)과 향수하자향전수호촌(響水河子鄉轉水湖村)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전수호산성(轉水湖山城), 그리고 왕청문(旺淸門) 부근의 고각산산성(孤脚山山城)이 있다. 그중 앞의 두 개 산성 성벽은 편추체설형석(扁錐體榑形石)으로 성벽의 표면을 건축했는데 패왕조(霸王朝)산성, 오녀산성, 환도(丸都)산성 등 고구려 초기 산성과 같아 고구려 말기의 성벽에 흙과 돌을 섞어서 건축하는 방법과 다르다. 그 외 전수호산성 부근의 단산자(團山子)유적과 흑구산성에서 발견한 도기도 모두 초기 고구려 유물에 속한다고 판명되었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산성을 패왕조산성, 오녀산성, 환도산성 등 고구려 초기 산성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산성이라고 본다.¹²⁾ 고고학의 시각으로 볼 때 비류국이 부이강유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의 분석과 논증을 종합하면, 한사군(漢四郡) 설치 전에 ‘구려’라고 불리우는 고구려인이 이미 지금의 부이강과 혼강 그리고 압록강 중류 유역

12) 撫順博物館(1991), 앞의 글; 撫順博物館, 新賓縣文化局(1985), 앞의 글.

에서 생활하였다. 현도가 서쪽의 요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예맥인으로부터 구려인으로 분리되었으며 비류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추방(酋邦), 즉 구려 오족연합체(句麗五族聯合體)가 형성되었다. 현도를 요동으로 옮길 때 비류국 왕을 현후(縣侯)로 책봉하는 형식을 거쳐 구려지역을 관할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비류국이 바로 사서에 기록된 연노부이다. 비류국의 지리 위치는 혼강상류가 아니라 부이강유역일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沸流国考

- 朴灿奎 (中国延边大学教授)
-

就建国前高句丽展开的研究，对我们研究高句丽的族源、高句丽建国的历史背景，以及高句丽和周边民族和政权的关系等问题，均具有重要意义。由于史书对建国前高句丽社会情况的记载相对稀少或模糊，目前学界对建国前高句丽的研究成果相对偏少。本文拟通过对《三国史记》中记载之沸流国的考察，对沸流国在句丽地区的地位、沸流国与涓奴部的关系、沸流国王与句丽侯以及沸流国的位置等问题，提出个人不成熟的看法。不当之处在所难免，敬请各位专家学者指正。

I. 句丽人与沸流国

关于高句丽族的族源，学界一般从朱蒙建国神话中的由扶余南下的记载和陈寿关于大小水貊的记载或秽貊中去找¹⁾。独朝鲜史学界提出以句丽国为高句丽之前身的观点²⁾，笔者以为此见甚确，即朱蒙建国前的高句丽人已经从秽貊中分离出来而称之为句丽蛮夷或句丽胡，此句丽胡就是构成汉高句丽县原居民的句丽人。当然，笔者不同意关于此句丽国已进入成熟国家形态的见解。

关于句丽人的记载，由班固最早载于《汉书》³⁾。据《汉书·地理志》载：“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秽貊、句丽蛮夷”⁴⁾。关于高句丽人的族属秽貊系统，似已为学界所公认。那么，班固为什么在此不言“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秽貊蛮夷”而言“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秽貊，句丽蛮夷”呢？即“秽貊”一词中，应该已经包含了古高句丽人，何需另加“句丽”一词呢？班固的此记述，无疑表明当时的句丽人已经从秽貊人中分离了出来，单独形成为一个独立的民族集团，而被称之为句丽。这一点可以从唐颜师古为《汉书》加的

- 1) 庄严：〈高句丽族源初探〉，《朝鲜史研究》，1987年第5期；李址麟、姜仁淑：〈高句丽的族源〉，《东北亚历史与考古信息》，1984年第4期；孙进己：《东北民族源流》，黑龙江人民出版社，第134~142页，1986年。
- 2) 孙永钟：《高句丽史》1，朝鲜百科辞典综合拙版社，第13~14页，1990年。
- 3) 最早记载“句丽”的史书当属《尚书》。《尚书·贿肃慎之命、序》曰：“海东诸夷，句丽、夫余、哀貊之属”。但此书有伪书之嫌（参阅张传玺主编之《中国历史要籍介绍及选读》上，高等教育出版社，故弃不采，第5~7页。
- 4) 《汉书·地理志下》。

注引汉应劭言得到佐证⁵⁾。对玄菟之高句丽县，“应劭云：高句丽‘古句丽胡’”。也就是说，高句丽县是由古代的句丽人所构成。通过分析玄菟之高句丽县的名称，也可以证明这一点。王莽改高句丽为下句丽，表明高句丽是个合成词，其组合方式为形容词“高”加上名词“句丽”，即设置西迁之玄菟属县的时候，汉王朝在句丽人居住地区设置了一县，并在其居民名称“句丽”一词之前冠以“高”字而称之为高句丽县。

如上所述，早在汉置高句丽县之前，已经存在了句丽人。那么，这个句丽人是处在一个各自独立分散的部落群体阶段，还是已经建立起国家呢？从酈道元所撰《水经注》中的记载来看，此句丽胡在设置玄菟之高句丽县之前，已经建立了国家。酈道元在为《水经》加的注言：“又玄菟高句丽县有辽山，小辽水所出，‘西南至辽隧县人于大辽水也’”“县，故高句丽胡之国也”⁶⁾。在这里，酈道元虽然没有明确提出古代高句丽胡是否指句丽人，但不仅指出了高句丽县是由古代高句丽人构成，还明确了此古代之高句丽人已经在置高句丽县之前建立了国家。如果联系前述之班固和应劭之言，则可知此“故高句丽胡”是指“句丽蛮夷”或“句丽胡”；“故高句丽胡之国”为“句丽胡”或“句丽蛮夷”之国。当然，仅凭酈道元一家所言，加上《水经注》成书时间较晚，尚难断定句丽人在置高句丽县之前已经建立了国家。为进一步搞

5) 《汉书·地理志下》玄菟郡条。

6) 汉桑钦撰，北魏酈道元撰注：《水经注卷十四、小辽东》有些版本亦载为“故高句丽胡之国也”。暂取载为“古高句丽胡之国也”的版本为确，留后待考。

清这一点，有必要考察一下中国正史和《三国史记》中出现的沸流国及其国王松让。

对沸流国及其国王松让，仅《三国史记》有较详细的记载。在考查沸流国和国王松让的时候，《三国史记》的以下几条史料应引起我们充分的重视：

史料1：东明王一年（前37年），“松让曰：‘我累世为王，地小不容二主，君立都日浅；为我附庸可乎’”。《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东明王

史料2：东明王二年（前36年），“夏六月，松让以国来降，以其地为多勿都，封松让为主，丽语谓复旧土为多勿，故以名焉”。《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东明王

史料3：琉璃王二年（前18年），“秋七月，纳多勿侯松让之女为妃”。《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琉璃王

从史料1来看，早在朱蒙建国之前，浑江流域就已经存在了沸流国，而且松让的“累世为王”之言，表明沸流国已在此地区有了较悠久的历史。结合前述之古代高句丽被称之为句丽胡或句丽蛮夷的记载，则松让的此“累世为王”之地应是句丽地区。松让对朱蒙说“地小不容二主”，表明松让是包括朱蒙建都立国的卒木地区在内的句丽地区之主，从而不能允许新的势力并立或代替自己的地位。而“君立都日浅，为我附庸可乎”之言则表明处于该地区领导地位的沸流国松让，并非要求直接统治卒本地区，而仅要求朱蒙“为我附庸”，即承认朱蒙在卒本地区的统治地位的基础上，要求朱蒙附属于自己，从而

表明沸流国在句丽地区的领导地位是指句丽地区部落联合体内的领导权，而不是成熟国家形态下的最高王权。也就是说，早在朱蒙建国之前，句丽地区就已经形成了以沸流国王为中心的部落联合体。从人类文化学与文化分类的概念上来讲，这种已经跨越部落联盟体，又没有能进入成熟国家形态的部落联合体，似应看成早期国家或国家雏形——酋邦⁷⁾。

从史料2, 3关于从“封松让为主”和“纳多勿侯松让之女为妃”的记载来看，投降于高句丽的沸流国在高句丽初期拥有相当的独立性和自主性，这种对沸流国的特殊待遇，恰好反映了沸流国在句丽地区所拥有过的上述特殊地位。

为更深入地论证这一点，有必要结合中国正史中的关于涓奴部与句丽侯的记载，进行进一步的分析考证。

II. 涓奴部与句丽侯

沸流部是《三国史记》中出现的诸部中惟一未加“那”字的部(蚕支落部除外)，似可推断为在高们丽诸部中，享有特殊地位的部。而且从《三国史记》没有记载朱蒙降服掾那部、贯那部、桓那部的记事，而惟

7) 酋邦是现代人类学关于人类社会与文化分类的一个概念，同时它实际上也含有关于人类早期政治组织演进的阶段性内涵，应看成早期国家或国家的雏形。酋邦有别于部落联盟，是作为征服结果的部落联合体。而部落联盟是没有最高首领的部落联合体，在部落联盟中参加联盟的各部落保持各自的独立，相互间地位平等。参阅谢维扬著：《中国早期国家》三、四章。

独详细记载朱蒙降服沸流国的经过的情况中，也可以看出沸流部在高句丽诸部中的这种特殊性。那么，在中国正史中出现的高句丽五部中，哪个部是具有这种特殊地位的沸流部呢？为此，需关注下述几条记载。

史料4：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涓奴部本国主，今虽不王，适统大人，得称古雏加，亦得立宗庙，祠灵星、社稷。《三国志卷三十、魏书、高句丽传》

史料5：拔奇怨为兄而不得立，与涓奴加各将下户三万余口诣康降，还住沸流水。《三国志卷三十、魏书、高句丽传》

史料6：正州，本沸流王故地。为公孙康所并。渤海置沸流郡，有沸流水。《辽史卷三八、志第八地理志》东京道

从史料4来看，涓奴部应该是在高句丽五部中具有特殊地位的部。这种特殊地位可以从两个方面看出。一是高句丽五部中的最初时期由涓奴部为王，后来被桂娄部所取代；二是其在五部中的地位被桂娄部代替后，仍可享受只有王室才可享受的“立宗庙，祠灵星、社稷”的特权，且可“适统大人”，得称王之宗族的大加才可使用的“古雏加”之号。结合史料1、2关于宋让“累世为王”和“封宋让为主”的记载，则可推测沸流部就是本国主，并在被桂娄部取代之后仍享有这种特殊地位涓奴部。

从史料5来看，拔奇与涓奴加诣康降，还住沸流水的记载表明，涓奴部原本就住在沸流水，其诣康降，也应是从沸流水前往辽东降公孙康，所以才会有“还住”之言。此地区亦当随拔奇和涓奴加的投降而成

为辽东公孙氏所辖地区。

如果联系史料6的记载，则可以进一步确定涓奴部所居地正是“为公孙康所并”，并“有沸流水”古沸流国所在地，即“沸流王故地”。所以才有“还住沸流水”的记载。涓奴部所居地是沸流王故地的记载，亦证明此沸流部是涓奴部。

那么，沸流国是什么时候形成的，其与玄菟高句丽县的关系又是如何呢？关于沸流国的形成时间，史书中没有明确的记载，仅《三国志》中有松让“我累世为王”的含糊记载。如何理解此“累世”的时间跨度，似应成为句丽地区形成以沸流国为中心的五族联合体的时间表⁸⁾。笔者认为此沸流国的形成时间，至少在汉昭帝元凤六年(公元前75年)玄菟西迁辽东设置高句丽县之前。

关于沸流国与玄菟高句丽的关系，史书也无明确记载。依笔者所见，西汉王朝在句丽地区设置高句丽县时，就已经封在句丽地区拥有领导地位的沸流国国王为候。

从史料2来看，松让来降后，高句丽把原沸流国之地命名为多勿都。而“丽语谓复旧土为多勿，故以名焉”。之语，表明了沸流国在松让来降之前曾隶属于其它政治势力，所以才能有“复旧土”之说。从沸流国的地理位置方面来看，纵观当时的浑江流域的周边局势，似乎应把此政治势力看成位于其西部的前汉王朝之玄菟郡。

8) 关于高句丽的五族，《三国志》记载为“本有五族”，而《后汉书》记载为“凡有五族”。虽一字之差，却有两个截然不同的内涵。即“本”表示原本有五族之意，“凡”表示共有五族之。《三国志》成书早于《后汉书》，固采《三国志》之记载。

从史料3的高句丽的第二代国王琉璃王娶多勿侯松让之女为妃的记载来看，高句丽人对松让的称谓不仅是沸流国王或朱蒙所赐的沸流国主，还有“多勿侯”之称。综观高句丽初期的历史，高句丽并无加爵为侯的例子，而仅有加爵为大主簿、沛者、于台的例子。与此相反，汉王朝则有很多对边疆地区诸民族的国王、渠帅或降将，加爵为侯的例子。如前汉时的柴柯郡之属县漏卧和句町，分别有漏卧侯和何町王；灭掉古朝鲜后，封五名降相和降将为侯等⁹⁾。所以，我们似乎可以认为松让的“侯”爵位，不是来之于高句丽赐封，而是来之于汉王朝的赐封。而这种赐封，应该是伴随了《三国志》所载的“鼓吹技人”和“朝服衣积”的赐予。依笔者的推测，沸流国王松让的侯爵位可能是世袭的，即在前汉王朝在句丽地区设置高句丽县时，就已经封在句丽地区拥有霸主地位的沸流国国王为侯。

从前汉王朝在东秽、东沃沮地区封侯授爵的情况来看，前汉王朝在句丽地区封侯授爵完全有可能性。前汉设置真番、临屯、玄菟等郡，并非是通过对这些地区的征服战争，而仅是在征服古朝鲜后，以其余威在这些地区设置郡县。对这些郡县一开始是采取“取吏于辽东”的管辖方式，不久改成设置县侯，改成侯国的管辖方式。关于这种封侯授爵，《三国志》的东夷传和《后汉书》的东夷传中均有所载：

史料7：汉以土地广远，在单单大领之东，分置东部都尉，治不尉

9) 《汉书·地理志上》柴柯郡条；《汉书·西南夷两粤朝鲜传》朝鲜传。

城，别主领东七县，时沃沮亦皆为县。汉(光)[建]武六年，省边郡，都尉由此罢。其后皆以县中渠帅为县侯，不耐、华丽、沃沮诸县皆为侯国。《三国志、魏书、东夷传》东沃沮

史料8：自汉以来，其官有侯、邑君、三老，统主下户。……自单单大领西属乐浪，自领以东七县，都尉主之，皆以秽为民。后省都尉，封其县中渠帅为侯，今不耐秽皆其种也。《三国志、魏书、东夷传》秽传

从上述史料来看，对沃沮地区和东秽人居住的领东七县，在玄菟西迁，其地归属乐浪后，实行了设置都尉管理的管辖方式，并授予当地上层人物“侯、邑君、三老”等爵位和官位，并让他们“统主下户”。到后汉的光武时期，则“省都尉，封县中渠帅为县侯”，使“不耐、华丽、沃沮诸县皆为侯国”。

玄菟西迁后，高句丽县对句丽地区的统治，也应该是实行了上述在沃沮与秽地使用的这种的管辖方式。所以，史书中出现的句丽县侯很可能时当时在句丽地区拥有领导地位的沸流国王。

III. 沸流国的地理位置

关于沸流国所处的地理位置，过去一般都根据《三国史记》中关于朱蒙“结庐于沸流水上居之，国号高句丽”。的记载和好太王碑“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建都焉”等记载，断沸流水为今浑江，沸流国位于沸流水上游则当位于今通化境内。但是，自70年代和80年代相继在

今新宾境内的富尔江流域发现三座早期高句丽的山城遗址，并在其周围地区发现早期高句丽积石墓以后，则开始把寻找沸流国位置的目光转向了富尔江流域¹⁰⁾。

关于沸流国，《辽史·地理志二》涿州条云：“桓州，高丽中都城，……晋康帝建元初为慕容瑰所败，宫室焚荡，隶涿州。在西南二百里。……正州，本沸流王故地。为公孙康所并。渤海置沸流郡，有沸流水。户五百，隶涿州，在州西北三百八十里”¹¹⁾。所以，判定沸流国的位置，可参照的史料有《三国史记》中，关于朱蒙前往沸流国是逆沸流水而上的记载和上述《辽史·地理志》的相关记载。

渤海的涿州在今吉林省临江县，桓州则为今集安。正州的位置在涿州西北三百八十里，则应该在今新宾、桓仁县之间的富尔江流域。且此“为公孙康所并”之沸流国的位置，如位于通化地区尚嫌距临江过近。因为临江距桓州(集安)的距离为二百里，而临江距今通化地区的浑江上游，要远比距集安的距离短，不可能出现上述的临江距通化地区为三百八十里。合理的解释只能是沸流国不是位于浑江上游的通化地区，而是位于富尔江流域或其西部地区。此外，如果说沸流国位于通化地区，则显得距辽东、玄菟过远。沸流国位于富尔江流域，则沸流国地近于辽东，且与玄菟郡相连，“为公孙康所并”有其可信性。另

10) 抚顺博物馆：〈辽宁新宾县转水湖山城〉，《北方文物》，1991年第1期；抚顺博物馆、新宾县文化局：〈辽宁新宾县黑沟高句丽山城〉，《文物》，1985年第2期。

11) 《辽史·地理志》东京道涿州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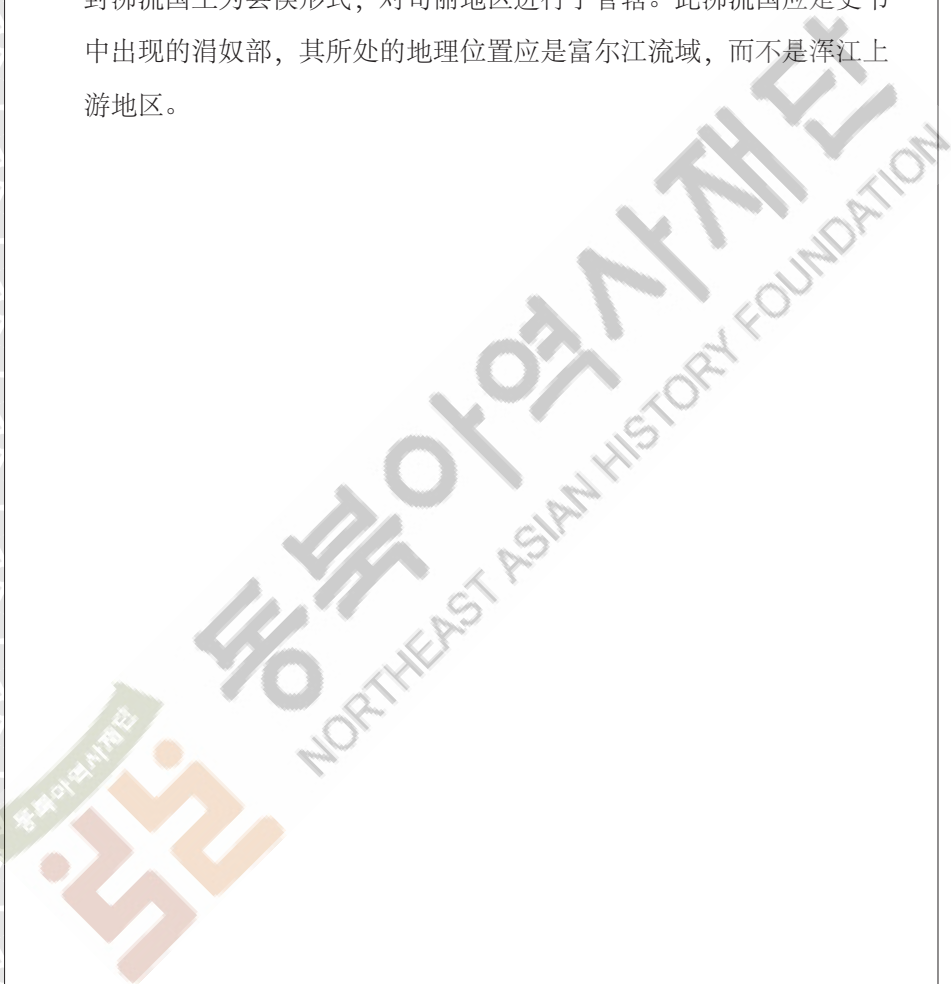
据《桓仁县志》载：“富尔江发源于兴京之金厂崖，长约三百余里，自北而南……土人以河流甚急，中多巨石参差错列，水激石鸣，故呼曰响水河子”。由于响水河子水激石鸣，古代人称之为沸流水有其可能性。古人之沸流水之称谓，还有可能是对沸流水之主支流的泛称，富尔与沸流音近(译成朝文则更相似)亦有可能是沸流之转音。即古代人有可能把今天的浑江及其支流富尔江，都称之为沸流水。所以，沸流国位于富尔江流域，也不与《三国史记》中关于沸流国位于沸流水上游的记载相矛盾。

富尔江流域发现的可确认的早期高句丽山城有新宾县红庙子乡四道沟村的黑沟山城和响水河子乡转水湖村北的转水湖山城以及旺清门附近的孤脚山山城。其中前两座山城的城墙以扁锥体楔形石构筑墙表，与霸王朝、五女、丸都等高句丽早期山城相同，而有别于高句丽晚期城址的土石混筑之法。此外，在转水湖山城附近的团山子遗址和黑沟山城内发现的陶器，也均被判明是属于早期高句丽遗物，所以，诸学者把此两座山城，比定为与霸王朝、五女、丸都等高句丽早期山城相同或更早的高句丽山城¹²⁾。所以，从考古学的角度来看，沸流国位于富尔江流域应该是有其可能性。

综上所述，即早在汉四郡设置之前，被称之为句丽的古高句丽人，就生活今天的富尔江和浑江及鸭绿江中游流域，并至少在玄菟西

12) 抚顺博物馆：〈辽宁新宾县转水湖山城〉，《北方文物》，1991年第1期；抚顺博物馆、新宾县文化局：〈辽宁省新宾县黑沟高句丽山城〉，《文物》，1985年第2期。

迁辽东之前已经从秽貊人中分离成句丽人，并形成了以沸流国为中心的古代酋邦。即句丽五族联合体。到玄菟西迁辽东地区之时，采取了封沸流国王为县侯形式，对句丽地区进行了管辖。此沸流国应是史书中出现的涓奴部，其所处的地理位置应是富尔江流域，而不是浑江上游地区。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와 요동 · 현도군

—
高句麗与辽东、玄菟郡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윤용구 | 尹龍九



THE HOLOCAUST CENT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와 요동·현도군 - 수당 군신의 '군현회복론' 검토

-
- **윤용구** (인천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담당관)
-

I. 머리말

중국은 고구려가 현재의 중국 경내(境內)인 현도군[玄菟郡(혹은 요동군(遼東郡))]에서 건국 된 후 한(漢)에 귀속하였으며, 시종 군현(郡縣)의 통제를 받으며 예속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¹⁾ 이른바 고구려(高句麗)의 '군현종속론(郡縣從屬論)'이다. 또한 배구(裴矩)와 당태종(唐太宗) 등 수당(隋唐)의 군신들이 한 말을 전거(典據)로 삼아 고구려 정벌은 과거 한군현(漢郡縣)

1) 余昊奎(2003),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史 研究現況」, 『韓國古代史研究』 31, 한국고대사학회; 奇修延(2007), 「中國學界의 漢四郡 研究 동향과 분석」,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이 설치되었던 중국의 고유 영토를 회복하여 전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²⁾ 곧 수당의 고구려 원정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잃어버린 군현고지(郡縣紘地)에 대한 회복과정이라는 것이다. ‘군현회복론(郡縣回復論)’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기원전 1세기를 전후 압록강 중류 유역과 동가강 일원에서 주몽집단(朱蒙集團)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를 이루어 한의 현도군을 축출하고 국가를 건국하였으며, 이후 독자적인 국가체제를 완비하면서 성장해간 것으로³⁾ 보고 있다. 나아가 70여 년에 걸친 수당과 고구려 사이의 전쟁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패권을 두고, 두 나라의 명운을 건장기간의 전쟁이었으며, 이에서 패배한 고구려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지배를 받았으나, 곧 그 주민과 문화는 발해(渤海)와 신라(新羅)로 흡수되어 계승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⁴⁾

현도군을 비롯한 중국군현과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연구는 1980년대 행한 광범위한 문헌사료의 집대성 위에서 수행한 역사지리상의 세밀한 문헌고증에 힘입은 결과이다.⁵⁾ 그 가운데 고구려를 중국 군현의 종속(從屬)과 회복

2) 대표적인 것으로 秦升陽(2000), 「隋唐君臣對高句麗歸屬問題的認識」, 楊春吉·耿鐵華 主編,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를 들 수 있지만, 隋唐의 高句麗 遠征을 郡縣紘地에 대한 영토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서술이다.

3) 余昊奎(1996),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3~42쪽; 노태돈(1999), 「주몽설화와 계루부(桂婁部)의 기원」,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60~62쪽.

4) 李昊榮(1996), 「수·당과의 전쟁」,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09~144쪽; 朴京哲(2004), 「中國學界의 高句麗 對隋唐 70年戰爭認識의 批判的 檢討」, 『韓國古代史研究』 33, 한국고대사학회.

(回復)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현재 중국의 고구려 귀속 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⁶⁾ 멀리는 수당 군신대외관(君臣對外觀)에 뿌리를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를 중국이 회복해야 할 ‘군현고지’라는 배구의 논리는 수당의 고구려 귀속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구체적인 규명이 요구되는 문제이다.⁷⁾

그러나 수당 이전 중국왕조에서 고구려에 대한 영토적 연고권을 주장하는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만이(蠻夷(朝鮮과 濊貊 및 句麗))의 땅으로 묘사되어

- 5) 1980년대 말을 지나면서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지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쏠진지·왕찬허우가 주도하였다. 이로써 日帝 滿鐵調査部에서 행한 연구 성과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孫進己·王綿厚(1989), 「前漢時期東北的民族建置」,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王綿厚·孫進己(1989), 「後漢時期東北的行政建置」,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王綿厚·孫進己(1989), 「三國(魏)時期東北的行政建置」,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孫進己·王綿厚(1989), 「晉代東北的行政建置」,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李建才(1990), 「玄菟郡的建立和遷移」, 『東方地方史研究』 1; 李建才(1993), 「關於漢代遼東樂浪兩郡地理位置問題的探討」, 『社會科學戰線』 1; 李建才(1995), 「眞番郡考評說」, 『東方史地考略續集』, 吉林文史出版社.
- 6) 1907년 張炳麟은 새로 건국될 중화민국의 영토목표를 “선조 漢의 군현을 경계로 하고 그 民을 華民으로 삼고 …조선과 베트남 두 군(郡)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다. 유용태(2006), 「중화민족론과 동북지형학, 동북공정의 논리 근거」, 『환호속의 경중』, 휴머니스트, 211쪽. 현재의 동북공정에 따른 고구려 귀속문제와 동일한 논리라 하겠다.
- 7)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동북지방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고구려의 郡縣의 從屬說을 明示的으로 드러내었다. 2000년에 간행된 楊春吉·耿鐵華 主編, 『高句麗歸屬問題研究』, 吉林文史出版社는 郡縣從屬論과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한 중국학자의 견해를 집대성한 연구 성과이다. 이 책은 최근 한국에서 完譯되었다. 신종원 편(2007), 『중국인들의 고구려 연구』, 동북아역사총서 7, 한국학중앙연구원.

있다. 곧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의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라 하였고, 『후한서(後漢書)』 「예전(濊傳)」에는 “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당 이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배구의 군현회복론의 제기는 고구려 원정을 앞둔 7세기 초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우선 수당군신(隋唐君臣) 특히 배구의 군현회복론의 생성배경에 대하여 시론적인 검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사(高句麗史)를 현도군 등 군현의 종속 아래 파악되었다가, 일시 통제에서 벗어난 것을 수당 대 고구려 원정을 통해 잃어버린 군현고지를 회복했다는 중국학계의 이해를 되새겨보고자 한다.⁸⁾

II. 수당군신의 ‘군현회복론’

607년 8월, 수양제(隋煬帝)가 돌궐(突厥)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에서 뜻하지 않게 고구려 사신(使臣)을 맞닥뜨렸을 때, 배구가 한 말을 전거로 삼아 중국학계는 고구려 정벌이 중국의 고유 영토를 회복하여 전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즉 수양제에게 고구려 정벌을 주장한 인물이자 고구려에 대한 정벌책을 입안하기도 한 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1.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孤竹國)으로 周 대에는 기자를 봉한 곳이고 漢 대에는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다스렸고) 진(晉) 역시 요동(遼東)을 통치하였습니다. 지금은 신(臣)으로 여기지 않고 외역(外域)

8) 본고는 필자의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北方史論叢』 5(고구려연구재단, 2005)에서 裴矩의 郡縣回復論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改稿한 것이다.

으로 여기고 있는데 …… 어찌 그대로 두어 이 ‘의관(衣冠)의 땅’을 의연히 만백(蠻貊)의 향(鄉)으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隋書』 63, 「襄矩傳」)

2. 요동 땅은 주(周)가 기자(箕子)의 나라를 만든 곳으로 한(漢) 왕조의 현도군(玄菟郡)일 뿐입니다. 위진(魏晉) 이전에는 가까이 제봉(提封) 안에 있었으니 불신(不臣)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 중국과 이적(夷狄)은 태양과 열성(列星)의 관계와 같으니 이치상 낮추고 높일 수가 없습니다. 『舊唐書』 119, 「高句麗傳」)

A-1에서 배구는 고구려가 차지한 고군(故郡)을 “만백(蠻貊)에게 빼앗긴 의관(衣冠)의 땅, 즉 중국 영토”로 주장함으로써 그 신속의 불가피성과 고구려에 대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촉구하였다.⁹⁾ A-2는 고구려의 칭신(稱臣)에 대한 당고조(唐高祖)의 조서작성을 반대하면서 배구와 중서시랑(中書侍郎) 온언박(溫彦博)이 함께 말한 것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다.

수당 대 군신이 고구려를 본래 중국 영토라고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가 중국 영토임을 묘사한 표현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607年 黃門侍郎 裴矩：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今乃不臣 別爲外域
- ② 612年 隋 煬帝：暎彼華壤 翦爲夷類 歷年永久

9) 李成珪(2004), 「中國古文南大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32~33쪽; 辻正博(2007), 「麴氏高昌國と中國王朝-朝貢・羈靡・册封・征服」, 夫馬進 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77쪽.

- ③ 624年 侍中 裴矩·中書侍郎 溫彥博：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漢家玄菟郡耳 魏晉已前近在提封之內 不可許以不臣
- ④ 636年 隋書(東夷傳 史論) 史臣：遼東之地 不列於郡縣 久矣
- ⑤ 641年 唐太宗：高麗本四郡地耳
- ⑥ 643年 司農丞 相里玄獎：既往之事 焉可追論 至於遼東諸城 本皆中國郡縣 中國尚且不言
- ⑦ 644年 唐太宗：遼東故中國地
- ⑧ 645年 唐太宗：遼東本中國之地

수(隋) 대에는 2건의 기록이 보이는데, 앞서 인용한 607년 황문시랑 배구의 주문(奏文)을 비롯하여, 612년 고구려 원정에 앞서 수양제가 내린 조문(詔文)에 “화양(華曩)이 잘리어 이류(夷類)가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636년 완료된 『수서』 「동이열전(東夷列傳)」 말미의 사론(史論)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요동의 땅이 군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는 당(唐) 대에도 5건의 기록이 찾아진다. 624년 당고조(高祖)에게 주상(奏上)한 배구와 온언박의 설명은 607년 배구가 수양제에게 올린 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고구려를 고죽국(孤竹國)이라 명시한 첫 부분이 생략되었을 따름이다. 나머지 4건의 기록 가운데 3건이 당태종이 641년, 644년, 645년에 걸쳐 고구려 원정의 당 위성을 여러 신하와 기로(耆老)들에게 역설한 내용이다. 643년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내진 상리현장(相里玄獎)이 연개소문에게 요구한 내용은 군현회복론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고 있어서 주목된다. 곧 고구려가 과거 중국의 군현이었다 해도 그것은 ‘已往之事’, 이미 당시 불문(不問)에 부쳐진 지나간 과거이며,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영역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¹⁰⁾

10) 박한제(2006), 「隋唐 世界帝國과 高句麗-朝貢秩序 및 羈靡體制와 관련하여」, 『한

이처럼 고구려는 신속(臣屬)을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영토라는 인식이 수당 대 보편화된 듯 여겨진다.¹¹⁾ 물론 수당 대 균현회복론이 고구려를 외역[外域: 절역(絕域), 이역(異域)]으로 보고 위무(慰撫)나 정벌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황제의 친정(親征)은 더욱 반대하던 균신의 논의 속에서 진행되었다.¹²⁾ 고구려 원정의 반대 논의를 수양제와 당태종이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균현회복론은 전쟁 동원의 명분으로 내세워졌을 것이다. 실제로 수양제의 제1차 고구려 원정길에 나선 행군(行軍)의 명칭에 요동, 현도군 및 낙랑군의 현명(縣名)이 붙여졌다. 고구려 원정이 한군현에 대한 고토회복(故土回復)이라는 명분과 부합되는 대목이다.¹³⁾

국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연구총서 15), 156~163쪽.

11) 黃約瑟(1994), 「수나라의 高句麗에 대한 認識을 시론함」, 『高句麗文化國際學術會論文集』, (社)海外韓民族研究所; 黃約瑟(1995), 「試論隋代對高句麗的認識」, 『韓國學報』 13, 再收錄에서 裴矩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隋 煬帝를 포함한 통치자 일반의 생각(86쪽)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楊雨舒도 고구려에 대한 主戰과 撫夷의 논쟁이 있었지만, 裴矩의 견해가 주류였다고 보고 있다. 楊雨舒(2008), 「試論隋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及政策」, 『東北史地』 4, 23~27쪽.

12) 金秀鎭(2007), 「隋唐의 高句麗 失地論과 그 배경-對高句麗戰 명분의 한 측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左第一軍可饒方道 第二軍可長岑道 第三軍可海冥道 第四軍可蓋馬道 第五軍可建安道 第六軍可南蘇道 第七軍可遼東道 第八軍可玄菟道 第九軍可扶餘道 第十軍可朝鮮道 第十一軍可沃沮道 第十二軍可樂浪道.

右第一軍可黏蟬道 第二軍可含資道 第三軍可渾彌道 第四軍可臨屯道 第五軍可候城道 第六軍可提奚道 第七軍可踏頓道 第八軍可肅慎道 第九軍可碣石道 第十軍可東曠道 第十一軍可帶方道 第十二軍可襄平道 凡此衆軍 先奉廟略駱驛 引途總集平壤. (『隋書』 4, 煬帝 下)

607년과 624년의 주상을 통해 수당의 고구려 원정의 도화선과 논리를 제공한 것은 배구였다. 배구는 세간에 ‘오귀(五貴)[혹은 칠귀(七貴)]’라 불린 수 양제의 최측근으로서¹⁴⁾ 병무(兵務)를 비롯한 대외업무를 총괄하였다.¹⁵⁾ 돌궐과 서역을 돌며 회유와 협박 그리고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돌궐을 분리조정하고 그 여력으로 서역과의 통교를 이끌어냄으로써 고구려 정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배구는 자신의 목표를 위정자를 설득하여 끝까지 관철시키는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세밀한 정보 수집과 대책이 뒤따랐다. 서역(西域)과의 통교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서역도기(西域圖記)』이고 보면, 역시 그가 지은 『고려풍속(高麗風俗)』은 고구려 원정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¹⁶⁾

배구의 주상을 명분삼아 수양제는 애초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유성(柳城) 동쪽에서 요하에 이르는 지역을 탈취한다든지 고구려를 정복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있지만,¹⁷⁾ 실제 출정에 앞서 내린 조서

14) 『隋書』 67, 「裴矩傳」에 “顧謂宇文述牛弘曰 裴矩 大識朕意 凡所陳奏皆朕之成算 未發之頃 矩輒以聞”이라는 기록은 隋煬帝가裴矩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15) 『隋書』 41, 「蘇威傳」, “帝以威先朝舊臣漸加委任 後歲餘復爲納言 與左翊衛大將軍宇文述 黃門侍郎裴矩 御史大夫裴蘊內史侍郎虞世基 參掌朝政 時人稱爲‘五貴’ 及遼東之役 以本官領左武衛大將軍 進位光祿大夫賜爵房陵侯”.

『資治通鑑』 180, 大業 2년 秋7월, “時牛弘爲吏部尙書 不得專行其職 別勅納言蘇威 左翊衛大將軍宇文述 左驍衛大將軍張瑾 內史侍郎虞世基 御史大夫裴蘊 黃門侍郎裴矩 參掌選事 時人謂之‘選曹七貴’ 雖七人同在坐 然與奪之筆虞世基獨 專之 受納賄略多者超越等倫 無者注色而已”.

16) 齊陳駿(1983), 「裴矩功過述評」, 『敦煌學輯刊』 創刊號, 蘭州大學出版社, 508쪽; 掛田良雄(1992), 「裴矩與粟特人」, 『防衛大學校紀要』(外國語學篇) 60, 161~164쪽.

17) 韓昇(1995), 「隋と高句麗の國際政治關係をめぐって」, 『堀敏一先生古稀記念論叢』.

다소 의문이 있다. 고죽국은 협의로는 란하(濛河) 유역의 노룡(盧龍)을 가리키나, 광의로는 이로부터 동북의 대능하 유역의 유성(柳城)을 중심으로 한 요서(遼西) 일대를 통칭하는 지명이다.¹⁸⁾ 근래 객좌(喀佐) 북동촌 1호 저장갱에서 고죽명(孤竹銘) 동뢰(銅罍)가 출토된 이후로는 대능하 중상류지역에 해당하는 지명으로¹⁹⁾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능하 중상류는 고구려의 영역을 상징하거나,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죽국을 고구려라 한 배구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천관우(千寬宇)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다.

그러면 裴矩의 奏上에 보이는 ‘高麗之地 本孤竹國也’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아마도 ① 箕子の 封地는 孤竹國 ② 箕子朝鮮은 오늘날의 高句麗地(배구 당시의 고구려 수도는 평양) — 따라서, ③ 高句麗 地가 본래는 孤竹國이라는 비약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사기』 嬰陽紀에 “裴矩說帝曰 高句麗 本箕子所封之地”라 한 것도 같은 것이다.²⁰⁾

배구가 고죽국을 고구려와 연결시킨 것을 비약(飛躍)으로 표현하였다.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데, 청대학자 고염무(顧炎武)는 배구가 양제를 고구려 출병(出兵)으로 이끌기 위하여 꾸며낸 말로 이해하였다.²¹⁾ 그러나 배구의 주장

18) 千寬宇(1989), 『箕子攷』,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70~73쪽.

19) 孟古托力(2003), 『孤竹國釋論』, 『中國東北疆域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03~120쪽.

20) 千寬宇(1989), 앞의 글, 71쪽. 최근 孤竹國의 관련 인물이 箕子와 관련된 殷末의 賢人이라는 측면에서 고구려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수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李成珪(2004),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연구의 방향』, 학연문화사].

21) 『隋裴矩又言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 則恐逢君之指而爲是說耳』(『營平二州地名

【표 1】수당군신의 고구려=군현고지 관련 기사

<p>隋代</p>	<p>① (大業3年8月) 從帝巡于塞北幸啓民帳時 高麗遣使先通于突厥 啓民不敢隱引之 見帝 矩因奏狀曰 高麗之地 本孤竹國也 周代以之封于箕子 漢世分爲三郡 晉氏亦統遼東 今乃不臣 別爲外域²²⁾ 故先帝疾焉欲征之久矣 但以楊諒不肖 師出無功 當陛下之時 安得不事 使此冠帶之境 仍爲蠻貊之列乎 今其使者朝於突厥親見啓民 合國從化必懼皇靈之遠 暢慮後伏之先亡脅令入朝當可致也 帝曰如何 矩曰 請面詔其使放還本國 遣語其王令速朝覲 不然者 當率突厥即日誅之 帝納焉 高元不用命 始建征遼之策 王師臨遼 以本官領武賁郎將 明年復從至遼東 兵部侍郎斛斯政亡入高麗 帝令矩兼掌兵事, (『隋書』 67, 「裴矩傳」)</p> <p>② 下詔曰 而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薦食遼穢之境 雖復漢 魏誅戮 巢窟暫傾 亂離多阻 種落還集 萃州藪於往代 播實繁以迄今 曠彼華壤 翦爲夷類 歷年永久…… (『隋書』 4, 大業 8年 春正月 壬午條)</p> <p>③ 史臣曰 務廣德者昌 務廣地者亡 然遼東之地 不列於郡縣 久矣, (『隋書』 81, 「東夷列傳」 末尾 史論)</p>
<p>唐代</p>	<p>④ (武德7年)²³⁾……高祖嘗謂侍臣曰 名實之間理須相副 高麗稱臣於隋 終拒場帝 此亦何臣之有 朕敬於萬物不欲驕貴 但據有土守務共安人 何必令其稱臣 以自尊大即爲詔述朕此懷也 侍中裴矩中書侍郎溫彥博曰 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漢家玄菟郡耳 魏晉已前近在提封之內 不可許以不臣 且中國之於夷狄 猶太陽之對列星 理無降尊俯同藩服 高祖乃止, (『舊唐書』 199, 「高麗傳」)</p> <p>⑤ 上曰 高麗本四郡地耳 吾發卒數萬攻遼東²⁴⁾ 彼必傾國救之 別遣舟師出東萊自海道趨平壤 水陸合勢取之不難 但山東州縣 彫瘵未復 吾不欲勞之耳, (『資治通鑑』 196, 貞觀15年 8月 丁亥條)</p> <p>⑥ 相里玄獎至平壤 莫離支已將兵擊新羅破其兩城 高麗王使召之乃還 玄獎論使勿攻新羅 莫離支曰 昔隋人入寇 新羅乘釁侵我地五百里 自非歸我侵地恐兵未能已 玄獎曰 既往之事焉可追論 至於遼東諸城 本皆中國郡縣 中國尚且不言 高麗豈得必求故地 莫離支竟不從²⁵⁾, (『資治通鑑』 197, 貞觀17年 春正月 壬寅條)</p> <p>⑦ (貞觀18年) 於是帝欲自將討之 召長安耆老勞曰 遼東故中國地 而莫離支賊殺其主 朕將自行經略之 故與父老約 子若孫從我行 我能拊循之 毋庸卹也 卽厚賜布粟 群臣皆勸帝毋行 帝曰吾知之矣 去本而就末 捨高以取下 釋近而之遠 三者爲不祥 伐高麗是也, 然蓋蘇文弒君 又戮大臣……, (『新唐書』 220, 「高麗傳」)</p> <p>⑧ 上謂侍臣曰 遼東本中國之地 隋氏四出師而不能得 朕今東征欲爲中國報子弟之讎, (『資治通鑑』 197, 貞觀19年 3月 丁亥條)</p>

외에 고구려 원정에 대한 군신 대부분의 반대 속에서,²⁶⁾ 그러한 비약과 거짓 말이 통용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배구가 요서 지역을 상징하는 고죽국을 고구려와 연관시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III. 군현회복론의 생성배경

일반적으로 5세기 후반 들어 고구려의 요하(遼河) 방면으로의 진출은 두 갈래로 나뉘어 요하 하류를 중심으로 한 북위(北魏)와의 경계선, 요하 중·상류를 중심으로 한 거란(契丹)과의 경계선이 그것이다.²⁷⁾ 고구려는 북위와 직접적인 전쟁을 치루지 않았고 고구려도 북중국으로 진출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서쪽으로는 진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7세기 들어

記, 顧炎武撰, 商 孤竹國). 이를 이어 배구의 언급은 고구려가 야만의 땅이지만, 본래 중화의 문화를 입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修辭辻正博(2007), 앞의 글, 78쪽]로 보기도 한다.

22) 이 부분에 대하여 『資治通鑑』(181, 煬帝 大業6年 冬12月)에는 「高麗本 箕子所封之地 漢晉皆爲郡縣 今乃不臣 別爲異域」라 하여 字句에 異同이 있다.

23) 『新唐書』 220, 「高麗傳」, 武德 3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24) 『新唐書』 220, 「高麗傳」, “帝曰高麗地 止四郡 我發卒數萬攻遼東諸城必救”라 기록하였다.

25) 『新唐書』 220, 「高麗傳」, “玄獎曰 往事烏足論邪 遼東故中國郡縣 天子且不取高麗焉 得違詔不從”이라 기록하였다.

26) 金秀鎭(2007), 앞의 글, 56쪽 별표(高句麗戰 관련 隋唐 조정의 논의 ①(隋) 참조). 이에 따르면 598년에서 616년에 걸쳐 총 12건의 논의 가운데 찬성은 607년 裴矩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이 가운데 친정 반대 2명 포함) 의견을 보였다.

27) 宋基豪(2007), 「5세기 후반 高句麗의 北境」,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지도의 현황과 과제』, 東北亞歷史地圖編纂委員會 第1回 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85~196쪽.

수당 대의 관련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사이 고구려의 서쪽 경계선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곧 요서로의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구려의 서요하(西遼河) 방면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이미 4세기 말 광개토태왕 대 비려(碑麗) 정벌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5세기 후반에 들어서 였다. 그 대상은 시라무렌하 유역의 거란과 요하에서 서쪽으로 대능하(大凌河)에 이르는 유성(柳城) 이동(以東)의 지역이었다.

- B-1. 太和三年 高句麗竊與蠕蠕謀 欲取地豆干以分之 契丹懼其侵軼 其莫弗賀勿干率其部落車三千乘 衆萬餘口 驅徒雜畜 求入內附 止於白狼水東. (『魏書』 100, 「契丹傳」)
2. 當後魏時 爲高麗所侵 部落萬餘口求內附 止于白狼河 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隋書』 84, 「契丹傳」)
3. 先是 契丹虜掠邊民六十餘口 又爲高麗擁掠東歸 軌具聞其狀 移書徵之 雲悉資給遣還. (『魏書』 32, 「封懿 附 封軌傳」)

사료 B-1은 479년 고구려의 영향력이 지두우(地豆于) 남쪽 거란족 지역에 침투하자 위협을 느낀 거란족의 일부가 백랑하(白狼河) 유역, 곧 화룡일대로 남하하여 북위에 내부(內附)한 것을 전한다. 사료 B-2를 보면 거란의 다수 집단은 원 거주지에 남아 있다가 고구려로 귀부하였다. 또한 사료 B-3은 태화 연간(477~499) 북위의 변경을 노략질하고 주민을 사로잡아 돌아가던 거란인들이 고구려에 의해 포획되어 끌려갔다가 뒤에 송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구려는 5세기 말 서요하 서북방 시라무렌하 유역의 거란족을 구축하고 그 일부를 사실상 부용(附庸) 집단으로 끌어들이었으며, 그 북방의 지두우를 유연과 함께 분할을 시도하는 등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6세기 말 수의 요서군(遼西郡) 설치에 이은 세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에도 시라무렌하 유역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 C-1. (開皇)六年 其諸部相攻擊 久不止 又與突厥相侵 高祖使使責讓之 其國遣使詣闕 頓頽謝罪 其後契丹別 部出伏等背高麗 率衆內附 高祖納之 安置於渴溪那頽之北. (『隋書』 84, 「契丹傳」)
2. 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渤碣之間 荐食遼滅之境 雖復漢魏誅戮 巢窟暫傾 亂離多阻 種落還集……乃兼契丹之黨 劉海戎 習靺鞨之服 侵軼遼西. (『冊府元龜』 187, 親征 大業 8년)
3. (貞觀)十一年……問罪東夷……遼東奉見……于時延陀犯塞……蜂蟻復集……屬興師遼碣……九種以之而震驚. 契丹在白狼之東 居黃龍之右 近侵卉服 外結烏夷. (675년, 「阿史那忠墓誌銘」²⁸⁾)

586년 거란별부가 고구려를 배반하고 수에 귀부하였음을 보여주지만(사료 C-1), 2년 뒤 598년경 고구려는 거란·말갈과 함께 수의 동북진출의 교두보인 요서를 맹타하였다(사료 C-2).²⁹⁾ 637년 당태종을 따라 고구려를 침략한 아사나층(阿史那忠)의 중군 기록에도 거란은 여전히 조이[烏夷(고구려)]와³⁰⁾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사료 C-3).

28) 周紹良 編(1982), 『唐代墓誌彙編』 上卷, 上海古籍出版社, 602쪽.

29) 이성제(2003), 「“靺鞨問題”를 통해 본 6世紀末 遼西 정세의 변화」, 『학예지』 10, 육군사관학교박물관, 173~194쪽. 고구려의 598년 요서 공격은 대능하와 시라무렌하유역의 여러 종족에 대한 수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營州를 거점으로한 유목민족과 교섭, 교역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30) 烏夷는 내용상 고구려를 지칭하고 동북민 혹은 동북이(東北夷)를 가르키는데(『史記』 2, 「夏本紀」 集解鄭玄曰; 『漢書』 28, 「地理志」 上, 顏師固曰), 여기서는 烏夷의 혼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기 고구려를 烏夷로 표현한 것은 “烏夷陪隸 虐殺其

당의 입장에서 유성 이동의 대능하 중하류지역과 이곳에 거주하며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던 거란은 정벌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먼저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군의 행군명(行軍名) 가운데 보이는 우(右)제7군으로 답돈도(踏頓道)의 존재가 있다. ‘답돈(踏頓)’은 기록에 ‘답둔(蹋頓)’으로도 보이는데³¹⁾ 일찍이 후한 말 요서 유성현(柳城縣)에서 참살된 흉노 수장의 이름이다.³²⁾ 답둔(蹋頓)으로 상징되는 유성 일대에 대한 정복을 의미하는 행군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당 대 고구려 원정에 종군하거나 전장을 의미하는 지명에는 요서지역과 연관된 것이 많이 보인다. 관련 사료를 일별하여 보면 요갈(遼曷)과 백낭수[白狼水 : 낭수(狼水), 낭하(狼河), 낭천(狼川), 낭산(狼山)]를 비롯하여 요음(遼陰), 요우(遼右) 등이다. 요갈은 요하(遼河 : 해(海)와 갈석(碣石)의 줄임말)이고 여기의 갈석은 요서 대능하 유역으로 비정되어 왔으며 백랑수 역시 현재의 대릉하를 가리킨다.³³⁾ 특히 ‘문죄백랑(問罪白狼)’의 표현은 대릉하 유역인 요서의 중심부가 고구려 정벌의 중심지로 표기한 것이다.

D-1. (貞觀十七年)……屬辰韓負險 獨沮聲教 滹丸都而舉斧 恃淇水而含沙 太宗爰命六軍 親紆萬乘 觀兵玄菟 問罪白狼. (659年, 『尉遲敬德墓誌銘』³⁴⁾)

君 毒被朝鮮 災罹穢貊, 『唐大詔令集』 130, 破高麗詔; “島夷皮服 夾右碣石入于河 島夷海島之夷 冀東北邊之國 如遼東朝鮮之地”, 『資治通鑑前編』 1, 禹告成功) 참조.

31) “遼東之役 出蹋頓道 不利而還”, 『隋書』 63, 『史祥傳』; “帝復征遼東 拜右候衛將軍 兵指蹋頓道 軍至烏骨城 會楊玄感作亂 班師”, 『隋書』 65, 『薛世雄傳』.

32) “建安十二年秋八月 曹操大破烏桓於柳城 斬其蹋頓 蹋頓匈奴女王號 柳城 縣名 屬遼西郡 今營州縣”, 『後漢書』 9, 『獻帝紀』.

33) “遼碣之表 遼海及碣石爲遼碣 杜佑曰 盧龍漢肥如縣 有碣石山碣 然而立在海旁 秦築長城所起 自碣石 在今高麗舊界 非此碣石也 趙瞻所謂遼碣 蓋卽杜佑所言者也”, 『資治通鑑』 99, 『晉紀』, 永和7年.

2. 屬玄夷而鼓擊 君乃風情直上 壯氣橫秋 占募九都 義倍運伍……嶺雲
朝霞 破數陣於狼川 邊月晚沉頹 幾城於兔堞……至貞觀二十年……
(680年, 『高感墓誌銘』³⁵⁾)

위의 사료는 643년 무렵(645년?) 고구려 원정에 참여한 위지경덕과 고감의 종군 기록이다. 정벌 대상을 백랑(白狼)으로, 나아가 낭천(狼川)에서 여러진을 격파하였다 한다. 백랑과 낭천은 모두 백랑수[白狼水: 천(川)]로 오늘날 요서의 대능하에 비정되는 강이다. 백랑수를 대능하로 보는 것은 북위 대역도원(鄺道元)의 『수경주(水經注)』의 기록³⁶⁾ 이후로 이론이 없다. 당이 죄를 묻겠다는 백랑은 고구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거란 지역에서 고구려와 당의 충돌은 실제 고구려 군대의 출정(出征)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E. 韋挺 子待價 初爲左千牛備身 永徽中 江夏王道宗得罪 待價卽道宗之婿也 緣坐左遷盧龍府果毅 時將軍辛文陵率 兵招慰高麗 行至吐護眞水 高麗掩其不備 襲擊敗之. (『舊唐書』 77, 『韋挺傳』)

655년의 사실로 추정되는³⁷⁾ 위의 기록은 토호진수(吐護眞水)에서 당장(唐

34) 周紹良 編(1992), 『唐代墓誌彙編』 上卷, 上海古籍出版社, 292쪽.

35) 吳鋼 編(1998), 『全唐文補遺』 5輯, 三秦出版社, 190쪽.

36) 『水經注』 14, “大遼水注 ‘魏土地記曰 黃龍城西南有白狼河 東北流附城東北下 卽是也……’”; “水經注 白狼水 出右北平白狼縣東南 東北流逕龍城西南 又東南流至遼東房縣入于遼水 初學記 狼河 附黃龍城東北下 卽白狼水”, 『資治通鑑』 135, 齊紀 建元元年條 注.

37) 羅棟煜(2008), 「고구려의 對唐軍事戰略 변화—645~659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32~41쪽.

將) 신문릉(辛文陵)의 군대가 고구려에 의해 패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⁸⁾ 토호진수(혹은 土護眞河)는 현재의 노합하(老哈河)를 지칭하는데 해족(奚族)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³⁹⁾ 655년 무렵에도 고구려의 군대가 대능하의 서북방 노합하 일대까지 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원정에 나선 많은 인물의 묘지명(墓誌銘)에 대능하 일대를 전장(戰場)인 듯 기록한 것은⁴⁰⁾ 허사(虛辭)로만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유성 이동과 시라무렌하 방면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마치 고구려의

38) 『新唐書』 98, 「韋瑒子待價傳」에도 “時將軍辛文陵 招慰高麗 次吐護眞水 爲虜所襲”라 하여 辛文陵의 唐軍이 ‘次吐護眞水’ 곧 토호진수에 머물고 있을 때 고구려의 습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39) “按老河之爲土河 至今兩名互稱隋書稱託紇臣水 唐書稱土護眞水 土護眞水即託紇臣譯語之轉音…… 時爲奚王牙帳所在”, 『欽定熱河志』 70, 老河條 按語.

40) 사료 D-1, 2 외에도 唐代 고구려 遠征에 從軍한 인물의 묘지명 중에는 白浪河(곧 大凌河) 일대가 戰場인 듯 묘사한 기록이 다수 散見된다.

“太宗文皇帝…… 弔東夷之多僻…… 雷動玄菟之郊…… 電照狼河之曲”, 670년, 「仵欽墓誌銘」, 『唐代墓誌彙編』 上卷, 上海古籍出版社, 526쪽. 이하 『彙編』으로 略.

“泊以三韓肆虐 恃玄菟以蜂飛 九種挺妖 阻黃龍以蝟聚…… 銘曰…… 辰韓逆命 東夷肆兇 縱虐玄菟 侍險黃龍”, 672년, 「馬寶口墓誌銘」, 『彙編』 541쪽.

“辰韓叔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廻戈拯亂 剿玄菟之遊魂 覆黃龍之巨孽”, 675년, 「阿史那府君碑」, 『全唐文新編』 20, 吉林文史出版社, 13683쪽.

“貞觀七年…… 于時 三韓蟻聚 驚濤阻於白狼 九種鳴張 凝氛晦於玄菟 興師薄伐”, 675년, 「姬溫墓誌銘」, 『全唐文補遺』 3輯, 三秦出版社, 434쪽. 이하 『補遺』로 略.

“九種以之冰銷 三韓於焉毒散 旣而狼山霧靜 却走馬於蓮峰 鯁壑波清 返歸牛於桃野”, 687년, 「張成墓誌銘」, 『補遺』 2輯, 300쪽.

“往者三韓作梗 九種挺妖 君即杖劍狼川 橫戈鯁壑 朝鮮之靜 君有力焉”, 696년, 「王思訥墓誌銘」, 『彙編』 881쪽.

“去龍朔年中 俗三韓作梗 憑凌鯁海之隅 九種孤恩 旅拒狼河之外”, 697년, 「張素墓誌銘」, 『彙編』 918쪽.

영역으로 남아 있는 듯한 다음의 기록도 있다.

- F-1. 漢樂浪玄菟郡之地 自後漢及魏爲公孫氏所據 至淵滅 西晉永嘉以後 復陷入高麗 其不耐屯有帶方 安市平郭安平居龍文城 皆漢二郡諸縣 則朝鮮濊貊沃沮之地. (『通典』 卷186, 東夷 高句麗條)
2. 按高麗記云……漢樂浪玄菟郡之地 自後漢及魏爲公孫氏所據 至淵滅 西晉永嘉以後 復入高麗 其不 耐屯有帶方安市平郭安平居文龍城 皆 漢二郡之屬縣 分則朝鮮濊貊沃沮之地 是也. (『太平寰宇記』 卷173, 東夷 高句麗國 土俗物產條)
3. 高麗記曰 今高麗國 兼有朝鮮濊貊沃沮之地也. (『翰苑』, 蕃夷部 高麗條)

F-1의 『통전』의 기록은 고구려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옛 군현의 거룡(居龍), 문성(文城)을 언급하고 있는데, F-2를 보면 이것이 거문(居文), 용성(龍城)으로 표기되고 원 자료가 「고려기(高麗記)」임을 알 수 있다. B-3의 「고려기」는 대체로 640년대 당 정관연간에 진대덕(陳大德)을 비롯하여 다수 정리된 이른바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의 일문(逸文)으로 여겨진다. 표기에 혼동이 있지만 이에 따른다면 640년대에도 요서군 문현(文縣)과 용성 곧 유성현 일대가 여전히 고구려 지역으로 표기되었던 모양이다. 수당 대 사서에 고구려의 동서 영역을 종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 G-1. 其西則焉耆之地 東則朝鮮之地 北則渡沙漠窮瀚海 南則臨大磧. (『魏書』 103, 「蠕蠕傳」)
2.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其地東西二千里

南北一千餘里。(『魏書』100, 「高麗傳」)

3. 東渡海至於新羅 西北渡遼水至於營州 南渡海至於百濟 北至靺鞨 東西三千一百里 南北二千里。(『舊唐書』199, 「高麗傳」)
4. 其地 後漢時方二千里 至魏南北漸狹纔千餘里 至隋漸大 東西六千里。(『通典』186, 「高句麗傳」)⁴¹⁾

사료 G-1은 유연의 동쪽을 ‘朝鮮之地’라 하고 있는데, 5세기 말 이후 고구려의 거란 지배와 지두우 분할시도 등 서북방향에 대한 세력 확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사료 G-2~4를 통해 북위 대 동서(東西) 2천리였던 고구려의 영토가, 이후 수당 대에 이르러 3,100리(혹은 6천리)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G-3의 구당서에 “西北渡遼水至於營州”의 표현이 영주(營州)의 중심지인 유성 이동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염두에 둔 듯 일찍이 이규경[李圭景(1788~?)]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H-1. 以愚所見. 裴矩之所謂高麗本孤竹國者. 非盡非也. 高麗者. 卽高句麗也. 高句麗疆域西北. 渡遼接
2. 營州. 則孤竹國在於今永平府. 而已入於句麗境內故也⁴²⁾

즉, 이규경은 위와 같이 고구려를 고죽국(孤竹國)에 직결한 것이 대능하

41) 『太平寰宇記』173, 高句麗國 및 『文獻通考』325, 「高句麗傳」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2) 李圭景, 「孤竹首陽山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 山條.

유역까지 고구려가 진출한 때문이라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료 A-1에서 배구가 요서를 상징하는 고죽국을 고구려에 단정적으로 연결시킨 이유로 생각함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하를 중심으로 동서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세력에게서 기자(箕子)와 고죽군(孤竹君)은 자신의 근거지가 중원왕조에 버금가는 문화지역임을 표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I-1. 君諱永恩 字某 昌黎徒河人 本姓慕容 燕文明帝皝之後也. 朝鮮微(箕子)之封 孤竹伯夷之國……其先保姓受氏 初存柳城之功 開國承家 始靜遼陽之亂……銘曰……朝鮮建國 孤竹爲君. 地稱高柳 山名密雲. 漁陽趙裂武遂秦分. (周 庾信 撰, 『庾子山集』 14, 『周隴右總管長史贈太子少保豆盧公神道碑』)
2. 慕容皝 字元眞 廆第三子也. 龍顏版齒 身長七尺八寸 雄毅多權略 尚經學 善天文. 廆爲遼東公 立爲世子. 建武初 拜爲冠軍將軍 左賢王 封望平侯. 率衆征討 累有功. 大寧末 拜平北將軍 進封朝鮮公. (『晉書』 載記 9)

위의 기록에서 전연 모용황의 후손인 두로영은(頭盧永恩)은 선조(先祖)의 중심지인 요동, 요서지역의 영광된 역사를 언급하면서 조선과 고죽국을 상징하는 미자(微子[기자])와 백이(伯夷)를 내세우고 있다. 두로영은은 황시(皇始) 2년(397) 북위가 후연을 멸망시키자 귀부한 모용승(慕容勝)의 증손이다. 모용승은 장락군수(長樂郡守)를 제수받고, 두로(豆盧)로 성을 고쳤다.⁴³⁾ 다 아는 대

43) “豆盧寧 字永安 昌黎徒河人. 其先本姓慕容氏 前燕之支庶也. 高祖勝 以燕皇始初歸魏 授長樂郡守 賜姓豆盧氏 或云避難改焉”, 『周書』 68, 『豆盧寧傳』.

로 모용선비는 시조(始祖) 막호발(莫護跋)이 조위의 공손씨 정벌에 종군(從軍)한 공으로 대능하 중류 극성(棘城) 북방에 정주한 데서 시작되었다.⁴⁴⁾ 3세기 후반 모용외(慕容廆) 이후 세력을 키워가더니 340년대 모용황(慕容皝)에 이르러서는 요동과 요서를 아우르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⁴⁵⁾

모용선비(慕容鮮卑)가 성장의 근거지로 삼았던 대능하 일대는 선진(先秦) 이래 고죽국과 기자 봉국(封國)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⁴⁶⁾ 이러한 유산은 『후한서』 33, 「군국지(郡國志)」에 “遼西郡……令支 有孤竹城 伯夷叔齊本國” 기록으로 남아 계속 회자(膾炙)되었을 것이다. 이는 마치 평양 일대가 5세기에도 여전히 기자 전승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⁴⁷⁾

선비(鮮卑)를 비롯한 오호(五胡)의 유목세력(遊牧勢力)이 한족(漢族) 거주지

“豆盧寧……高祖勝 以燕皇始初歸魏 授長樂郡守 賜姓豆盧氏 或云 北人謂歸義爲豆盧 因氏焉。又云 避難改焉 未詳孰是”, 『周書』, 「豆盧寧傳」.

豆盧는 “歸義”를 이르는 北人의 말로, 이후慕容과 豆盧 혹은 盧를 혼용하였다. 두로서의 북위 귀부와 이후 전개상에 대하여는 姜波(2003), 「豆盧氏世系及其漢化—以墓碑, 墓誌爲踐索」, 『考古學報』, 2002年 第3期, 303~333쪽.

44) 棘城은 294년慕容廆가 “顛頊의 터(墟)라 하여 移居한 후 342년 龍城으로 천도하기까지 모용부의 거점이었다. 극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錦州 혹은 義縣으로 보아왔으나, 최근 고고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北標 일대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田立坤(1996), 「棘城新考」, 『遼海文物學刊』 2).

45) 三崎良章(2007), 「慕容廆の遼西支配」, 『福井重雅先生古稀・退職記念論集古代東アジアの社會と文化』, 東京:汲古書院, 259~276쪽.

46) 宋錦晨(2005), 「大凌河流域 殷周 青銅禮器 사용 집단과 箕子朝鮮」, 『韓國古代史研究』 38, 한국고대사학회, 15~16쪽. 喀左 북동촌 1호 저장갱에서 孤竹銘 銅甕이, 2호 저장갱에서는 箕侯銘 方鼎이 출토되어 객좌현 일대가 은대 고죽국과 관련된 지역이었고, ‘箕侯銘을 가진 인물에 의해 통치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47) “昔燕人衛滿自涿水西至朝鮮 朝鮮故箕子國也……今高句麗之國治……故樂浪朝鮮縣 即樂浪郡治 漢武帝置”, 『水經注』 14, 涿水.

(居住地)를 지배하면서 황제(黃帝)를 비롯한 화하(華夏)의 후손임을 표방하는 것은 이민족국가(異民族國家)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었다.⁴⁸⁾ 모용선비의 근거지에 선진 이후 화하의 상징이었던 고죽국과 기자 봉국의 전통을⁴⁹⁾ 두로영은이 자기분식(自己粉飾)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용선비의 이른바 삼연정권(三燕政權)을 이어 요동과 유성 이동의 요서 일부지역, 그리고 시라무렌하와 노합하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던 고구려에게 고죽국과 기자 봉국의 지역전통(地域傳統)과 문화의식(文化意識)의 분식(粉飾)은 자연스런 것이었고, 사료 A-1과 같은 배구의 표현이 생성될 수 있었다고 이해된다.

IV. 맺음말

이제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수당군신은 고구려를 은주(殷周) 대 고죽국(孤竹國)이자 기자(箕子)의 봉국(封國)이며, 한진(漢晉) 대 군현고지(郡縣故地)로서 회복해야 할 실지(失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수당의 고구려 원정을 중국군현(中國郡縣)에 대한 회복(回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중국학계의 논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 나아가 전한 대 현도군(玄菟郡)에 고구려현(高句麗縣)이 설

48) 遼西, 遼東地域을 장악한 鮮卑拓拔氏의 華夷觀 변화에 대해서는 園田俊介(2005), 「北魏, 東西魏時代における鮮卑拓拔氏(元氏)の祖先傳説とその形成」, 『史滴』 27, 早稻田大學東洋史談話會 참조.

49) “營州 今理柳城縣 殷時爲孤竹國地……”, 『通典』 178, 州郡. “遼西即今之廣寧等處 乃古之孤竹國也”, 『唐音』 3, 元 張震註.

치된 후 정치체(政治體)로서 고구려가 출현하고, 군현의 지배 아래 성장하였다는 이른바 군현중속론(郡縣從屬論)의 귀결점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군현회복론은 고구려 초기, 요동·현도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구려사 전체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둘째, 고구려는 진(晉) 때까지 중국군현이 설치된 화하(華夏)의 땅이라는 수당조신(隋唐朝臣: 배구, 온언박, 상리현장)과 군왕(君王: 수양제, 당태종)의 대외관(對外觀)은 고구려 침략의 동기와 명분을 제시하고, 향후 지배의 이데올로기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군현회복을 위한 수당군신(隋唐君臣)의 인식은 현실의 한계를 자각한 것이었다. 중국군현이기는 하였지만 현실은 외역(外域, 異域)이었으며, 중국의 옛 통치지역임을 표명하면서도 그것은 기왕지사(既往之事)이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원정에 앞서 내세운 수당군왕의 조문 어디에도 고구려가 중국의 군현고지임을 명시한 바가 없다.

셋째, 배구(裴矩)와 온언박(溫彦博)이 고구려는 본래 은주 대 고죽국이자 기자의 봉국(封國)임을 내세운 것은 수양제와 당고조로 하여금 고구려 정벌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고구려가 전한(前漢) 대 군현 설치 이전부터 화하의 땅이었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기자의 봉국이자 팔조금법(八條禁法)의 유풍(遺風)이 살아 있는 옛 조선(朝鮮)의 도읍이 바로 낙랑군(樂浪郡)의 군치(郡治)이자, 당시 고구려의 도성[都城, 평양성(平壤城)]이었기에 가능한 표현이었다. 고죽국은 기자와 관련하여 고구려 지배의 명분을 더하기 위한 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구려 그 자체로 언급한 것은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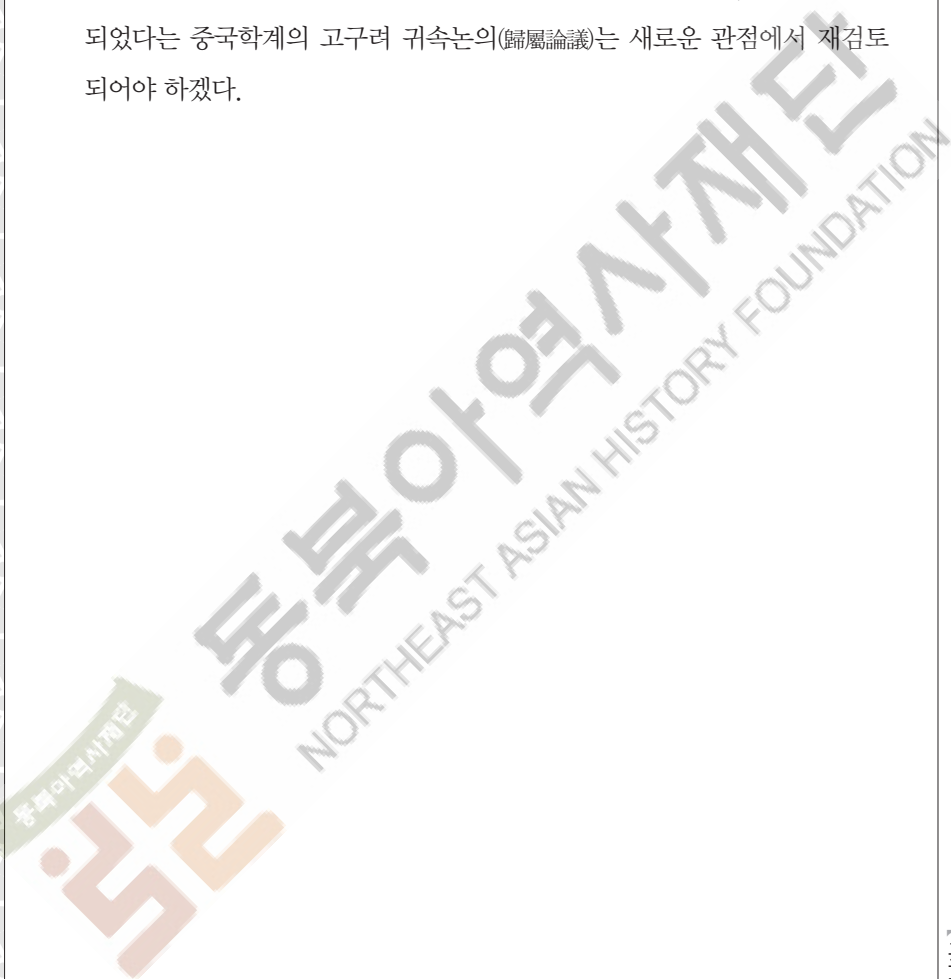
넷째, 고죽국은 기자 봉국의 존재와 함께 요동의 고구려보다는 요서로 통칭되는 영주(營州) 혹은 백랑수(白狼水), 곧 대능하 유역과 부합되는 표현이

었다. 355년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연(前燕)으로부터 영주제군사(營州諸軍事)와 영주자사(營州刺史)를 제수받은 이후로, 영주는 요동을 장악한 고구려의 현실적 위치를 반영한 책봉호였다. 나아가 5세기 이래 서요하 상류를 거쳐 시라무렌하와 대능하 일대까지 영향력을 넓혔으며,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는가 하면 거란 등 유목민족을 부용화(附庸化)하였다. 고구려의 동서의 영역확대를 특기(特記)한 수당 대 사서는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대능하와 시라무렌하 방면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후한 말 요동의 패권을 쥔 공손씨 정권 이후로 고구려에게 패권을 넘겨준 전연(前燕) 등 선비 탁발씨(拓拔氏)가 지배하는 동안, 요동과 요서를 아우르는 세력에 의해 지역인식과 자존의식(自尊意識)이 배태되었다. 전연의 후손으로 두로씨(豆廬氏)로 성을 바꾼 두로영은(豆廬永恩)이 선조가 세거(世居)한 대능하 유역 유성(柳城)을 언급하면서 ‘朝鮮微子之封 孤竹伯夷之國’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5세기 이래 요동을 장악하고 대능하와 시라무렌하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고구려는 공손씨(公孫氏)와 모용씨(慕容氏)에 이어 요토(遼土)와 영주의 패자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기자의 유풍이 전해져 오는 고구려 도성(都城)이 아니더라도, 고죽과 기자는 요동과 요서지역의 문화의식의 소산이자, 고구려가 요하를 건너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표방한 지배이념으로도 여겨진다.

요컨대 수당군신의 고구려를 회복해야할 군현실지(郡縣失地)라는 인식은 고구려 침략의 동기와 지배의 이념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고구려의 영토라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고구려 원정의 명분을 더하기 위해 제시한 고죽국과 기자봉국의 표현은 고구려가 요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던 요서 대능하 일대의 문화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곧 고구려가 고죽(孤竹)과 기자(箕子)를 표상으로 하는 ‘영

주'의 패자라는 현실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당군신의 고구려 원정을 잃어버린 군현고지의 회복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요동·현도군의 지배 아래 생겨난 고구려가 일시 통제를 벗어났다가, 수당 대 통합되었다는 중국학계의 고구려 귀속논의(歸屬論議)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高句丽与辽东、玄菟郡

—隋唐君臣“郡县恢复论”考

•

尹龙九 (仁川都市开发公社文化财担当官)

•

I. 前言

中国着重强调高句丽在现今中国境内玄菟郡(或辽东郡)建国以后就归属于汉朝，始终接受郡县统治并保持了隶属关系¹⁾。这就是所谓的高句丽“郡县从属论”。另外，还以裴矩和唐太宗等隋唐君臣的言论为依据，认为征伐高句丽是为恢复以往曾设置为汉郡县的中国固有领土进而统一全中国而进行的²⁾。也就是说，隋唐对高句丽的远征不是国

1) 余昊奎：〈中国学界高句丽对外关系史研究现状〉，《韩国古代史研究》31，韩国古代史学会，2003年；奇修延：〈中国学界的汉四郡研究动向与分析〉，《文化史学》27，韩国文化史学会，2007年。

家间的战争，而是对失去的郡县故地的收复过程。可称其为“郡县恢复论”。

与此相反，韩国学界则认为高句丽是公元前1世纪前后在鸭绿江和佟佳江一带以朱蒙集团为中心建立联盟，驱逐汉朝玄菟郡并建立国家，以后不断完备独立的国家体制并发展壮大的³⁾。而且认为隋唐与高句丽七十余年的战争是围绕着东北亚地区霸权而进行的关系两国命运的长期战争，在战争中失败的高句丽虽然曾为安东都护府所统辖，但其居民和文化却为渤海和新罗所吸收并继承⁴⁾。

中国的研究是在1980年代以广泛的文献史料集大成为基础，致力于历史地理上的缜密文献考证而得出的结果⁵⁾。其中把高句丽看作为

- 2) 其代表论着虽然可举秦升阳：〈隋唐君臣对高句丽归属问题的认识〉，杨春吉、耿铁华主编，《高句丽归属问题研究》，吉林文史出版社，2000年。但是中国学界往往从对郡县故地的恢复观点来阐述隋唐对高句丽的远征。
- 3) 余昊奎：〈高句丽的建立和发展〉，《韩国史》5(高句丽)，国史编纂委员会，第13~42页，1996年；卢泰敦：〈朱蒙神话与桂娄部的起源〉，《高句丽史研究》，四季节，第60~62页，1999年。
- 4) 李昊荣：〈与隋、唐的战争〉，《韩国史》5(高句丽)，国史编纂委员会，第109~144页，1996年；朴京哲：〈中国学界的高句丽对隋唐70年战争认识的批判的检讨〉，《韩国古代史研究》33，韩国古代史学会，2004年。
- 5) 1980年代以后出现了有关中国东北历史地理的综合性研究，主要代表研究者有孙进己、王绵厚。由此，克服了日帝满铁调查部曾进行的研究成果。孙进己、王绵厚：〈前汉时期东北的民族建置〉，《东北历史地理》1，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王绵厚、孙进己：〈后汉时期东北的民族建置〉，《东北历史地理》1，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王绵厚、孙进己：〈三国(魏)时期东北的行政建置〉，《东北历史地理》2，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孙进己、王

中国郡县所属和收复对象的认识成为现在中国谈论高句丽归属的根据⁶⁾，更久远地究其根源则可追溯到隋唐君臣的对外观。裴矩所认为的高句丽是中国应当予以收复的“郡县故地”的观点，仍然是能够表现出当代与隋唐对高句丽归属认识差异的重要依据，是有必要进行具体研究的问题⁷⁾。

但是，在隋唐以前的中国王朝并没有出现对高句丽主张领土所有权的记载，反倒是将其描述为蛮夷(朝鲜和濊貊及句丽)的疆域。即《汉书·地理志》记载为“玄菟、乐浪，武帝时置，皆朝鲜、濊貉、句骊蛮

绵厚：〈晋代东北的行政建置〉，《东北历史地理》2，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李健才：〈玄菟郡的建立和迁移〉，《东北地方史研究》，1990年第1期(译注：原文为‘李建才’，现改为‘李健才’；原文为‘东方地方史研究’，现改为‘东北地方史研究’)；李健才：〈关于汉代辽东乐浪两郡地理位置问题的探讨〉，《社会科学战线》，1993年第1期(译注：原文为‘李建才’，现改为‘李健才’)；李健才：〈真番郡考评说〉，《东北史地考略续集》，吉林文史出版社，1995年(译注：原文为‘李建才’，现改为‘李健才’(原文为‘东方史地考略续集’，现改为‘东北史地考略(续集)’))。

- 6) 1907年，张炳麟主张即将建立的中国民国的领土目标应为“以先祖汉郡县为界，把其民视为华民……必须恢复朝鲜和越南二郡”(柳鏞泰：〈中华民族论与东北地形学，东北工程的逻辑根据〉，《欢呼中的警钟》，人道主义者，第211页，2006年)这与东北工程之高句丽归属问题属于同一伦理。
- 7) 进入1990年代，中国开始系统地研究东北地方的历史，在这一过程中明确提出了前述高句丽的郡县从属论。2000年出版的杨春吉、耿铁华主编《高句丽归属问题研究》，吉林文史出版社是中国学者以郡县从属论和郡县恢复论为中心的观点的集大成研究成果。本书最近在韩国已经翻译出版(译注：原文为‘完译’，因韩译本没有翻译中文版的附录部分，故现改为‘翻译’)。辛锺远编：〈中国人的高句丽研究〉，《东北亚历史丛书7》，韩国学中央研究院，2007年。

夷”，《后汉书·濊传》则明确记载：“濊及沃沮、句骊，本皆朝鲜之地也”。这种认识到隋唐之前一直是保持不变的。因此，裴矩的郡县恢复论应该有着远征高句丽迫在眉睫的7世纪初的现实性原因。本文首先将对隋唐君臣特别是裴矩郡县恢复论的产生背景进行试论性检讨。同时考查中国学界把高句丽史看作玄菟郡等郡县的从属下派生后一时摆脱其统治，到隋唐时期通过高句丽远征，恢复失去的郡县故地的理解⁸⁾。

II. 隋唐君臣的“郡县恢复论”

以607年8月，隋炀帝在突厥启民可汗帐幕中意外见到高句丽使臣时裴矩所说的话为依据，中国学界认为征伐高句丽是为恢复中国固有领土，统一全中国而发动的。向隋炀帝提出征伐高句丽并谋划征伐策略的裴矩谈到：

- A-1. 高丽之地，本孤竹国也，周代以之封于箕子，汉世分为三郡，晋氏亦统辽东。今乃不臣，别为外域……安得不事，使此冠带之境，仍为蛮貊之乡乎？（《隋书》卷63，裴矩传）
2. 辽东之地，周为箕子之国，汉家玄菟郡耳。魏、晋已前，近在提封之内，不可许不臣。且中国之与夷狄，犹太阳之对列星，

8) 本文是对〈隋唐的对外政策与高句丽〉，《北方史论丛(5)》，高句丽研究财团，2005年，中的裴矩的郡县恢复论的全面修订、改稿。

理无降尊，俯同藩服。（《旧唐书》卷119，高丽传）

在A-1中，裴矩认为高句丽所占领的故郡为蛮貊所掠的冠带之境，即中国领土，强调了其臣属的不可避免性，表现了对高句丽的更加强硬的态度⁹⁾。A-2是裴矩和中书侍郎温彦博为反对唐高祖拟订关于高句丽的称臣诏书而一起提出的，其内容大致相同。

下面的表一是对隋唐时期君臣言及高句丽为中国故土的整理。以此为基础，进一步以时间顺序对高句丽为中国领土的记述进行整理如下：

- ① 607年，黄门侍郎裴矩：高丽之地，本孤竹国也，周代以之封于箕子，汉世分为三郡，晋氏亦统辽东，今乃不臣，别为外域。
- ② 612年，隋炀帝：眷彼华壤，翦为夷类，历年永久。
- ③ 624年，侍中裴矩、中书侍郎温彦博：辽东之地，周为箕子之国，汉家玄菟郡耳，魏晋已前近在提封之内，不可许以不臣。
- ④ 636年，隋书（东夷传史论），史臣：辽东之地，不列于郡县，久矣。
- ⑤ 641年，唐太宗：高丽本四郡地耳。
- ⑥ 643年，司农丞相里玄奘：既往之事，焉可追论，至于辽东诸城，本皆中国郡县，中国尚且不言。
- ⑦ 644年，唐太宗：辽东故中国也。
- ⑧ 645年，唐太宗：辽东本中国之地。

9) 辻正博：〈鞠氏高昌国与中国王朝－朝贡、羁靡、册封、征服〉；夫马进编，《中国东亚细亚外交交流史研究》，京都大学学术出版会，第77页，2007年。

隋代有3项记录：前引607年黄门侍郎裴矩的奏文；612年，高句丽远征前，隋炀帝下诏“眷彼华壤，翦为夷类，历年永久”。；隋书东夷列传末尾的史论也有相同内容的记录。唐代也有5项记录。624年，裴矩与温彦博上奏唐高祖的文句与607年裴矩上奏隋炀帝之内容大同小异，只是省略了开头明确指出的高句丽本孤竹国部分。其余4项记录中的3项是唐太宗于641年、644年、645年向诸臣强调远征高句丽正当性的内容。值得注意的是，派往高句丽的使臣相里玄奘向泉盖苏文提出的内容中，自然而然地暴露出了郡县恢复论的局限性。即高句丽虽为中国的故郡，但却是“已往之事”，已经到了不过问的境地，成为了过去，最终承认了其高句丽领域¹⁰⁾。

这样，认为高句丽是无法放弃臣属的中国领土的认识，在隋唐时期似乎变得普遍化了¹¹⁾。不用说，隋唐时期的恢复论不仅是在把高句丽视为外域(绝域，异域)，没有将其作为安抚或征伐的对象，而且是在群臣反对皇帝亲征的争论中进行的¹²⁾。从隋炀帝和唐太宗从未接受反

10) 朴汉济：〈隋唐世界帝国与高句丽 - 与朝贡秩序及羁縻体制相联系〉，《韩国古代国家与中国王朝的朝贡、册封关系》，东北亚历史财团 研究丛书15，第156~163页，2006年。

11) 黄约瑟：〈试论隋代对高句丽的认识〉，《高句丽文化国际学术论文集》，(社)海外韩民族研究所，1994年(〈试论隋代对高句丽的认识〉，《韩国学报》13，1995年再收录)中，认为其并非裴矩一个人的见解，它是包括隋唐帝在內的统治者的普遍认识。

12) 金秀镇：〈隋唐的高句丽史地论及其背景 - 对高句丽战争名分的一侧面〉，首尔大学校硕士学位论文，2007年。

对远征高句丽的意见中可以看出，郡县恢复论是战争动员名分而已。事实上，隋炀帝第一次远征高句丽所编成的行军名称中就有辽东、玄菟郡和乐浪郡的县名，这是为收复汉郡县故土而远征高句丽的名分相符的内容¹³⁾。

通过607年624年的上奏可知，成为远征高句丽的导火线并提供理论依据的人是裴矩。裴矩是被人们称为“五贵”(或称“七贵”)的隋炀帝的心腹¹⁴⁾，统管包括兵务的对外事宜¹⁵⁾。来回于突厥和西域，时而笼络，时而威胁，有效地运用以夷制夷的战略，分离调整了突厥，又利

13) 左第一军可楼方道，第二军可长岑道，第三军可海冥道，第四军可盖马道，第五军可建安道，第六军可南苏道，第七军可辽东道，第八军可玄菟道，第九军可扶余道，第十军可朝鲜道，第十一军可沃沮道，第十二军可乐浪道。右第一军可黏蝉道，第二军可含资道，第三军可浑弥道，第四军可临屯道，第五军可候城道，第六军可提奚道，第七军可踏顿道，第八军可肃慎道，第九军可碣石道，第十军可东曷道，第十一军可带方道，第十二军可襄平道。凡此众军，先奉庙略，骆驿引途，总集平壤。(《隋书》卷4，炀帝下)

14) 从《隋书》67，裴矩传之“顾谓宇文述、牛弘曰：‘裴矩大识朕意，凡所陈奏，皆朕之成算。未发之顷，矩辄以闻……’”中我们不难看出隋炀帝对裴矩的信任程度。

15) “帝以威先朝旧臣，渐加委任。后岁余，复为纳言。与左翊卫大将军宇文述、黄门侍郎裴矩、御史大夫裴蕴、内史侍郎虞世基参掌朝政，时人称为‘五贵’。及辽东之役，以本官领左武卫大将军，进位光禄大夫，赐爵宁陵侯”(《隋书》41，苏威传)；“时牛弘为吏部尚书，不得专行其职，别敕纳言苏威、左翊卫大将军宇文述、左骠卫大将军张瑾、内史侍郎虞世基、御史大夫裴蕴、黄门侍郎裴矩参掌选事，时人谓之‘选曹七贵’。虽七人同而坐，然与夺之笔，虞世基独专之，受纳贿赂，多者超越等伦，无者注色而已”。(《资治通鉴》180，大业二年秋七月)

用其余力建立起了与西域之间的通交关系，以此来致力于高句丽远征。对裴矩是个竭尽全力说服执政者，来达到自己目标的人，其中伴随的是对对方的细腻的情报收集和对策。他在与西域进行通交时完成了《西域图记》。如此看来，他所撰《高丽风俗》也应该是在高句丽远征过程中完成的¹⁶⁾。

虽有人认为最初隋炀帝并没有以裴矩的上奏为借口要占领实际为高句丽所控制的柳城以东辽西地区或征服高句丽的想法¹⁷⁾，但根据出征之前的下诏来看，征伐高句丽的动因可归结为高句丽王的不行朝贡和吊民伐罪。这与唐代也以渊盖苏文杀害高句丽王和独掌政权的“弑王虐民”，或以阻挠新罗朝贡和入侵的非礼行动当作借口而已。

裴矩等人提出的对失去郡县故地的恢复论，虽然是鼓动进行侵略的原因，但在战争的真正意图中却不占大的比重。如前所述，相里玄奘自认高句丽虽然是中国的故郡县，但已到了不过问的境地，成为了过去。所以，就算郡县恢复论有可能是隋唐发动战争的宣传手段，但对作为当事者的高句丽或周边势力是没有说服力的。

因而中国学界把隋唐远征高句丽的性质确定为收复故土的观点在

- 16) 齐陈骏：〈裴矩功过述评〉，《敦煌学辑刊》，1983年创刊号，兰州大学出版社，第508页，1983年；挂田良雄：〈裴矩与粟特人〉，《防卫大学校纪要》，外国语学篇60，第161~164页，1992年。
- 17) 韩昇：〈隋与高句丽的国际政治关系〉，《崛敏一先生古稀纪念论丛》，汲古书院，1995年；金善民：〈隋炀帝的军制改革与高句丽远征〉，《东方学志》119，延世大学校国学研究院，2003年。

总体上也是难以信服的。尽管如此，既然无法否认上述史料A-1和2，那么裴矩的理论还是有效的。在这里需要的是对裴矩等人所提出的上述史料的正确理解。裴矩所言原文如下：

矩因奏状曰：高丽之地，本孤竹国也，周代以之封于箕子，汉世分为三郡，晋氏亦统辽东。今乃不臣，别为外域。故先帝疾焉，欲征之久矣。但以杨谅不肖，师出无功。当陛下之时，安得不事，使此冠带之境，仍为蛮貊之列乎？

史料中裴矩所断定的“高丽之地，本孤竹国也”部分还存在着一些疑问。狭义上，孤竹国指滦河流域的卢龙，但广义上，它是对以东北大凌河流域的柳城为中心的辽西一带的统称¹⁸⁾。之前在喀左北洞村1号贮藏坑内出土了孤竹铭铜釜以后，又被认为是大凌河中上流地域的地名¹⁹⁾。因此，大凌河一不能象征高句丽领域，又不是其腹地，所以把孤竹国称为高句丽的裴矩的说法是难以理解的。对此，千宽宇有如下解释：

那么，裴矩奏文中的“高丽之地，本孤竹国也”是什么意思呢。这可

18) 千宽宇：〈箕子考〉，《古朝鲜史、三韩史研究》，一潮阁，第70~73页，1989年。

19) 孟古托力：〈孤竹国释论〉，《中国东北疆域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第103~120页，2003年。(译注：原文为‘中国东北疆域研究’，现改为‘中国东北边疆研究’)。

能是：①箕子的封地为孤竹国；②箕子朝鲜为现今的高句丽地(裴矩在世时，高句丽首都为平壤)–因此，③高句丽地原本是孤竹国的飞跃²⁰⁾。《三国史记》婴阳纪“裴矩说帝曰：‘高句丽，本箕子所封之地’”也据与此。

这里，用飞跃一词来表述了裴矩将孤竹国与高句丽联系起来的情况。换句话说，就是对其的否认。清代学者顾炎武认为这是裴矩为了说服炀帝出兵高句丽而捏造出来的²¹⁾。但是，除了裴矩的上奏以外，大多数群臣是反对远征高句丽的²²⁾，在这种情况下那一飞跃及谎言是否行得通，是值得怀疑的。裴矩将象征辽西地域的孤竹国与高句丽相联系起来是有一定根据的。

20) 千宽宇：〈箕子考〉，《古朝鲜史、三韩史研究》，一潮阁，第71页，1989年。最近，有学者认为孤竹国的相关人物就是与箕子有关的殷末贤人，由此修飾了高句丽支配意识体系。(李成珪：〈中国古文献所体现的东北观〉，《东北亚先史及古代史研究的方向》，学研文化社，2004年)

21) “隋裴矩又言：‘高丽本孤竹国，周以封箕子，则恐逢君之指而为是说耳’”（《营平二州地名记》顾炎武撰，商孤竹国）。随后，还有人认为裴矩之言是为了强调高句丽虽是野蛮之地，但毕竟有中国文化因素的一种修辭。(辻正博：第78页，2007年)

22) 参考金秀镇：2007年，第56页附表(隋唐朝廷对高句丽战的争议)。根据金秀镇的研究，598~616年间，一共有过12次争议，其中赞成的只有607年裴矩一人，其余都持反对意见。

【表1】隋唐君臣的高句丽-郡县故地关系记事

隋代	<p>① (大业三年八月)从帝巡塞北,幸启人帐。时高丽遣使先通于突厥,启人不敢隐,引之见帝。矩因奏曰:“高丽地本孤竹国,周代以之封箕子,汉世分为三郡,晋氏亦统辽东。今乃不臣,列为外域²³⁾,故先帝欲征之久矣。但以杨谅不肖,师出无功。当陛下时,安得不事,使此冠带之境仍为蛮貊之乡乎?今其使朝於突厥,亲见启人合国从化,必惧皇灵之远畅,虑後服之先亡,协令入朝,当可致也。”帝曰:“如何?”矩曰:“请面诏其使,放还本国,遣语其王,令速朝覲。不然者,当率突厥,即日诛之”。帝纳焉。高元不用命,始建征辽之策。王师临辽,以本官领武贲郎将。明年,复从至辽东。兵部侍郎斛斯政亡入高丽,帝令矩兼掌兵事。(《隋书》67,裴矩传)</p> <p>② 下诏曰 而高丽小丑,迷昏不恭,崇聚勃、碣之间,荐食辽、秽之境。虽复汉、魏诛夷,巢窟暂扰,乱离多阻,种落还集。萃川薮於前代,播实繁以迄今。眷彼华壤,翦为夷类。历年永久……(《隋书》4,大业8年春正月壬午条)</p> <p>③ 史臣曰:“务广德者昌,务广地者亡”。然辽东之地,不列於郡县久矣。(《隋书》81,东夷列传,末尾史论)</p>
唐代	<p>④ (武德七年²⁴⁾高祖尝谓侍臣曰:“名实之间,理须相副。高丽称臣於隋,终拒炀帝,此亦何臣之有?朕敬於万物,不欲骄贵,但据土宇,务共安人,何必令其称臣以自尊大?可即为诏,述朕此怀也”。彦博进曰:“辽东之地,周为箕子之国,汉家之玄菟郡耳。魏、晋已前,近在提封之内,不可许以不臣。若与高丽抗礼,则四夷何以瞻仰?且中国之於夷狄,犹太阳之比列星,理无降尊,俯同夷貊”。高祖乃止。(《旧唐书》199,高丽传)</p>

23) 关于这一部分《资治通鉴》(181,炀帝大业六年冬十二月)载:“高丽本箕子所封之地,汉晋皆为军衔,今乃不臣,别为异域”,字句上有所差别。

唐代

- ⑤ 上曰：“高丽本四郡地耳，吾发卒数万攻辽东²⁵⁾，彼必倾国救之。别遣舟师出东莱，自海道趋平壤，水陆合势，取之不难。但山东州县凋瘵未复，吾不欲劳之耳”。（《资治通鉴》196，贞观15年8月丁亥条）
- ⑥ 相里玄奘至平壤，莫离支已将兵击新罗，破其两城，高丽王使召之，乃还。玄奘谕使勿攻新罗，莫离支曰：“昔隋人入寇，新罗乘衅侵我地五百里，自非归我侵地，恐兵未能已”。玄奘曰：“既往之事，焉可追论！至于辽东诸城，本皆中国郡县，中国尚且不言，高丽岂得必求故地！”莫离支竟不从²⁶⁾。（《资治通鉴》197，贞观17年春正月壬寅条）
- ⑦ （贞观十八年）於是帝欲自将讨之，召长安耆老劳曰：“辽东故中国地，而莫离支贼杀其主，朕将自行经略之，故与父老约：子若孙从我行者，我能拊循之，毋庸恤也”。即厚赐布粟。群臣皆劝帝毋行，帝曰：“吾知之矣，去本而就末，舍高以取下，释近而之远，三者为不祥，伐高丽是也。然盖苏文杀君，又戮大臣……”（《新唐书》220，高丽传）
- ⑧ 上谓侍臣曰：“辽东本中国之地，隋氏四出师而不能得；朕今东征，欲为中国报子弟之仇……”（《资治通鉴》197，贞观19年3月丁亥条）

24) 《新唐书》220，高丽传记为武德三年之事。

25) 《新唐书》220，高丽转载：“帝曰：‘高丽地，止四郡。我发卒数万攻辽东诸城必救’。”

26) 《新唐书》220，高丽转载：“玄奘曰：‘往事乌足论邪，辽东故中国郡县，天子且不取高丽焉，得违诏不从’。”

III. 郡县恢复论的产生背景

通常认为进入五世纪后半以来，高句丽向辽河方面的发展分为两路，一路是以辽河下游为中心与北魏的分界线，一路是以辽河中上游为中心与契丹的分界线²⁷⁾。高句丽与北魏没有爆发直接的战争，而且也没有向北部中国发展进一步向西扩展势力。但进入七世纪后，如果进一步考察与隋唐时期有关的史料，可见期间高句丽的西部国界出现了变化，即明显地表现出向辽西扩展势力。

高句丽向西辽河地域扩展势力虽然在四世纪末广开土王代的碑丽征伐时就开始了，进入五世纪后半期后变得更加积极起来，其对象则是位于西刺木伦河流域的契丹和从辽河以西至大凌河的柳城以东地区。

- B-1. 太和三年，高句丽与蠕蠕谋，欲取地豆于以分之。契丹惧其侵軼，其莫弗贺勿于率其部落，车三千乘，众万余口，驱徙杂畜，求入内附，止于白狼水东。（《魏书》卷100，契丹传）
2. 当后魏时，为高丽所侵，部落万余口求内附，止于白貔河。其后为突厥所逼，又以万家寄于高丽。（《隋书》卷84，契丹传）
3. 先是，契丹虏掠边民六十余口，又为高丽拥掠东归。轨具闻

27) 宋基豪：〈5世纪后半期高句丽的北境〉，《古代东北亚历史地图的现状与课题》，东北亚历史地图编纂委员会第一届国际学术讨论会论文集，第185~196页，2007年。

其状，移书征之，云悉资给遣还。（《魏书》卷32，封懿 附封轨传）

史料B-1反映了479年随着高句丽势力向地豆于以南契丹族地区的扩展，受此威胁的契丹族一部南下至白狼河流域，即和龙一带，内附于北魏的史实。从史料B-2来看，此外多数部落都留在原居住地并归附了高句丽。另外，史料B-3则反映了太和年间(477~499年)在北魏边境掳掠边民的契丹人为高句丽所围掠东归，后来又被送还的情况。

由此高句丽驱逐了居住在其所辖地域西北西刺木伦河流域的契丹族，并将其部分部族拉拢为附庸。同时高句丽还企图与柔然一起瓜分其北方的地豆于等，以扩张势力。

六世纪末隋设置辽西郡后随之进行了三次高句丽远征，但西刺木伦河流域的情况也没有什么大的变化。

- C-1. (开皇)六年，其诸部相攻击，久不止。又与突厥相侵，高祖使使让之。其国遣使诣阙，顿颡谢罪。其后契丹别部出伏等背高丽，率众内附，高祖纳之。安置于渴奚那颡之北。（《隋书》卷84，契丹传）
2. 高丽小丑，迷昏不恭，崇聚渤碣之间，荐食辽秽之境。虽复汉魏诛戮，巢窟暂倾。乱离多阻，种落还集……乃兼契丹之党，虔留海戍。习鞞鞞之服，侵轶辽西。（《册附元龟》卷187，亲征，大业八年）
3. (贞观)十一年……问罪东夷……辽东奉见……于时延陀犯塞……蜂蚁复集……属兴师辽碣……九种以之而震惊。契丹在白狼之东，居黄龙之右，近侵卉服，外结鸟夷。（675年，

《阿史那忠墓志铭》²⁸⁾

虽然契丹别部于586年背叛了高句丽(史料C-1),但12年后的598年左右高句丽却与契丹、靺鞨一起猛攻了隋朝进取东北的桥头堡辽西(史料C-2)²⁹⁾。637年随同唐太宗征伐高句丽的阿史那忠的随军记录也表明契丹依然和乌夷(即高句丽)共同进行着活动(史料C-3)³⁰⁾。

对唐来说,柳城以东的大凌河中下流地域和在那里居住并附属于高句丽的契丹,是其征战的对象。首先我们可以发现,在隋炀帝的高句丽远征军的行军名中,存在右第七军踏顿道。踏顿,在史料中记载为“蹋頓”³¹⁾,是后汉末,于辽西柳城县被害的匈奴首长的名字³²⁾。当时很有可能组成了一支征服象征蹋頓的柳城一带的行军。

28) 周绍良编:《唐代墓志丛编》上卷,上海古籍出版社,第602页,1992年。

29) 李成制:〈通过“靺鞨问题”看六世纪末辽西政势的变化〉,《学艺志》10,陆军士官学校博物馆,第173~194页,2003年。598年高句丽的辽西攻略是以限制隋对大凌河与西刺木伦河流域的诸种族的影响力扩大,确立与以营州为据点的游牧民族间的交涉、交易通道为目的进行的。

30) 从内容上看,乌夷极有可能是岛夷的误字。这一时期,记高句丽为岛夷的史料,可参照:“岛夷陪隶,虐杀其君,毒被朝鲜,灾罹稷貂”(《唐大诏令集》130,破高丽诏);“岛夷皮服,夹右碣石入于河。岛夷海岛之夷,冀东北边之国,如辽东朝鲜之地”(《资治通鉴前编》1,禹告成功)。

31) “辽东之役,出蹋頓道,不利而还”(《隋书》63,史祥传);“帝复征辽东,拜右候卫将军,兵指蹋頓道。军至乌骨城,会杨玄感作乱,班师”。(《隋书》65,薛世雄传)

32) “建安十二年秋八月,曹操大破乌桓于柳城,斩其蹋頓。蹋頓,匈奴王号;柳城,县名,属辽西郡,今营州县”。(《后汉书》9,献帝纪)

但是，隋唐时期象征高句丽的远征或战场中，出现较多的与辽西地域相关的地名。经过对相关史料进行考察，发现有包括辽碣和白狼水(狼水，狼河，狼川，狼山)在内的辽阴、辽右等。辽碣是辽河(海)与碣石的简称。这里的碣石，以往认为是大凌河流域，大狼水亦指现大凌河，这是无可非议的³³⁾。特别要说明的是，“问罪白狼”的提法，明示着大凌河流域之辽西腹地为高句丽进行征讨的中心地。即

- D-1. (贞观十七年)……属辰韩负险，独沮声教，溲丸都而举斧，恃淇水而含沙。太宗爰命六军，亲纒万乘，观兵玄菟，问罪白狼。(659年，《尉迟敬德基志铭》)³⁴⁾
2. 属玄夷而鼓孽，君乃风情直上，壮气横秋，占募九都，义倍运伍……岭云朝霰，破数阵于狼川，边月晚沉颓，几城于兔堞……至贞观二十年……(680年，《高感墓志铭》)³⁵⁾

上述史料是约643年(645年?)参加了高句丽远征的尉迟敬德和高感的随军记录，其中称进攻打击对象于白狼，进而在狼川数破敌阵。白狼和狼川都指白狼水(川)，被推定为现在辽西的大凌河。将白狼水确认为大凌河自北魏郦道元《水经注》所载³⁶⁾以来就没有异议。唐朝所要

33) “辽碣之表，辽海及碣石为辽碣。杜佑曰：卢龙汉肥如县，有碣石山碣，然而立在海旁，秦筑长城城所起。自碣石，在今高丽旧界，非此碣石也。赵瞻所谓辽碣。盖即杜佑所言者也”。(《资治通鉴》99，晋纪，永和七年)

34) 周绍良编：《唐代墓志丛编》上卷，上海古籍出版社，第292页，1992年。

35) 吴钢编：《全唐文补遗》5辑，三秦出版社，第190页，1998年。

36) 《水经注》卷14，大辽水注：“魏土地记曰：黄龙城西南有白狼河，东北流附

问罪的白狼就是指高句丽。但是，契丹领域内的高句丽与唐的冲突，实际上是因高句丽军队的出征而引起的。

E. 韦挺，子待价，初为左千牛备身。永徽中，江夏王道宗得罪，待价即道宗之婿也，缘坐左迁卢龙府果毅。时将军辛文陵率兵招慰高丽，行至吐护真水，高丽掩其不备，袭击败之。（《旧唐书》77，韦挺传）

拟推测发生于655年³⁷⁾的上述事件，记载的是唐将辛文陵的军队在吐护真水败于高句丽的史实³⁸⁾。吐护真水(或吐护真河)指的是老哈河，通常被认为是奚族的根据地³⁹⁾。从这里可以看出，655年之际，高句丽军队曾一度征战至大凌河西北方的老哈河一带。所以，在参加高句丽远征的人物的墓志铭中，常出现大凌河一带的战场之地名⁴⁰⁾，不能

城东北下，即是也……”。

“水经注，白狼水，出右北平白狼县东南，东北流经龙城西南，又东南流至辽东房县入于辽水。初学记，狼河，附黄龙城东北下，即白狼水”。（《资治通鉴》135，齐纪，建元元年条注）

37) 罗栋煜：〈高句丽的对唐军事战略—以645~659年为中心〉，高丽大学校硕士论文，第32~41页，2008年。

38) 《新唐书》98，韦挺子待价传也载：“时将军辛文陵，招慰高丽，次吐护真水，为虏所袭”，记录了辛文陵率领的唐军“次吐护真水”，即停留在吐护真水时，遭到高句丽的袭击的内容。

39) “按老河之为土河，至今两名互称隋书称托纥臣水；唐书称土护真水即托纥臣译语之转音……时为奚王牙帐所在”。（《钦定热河志》70，老河条，按语）

40) 除史料D-1，2以外，参加唐代高句丽远征的人物的墓志铭中，有不少看似

简单将其视为造作。

- F-1. 汉乐浪、玄菟之地，自后汉及魏，为公孙氏所掳，至渊灭，西晋永嘉以后，复陷入高丽。其不耐、屯有、带方、安市、平郭、安平、居龙、文城，皆汉二郡诸县，则朝鲜、秽貊、沃沮之地。（《通典》卷186，东夷，高句丽条）
2. 按高丽记云……汉乐浪、玄菟之地，自后汉及魏，为公孙氏所据。至渊灭，西晋永嘉以后，复入高丽。其不耐、屯有、带方、安市、平郭、安平、居文、龙城，皆汉二郡之属县，今则朝鲜、秽貊、沃沮之地是也。（《太平寰宇记》卷173，东夷，高句丽国，土俗物产条）
3. 高骊记曰：“今高丽国兼有朝鲜、濊貊之地也”。（《翰苑》蕃夷部，高丽条）

把白浪河(即大凌河)一带描述为战场的记载：“太宗文皇帝……吊辽东之多僻……雷动玄菟之郊……电照狼河之曲”(670年，〈许钦墓志铭〉，《唐代墓志丛编》上卷，上海古籍出版社，第526页。以下简称“丛编”)；“泊以三韩肆虐，恃玄菟以蜂飞。九种挺妖，阻黄龙以猬聚……铭曰……辰韩逆命，东夷肆凶，纵虐玄菟，侍险黄龙”(672年，〈马宝墓志铭〉，《丛编》，第541页)；“辰韩傲抗，纵旆除残。契丹纵毒，廻戈拯乱，剿玄菟之游魂，覆黄龙之巨擘，亦既至止……”(675年，〈阿史那府君碑〉，《全唐文新编》20，吉林文史出版社，第13683页)；“贞观七年……于时三韩蚁聚，惊涛阻于白狼，九种鸱张，凝氛晦于玄菟，兴师薄伐”(675年，〈姬温墓志铭〉，《全唐文补遗》3辑，三秦出版社，第434页。以下简称“补遗”)；“九种以之冰销，三韩于焉雹散，既而狼山雾静，却走马于莲峰，鯤壑波清，返归牛于桃野”(687年，〈张成墓志铭〉，《补遗》2辑，第300页)；“往者三韩作梗，九种挺妖，君即杖剑狼川，横戈鯤壑，朝鲜之静，君有力焉”(696年，〈王思讷墓志铭〉，《丛编》，第881页)；“去龙朔年中，俗三韩作梗，憑凌鯤海之隅，九种孤恩，旅拒狼河之外”(697年，〈张素墓志铭〉，《丛编》，第918页)

F-1中《通典》的记载，在记述高句丽疆域时提到了故郡县居龙、文城，F-2则将此记载为居文、龙城，其史料来源则为《高丽记》。F-3中的《高丽记》即640年代唐贞观年间由陈大德等人编纂的《奉使高丽记》逸文。虽然名称有所混同，但按此记载则640年代辽西郡文县和龙城，即柳城县一带还被标记为高句丽的地域。隋唐时期史书对高句丽的东西领域的记载，比从前还要广阔的理由可能就是这个缘由。

- G-1. 其西则焉耆之地，东则朝鲜之地，北则渡沙漠穷瀚海，南则临大磧。（《魏书》卷103，蠕蠕传）
2. 辽东南一千余里，东至栅城，南至小海，北至旧夫余……其地东西二千里，南北一千余里。（《魏书》卷100，高丽传）
 3. 东渡海至于新罗，西北渡辽水至于营州，南渡海至于百济，北至靺鞨，东西三千一百里，南北二千里。（《旧唐书》卷199，高丽传）
 4. 其地，后汉时方二千里，至魏南北渐狭总千余里，至隋渐大，东西六千里。（《通典》卷186，高句丽传）⁴¹⁾

史料G-1称柔然东部为“朝鲜之地”，这应是五世纪末以来高句丽控制契丹以及试图瓜分地豆于等向西北扩展势力的结果。通过史料G-2~4则可看到，高句丽的疆域从北魏东西二千里，到隋唐期间发展到了三千一百里(或六千里)。G-3《旧唐书》中的“西北渡辽水至于营

41) 《太平寰宇记》卷173高句丽国和《文献通考》卷325高句丽传中也收录了相同的内容。

州”，我们也可以看作其承认了高句丽对作为营州中心地的柳城以东的支配力。

好像早已有人注意到了这一记载，李圭景(1788~?)曾提到：

H. 以愚所见，裴矩之所谓高丽本孤竹国者，非尽非也。高丽者，即高句丽也。高句丽疆域西北，渡辽接营州，则孤竹国在于今永平府，而已入于句丽境内故也。⁴²⁾

在这里，他将高句丽与孤竹国直接联系起来的原因归结于高句丽对大凌河流域的挺进。这又给史料A-1中，裴矩将象征辽西的孤竹国与高句丽联系在一起的判断，提供了依据。

因此，以辽西为中心，向东西方面施加影响力的势力为依据，箕子与孤竹君标榜自己根据地的文化底蕴，并不亚于中原王朝。

- I-1. 君讳永恩，字某，昌黎徒河人。本姓慕容，燕文明帝皝之后也。朝鲜微(箕)子之封，孤竹伯夷之国……其先保姓受氏，初存柳城之功，开国承家，始静辽阳之乱……铭曰……朝鲜建国，孤竹为君。地称高柳，山名密云。渔阳赵裂武遂秦分。(周庾信撰，《庾子山集》14，〈周陇右总管长史赠太子少保头卢功神道碑〉)
2. 慕容皝，字符真，廆第三子也。龙颜版齿，身長七尺八寸，雄略多权略，尚经学善天文。廆为辽东公，立为世子。建武初

42) 李圭景：〈孤竹首阳山辨证说〉，《五洲衍文长笈散稿》天地篇，山条。

拜为冠军将军、左贤王，封望平侯。率众征讨，累有功。大宁末，拜平北将军，进封朝鲜公。（《晋书》，载记9）

在上述记载中，前燕慕容皝的后孙豆卢永恩（译注：原文为‘头卢永恩’，现改为‘豆卢永恩’）在谈到其先祖生活的中心地辽东、辽西地区的光荣历史时，举出了象征朝鲜和孤竹国的微子（箕子）和伯夷。豆卢永恩是皇始二年（397年）北魏灭后燕时归附于北魏的慕容胜的曾孙。后，慕容胜提任为长乐郡守，改豆卢为姓⁴³⁾。众所周知，慕容鲜卑的起源可追溯到其始祖莫护跋在参加曹魏对公孙氏的征讨军中立下功绩，由此，开始定居于大凌河中流棘城北部⁴⁴⁾。到了三世纪后半期慕容廆代以后，势力有所增强；而到了340年代慕容皝代，发展成为驰骋于辽东和辽西的势力⁴⁵⁾。

43) “豆卢宁：字永安，昌黎徒何人。其先本姓慕容氏，前燕之支庶也。高祖胜，以燕。皇始初，归魏，授长乐郡守，赐姓豆卢氏，或云避难改焉”。（《周书》62，豆卢宁传）；“豆卢宁……高祖胜，以燕。皇始初归魏，授长乐郡守，赐姓豆卢氏。或云北人谓归义为‘豆卢’，因氏焉，又云避难改焉，未详孰是”。（《周书》62，豆卢宁传）；豆卢是北人对“归义”的称法。之后，混用了慕容和豆卢及卢。豆卢氏的北魏归附及之后的情况请参考，姜波：〈豆卢氏世系及其汉化——以墓碑、墓志为线索〉，《考古学报》，2002年第三期，第303~333页，2003年。（译注：原文为‘以墓碑、墓志为线索’，现改为‘以墓碑、墓志为线索’）

44) 棘城从294年慕容廆以“颛頊之墟”为由移居至此之后到342年龙城迁都，一直是慕容府的据点。对于棘城的位置，以往认为是锦州或义县。最近以考古新发现为依据，大多把其比定为北标一带。（田立坤：〈棘城新考〉，《辽海文物学刊》，1996年第二期）

慕容鲜卑曾作为成长根据地的大凌河一带，从先秦以来一直有箕子封国之传统⁴⁶⁾。这种遗产，因《后汉书》33，郡国志：“辽西郡……令支，有孤竹城，伯夷叔齐本国”的记载而一直被人们所认识。这与平壤一带直至五世纪，箕子传承仍在反复，是一个道理⁴⁷⁾。

包括鲜卑在内的五胡之游牧势力，在支配汉族居住地时期，标榜其为皇帝等华夏的后孙，这是存在于异民族国家中的普遍现象⁴⁸⁾。因此，豆卢永恩对先秦以来作为象征华夏的孤竹国和箕子封地之传统的慕容鲜卑的根据地⁴⁹⁾，主观地美化，是很自然的事情。

慕容鲜卑对继三燕政权后，将势力延伸至辽东和柳城以东的辽西部分地区、西刺木伦河和老哈河一带的高句丽，宣扬其孤竹国和箕子封国的地域传统和文化意识，是很自然的一件事。由此，才会出现史料A-1之类的表述。

45) 三崎良章：〈慕容廆的辽西支配〉，《福井重雅先生古稀、退职纪念论集古代东亚细亚的社会与文化》，汲古书院，第259~276页，2007年。

46) “宋镐”：〈大凌河流域殷周青铜礼器使用集团与箕子朝鲜〉，《韩国古代史研究》38，韩国古代史学会，第15~16页，2005年。以喀左北洞村1号贮藏坑内出土了孤竹铭铜釜，2号贮藏坑内出土了箕侯铭方鼎来看，喀左县一带与殷代的孤竹国有关，并由具有“箕侯”铭的人统管这一地域。

47) “昔燕人卫满自涿水西至朝鲜，朝鲜故箕子之国也……今高句丽之国治……故乐浪朝鲜县，即乐浪郡治，汉武帝置”。(《水经注》14，涿水)

48) 关于掌有辽西、辽东地域的鲜卑拓跋氏的华夷观之变化情况可参考，园田俊介：〈北魏，东西魏时期鲜卑拓跋氏(元氏)的祖先传说及其形成〉，《史滴》27，早稻田大学东洋史谈话会，2005年。

49) “营州：今理柳城县，殷时为孤竹国也”。(《通典》178，州郡)；“辽西，即今之广宁等处，乃古之孤竹国也”。(《唐音》3，元，张震注)

IV. 结语

下面，将对前面所考察之内容进行简要概括，以此来代替结语。

第一，隋唐君臣对高句丽有这样的认识：高句丽即是殷周代孤竹国，又是箕子之封国；它作为汉晋代的郡县故地，是必须恢复的一块失地。这成为现今中国学界将隋唐对高句丽的远征理解为对中国郡县的恢复的依据。它也是认为前汉代在玄菟郡内设置了高句丽县之后才出现了作为政治体的高句丽，并郡县的支配下逐渐发展起来的所谓郡县从属论的归结点。从这个意义上看，郡县恢复论是中国学界研究高句丽的根基，而这种研究并不局限于高句丽初期与辽东、玄菟郡的关系，而包括对高句丽整个历史阶段的研究。

第二，隋唐朝臣(裴矩、温彦博、相里玄奘)和君王(隋炀帝、唐太宗)具有高句丽至晋代一直是中国郡县所设置的华夏之地的对外观。它揭示了侵略高句丽的动机和名分，之后也被利用于支配的理念。但是，隋唐君臣的郡县恢复认识暴露出了现实的局限性。因为他们自己也明白，高句丽在过去虽是中国郡县，但现实中它又是外域(绝域，异域)；虽表明曾是中国的统治区域，但那已是既往之事，并非是可以要求返还的问题。在实行高句丽远征之前，没有哪个隋唐时期的诏文，明示着高句丽是中国郡县故地。

第三，裴矩和温彦博主张高句丽原本既是殷周代的孤竹国、箕子的封国的目的在于他们希望以此来督励隋炀帝和唐高祖实行高句丽远征。这是因为既是箕子的封国，又留有八条禁法之遗风的古代朝鲜都

城，不仅是乐浪郡郡治，还是当时高句丽的都城(平壤城)。虽然孤竹国可与箕子联系起来作为解释支配高句丽的名分之依据，但就高句丽本身来讲，还需要其它解释。

第四，孤竹国，比起箕子之封国、辽东之高句丽，更符合统称为辽西的营州或白狼水，即大凌河流域这一叫法。自355年高句丽故国原王从前燕授封为营州诸军事和营州刺史以后，营州便成为了掌有辽东的高句丽之实际区域。到了五世纪，高句丽进一步将影响力扩展到了西辽河上流至西刺木伦河和大凌河一带，并不断扩充军事据点，征服了契丹等游牧民族。记录着高句丽东西领域之扩大情况的隋唐代史书反映的可能就是高句丽越过辽河，向大凌河和西刺木伦河方面扩大影响力的情况。

第五，从后汉末掌握辽东霸权的公孙氏政权至被高句丽夺去霸权的前燕等鲜卑拓跋氏支配时期，由掌有辽东与辽西的势力孕育了地域意识和自尊意识。前燕后孙，后改姓为豆卢氏的豆卢永恩在谈及先祖世居的大凌河流域柳城时，标榜“朝鲜微子之封，孤竹伯夷之国”。所以，五世纪以来占据辽东，向大凌河和西刺木伦河方面扩张势力的高句丽，很有可能给人以继公孙氏和慕容氏之后的辽东和营州霸者的印象。就算高句丽都城并没有流传箕子之遗风，孤竹和箕子既是辽东和辽西地域的文化意识的产物，也是高句丽越过辽河向西进出时标榜的支配理念。

综上所述，隋唐君臣的高句丽郡县失地恢复论，表明了侵略高句丽的动机和理念，但在实际上已承认了无法要求返还高句丽领土的现

实。为求得高句丽远征的名分而提出的孤竹国与箕子国之提法，反映了高句丽掌握辽东，继续向辽西大凌河一带增强影响力的文化意识。即可以把其理解为它承认了高句丽是以孤竹和箕子为表象的营州的霸者这一现实。但中国学界从隋唐君臣的高句丽远征是对失去郡县故地的恢复过程这一观点出发，认为高句丽是在辽东玄菟郡支配下生长起来，后一时摆脱了其统治，至隋唐代又被重新统合。所以，我们有必要重新考察中国学界的这一高句丽归属议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흥기와 현도군과의 관계

—
高句麗的興起及其與玄菟郡的關係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웨이춘칭 | 魏存成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흥기와 현도군과의 관계

- 웨이춘청 (중국 길림대학 교수)
-

역사상 하나의 호칭으로서의 고구려는 어느 한 민족의 명칭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정권을 호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는 중원정권에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구로서의 현(縣)의 명칭이기도 하다. 고구려 정권은 한(漢)나라로부터 당(唐)나라에 이르는 오랜시기 동안 압록강 양측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북반부에서 700년간 존속하였는데 고구려 민족의 역사는 고구려 정권의 역사보다 더 앞선다. 고구려 민족과 고구려 정권은 중원정권과 시종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중에서도 고구려 초기에 속하는 흥기(興起)단계의 중원과 관계는 주로 현도군(玄菟郡)과의 관계이다.

I. 고구려 민족의 등장과 기원 및 활동지역

고구려 민족 명칭은 『한서』 「지리지」에서 가장 일찍이 등장한다. 한무제는 위씨조선을 멸망시킨 후 압록강 중상류지역과 두만강유역, 그리고 한반도 북반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낙랑·현도·임둔·진변 등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그중 현도군과 낙랑군에 속하는 주민들에 대해 『한서』 「지리지」에서는 “皆朝鮮 濊貉 句麗蠻夷”라고 하였다. 현도군에 고구려현이 설치되었는데 동한(東漢) 말년의 응소(應劭)는 이에 대해 ‘故句麗胡’라는 주를 달았다. 『후한서』 「고구려전」에서는 위 기록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로 현을 삼고 현도에 귀속하게 하였으며 고취기인을 하사하였다(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賜鼓吹技人)”라고 하였다. 이들 문헌의 ‘구려’·‘고구려’ 기록은 후세의 고구려 정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고구려 민족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관해 학계의 다수 견해는 맥족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한서』 「왕망전」과 「삼국지」 「고구려전」 및 『후한서』 「고구려전」에 실려 있는 관련된 기록들을 들 수 있다.

『한서』 「왕망전」의 기록은 “앞서 왕망이 고구려 군사를 동원하여 오랑캐를 치고자 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가기를 원치 않으므로 군(郡)에서 강박하였으나 모두 새외(塞外)로 도망하여 법을 어기고 도적이 되었다. 요서대윤(遼西大尹) 전담(田譚)이 그들을 추격하였으나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주군은 고구려 후(侯)인 추(騶)에게 죄를 물었다. 엄우(嚴尤)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학(貉: 맥(貊)과 같음-필자)인(人)이 법을 어긴 것은 추(騶)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별도로 탄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군에 명하여 위안함이 마땅하다. 지금에 이르러 함부로 큰 죄를 덮어씌운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근심스럽다. 부여의 무리들 중에는 필히 화친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 흉노를 이기지 못하고 부여와 예학(穢貉)이 재차 일어나니 이것이야말로 큰 우환이다.’ 왕망이 위안하지 않으니 예학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왕망이] 엄우에게 명하여 이를 치게 하였다(先是 莽發高麗兵 當伐胡 不欲行 郡強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 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麗侯騶 嚴尤奏言 貉[同貉一引者注]人犯法 不從騶起 正有它心 宜令州郡慰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 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 穢貉復起 此大憂也 莽不慰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삼국지』「고구려전」의 기록은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 예맥과, 동쪽은 옥저와, 북쪽은 부여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환도의 아래에 도읍하였는데 사방이 2천 리에 달하고 호수는 3만 명이다. …… 그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세고 전토에 익숙하여 옥저와 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 또 소수맥이 있다. 구려는 대수(大水)유역에 나라를 세워 거주하였는데, 서안평현의 북쪽에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드는 작은 강[小水]이 있어서 고구려의 별종이 이 소수유역에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소수맥이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좋은 활이 생산되니, 이른바 맥궁(貉弓)이 그것이다(高句麗在遼東之東千裏 南與朝鮮 濊貉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裏 戶三萬 …… 國人有氣力 習戰鬥 沃沮 東濊皆屬焉 又有小水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 出好弓 所謂貉弓是也).”

『후한서』「고구려전」에는 “구려는 일명 맥이라 한다. 또 별종이 있는데 소수유역에 거주하므로 그 이름을 따서 소수맥이라 한다. 그곳에서는 좋은 활이 생산되니, 이른바 맥궁이 그것이다(句驪一名貉 有別種 依小水爲居 因名曰小水 出好弓 所謂貉弓是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일주서(逸周書)』「왕회편(王會篇)」

에 실려 있는 “北方臺正東 高夷賺羊 賺羊者 羊而四角”이라는 기록과 진(晉)나라 사람인 공조(孔晁)의 “高夷 東北夷高句麗”라는 주(注)를 논거로 고이(高夷)는 고구려의 선세(先世)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고이는 상주(商周)시기 지금의 산둥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예맥(濊貊)을 지칭하며, 상주왕조 교체시기에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예맥인의 한 갈래를 말한다고 주장한다.¹⁾ 또 일부 학자들은 고이는 서주(西周) 연(燕)나라가 건립된 후 요하 상류에서 요동과 압록강유역으로 이주한 ‘연맥(燕貊)’이 당지의 토착족인 산지(山地)민족과 서로 결합하여 요동의 ‘양강(兩江: 압록강과 혼강)유역을 핵심으로 형성된 ‘맥’족이 고이라고 주장한다.²⁾ 일부 학자들은 고이는 압록강 이북인 중국 혼강유역에 위치한 고대종족이며, “중국 요령성 중부와 동부 및 한반도 청천강 이북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맥인과는 각자 독립적인 고대 민족이라고 한다.³⁾ 또 일부 학자들의 의견은 고구려는 상인(商人)에서 기원하였고 이들 상인은 중국 동북에서 발상하였으며, 이들이 대규모로 남천(南遷), 혹은 후에 상왕조가 북방으로 군사를 동원하였던 어느 한 시기 일부분 사람들이 동쪽으로 혼강과 압록강유역에 이주하였는데 주대(周代)에는 이들을 고이라 칭하였다. 이들이 곧 후세의 고구려이다.⁴⁾

고구려의 족원(族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초기 활동지역과 연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증은 『한서』 「지리지」를 참조해야 한다. 『한서』 「지리지」의 기록에 의거하면 현도군의 관할 하에는 고구려현을 제외하고 또 상

1) 馬大正(2001), 『고대 중국의 고구려역사 논총』, 흑룡강교육출판사, 31~32쪽.

2) 王綿厚(2002), 『고구려 고성 연구』, 문물출판사.

3) 劉子敏(1996), 『고구려역사 연구』, 연변대학교출판사, 9~13쪽.

4) 耿鐵華(2002), 『중국 고구려사』, 길림인민출판사.

은대(上殷臺)와 서개마(西蓋馬) 2현이 있었다. 관례에 따르면 수현(首縣)은 군의 치소(治所)가 된다. 사실상 현도군의 설치 초기에 그 치소가 고구려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옥저성(沃沮城)에 있었다. 『삼국지』 「동옥저전」과 『후한서』 「예전」을 보면 서한조제(西漢昭帝) 시원(始元) 5년(기원전 82)에 현도군의 치소는 옥저성에서 고구려현으로 옮겼다.

『삼국지』 「동옥저전」의 기록은 “한무제 원봉 2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4군을 설치하였는데,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뒤에 이맥(夷貊)의 침략을 받아 군을 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니 지금의 이른바 현도의 고부(故府)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후한서』 「예전」의 기록은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에 이르러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여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구려로 옮겼다(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 眞番 以竝樂浪 玄菟 玄菟復徙居句驪).”

옥저성의 위치에 대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북한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함경남도의 함흥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⁵⁾ 그렇다면 고구려현의 지리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삼국지』 「동옥저전」에서는 ‘구려의 서북쪽’이라 하였고, 『후한서』 「동옥저전」에서는 ‘고구려의 서북쪽’이라 하였다.⁶⁾ 여기에서 말하는 ‘구려’와 ‘고구려’는 같은 함의로써 고구려족을 말한다. 근년의 고고발굴에

5) 譚其驤 主編(1988), 『中國 歷史地圖集 釋文 匯編·東北卷』, 중앙민족학원출판사, 19~20쪽.
6) 『후한서』 「동옥저전」,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麗 西北 更以沃沮爲縣 屬樂浪東部都尉.”

의하면 고구려현은 요령성 신빈현 경내로 확정되었다.⁷⁾ 그 당시에는 고구려족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활동중심지역은 이곳이 아니라 동남에 위치한 혼강유역과 압록강 중류의 요령성 환인현 및 집안현 일대였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초기 고구려유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I. 고구려 정권의 창시와 그에 관한 전설

고구려 정권은 한효제(漢孝帝) 건조(建詔) 2년(기원전 37년)에 창시(創始)되었다. 이 창시전설에 의하면 고구려정권은 환인현과 집안현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본래의 고구려족이 창건한 것이 아니고 부여족의 왕자 주몽이 와서 건립한 것이다. 부여는 예(濊)에 속하고 고구려는 맥(貊)에 속하여 양자의 관계는 밀접할 뿐더러 정권의 창시전설도 상당히 유사하다.

고구려 정권의 창시전설은 414년의 「호태왕비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 후에는 「염모총제기(冉牟塚題記)」에서 보이나 모두 몇 구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554년에 완성된 『위서(魏書)』의 기록은 아주 상세한데 300여 글자에 달한다. 몇 백 년 후 고려의 김부식이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지 않게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고구려 정권이 창시된 구체적인 시간도 처음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줄거리는 여전히 『위서』의 기록에서 따왔음을 볼 수 있다.⁸⁾

7) 譚其驤 主編(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匯編·東北卷』, 중앙민족학원출판사, 19~20쪽.

8) 「好太王碑」, “옛날에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초모왕은) 천

부여 정권의 창시전설은 선후로 『논형(論衡)』과 『위략(魏略)』에서 보인다.⁹⁾

제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며 알에서 태어났는데 성스럽고 덕이 있었다. □□□□ 명을 받아 수레를 몰고 남쪽으로 순행하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었다. 왕은 나룻가에서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띄워 다리를 놓아라’라고 말을 하니 이에 응하여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들이 떠올라서 다리를 놓았다. 연후에 물을 건너 비류곡의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命駕 巡車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穀忽本西城山上 而建都焉。); 方起東(1999), 『“好太王碑碑文”釋讀』, 『中國著名碑帖選集』 27-호태왕비, 길림문사출판사. 『魏書』와 『삼국사기』의 기록은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略한다.

- 9) 『論衡』, 『吉驗篇』, “北夷의 高離國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달같만한 크기의 기운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임신을 하였습니 다’라고 답하였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돼지들이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고, 다시 마구간에 옮겨 말들로 하여금 밟아 죽이게 하였으나 말들도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천제의 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 어미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고는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항상 말과 양을 사육토록 하였다. 동명이 활을 잘 쏘니 왕은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려 하였다. 이에 동명은 달아나서 남쪽의 업호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이에 동명은 물을 건널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버려 추격하던 군사들이 건너지 못하였다. 인하여 동명은 부여에서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北夷에는 부여국이 있게 되었다(北夷有倬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溷中 豬以氣噓之 不死 復徙之馬欄中 欲使馬躡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奴畜之 名曰東明 令牧羊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 狔 虎 水 以弓擊水 魚鱉浮爲橋 東明得渡 魚鱉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之國焉。)” 黃暉의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년 판본, 1995년 제2차 인쇄본에서 인용하였음. 『삼국지』 권30, 『烏丸鮮卑東夷·夫餘傳』 注引 『魏略』, “옛 기록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 북방에 高離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논형』은 왕충(王充) 만년의 저작이다. 왕충의 생존연대는 27년부터 약 96년까지이다. 『위략』은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책으로 저자 어환(魚豢)은 삼국 시대의 인물이다. 이 두 책의 편찬 시기는 「호태왕비문」과 『위서』 등 비각과 문헌보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고구려는 부여의 전설을 차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당나라 초에 편찬된 『양서(梁書)』에서 양자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양서』에는 「부여전」이 없고 부여 정권의 창시전설은 「고구려전」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인즉 「고구려는 그 선조가 동명으로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래 북이(北夷) 탁리왕(濠離王)의 아들이다. 이 왕(濠王)이 출행한 사이에 그의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이왕이 돌아와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앞서 하늘 위에서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저에게 내려와서 임신이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왕이 그녀를 가두어 두었더니 뒤에 사내아이를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내버리자, 돼지들이 입김을

임신을 하였다.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달걀만한 크기의 기운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임신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뒤에 아들을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자 돼지들이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고, 마구간에 옮겨 놓았으나 말도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천제의 아들일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 어머니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고는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항상 말을 사육토록 하였다. 동명이 활을 잘 쏘자 왕은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려 하니 동명은 달아나서 남쪽의 施掩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이에 동명은 물을 건널 수 있었고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버려 추격하던 군사들이 건너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움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舊志又言 昔北方有高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曰 有氣如鷄子來下 我故有身 後生子 王捐之於溷中 豬以喙噓之 徙至馬閑 馬以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 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鱉浮爲橋 東明得度(渡) 魚鱉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이를 신령스럽게 여겨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장성하면서 활을 잘 쏘니, 왕은 그의 용맹함을 꺼리어 다시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동명은 도망하여 남쪽의 엄체수(淹滯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두 떠올라 다리를 놓아주었다. 이에 동명은 이를 밟고 물을 건너 부여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그 후손의 한 지파(支派)가 구려의 종족이 되었다(高句麗者 其先出自東明 東明本北夷橐離王之子 離王出行 其侍兒於後任娠 離王還 欲殺之 侍兒曰 前見天上有氣如大鷄子 來降我 因以有娠 王囚之 後遂生男 王置之豕牢 豕以口氣噓之 不死 王以爲神 乃聽收養 長而善射 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乃奔走 南至淹滯水 以弓擊水 魚鱉皆浮爲橋 東明乘之得渡 至夫餘而王焉 其後支別爲句麗種也.)” 부여의 초기와 중기의 활동 중심지역은 지금의 길림지역이다. 이 점은 다년간의 고고발굴을 통하여 많은 발견이 있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져왔다. 북이 탁리의 유적에 관해서도 고고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서』와 『삼국사기』에 의하면 주몽이 무리를 이끌고 부여에서 남하하면서 중도에서 또 현인(賢人)을 받아들이면서 비류수에 이르렀고, 비류수 상류에서 세대에 걸쳐 왕으로 칭하던 비류국을 항복시키고 나서 기반을 잡을 수 있었고 대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 비류국은 『삼국지』와 『후한서』 「고구려전」에 실려 있는 연(소)노부일 것이다. 고구려 정권을 건립한 주몽부(朱蒙部)는 계루부에 속한다. 고구려 정권이 건립하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 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 정권이라는 명칭은 고구려현에서 직접 따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13세기 고려의 작가인 이승휴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도 “주몽이 고구려현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다(以高句麗縣之名立國)”라고 명확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라는 명칭은 족명(族名) → 현명(縣名) → 정권명(政權名)으로 연습(沿襲)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로 정권의 명칭을 명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몽을 위수로 하는 왕족도 “고(高)로써 씨(氏)를 삼았다[以高爲氏].”

III. 고구려의 흥기와 현도군과의 관계

고구려의 소재지역에는 고구려 정권이 건립되기 이전과 고구려 민족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중원의 세력과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0년 좌우에 연조왕(燕詔王)이 대장군 진개(秦開)를 파견하여 동호(東胡)를 물리치고 조선을 공략하여 연(燕)의 변경을 한반도의 서북부에까지 확대하였다.¹⁰⁾ 최근에 대녕강(大寧江) 연안에서 연나라의 장성을 받

10) 『史記』 권110, 「홍노열전」, “그후에 연나라의 賢將 진개가 인질로 胡에 있었는데 胡는 그를 깊이 믿었다. 진개는 돌아온 후 동호를 격파하여 도망가게 하였다. 이에 동호를 천 여리 밖에 물리쳤다. …… 燕도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양평까지 이르렀으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등 군을 설치하여 동호를 막았다(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裏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穀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以拒胡).”; 『삼국지』 권30 「烏丸鮮卑東夷傳」 注引 『魏略』 曰, “옛 기자의 후에인 朝鮮侯는 주나라가 쇠약해지고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여 周 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그의 大夫 禮를 간하므로 중지하였다. 그리고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섬득케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진개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지역을 공격하여 2천여리의 땅을 얻어 滿番汗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의 세력은 미약하게 되었다(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裏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金毓黻의 고증에 의하면 위 두 기사는 “모두 진개를 위주로 그가 동호를 격파하고

견하였다.¹¹⁾ 이 외에 환인현과 집안현 및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등 넓은 지역에서 선후 몇 차례에 걸쳐 연(燕)·진(秦)·한(漢)의 화폐와 연나라 계통에 속하는 철기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화폐로는 명도전(明刀錢)·반량전(半兩錢)·오수전(五銖錢)·화천(貨泉) 등이 있고, 철기로는 생산도구인 염(鎌)·괘(鐮)·서(鋤)·반월형쌍공괘도(半月形雙孔掐刀)·착(鑿) 등과 병장기인 모(矛)·족(鍬) 등이 있다. 일부 유적들 중에서는 화폐와 철기가 함께 출토되기도 하였다.¹²⁾ 1980년 집안현에서는 또 명문이 새겨져 있는 초(趙)나라 시기의 청동단검(靑銅短劍)을 발견하였고, 장백현에서 1991년 조나라 린상여(蔞相如)의 동과(銅戈)를 발견하기도 하였다.¹³⁾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원전 2세기 말에 한무제는 군사를 동원하여 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현도·임둔·진번 4군을 설치하고 고구려 민

조선을 공략한 사실들으로써 자연히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겠으나, 아마 그 당시에 동호가 연나라의 북쪽에 있었고 조선이 연나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개가 요동을 개척한 시간은 ‘周赧왕 15년, 燕昭王 12년’인 300년이다. 金毓黻(1980), 『동북통사』, 사회과학전선잡지사(翻印本), 58~60쪽.

- 11) 孫永鍾 저·顧禹寧 역(1990), 「대녕강반의 古長城에 관하여」, 『박물관연구』 제1기; 李健才(1996), 「북한 ‘대녕강長城’의 수축연대 문제에 관한 探討」, 『박물관연구』 제3기; 鄭君雷(1997), 「대녕강 長城에 관한 문제」, 『史學集刊』 제1기.
- 12) 李蓮(1957), 「集安에서 발견된 古錢」, 『문물참고자료』 제8기; 古兵(1964), 「길림 집안에서 다년래 출토된 고대의 錢幣」, 『고고』 제2기; 王巍(1997), 「중국 고대 철기 및 冶鐵기술이 한반도에 대한 傳播」, 『고고학보』 제3기.
- 13) 집안현 文物보관소(1982), 「길림 집안에서 발견한 청동단검」, 『고고』 제6기; 黃盛璋(1983), 「跋集安新出安陽劍」, 『고고』 제5기; 趙書勤(1997), 「集安兩件館文物名稱小考」, 『박물관연구』 제2기; 장백현문관소(1998), 「길림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 발견된 蔞相如 銅戈」, 『문물』 제5기.

족은 현도군 관할에 소속되어 있었다.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정권을 건립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칭하고 이를 따서 고(高)로써 씨(氏)를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주몽은 왕으로 자칭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원후 9년에 왕망이 한(漢)의 정권을 찬탈하고 제도를 개정하면서 “제후왕들의 호(號)를 모두 공(公)으로 정하고 사이(四夷)에서 호(號)를 참(僭)하여 왕으로 칭한 자는 모두 후(侯)로 고친다고 정하였다(定諸侯王之號皆稱公 及四夷僭號稱王者皆更爲侯)”라고 하였다. 고구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기원후 12년에 왕망은 자신의 군사 조달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고구려를 “고구려 이름을 고쳐 하구려(更名高句麗爲下句麗)”라 하였다.¹⁴⁾ 그 뒤 20년이 지난 기원후 32년에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함에 따라 광무제는 비로소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후한서』에 실려 있는 기록이다. 『삼국지』에는 ‘始見稱王’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중원정권에서 고구려왕의 칭호를 공식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고구려왕이 중원정권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당히 긴 시기 동안 고구려 정권은 여전히 정권이 건립되기 이전의 고구려 민족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의 현도군, 혹은 요동군의 관할 하에 귀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삼국지』와 『후한서』 「고구려전」에는 기본 내용이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본래 5족이 있으니 연노부 · 절노부 · 순노부 · 관노부 · 계루부가 그것이다. 본래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한나라 때에는 고취기인(鼓吹技人)을 하사하였다. 항상 현도군에 나아가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아

14) 『漢書』, 「王莽傳」, 中華書局點校本, 4105, 4130쪽.

갔는데 고구려령(令)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고서 조복과 의책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책구루(幘溝婁)라 부른다. 구루란 구려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本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溝婁者 句麗名城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후한서』 「고구려전」에는 “무릇 5족이 있으니, 소노부·절노부·순노부·관노부·계루부 등이다. 본래는 소노부를 왕으로 하였으나 점점 미약해져서 후에는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한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도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취기인을 하사하였다(凡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菟 賜鼓吹技人)”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 ‘涓奴部’와 ‘涓奴部’의 명칭, ‘本有五族’과 ‘凡有五族’, ‘今桂婁部代之’와 ‘後桂婁部代之’ 등의 기록들이 비록 한 글자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같은 역사사실을 기록하였다. 즉 “本涓(涓)奴部爲王 稍微弱 今(後)桂婁部代之”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연(소)노부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비류수 상류에서 ‘누대(累代)에 걸쳐 왕(累世爲王)’을 하던 ‘비류국’을 말하며 ‘今(後)桂婁部代之’는 주몽이 왕이 되어 고구려 정권을 건립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둘째, “한나라 때에 고취기인(鼓吹技人)을 하사하였다. 항상 현도군에 나아가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는데 고구려령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라는 기록을 살펴보면, 『사원(辭源)』에서는 ‘鼓吹’에 대해 “악명(樂名)이다. 주요 악기로는 고(鼓)·정(鉦)·소(簫)·가(笳) 등이 있으며 북방민족으로부터 나왔는데 본래 군중의 음악이었다. …… 초기에는 노박(鹵簿)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공(功)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하사하기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기(伎)’는 재주로 해석되어 ‘기(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의미로는 가녀(歌女)·무녀(舞女)로서 ‘기(伎)’와 통한다. ‘조복(朝服)’은 ‘군신이 조회할 시에 입는 예복이며’, ‘명적(名籍)’은 ‘명책(名冊)’이다. 고구려는 한, 혹은 현도군으로부터 ‘고취기인’을 하사받거나 또 현도군으로부터 ‘조복의책(朝服衣幘)’을 받았으며, 고구려현의 현령은 이에 관한 명책을 주관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중원정권 및 현도군, 그리고 고구려현은 어떠한 관계였을까 하는 문제는 이미 분명하게 밝혀진 셈이다. ‘後稍驕恣’의 의미는 고구려 정권이 건립되고 나서 또 그들의 세력이 점차 발전된 후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시기에 이르면 ‘조복의책’을 받는 지점·형식 등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이미 맺었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셋째, “그 뒤에 차츰 교만 방자해져서 다시는 [현도]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았다(後稍驕恣 不復詣郡 於東界築小城)”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계(東界)’는 현도군 고구려현의 ‘동계’를 말하며, ‘동계’에 쌓은 소성(小城)을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책구루라 부른다. 구루란 구려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溝婁者 句麗名城也)”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고구려 명칭’의 유래와 함의를 연관짓고 있다. ‘고구려 명칭’의 유래와 함의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고리(槁離)설·‘산고수려(山高水麗)설·‘고대흑마(高大黑馬)설·‘개래(介萊)설·‘고대건축(高臺建築)설·‘쌍족(雙足)으로 고산곡곡(高山曲谷)을 질주하는 쌍족치행

어고산곡(雙足馳行於高山曲)설 · 동(銅) 혹은 황동(黃銅)설 · 중경(中京) 혹은 중국(中國)설 · 수읍(首邑) 혹은 상경(上京)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¹⁵⁾ 이 중에서도 '구루'설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고구려에서는 '성'을 '구루'라 칭하였으며, '구(溝)와 '구(句)'는 동음자이고, '루(濶)와 '려(麗)'는 동성자이기 때문에 '구려(句麗)'는 '구루(溝濶)'에서 전하여 온 것이 되며 '고구려'는 '고성(高城)'이 된다. '고성'이라 함은 무엇일까? 고구려 성터들에 대한 고고발굴과 문헌기록을 통하여 '고성'은 사실상 '산성'을 말한다. 고구려의 소재지는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넓은 들은 없다."¹⁶⁾ 고구려의 성은 절대다수가 산성이며 고구려 민족은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한시라도 산성을 떠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민족이 '고구려'라는 명칭을 취한 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고구려 민족과 정권은 현도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필연코 발전이 요구되었으며 그렇다보니 현도군 등 군과의 충돌도 필연적이었다. 학계에서는 『후한서』 「군국지」에 실려 있는 107년에 요동군을 고현(高顯) · 휘성(候城) · 요양(遼陽) 3개 현으로 분치(分置)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현도군의 치소를 다시 신빈현으로 내천(內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이 문제는 고구려 세력의 확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시기는 초기 고구려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고구려와 한사군과의 관계, 그중에서도 주로 현도군과의 종속관계는 여전히 유

15) 劉子敏(1996), 『고구려역사 연구』, 연변대학교출판사, 1~9쪽.

16) 『삼국지』 권30, 『烏丸鮮卑東夷傳』, 中華書局点校本, 843쪽.

17) 譚其驥 主編(1988), 『中國 歷史地圖集 釋文 匯編·東北卷』, 중앙민족학원출판사, 16~17쪽.

지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상술한 바를 제외하고, 아래에 몇 개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더 거론하려 한다.

하나는 2세기 초의 사건이다.

- ① 殤帝와 安帝 年間에 句麗王 宮이 수차레나 요동을 침입하였으므로 다시 현도[군]에 속하게 하였다(至殤 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 更屬玄菟). (『삼국지』, 「고구려전」)
- ② 安帝 永初 5년(111년) 宮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면서 현도(군)에 예속되기를 요구하였다(安帝 永初五年 宮遣使貢獻 求屬玄菟). (『후한서』, 「고구려전」)
- ③ (태조대왕) 59년(111년) 사신을 파견하여 漢에 이르러 방물을 바치고 현도(군)에 예속되기를 요구하였다([太祖大王]59年 遣使如漢 貢獻方物 求屬玄菟).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다른 하나는 위에서 열거한 사건 이후 1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다.

이 해(121년)에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왕이 되었다. 요광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초상을 틈타 군대를 출동시켜 공격하고자 하니 논의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可)하다고 말하였다. 상서 진충이 말하기를 ‘궁이 생전에 악독하여 요광이 토벌하지 못하였는데 그의 죽음을 틈타 공격하는 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사절을 보내어 조문(弔問)하면서 예전의 죄를 꾸짖고는 그 죄를 용서해 주어 이후 그들이 선(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니 안제는 그 의견을 따랐다. 이듬해에 수성이 한나라의 포로들을 송환하고 현도에 이르러 항복하였다(是歲 宮死 子遂成立 姚光上言 欲因其喪發兵擊之 議者皆以爲可許 尙書陳忠曰 宮前桀黠 光不能討 死而擊之 非義也 宜遣弔問 因責讓前罪 赦不加誅 取其後善 安帝從之 明年遂成還漢生口 詣玄菟降). (『후한서』, 「고구려전」)

또 다른 하나는 위의 사건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 ① 順帝와 桓帝 연간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新安과 居鄉을 노략질하고, 또 西安平을 공격하여 도중에서 帶方丞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靈帝 建寧 2년(169)에 현도태수 耿臨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수백 명을 죽이고 사로잡으니 백고가 항복하여 요동[군]에 속하였다. (嘉[熹]平 연간(172~178)에 백고는 현도[군]에 속하기를 청하였다(順 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 居鄉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丞 略得樂浪太守妻子 靈帝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嘉[熹]平中 伯固乞屬玄菟). 『삼국지』, 「고구려전」)
- ② 수성이 죽고 아들 백고가 왕이 되었다. 그 뒤로 예맥이 복속하니 동쪽 변방에 사건이 줄어들었다. 順帝 陽嘉원년에 현도군에 屯田 6부를 설치하였다. 질제(質帝)·환제(桓帝) 연간에 다시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하여 대방의 령(丞)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포로로 잡았다. 전녕 2년(169)에 현도태수 경림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수백 명을 죽이니 백고가 항복하여 현도에 예속되기를 청하였다(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滅貊率服 東垂少事 順帝陽嘉元年 置玄菟郡屯田六部 質 桓之間 復犯遼東 西安平 殺帶方丞 掠得樂浪太守妻子 建寧二年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菟). 『후한서』, 「고구려전」)
- ③ (新大王) 4년(168) 한의 현도군태수 경림이 침공하여 와서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이니 왕이 스스로 항복하고 현도군에 예속되기를 청하였다(新大王4年 漢玄菟郡太守耿臨來侵 殺我數百人 王自降 乞屬玄菟).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세기 이후 한사군이 쇠약해짐에 따라 중원정권은 고구려 정권에 대하여 직접 책봉을 하기 시작하였다. 문헌기록에서 중원정권이 직접 고구려 정권을 책봉한 것은 355년 전연의 모용휴(慕容儁)가 고국원왕 쇠(劄)에 대한 책

봉이 처음이다. 이 시기는 중국의 동진(東晉)16국시기에 해당된다.¹⁸⁾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집안현에서 ‘진고구려솔선천장(晉高句麗率善千長)’ 동인(銅印) 1매, ‘진고구려솔선백장(晉高句麗率善百長)’ 인장(印章) 2매, ‘진고구려솔선읍장(晉高句麗率善邑長)’ 인장 1매가 출토된 적이 있다.¹⁹⁾ 진위푸는 그의 저서인 『동북통사(東北通史)』에서 이 몇 개의 동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솔선(率善)이라는 의미를 고증하여 보면 솔중(率衆)이라는 의미와 같다. 한위(漢魏)시기에 만이(蠻夷)의 여러 왕들에 대한 책봉을 솔중왕(率衆王)이라 일컫는다. 그 의미는 왕으로 해석된다. 읍장(邑長)·천장(千長)·백장(百長) 등 호칭이 있다. 청나라시기에 금현(錦縣)과 의현(義縣) 2현의 북쪽에서 도장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한오환솔중왕인(漢烏丸率衆王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 역시 동북 고물(古物) 중의 하나임을 증명한다. 구중용(瞿中溶)의 저서 「집고관인고증(集古官印考證)」에 수록되어

18) 『晉書』, 「慕容儼傳」, 中華書局点校本, 2835쪽, “高句麗王釗遣使謝恩, 貢其方物 儼以釗爲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19) 瞿中溶, 『集古官印考證』 권12에 晉高句麗率善千長·晉高句麗率善百長·晉高句麗率善邑長 등 晉 고구려의 관인 3매가 수록되어 있다. 이 3매의 관인 중에서 마지막 하나의 관인은 1982년에 羅福順이 主編한 『故宮博物院 소장 古璽印選』에 수록되었다. 현재 이 유물은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진위푸는 『동북통사』에서 “근년에 요령성 집안현 丸都故址에서 옛 도장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印文에는 ‘晉高句麗率善百長’이라고 새겨져 있고 재질이 銅으로 되어 있고 白文이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張英·林萬舉·羅顯清(1992), 『길림에서 출토한 고대 官印』, 문물출판사; 華巖·杰勇(1985), 「길림성 집안현에서 출토된 몇 개의 官印」, 『북방문물』, 제4기; 『東北史地』, 2004년 제1기 封二刊 등 간행물에 “晉高句麗率善千長·晉高句麗率善百長·晉高句麗率善邑長” 등 7개의 印模를 수록하였다.

있는 여러 도장들 중에는 동북에 속하는 도장들도 있으며 또 위(魏)·오환(烏丸)의 솔선읍장(率善邑長)·천장(仟長)·백장(佰長) 등 도장들도 있었다. 즉 고구려의 여러 도장과 비슷하다.

위에서 기술한 몇 개의 진(晉) 고구려 관인(官印) 일부는 355년보다 시기가 이른 서진(西晉)시기의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왕은 우선 먼저 진 왕조의 책봉을 받았음이 한층 더 유력하다. 문헌에서 동진왕이 고구려왕에 대한 책봉기록이 등장하는 시기는 431년 안제(安帝)의 장수왕에 대한 책봉이다.²⁰⁾ 장수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왕인 제28대 보장왕까지 역대 고구려왕들 모두는 줄곧 중원정권과 남방정권의 책봉을 받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관례화였으며, 제도화 되었다.

아울러 고구려 사신들은 중원에 도착한 후 열정적인 환대와 존중을 받았다. 문헌에 의하면 북조(北朝)에서 고구려 사신에 대한 예우는 남조(南朝) 사신에 버금갔었다. 그리하여 남조 사신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²¹⁾ 일부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양진남북조(兩晉南北朝)시기 고구려에서 16국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12차, 남제(南齊)에 파견한 횟수는 5차, 양(梁)에는 11차,

20) 『宋書』, 「고구려전」, “晉安帝義熙九年(413) …… 以璉爲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句麗王 樂浪公.”; 『南史』, 「고구려전」, “晉安帝義熙九年(413) 高麗王遣長史高翼奉表 獻赭白馬 晉以璉爲使持節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將軍 高麗王 樂浪公.”; 『冊府元龜』 封策一, “義熙九年(413) 高麗王高璉(一作高連)遣長史高翼奉表 獻赭白馬 以璉爲高麗王 樂浪公.”;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遣長史高翼入晉奉表 獻赭白馬 安帝封王高句麗王 樂安(浪)郡公”.

21) 『南齊書』 권58, 「東夷·高麗傳」, “虜(北魏)置諸國使邸 齊使第一 高麗次之 永明七年 平南參軍顏幼明 冗從僕射劉思敷使虜 虜元會 與高麗相次 …… 幼明又謂虜主曰 二國相亞 唯齊與魏 邊境小狹 躡敢臣蹤.”

합계 47차에 달하며 남북조에 파견한 횡수를 합하면 160차에 달한다.²²⁾ 이와 같은 점은 상호간의 밀접한 왕래와 연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22) 韓昇(1994), 「4~6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의 백제의 지위와 역할」, 『제7회 국제학술회의-백제사회의 諸문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高句丽的兴起及其与玄菟郡的关系

• 魏存成 (中国吉林大学教授)

作为历史上的一个称谓，高句丽既是一个民族的名称，又是一个政权的名称，其间还曾被作为中原政权所设置的地方机构县的名称。高句丽政权，自汉至唐，在鸭绿江两侧的中国东北地区和朝鲜半岛北半部持续了700年之久，而高句丽民族的历史，更早于政权。高句丽民族和高句丽政权，与中原政权始终保持着密切的关系，其中在其早期兴起阶段，则主要是与玄菟郡的关系。

I. 高句丽民族的出现、起源及其活动地区

高句丽民族名称的出现，最早见于《汉书·地理志》。汉武帝灭卫氏朝鲜，在鸭绿江中上游地区、图们江流域和朝鲜半岛北半部之广

大地区置乐浪、玄菟、临屯、真番四郡，其中玄菟、乐浪所属居民，《汉书·地理志》记“皆朝鲜、濊貉、句骊蛮夷”。玄菟郡设有高句丽县，东汉末年应劭为其作注曰：“故句骊胡”。至《后汉书·高句丽传》则将此事连续记下来：“武帝灭朝鲜，以高句骊为县，使属玄菟，赐鼓吹伎人”。以上所记“句骊”、“高句骊”，当然不是后来的高句丽政权，而是指高句丽民族。

高句丽民族的起源，学术界多认为是貊族，其依据分别是《汉书·王莽传》、《三国志·高句丽传》及《后汉书·高句丽传》的记载。《汉书·王莽传》记：“先是，莽发高句骊兵，当伐胡，不欲行，郡强迫之，皆亡出塞，因犯法为寇。辽西大尹田谭追击之，为所杀。州郡归咎于高句骊侯貉。严尤奏言：‘貉（同貊—引者注）人犯法，不从驹起，正有它心，宜令州郡且尉安之。今猥被以大罪，恐其遂畔，夫馀之属必有和者。匈奴未克，夫馀、穢貉复起，此大忧也’。莽不尉安，穢貉遂反，诏尤击之”。《三国志·高句丽传》记：“高句丽在辽东之东千里，南与朝鲜、濊貉，东与沃沮，北与夫馀接。都于丸都之下，方可二千里，户三万。……国人有气力，习战斗，沃沮、东濊皆属焉。又有小水貊。句丽作国，依大水而居。西安平县北有小水，南流入海，句丽别种依小水作国，因名之为小水貊，出好弓，所谓貊弓是也”。《后汉书·高句丽传》记：“句骊一名貊（耳），有别种，依小水为居，因名小水貊。出好弓，所谓‘貊弓’是也”。

与此有关，又有不少学者根据《逸周书·王会篇》所记“北方台正东，高夷赚羊。赚羊者，羊而四角”和晋人孔晁所注“高夷，东北夷高句骊”的记载，提出高夷是高句丽的先世。而对于高夷，有的学者认

为商周时濊貊居今山东半岛一带，高夷是商周之际迁到东北地区的一支濊貊人¹⁾。有的学者认为是西周燕建立后，从辽河上游不断迁往辽东和鸭绿江流域的“燕貊”，与当地土著山地民族相结合，而形成以辽东“两江”(鸭绿江、浑江)流域为核心的“貊”族，即高夷²⁾。有的学者认为高夷是位于鸭绿江以北我国浑江流域的古老民族，它与“分布区主要在中国辽宁省的中部、东部以及朝鲜半岛清川江以北地区”的貊人是各自独立的古代民族³⁾。还有的学者认为高句丽起源于商人，商人发祥于我国东北，在商人大规模南迁或后来商王朝向北方用兵之时，有一部分东迁浑江、鸭绿江流域，周代称高夷，即后来的高句丽⁴⁾。

对于高句丽族源的追溯，涉及到高句丽早期的活动地区，而具体考证，还要参照《汉书·地理志》。据《汉书·地理志》记载，玄菟郡所辖除高句丽县之外，还有上殷台、西盖马二县，而首县是高句丽县。照惯例，首县即郡治所在，其实玄菟郡郡治开初并非在高句丽县，而是在沃沮城，西汉昭帝始元五年(公元前82年)玄菟郡郡治从沃沮城迁到高句丽县，见《三国志·东沃沮传》和《后汉书·濊传》。《三国志·东沃沮传》记：“汉武帝元封二年，伐朝鲜，杀满孙右渠，分其地为四郡，以沃沮城为玄菟郡。后为夷貊所侵，徙郡句丽西北，今所谓玄菟故府是也。沃沮还属乐浪”。《后汉书·濊传》记：“至昭帝始元五年，

- 1) 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论丛》，黑龙江教育出版社，第31~32页，2001年。
- 2)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
- 3) 刘子敏：《高句丽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第9~13页，1996年。
- 4) 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12月。

罢临屯、真番，以并乐浪、玄菟。玄菟复徙居句骊”。沃沮城的地点，现学术界多考证为朝鲜东北部之咸镜南道咸兴⁵⁾。高句丽县的地点在哪里呢？《三国志·东沃沮传》记为“句丽西北”，《后汉书·东沃沮传》记为“高句骊西北”⁶⁾，这里所说的“句丽”、“高句骊”同样是指高句丽族而言。据近年考古发现，高句丽县被确定于辽宁省新宾县境内⁷⁾。当时这里同样有高句丽族居住，但是高句丽族的活动中心并非在此，而是在其东南、即今浑江流域和鸭绿江中游的辽宁省桓仁及吉林省集安一带。近年已有考古学者对于该地区的高句丽早期遗迹展开专题研究。

II. 高句丽政权的创始及其传说

高句丽政权始建于汉孝元帝建昭二年(公元前37年)。据其创始传说，它并非是由原居住在桓仁、集安一带的高句丽族所建，而是由夫余族的王子朱蒙来建立的。夫余属于濊，高句丽属于貊，二者关系密切，而且在政权创始中具有很相似的传说。

高句丽政权的创始传说，首见于公元414年的好太王碑，之后又

5) 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中央民族学院出版社，第19~20页，1988年。

6) 《后汉书·东沃沮传》：“武帝灭朝鲜，以沃沮地为玄菟郡。后为夷貊所侵，徙郡于高句骊西北，更以沃沮为县，属乐浪东部都尉”。

7) 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中央民族学院出版社，第19~20页，1988年。

见于冉牟冢题记，但都是寥寥几句。成书于公元554年的《魏书》，则记载得相当详细，达300多字。几百年之后，公元1145年高丽作家金富轼撰《三国史记》，又增加了不少细节。其中高句丽政权创始的具体时间，也首见于此书。尽管如此，其基本内容仍可看出是抄自《魏书》⁸⁾。

夫余政权的创始传说先后见于《论衡》和《魏略》⁹⁾。《论衡》是王充晚年的著作，王充在世时间为公元27—约96年。《魏略》稍晚，作者鱼豢是三国时期的人物。两书都明显早于上述《好太王碑》、《魏书》等碑

8)《好太王碑》：“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出自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圣德□□□□□命驾巡车南下路由夫余奄利大水王临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邹牟王为我连葭浮龟应声即为连葭浮龟然后造渡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方起东：〈‘好太王碑碑文’释读〉，《中国著名碑帖选集 27—好太王碑》，吉林文史出版社，1999年。

《魏书》和《三国史记》所记，因字数多，此略。

9)《论衡·吉验篇》：“北夷橐离国王侍婢有娠，王欲杀之，婢对曰：‘有气大如鸡子，从天而下，我故有娠’。后产子，捐于猪溷中，猪以气嘘之，不死。复徙之马栏中，欲使马藉杀之，马复以口气嘘之，不死。王疑以为天子，令其母收取奴畜之，名东明，令牧羊马。东明善射，王恐夺其国也，欲杀之。东明走，南至掩淲水，以弓击水，鱼鳖浮为桥，东明得渡，鱼鳖解散，追兵不得渡。因都王夫余，故北夷有夫余国焉”。引自黄晖《论衡校释》，中华书局，1990年，1995年第2次印刷。

《三国志》卷第三十〈乌丸鲜卑东夷、夫余传〉注引《魏略》：“旧志又言，昔北方有高离之国者，其王者侍婢有身，王欲杀之，婢曰：‘有气如鸡子来下，我故有身’。后生子，王捐之于溷中，猪以喙嘘之，徙至马闲，马以气嘘之，不死。王疑以为天子也，乃令其母收畜之，名曰东明，常令牧马。东明善射，王恐夺其国也，欲杀之。东明走，南至施掩水，以弓击水，鱼鳖浮为桥，东明得度(渡)，鱼鳖乃解散，追兵不得渡。东明因都王夫余之地”。

刻和文献。因此可以认为，作为传说，是高句丽借用了夫余的传说。对此，唐代初年修著的《梁书》曾指出了它们二者之间的关系。《梁书》无夫余传，夫余政权的创始传说是记在《高句骊传》中，其曰：“高句骊者，其先出自东明。东明本北夷橐离王之子。离王出行，其侍儿于后任娠，离王还，欲杀之。侍儿曰：‘前见天上有气如大鸡子，来降我，因以有娠’。王囚之，遂后生男。王置之豕牢，豕以口气嘘之，不死，王以为神，乃听收养。长而善射，王忌其猛，复欲杀之，东明乃奔走，南至淹滞水，以弓击水，鱼鳖皆浮为桥，东明乘之得渡，至夫余而王焉。其后支别为句骊种也”。夫余早中期的活动中心在今吉林地区，历年考古已有诸多发现，对此学术界达成共识，而对于北夷橐离的遗迹，也开始引起考古学界的关注。

依《魏书》和《三国史记》，朱蒙率人自夫余南下，沿途又收纳贤人，至沸流水，降服了该水上游“累世为王”的沸流国，方得立稳脚跟，向外发展。此沸流国有可能就是《三国志》、《后汉书》高句丽传中所记的涓(消)奴部，而建立高句丽政权的朱蒙部当属桂娄部。在高句丽政权建立之前，已有高句丽县之建置，所以高句丽政权的名称应是直接从高句丽县而来。对此，十三世纪高丽作家李承休所著《帝王韵记》也明确记朱蒙“以高句丽县名立国”。至此，我们可以看出，高句丽名称的沿袭关系是族名—县名—政权名。以高句丽为政权名称的同时，以朱蒙为首的王族也“以高为氏”。

III. 高句丽兴起与玄菟郡的关系

高句丽所在的地区，在高句丽政权建立及高句丽民族出现之前，中原的势力和文化就已经延伸到此。据文献记载，公元前300年左右，燕昭王派大将秦开破东胡，攻朝鲜，扩边到朝鲜半岛的西北部¹⁰⁾，近年在大宁江沿岸已发现了燕国长城¹¹⁾。另外在桓仁、集安以及鸭绿江、图们江流域等广大地区，先后发现了数批燕秦汉货币和燕国系统的铁器。货币有“明刀”、“半两”、“五铢”、“货泉”等，铁器有生产工具镰、钁、锄、半月形双孔掐刀、凿和兵器矛、镞等，其中有的遗址中货币和铁器共出¹²⁾。1980年在集安还发现了刻有铭文的赵国青铜短

- 10) 《史记》卷一百十〈匈奴列传〉：“其后燕有贤将秦开，为质于胡，胡甚信之。归而袭破走东胡，东胡却千余里。……燕亦筑长城，自造阳至襄平，置上谷、渔阳、右北平、辽西、辽东郡以拒胡”；《三国志》卷三十〈乌丸鲜卑东夷传〉注引《魏略》曰：“昔箕子之后朝鲜侯，见周襄，燕自尊为王，欲东略地，朝鲜侯亦自称为王，欲兴民逆击燕以尊周室，其大夫礼谏之，乃止。使礼西说燕，燕止之，不攻。后子孙稍骄虐，燕乃遣将秦开攻其西方，取地二千余里，至满番汗为界，朝鲜遂弱”。金毓黻考证，以上二事“皆以秦开为主，其破东胡，攻朝鲜，自系一时之事，盖是时之东胡，在燕之北，朝鲜在燕之东”，秦开开辟辽东之时间，“于周赧王十五年，为燕昭王十二年”，即前300年，见《东北通史》，社会科学战线杂志社翻印本，第58~60页，1980年。
- 11) 孙永钟著、顾禹宁译：〈关于大宁江畔的古长城〉，《博物馆研究》，1990年第1期；李健才：〈关于朝鲜“大宁江长城”建筑年代问题的探讨〉，《博物馆研究》，1996年第3期；郑君雷：〈大宁江长城的相关问题〉，《史学集刊》，1997年第1期。
- 12) 李莲：〈集安发现古钱〉，《文物参考资料》，1957年第8期；古兵：〈吉林集安历年出土的古代钱币〉，《考古》，1964年第2期；王巍：〈中国古代铁器及冶铁技术对朝鲜半岛的传播〉，《考古学报》，1997年第3期。

剑，1991年在长白县又发现了赵国蒯相如铜戈¹³⁾。

前边已经谈及，公元前2世纪末，汉武帝出兵灭卫氏朝鲜，设乐浪、玄菟、临屯、真番四郡，高句丽民族属玄菟郡管辖。公元前37年，朱蒙建立政权，“国号高句丽，因以高为氏”，说明当时他开始自称为王。公元9年，王莽篡汉改制，“定诸侯王之号皆称公，四夷僭号称王者皆更为侯”，高句丽当在其中；公元12年又因不服从王莽的调兵命令，王莽“更名高句骊为下句骊”¹⁴⁾。之后又过了二十年，到公元32年时，高句丽遣使朝贡，光武帝才“复其王号”，这是《后汉书》的记载，《三国志》记“始见称王”，说明到此时，高句丽王的称号得到了中原政权的正式承认。

尽管高句丽王得到了中原政权的正式承认，但是在以后相当长的一段时间内，高句丽政权仍和建立政权之前的高句丽民族一样，继续归汉玄菟郡或辽东郡管辖。对此，《三国志》和《后汉书》的高句丽传中都有内容基本相同的相关记载。《三国志·高句丽传》记：“(高句丽)本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籍。后稍骄恣，不复诣郡，于东界筑小城，置朝服衣帻其中，岁时来取之，今胡犹名此城为帻沟溲。沟溲

13) 集安县文物保管所：〈吉林集安发现战国青铜短剑〉，《考古》，1982年第6期；黄盛璋：〈跋集安新出阳安君剑〉，《考古》，1983年第5期；赵书勤：〈集安两件馆文物名称小考〉，《博物馆研究》，1997年第2期；长白县文管所：〈吉林长白朝鲜族自治县发现蒯相如铜戈〉，《文物》，1998年第5期。

14) 《汉书·王莽传》，中华书局点校本，第4105、4130页。

者，句丽名城也”。《后汉书·高句骊传》记：“(高句骊)凡有五族，有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本涓奴部为王，稍微弱，后桂娄部代之。……武帝灭朝鲜，以高句骊为县，使属玄菟，赐鼓吹伎人”。分析上述记载可以看出：

第一，尽管“涓奴部”和“消奴部”的名称，以及“本有五族”和“凡有五族”，“今桂娄部代之”和“后桂娄部代之”各差一字，但是都记载着一个相同的历史事实，即“本涓(消)奴部为王，稍微弱，今(后)桂娄部代之”。对此，学术界普遍认为，涓(消)奴部即是《三国史记》所记原居住在沸流水上游“累世为王”的“沸流国”，而“今(后)桂娄部代之”，则是指朱蒙称王建立高句丽政权。

第二，“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丽令主其名籍”，查《辞源》，“鼓吹”，为“乐名，主要乐器有鼓钲箫笛，出自北方民族，本为军中之乐。……其初用于卤簿，又或以赐有功之臣”；“伎”，一作才能讲，通“技”，一作歌女、舞女讲，通“妓”；“朝服”，为“君臣朝会时所著的礼服”；“名籍”即“名册”。高句丽由汉或通过玄菟郡赐给“鼓吹伎人”，从玄菟郡接受“朝服衣帻”，高句丽县的县令主管其名册，那么当时高句丽与中原政权及玄菟郡、高句丽县是一种什么关系，则已经很清楚了。“后稍骄恣”，当指高句丽政权建立、并且势力有了不断发展之后来解释，此时“受朝服衣帻”的地点、形式有所改变，但双方原有的关系并未改变。

第三，“后稍骄恣，不复诣郡，于东界筑小城”，此“东界”，是指玄菟郡高句丽县之“东界”；在“东界”所筑小城，“今胡犹名此城为帻沟溲。沟溲者，句丽名城也”，这里又联系到“高句丽”名称的来源和

含义。关于“高句丽”名称的来源和含义，历来有“槁离”说、“山高水丽”说、“高大黑马”说、“介莱”说、“高台建屋”说、“双足驰行于高山曲谷”说、“铜”或“黄铜”说、“中京”或“中国”说、“首邑”或“上京”说等多种说法¹⁵⁾，相比之下，还是“沟濼”说比较合适。高句丽称“城”为“沟濼”，“沟”与“句”同音，“濼”与“丽”同声，“句丽”即是从“沟濼”转来，“高句丽”即是“高城”。什么是“高城”，根据高句丽城址的考古发现和文献记载，其实就是“山城”。高句丽所在“多大山深谷，无原泽”¹⁶⁾，高句丽城址绝大部分是山城，高句丽民族的全部生活时刻离不开山城，因此该民族取名“高句丽”，也就很合理自然了。

由于高句丽民族及其政权，开始是在玄菟郡的区域内，因此它要求得发展，必然与玄菟等郡产生冲突。学术界根据《后汉书·郡国志》所记，公元107年辽东郡分高显、候城、辽阳三县改属玄菟郡，推断玄菟郡郡治再次由今新宾内迁¹⁷⁾，这与高句丽势力的扩展是有直接关系的，此时期也正是高句丽早期发展比较快的时期。尽管如此，高句丽与汉四郡、主要是与玄菟郡的从属关系，仍在保持着。对此，与上述记载的同时，还有举几次具体事件如下。

一次是在公元2世纪初：

- 至殇、安之间(公元106~125年)句丽王宫数寇辽东，更属玄菟。

15) 刘子敏：《高句丽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第1~9页，1996年。

16) 《三国志·乌桓鲜卑东夷传》，中华书局点校本，第843页。

17) 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中央民族学院出版社，第16~17页，1988年。

《三国志、高句丽传》)

- 安帝永初五年(公元111年), 宫遣使贡献, 求属玄菟。《后汉书、高句丽传》)。
- (太祖大王)59年(公元111年)遣使如汉, 贡献方物, 求属玄菟。《三国史记、高句丽本纪》)

另一次是在上次十年之后 :

- 是岁(公元121年)宫死, 子遂成立。姚光上言欲因其丧发兵击之, 议者皆以为可许。尚书陈忠曰: ‘宫前桀黠, 光不能讨, 死而击之, 非义也。宜遣吊问, 因责让前罪, 赦不加诛, 取其善’。安帝从之。明年, 遂成还汉生口, 诣玄菟降。《后汉书、高句丽传》)。

还有一次是在上次四十几年之后 :

- 顺、桓之间, 高句丽复犯辽东, 寇新安、居乡, 又攻西安平, 于道上杀带方令, 略得乐浪太守妻子。灵帝建宁二年(公元169年), 玄菟太守耿临讨之, 斩首虏数百级, 伯固降, 属辽东。(嘉)[熹]平中(公元172~178年), 伯固乞属玄菟。《三国志、高句丽传》)
- 遂成死, 子伯固立。…… 质、桓之间, 复犯辽东西安平, 杀带方令, 略得乐浪太守妻子。建宁二年(公元169年), 玄菟太守耿临讨之, 斩首数百级, 伯固降服, 乞属玄菟云。《后汉书、高句丽传》)
- (新大王)4年(168年)汉玄菟郡太守耿临来侵, 杀我军数百人, 王自降乞属玄菟。《三国史记、高句丽本纪》)

4世纪后，随着四郡的削弱，中原政权便开始对高句丽政权进行直接册封。文献记载中出现中原政权直接对高句丽政权的册封，最早见于公元355年前燕慕容儁对故国原王钊的册封，此时正是东晋十六国时期¹⁸⁾。另据介绍，集安曾出铜印“晋高句骊率善任长”一方，“晋高句骊率善佰长”两方和“晋高句骊率善邑长”一方¹⁹⁾。对于这几方铜印，金毓黻先生在《东北通史》中曾作如下考证：“考率善之义，同于归义率众，汉魏封诸蛮夷王，曰率众王，归义王，亦有邑长任长佰长之称。清季曾在锦、义二县之北发现一方，文曰‘汉乌丸率众王印’，此亦东北古物之一，可以证史。其著录瞿氏书(即瞿中溶《集古官印考证》)中诸印，属于东北者，又有魏乌丸率善邑长任长佰长诸印，即高句丽诸印之类也”。上述几方晋高句丽官印，有的可能早于公元355年，属于西晋时期。既然高句丽政权的地方组织当时都可以接受晋王朝的册封，那么高句丽王更应该首先接受晋王朝的册封。文献

18)《晋书·慕容儁传》：“高句丽王钊遣使谢恩，贡其方物。儁以钊为营州诸军事、征东大将军、营州刺史，封乐浪公，王如故”。中华书局点校本第2835页。

《三国史记·高句丽本纪》：“(故国原王25年~公元355年)冬十二月，王遣使诣燕，纳质修贡……以王为征东大将军、营州刺史，封乐浪公，王如故”。

19)瞿中溶《集古官印考证》卷十二录“晋高句骊率善任长”、“晋高句骊率善佰长”、“晋高句骊率善邑长”三方晋高句丽官印，其中最后一方收入1982年罗福颐主编的《故宫博物院藏古玺印选》，现藏故宫博物院。金毓黻《东北通史》记：“近岁在辽宁省辑安县丸都故址，发现古印一方，文曰‘晋高句骊率善佰长’，铜质白文”。另参见张英、任万举、罗显清《吉林出土古代官印》，文物出版社，1992年；华岩、杰勇《吉林集安出土的几方官印》，《北方文物》，1985年第4期；《东北史地》2004年第一期封二刊登了“晋高句骊率善任长”、“晋高句骊率善佰长”、“晋高句骊率善邑长”七枚印模。

中出现东晋王朝对高句丽王的册封，是公元413年安帝对长寿王的册封²⁰⁾。而正是自长寿王开始，一直到最后一位王第二十八位王宝臧王为止，历代高句丽王接受中原政权和南方政权的册封则连续不断，完全形成了一种惯例和制度。

与此同时，高句丽使者到达中原，也都受到热情接待和尊重。文献记载，北朝接待高句丽使者，其礼遇仅次于南朝使者，因而引起南朝使者的不满²¹⁾。有学者统计，两晋南北朝时期，高句丽派使者去十六国12次、北魏79次、东魏15次、北齐6次、北周1次，计113次，派使者去东晋3次、宋22次、南齐5次、梁11次、陈6次，计47次，南北合计160次²²⁾，充分体现了相互间的密切交往和联系。

20) 《宋书·高句丽传》：“晋安帝义熙九年(公元413年)……以琿为使持节、都督营州诸军事、征东将军、高句丽王、乐浪公”；《南史·高句丽传》：“晋安帝义熙九年(公元413年)高丽王遣长史高翼奉表，献赭白马，晋以琿为使持节、都督营州诸军事、征东将军、高丽王、乐浪公”；《册府元龟·封策一》：“义熙九年(公元413年)高丽国王高琿(一作高连)遣长史高翼奉表，献赭白马，以琿为高丽王、乐浪公”；《三国史记·本纪》“(长寿王元年~413年)遣长史高翼入晋奉表，献赭白马，安帝封王高句丽王、乐安(浪)郡公”。

21) 《南齐书》卷五十八《东夷、高丽传》：“虏(北魏)置诸国使邸，齐使第一，高丽次之。永明七年，平南参军颜幼明、冗从仆射刘思敦使虏。虏元会，与高丽相次。……幼明又谓虏主曰：‘二国相亚，唯齐与魏。边境小狄，敢蹶臣踪’”。

22) 韩昇：《四至六世纪百济在东亚国际关系中的地位和作用》，《第7回国际学术会议、百济社会诸问题》，韩国忠南大学校百济研究所，1994年。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건국신화에 보이는 주몽의 출자 계보 구조

高句麗建國神話中的朱蒙出自系譜結構



김기흥 | 金基興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건국신화에 보이는 주몽의 출자 계보 구조

-단군 및 박혁거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
- 김기홍 (건국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고구려 주몽신화에 보이는 시조 주몽(朱蒙)의 출자(出自) 계보(系譜)의 특징적 구조를 고조선과 신라 시조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고조선의 시조 단군과 고구려의 시조 주몽 그리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출자 계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해지기도 한다.¹⁾ 그러나 박혁거세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없지 않고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1) 柳東植(1975),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28~45쪽에 의하면, 이들 세 가지 건국신화는 천신강림, 지모신(곡신) 신앙, 천지융합의 내용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청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몽신화에 보이는 고구려인들의 시조관(始祖觀)을 재exam해보고 상고기 한국 고대 국가들의 상호 문화적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몽의 출자 관련 자료 검토

주몽신화를 전하는 사서 및 금석문들은 비교적 다수가 있다. 거기에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없지 않다. 당연히 주몽의 출자 계보를 전하는 내용에도 약간의 상이함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신화가 건국기가 아니라 고구려 중기 이후에서 후기에 걸쳐 왕실의 필요성이나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형성되고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며,²⁾ 구전설화(口傳說話)라는 기본 속성에서 오는 다양성과 사서 자료로서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편찬과정에 개입된 인간의 의도나 여러 여건의 제약에서 오는 결과로 보기도 한다.³⁾

주몽의 출자를 보여주는 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⁴⁾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 □□命駕 巡幸南下. (『광개토대왕릉비문』, 414년)

- 2) 徐永大(1991),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2쪽 및 176~179쪽; 盧泰敦(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38~58쪽.
- 3) 김기홍(2007), 「고구려의 건국신화」,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43~52쪽.
- 4) 이하 인용문 안의 ‘□’는 판독 불가나 미상문자를 나타낸다.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天下四方 知此國都最聖□□.
(『모두루묘지명』, 5세기 중엽)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閉於室中 爲日
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魏書』, 「高句麗傳」,
554년)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 鄒牟 一云 象解] 先是 扶餘王解夫婁
老無子 祭山川求嗣 ……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日 將使吾子孫立國
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曰迦葉原 土壤膏腴宜五穀 可都也 阿蘭弗
遂勸王 移都於彼 國號東扶餘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婁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於太白山南優渤水 問之曰 我
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
心山下 鴨渚邊室中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金
蛙異之 幽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三國史記』, 「東明聖王本紀」, 1145년)

주몽의 출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크게 참고가 되는 자료
로는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 고구려조의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다.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
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이 『삼국지』 자료는 3세기 이전에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서 동맹(東盟)
이란 제천(祭天) 행사가 열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천 제례는 흔히 신화의
내용을 재연(再演)한다. 동맹이란 이름에서 동명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고 그

시조의 연원이 천(신)으로 연결되어 국가적으로 제천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국동대혈(國東大穴)의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함께 제사한 것도 보여준다.⁵⁾ 이 수신은 여신으로 주몽의 모친으로 여겨졌는데 부여신(夫餘神)이라고도 하였다.⁶⁾

위의 자료들을 통해서 주몽의 부모 양계의 계보를 알 수 있다. 주몽은 부계(父系)로는 태양 해모수(解慕漱)의 아들이다. 해모수는 천자이기에 주몽은 곧 천손(天孫)으로 정리된다. 또한 모계로 보면, 모친 유화(柳花)는 하백의 딸 [女]이기에 주몽은 하백(河伯[地神, 河神]) 신의 외손(外孫)이 된다. 즉 주몽은 천지(신)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 천(天)과 지(地)의 손자(孫子)가 되는 존재이다. 그는 세계 구성의 기본적 구조인 천과 지의 합작에 의해 출생한 통치자로서 건국의 시조로서 당당한 왕자(王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천신과 지신의 혈통적 계승자로서 시조가 된 것이다. 신민(臣民)들은 거룩한 혈통(血統)상의 권위(權威)에 의하여 그의 새로운 왕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몽신화는 부여의 동명(東明)신화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은 동부여(東扶餘) 금와(金蛙)의 궁에서 다른 왕자들의 차대(差待)를 받고 자랐으며 그의 어머니도 별궁(別宮)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아 그는 금와 왕의 서자(庶子)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구려의 건국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은 시조

5) 集安市 下解放村 압록강변의 산에는 국동대혈과 통천동(통천굴)의 두 大穴이 있으며, 인근 마을에는 고구려 왕이 행차하여 제사하였다는 전승이 전해진다. 그 구조나 지리적 위치로 보아 위의 『三國志』 「동이전」 기사의 사실성을 입증해준다. 鄭永鏞 (1994), 「高句麗의 東盟과 그 遺蹟」, 『于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 7~9쪽.

6) 『周書』 권49, 異域 上 高麗傳, “又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之象 一曰登高神 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與朱蒙云.”

주몽을 하늘과 땅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천지신의 손(孫)으로 보아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몽의 극적인 동부여 탈출, 백발 백중의 활숨씨, 유리왕자의 극적인 합류 그리고 국내성(國內城) 천도(遷都)에 따른 ‘국동대혈’ 수신의 국가 제례에의 수렴은 주몽신화의 신성성과 독자성을 강조해가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내성 부근 국동대혈 수신의 동맹제에의 합사(合祀)는 천신과 수신을 부모로 한 동명(주몽)의 출생이라는 독자적인 신성가족(神聖家族) 관계를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⁷⁾ 고구려인들은 이러한 시조의 신성가족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부여나 동부여에 의존적인 정신세계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고구려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III. 고조선 및 신라 시조 출자 계보와의 비교

1. 단군의 출자 계보

단군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시조 단군의 출자 계보를 보자.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受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

7) 김기홍(2001), 「고구려 건국신화의 검토」,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17~19쪽.

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日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三國遺事』, 紀異篇)

위에 보이는 단군의 계보는 비교적 분명하다. 부계(父系)는 천신(환인) — 천자(환웅) — 시조(단군)로 이루어졌다. 모계(母系)는 웅녀 — 단군으로 이루어졌다. 웅녀(熊女)의 웅(熊)은 원시씨족 사회의 토렘으로 볼 수 있다. 굴에서 사는 곰인 이 웅녀는 역시 고구려의 ‘국동대혈’에 살던 수신과 같이 굴에 사는 신적 존재이다. 지상에 사는 토렘인 웅녀 위에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지신(地神)을 상징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토렘들을 존재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나 그것들의 부모를 상징해보는 것은 상고인들의 인식세계에서도 별다를 리는 없을 것이다. 단군(檀君)의 모측(母側) 계보도 주몽의 경우와 같이 곧 지신 — 지신지녀(地神之女) — 지신외손(地神外孫)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단군신화와 주몽신화의 시조 출자상의 유사성은 일찍이 일본인 학자들이 주목하여, 고려(高麗) 때에 주몽신화를 모범으로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20세기 전반의 학자 최남선(崔南善)이 설파한 바, 단군신화에는 고려의 지식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조작해낼 수 없는 토렘이즘, 농경의 출현, 제정일치(祭政一致), 군장(君長)의 출현 등 원시시대의 사회상 및 역사상 등이 온존하여 있어서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⁸⁾

8) 崔南善(1928), 「壇君 及其研究」, 『月刊 別乾坤』; 崔南善(1973), 『六堂 崔南善 全集』

고조선과 고구려 시조의 출자 계보가 이처럼 유사함은 시대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고구려가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만큼 주몽신화가 단군신화의 직간접(直間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적(深層的)으로 보면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까지도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으로서 시조 곧 천·지(신)의 손(孫)이라는 관념과 이데올로기 위에서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물론 고구려 주몽신화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부여 동명신화에서⁹⁾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부여의 시조 동명은 오히려 하늘의 기운에 감응하여 임신되었으니 천자(天子)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상호 관련성에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다소 그 영향관계를 분별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여의 동명신화에서 탁리국[橐離國(혹은 橐離國)] 왕의 시비(侍婢)로 하여금 잉태시킨 즉 계자(鷄子) 같은 기(氣)를 준 존재를, 오히려 주몽신화를 참조하여 하늘 공간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태양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록(記錄)으로 전하는 신화는 현실적으로 구전되던 신화와는 그 줄거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현암사, 242~250쪽 재수록.

9) 『論衡』 권2, 吉驗篇,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鷄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損於猪溷中 猪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 收取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南 至掩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2. 신라 박혁거세의 출자 계보

한국 삼국(三國)시대의 또 하나의 강국이었던 백제(百濟) 왕실은 그 출자가 고구려 왕실과 한가지였다. 학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동이(東夷) 고대국가의 시조들이 혈통적(血統的)으로 천지신의 손자임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즉 혈통주의(血統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백제에서 그 전반기(前半期)에 섬기던 시조 동명은 부여의 시조라기보다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 곧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 왕실은 천지신의 손자인 주몽, 즉 동명성왕의 후예라는 자부심에서 왕실로서의 위엄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신라의 시조 혁거세(赫居世)는 어떤 존재인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는 신화를 중심으로 보겠다.¹⁰⁾ 그는 광명

10) 『三國史記』 권1, 「新羅 始祖赫居世居西干本紀」,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 五鳳元年甲子 四月丙辰 卽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一曰闕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山珍支村(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 或云呼貴人之稱。”

『三國遺事』 권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辰韓之地, 古有六村, 一曰闕川楊山村 ……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云建虎元年, 又云建元三年等, 皆誤)三月朔, 六部瓠各率子弟, 俱會於闕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蓋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時, 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東泉寺在詞臘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說者云, 是西述

(光明)의 존재인데, 그의 이름 ‘혁거세’나 『삼국유사』에서 그를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왕이라고 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계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의 부모는 사료 상으로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으며 적어도 그 부친조차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서술성모(西述聖母)를 모친으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전승(傳承)에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이다.¹¹⁾ 나정(蘿井) 우물가에서 말이 울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 남겨진 알에서 난 아이의 부친은 과연 누구인가? 하늘이 내린 알에서 태어난 만큼 천제의 자(천자) 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환웅(桓雄)이나 해모수와 같은 성년(成年) 천자의 모습이 아님을 일단 기억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전하는 사서(史書)

聖母之所誕也。故中華人讚仙桃聖母，有娠賢肇邦之語，是也。乃至雞龍現瑞產閼英，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位號曰居瑟邯(或作居西干，初開口之時，自稱云閼智居西干一起，因其言稱之，自後爲王者之尊稱)，時人爭賀曰，今天子已降，宜覓有德女君配之。是日，沙梁里閼英井(一作娥利英井)邊，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而剖其腹得之)，姿容殊麗，然而唇似雞嘴，將浴於月城北川，其嘴撥落，因名其川曰撥川，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奉養二聖兒。男以卵生，卵如瓠，鄉人以瓠爲朴，故因姓朴，女以所出井名之。二聖年至十三歲，以五鳳元年甲子，男立爲王，仍以女爲后，國號徐羅伐，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以此故也)。或云斯羅，又斯盧，初王生於雞井，故或云雞林國以其雞龍現瑞也。一說，脫解王時得金閼智而雞鳴於林中，乃改國號爲雞林，後世遂定新羅之號。理國六十一年，王升于天，七日後，遺體散落于地，后亦云亡。國人欲合而葬之，有大蛇逐禁，各葬五體爲五陵，亦名蛇陵，曇嚴寺北陵是也。太子南解王繼位”

- 11) 중국 황제의 딸 西述聖母가 신라의 시조를 낳았다는 별도의 전승은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화주의적 요소가 신라 사회에 등장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신라 왕실을 중국의 전설적 존재 금천소호씨와 연결하여 보던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李文基(1999),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 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 · 24합집, 670쪽].

의 기술 내용으로 볼 때는 그가 천자인지 다른 어떤 존재인지를 단정하여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신라에서 부계 성씨의 사용은 6세기 중반 진흥왕(眞興王) 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혁거세의 성씨인 박(朴)을 설명하려고 6세기 이후의 신라인들이 호(瓠)를 등장시켰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 대란(大卵(혹은 紫卵))도 원형적(原形的) 신화(神話)에 있었던 것인지도 재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 다시 광명의 ‘불구내(弗矩內)’ 왕을¹²⁾ 태양과 연관하여 본다면 문제는 다소 풀리는 면이 없지 않다. 그는 해를 인격화한 해모수와 같은 천자로 볼 수도 있다. 우물 속에 비치는 해를 생각해본다면 그는 바로 나정가에서 발견된 태양 즉 천자로 볼 수 있을 듯하다.¹³⁾ 물론 『삼국유사』가 전하는 신화를 보면 앞에서 깨어난 혁거세를 신라인들은 ‘천자’라고 말하였다. 알로 이 세상에 왔더라도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며 거기서 깨어난 사람은 천자라고 보았던 듯하다. 태양(太陽)이야 말로 거대(巨大)한 난(卵)으로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이해를¹⁴⁾ 참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천자가 신라의 시조(始祖) 왕(王)이 된 셈이 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고조선과 고구려와는 달리 신라는 천손이 아닌 천자를 시조로 삼

12) 柳東植(1975), 앞의 책, 42~43쪽에 의하면 弗矩內的 ‘內’를 혼독하면 弗矩內는 ‘불구안’이 되어 몽고어나 퉁구스어의 천신 광명신을 나타내는 Burkhan과 같은 음이 된다. 따라서 혁거세는 광명한 천신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13) 천마가 알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보는 것보다 천자가 그 말을 타고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런 면이 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온 천자는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더욱 연구할 문제이다. 한편, 나정 우물 속에 비치는 해는 신궁 제례의 핵심 동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14) 徐大錫(2002),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106~107쪽.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왕은 흔히 천자로 말해진다. 중국의 천자는 천제(天帝)의 아들이 아니라 천제로부터 명령을 받은 즉 천명을 받았다 여겨진 의제적(擬制的)인 천의 자(子)이다.

박혁거세(朴赫居世)는 국가의 시조로서 다소 그 존재의 연원(淵源)이나 출자가 모호한 면이 없지 않다. 본래 혁거세 신화자체가 체계적 구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하였을 수도 있겠고 혹은 전승과정 상에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구전과정에서 온 변화나 사서(史書)의 편찬 및 재편찬과정에서의 주요(主要) 화소(話素)의 윤색(潤色) 및 변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¹⁵⁾

『삼국사기』 등이 전하고 있는 신라 초기 기사에도 이러한 전승과정의 굴곡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그 전거(典據)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삼국사기』의 전거에 관한 연구들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중국계 서적과 ‘고기(古記)’를 위시한 한국 자체의 전통적 사서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다.¹⁶⁾ 본 필자는 고려시대 사서에 보이는 고기류(古記類)를 포함하여 그것들보다도 더 오래된 진흥왕 6년(545)에 편찬된 『국사(國史)』 등에까지도 시각을 확장해볼 필요가 있음을 느껴왔다.¹⁷⁾ 혁거세의 존재를 제대로 규명해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서 『삼국사기』에 혁거세의 자로 나오며 유일한 차차웅(次次雄)인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에 대하여도 궁구할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사』도 일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보완(補充) 편찬(編纂) 등

15)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드러진 예를 든다면 단군의 모친을 熊女와 孫女로 달리 전하고 있는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의 경우가 있다.

16) 근래의 연구로는 李康來(1996),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등이 있다.

17) 金基興(2005), 「『삼국사기』 신라 소지마립간본기 6眼龜 기사의 검토」, 『역사학보』 188, 역사학회.

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천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해차차웅은 혁거세의 자인데 신라사에서 유일한 차차웅이다. 차차웅은 거서간(居西干), 이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 등과 더불어 신라 최고 지배자의 일반 명칭 중 하나이다. 『삼국사기』에는 굳이 남해만을 차차웅이라고 하였다.¹⁸⁾ 『국사』를 편찬할 때, 마립간들에 대한 역사는 편찬자들이 살았던 시기의 바로 앞 시대의 것이기에 분명히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쉽게 편찬했을 것이며, 이사금에 관한 계보와 전설 등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였을 것이다. 초대 이사금인 유리이사금(재위 24~57년)에 대하여는 탈해와의 연치(年齒)를 두고 벌인 대결 사건이 설화화하여 전하고 있었기에 그 존재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은 듯하다. 결국 남해차차웅은 유리와 탈해의 이사금 연원에 관한 전설을 통해 유리이사금의 부친으로 구체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일단 가져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인 김대문(金大問)의 설명에 의하면 차차웅은 ‘무(巫)’로서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올리는 자로 존칭자의 명칭이었다고 한다.¹⁹⁾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사제(司祭)적 지배자라면 고조선의 ‘단군’이 더 앞서 있었다.

차차웅은 단군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 다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조선의 단군은 천자 환웅(桓雄)과 토착 선주족의 토tem이라고도 여겨지는 웅녀의 결합에 의해 탄생하였다. 천·지신의 결합에 의해 낳은 신적인 인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차차웅도 그러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하다.

18)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이 왕도 居西干으로 불렸다고 하였다.

19) 『삼국사기』 권1 남해차차웅본기 즉위기사, “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남해차차웅에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사의 파편들이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그를 ‘삼황지제일(三皇之第一)’이라고 하였다.²⁰⁾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 왕조 계보체계에 의하면 남해차차웅은 제2대 왕이어서 당연히 ‘제일(第一)’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신라 건국기에 천(天)·지(地)·인(人)의 삼황을 말한다면 혁거세를 첫째인 천황(天皇)으로 볼 만하다. 그런데 신라 초기부터 삼황을 말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신라에서 중국사(中國史)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있을 즈음에 초기 왕들을 삼황으로 구분하여 칭한 사실이 있었을 듯하다.

남해차차웅을 초기 삼황의 첫째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남해차차웅을 삼황(三皇)의 첫째로 말하던 시기는 없는 것일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²¹⁾ 이 점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다른 왕들에 대한 기사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남해차차웅이 ‘삼황의 하나’이며 두 번째 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큰 실수가 없었다면 혁거세왕조나 노례왕조에도 ‘삼황’과 관련된 언급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첫째 삼황에서 아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두 번째 삼황에서 언급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혁거세왕과 남해차차웅이 모두 갑자(甲子)년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부자의 즉위년이 같은 것은 확률적으로도 매우 나타나기 어려운 일인데, 의도적 편년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큼을

20) 『삼국유사』 권1 紀異 신라 第二 南解王조.

21) 이어지는 서술 내용을 보면 짐작이 가겠지만, 진흥왕 대에 『국사』를 편찬하던 시점이 삼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최초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국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초기 왕들에 대한 관심을 수반했을 것이며, 『國史』 편찬에 南朝 梁과의 교류를 통한 중국사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흥왕 6년(545)의 『국사』 편찬 당시의 사료 상황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앞 시대인 마립간기에 대하여는 다소의 문자 자료들이 있다. 신라 지증마립간 때에 세워진 냉수리비[冷水里碑(503)]의 존재를 통해 문자생활(文字生活)이 궁중이나 공적 행정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금 시기의 자료들도 매우 적지만 주로 조상에 관한 이야기나 유물 유적과 관련된 전설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소급하여 간 이사금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사금의 어원과 유관하게 말해진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부친이 있었을 것이니 그의 부친을 설정하는 일이 있었을 만하며, 종교와 정치가 미분화된 제정일치(祭政一致) 단계의 차차웅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어쩌면 『국사』를 처음 편찬할 때 이 남해차차웅을 시조로 말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확한 재위 연관을 알 수 없는 중에 그는 시조로 여겨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대로, 첫해의 의미를 가진 갑자년 그것도 만물이 생동하는 춘삼월(春三月)에 건국하였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즉위년인 그 갑자년(4)은 신라사의 건국(建國) 원년(元年)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단 『국사』는 당시까지의 신라사 편년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진흥왕은 『국사』를 편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영토확장에 나서서 한강유역은 물론 고구려 남동부 해안지방까지 영역을 넓혀갔다. 그리고는 신정복지를 순수하며 여러 척경비(拓境碑)를 세웠다. 놀라운 발전적 성취를 이루었고 자국사(自國史)를 최초로 편찬한 만만치 않은 역사의식의 소유자인 진흥왕이 신라사에 대한 관심에서 사서를 보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²²⁾ 더구나 『국사』를 처음 편찬할 때 책임자였던 거칠부

(居柒夫)가 진흥왕 대 중후반 최고 권세가였던 점도 참고된다. 당시 신라는 중국 남조의 양(梁)과 교류하였는데 남제(南齊)나 양에서 사서 편찬이 이루어졌던 바 그러한 사실도 사신 교류 등을 통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국사』를 편찬했던 진흥왕은 국가 발전에 따른 자국사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자국사의 연원을 더욱 소급하여 찾아보고자 하였을 만하다. 만약 기왕의 신라의 『국사』가 남해차차웅을 시조로 하는 체제였다고 한다면 신라의 건국은 경쟁국인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보다 수십 년 늦은 일이 되는 셈이다. 지금처럼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하고 이어 고구려 백제가 건국하게 되는 『삼국사기』의 체제는 어쩌면 진흥왕 중기 이후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²³⁾ 만약 자국의 역사를 더욱 소급하고자 하였다면 이미 시조로 구체화된 남해차차웅 위에 부왕(父王)을 상정하는 것은 자연스런 순서(順序)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²⁴⁾

남해차차웅이 시조로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들도 있다.

남해(南解)라는 이름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이름이 ‘상해(象解)’인²⁵⁾ 점을 환기해보자. ‘상해’는 ‘해[太陽(태양)]를 본받은 자’가 된다. 태양 해모수의 아들인고로 주몽의 원 이름에는 ‘상해’라는 이

22) 『高麗史』 등 여러 사서들의 편찬에서 정치적 굴곡이 영향을 미치고 재편집의 과정 등이 있었음을 상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23) 백제와 고구려를 驅逐해가던 진흥왕 대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두 나라보다 먼저 개국했을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확보해가는 과정은, 현실과 정신세계가 강력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만하다.

24) 이것은 신라 김씨들의 시조라고 하는 세한왕(성한왕)의 아버지 알지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 알지는 구체적인 역사를 남기지도 않았는데 김씨 계보의 시조인 세한왕의 아버지로 상정되어 있는 존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三國史記』 권13, 「東明聖王本紀」即位記事.

름이 있었을 법하다. ‘해’는 고구려 초기 왕실의 성씨였고, 백제에서는 역시 부여계 귀족의 성씨로 저명하다. 바로 그 글자 해(解)가 남해차차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아들로 자부했을 차차웅의 이름자에 쓰인 이 해자는 그가 태양 즉 해와 관련된 신성시된 존재였을 가능성을 제고해주는 면이 있다.

남해차차웅의 부인이 운제산성모(雲梯山聖母)인 점도 남해차차웅이 시조였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데 관심을 들 만한 내용이다.²⁶⁾ 농업(農業)과 관련하여 가뭄에神通한 능력을 발한 산신(山神)이라는 것인데 이런 존재는 시조의 왕비로서 어울리는 면이 있다.

다음으로는 혁거세가 만약 시조라고 할 때에 그 부모가 불분명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는 혁거세의 출자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다.²⁷⁾ 물론 『삼국유사』는 중국 황제의 딸인 서술성모가 혁거세를 낳은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산의 선도성모가 시조 혁거세의 모친이었다면 신라의 국가 제사 체계에서 서술산성모에 대한 제사가 소사(小祀)에 속할 리가 없을 것이다. 서술산이 경주의 서쪽에 있었으니 당연히 서쪽 방향인 중국과 연결되어 중국 황제의 딸 운운하는 설화가 형성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혁거세에 비하여 남해차차웅의 부모는 그 탄생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

26) 이외의 신라의 역사적 인물 중에 산신이 된 경우는 탈해(토함산), 박재상의 처(치술산) 등이 있다. 탈해는 신화적 인물이며, 박재상의 처는 왜에 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으로 신격을 얻었다.

27) 단군의 경우 환웅과 웅녀의 존재가 매우 분명하며 고구려의 경우도 해모수와 유화가 또한 그리하다. 다소 차이가 있는 부여 동명의 경우에도 하늘과 왕의 시비라는 부모가 보인다.

지고 있다. 부친인 혁거세가 나정 우물가에서 발견되고 모친인 알영은 알영정에서 올라온 계룡에게서 낳았다는 사실은 남해차차웅의 출생 연원을 말하는 내용으로 손색이 없다. 남해를 중심으로 보면 부친은 천자이며 모친은 용의 딸이 되어 거룩한 천신과 지신의 결합에서 탄생한 존재가 바로 남해(南解)인 것이다. 본래 신라의 시조 신화나 최초의 『국사』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의 일단(一端)도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혁거세가 시조 위에 추가되면서 남해의 부모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혁거세본기(赫居世本紀) 기사로 옮겨가서 윤문되어 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신라 시조 변화의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사실로는, 신라에서 소지마립간 9년(487)에 시조 탄생처에 신궁(神宮)이 설치된 이후 앞서부터 존재했던 시조묘(始祖廟) 신앙이 국가적 제례에서 쇠퇴하여 사서에 그 흔적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점도 있다. 앞서 있었던 시조묘가 남해차차웅의 것이라면 뒤의 신궁은 남해차차웅의 아버지로 관념된 천의 자 혁거세를 숭배했을 만한데, 혁거세를 시조로 숭배하게 되면서 전자에 대한 숭배는 쇠퇴하고 신궁에서의 제례가 국왕이 친히 행하는 제사로 등장하게 되었던 듯하다. 현재 까지도 박혁거세의 나누어진 시체를 묻었다는 경주의 오릉(五陵)이 혁거세는 물론 알영 왕비를 포함한 초기 박씨 왕들 5인의 무덤이라는 이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 시조 혁거세의 무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신라에서 시조 혁거세에 대한 인식이 다소 관념적이어서 구체성이 약했던 것이었으며 그 결과로 현재와 같은 전승을 낳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⁸⁾

28) 앞의 주 10에서 인용한 『三國遺事』 권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조의 末尾 내용에 의하면 혁거세의 나누어진 遺體를 한 곳에 합장하려 하자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의 시조가 본래 남해차차웅이었다고 하면 그 시조 계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부계로는 천 — 천자(혁거세) — 천손(남해)이며 모계로는 지신[地神(용)] — 지신의 여(알영) — 지신의 외손(남해)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차차웅의 모친 알영은 알영정(闕英井)에서 나왔는데, 경주 일대에는 동굴이 없는 관계로 수직(垂直)형 동굴(洞窟)인 우물에 살던 신이 동굴에 살던 신을 대신한 점이 있다. 단군의 모친 웅녀, 주몽의 모친 유화 그리고 남해의 모친 알영은 다같이 지신 계통이며 굴의 신이라는 일치점을 보인다.

IV. 맺음말

고구려 건국신화 자료들을 통해 본 주몽의 출자 계보 구조는 천(天)·지(신)[地(神)]의 손(孫)으로 모아진다. 지고(至高)한 존재인 천과 지는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시조를 탄생케 하였다. 이 같은 구조는 고구려만의 것이 아니라 앞서 존망(存亡)했던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거의 고구려와 병존(並存)하였던 신라의 시조의 경우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칫 신화들의 상호 의존적(依存的) 조작(造作) 가능성을 생각해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들을 면밀하게 연구해보면 각각의 역사성이 농후해서 그것들이 인위적(人爲的) 조작이 아니라 공동(共同)의 문화 의식 기반에서 생성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상대적

여 결국 5體를 각기 묻은 5陵을 썼으며 이를 蛇陵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오룡에 관하여 혁거세를 포함한 5인의 무덤이라는 설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으로 이질적일 듯한 신라를 포함한 한국 상고의 건국 시조들은 천·지신에 대한 경외, 샤머니즘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이 되는 천·지신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연원하였다는 점에서 왕권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인정받으며 인간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가장 원초적인 문화유산인 건국신화를 통해서 보면 고구려와 고조선은 물론 신라의 경우도 동이문화의 권역(圈域) 위에 공동의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高句丽建国神话中的朱蒙出自系谱结构

— 与檀君、朴赫居世情况相比较

•

金基兴 (建国大学校 教授)

•

I. 前言

本文通过见于高句丽朱蒙神话中的始祖朱蒙出自系谱的特征结构与古朝鲜和新罗始祖情况作比较和检讨。古朝鲜的始祖檀君和高句丽的始祖朱蒙及新罗的始祖朴赫居世出自系谱，在其结构上可谓大体类同。但是，朴赫居世神话则有部分细节上的差异和不甚清楚的地方，还需进一步探讨的必要。通过本研究，欲阐明见于朱蒙神话中的高句丽人始祖观及上古时期韩国古代国家之间的文化关系。

II. 有关朱蒙出自资料之检讨

现有不少有关朱蒙神话的史书及金石文资料。但是，载于其中的神话内容不乏微小差异，随之有关朱蒙出自系谱内容也有不少相异。之所以如此是，神话反映的并非为建国时期的，而是经过高句丽中期乃至后期，因王室的必要性或政权的相悖而形成和演变的。此外，又有口传神话本身所具有的基本属性及史料收集、整理和编撰过程中个人意图之介入等因素之影响。

有关朱蒙出自方面的资料如下：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广开土大王陵碑文》, 414年)

河伯之孫,日月之子,鄒牟聖王,元出北夫余,天下四方,知此國都最聖□□。(《牟头娄墓志铭》, 5世纪中叶)

高句麗者,出於夫餘,自言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為夫余王閉於室中,為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既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魏书·高句丽传》, 554年)

始祖東明聖王,姓高氏,諱朱蒙(一雲鄒牟,一雲象解)。先是,扶余王解夫婁,老無子,祭山川求嗣。……後,其相阿蘭弗曰,日者天降我曰,將使吾子孫立國於此,汝其避之。東海之濱有地,號曰迦葉原,土壤膏腴宜五穀,可都也。阿蘭弗遂勸王,移都於彼,

國號東扶餘。其舊都有人，不知所從來，自稱天帝子解慕漱，來都焉。及解夫婁薨，金蛙嗣位。於是時，得女子于太白山南優渤水，問之，曰：我是河伯之女，名柳花，與諸弟出遊。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誘我于熊心山下，鴨綠邊室中私之。即往不返，父母責我無媒而從人，遂謫居優渤水。金蛙異之，幽閉於室中。為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而照之，因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許。（《三国史记、东明圣王本纪》，1145年）

《三国志、东夷传》成书于3世纪后期。该书的高句丽条，虽未直接记述朱蒙的出自，但参考价值较大，记载如下：

以十月祭天，國中大會，名曰東盟。其公會……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國中大會，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置木隧於神坐。

《三国志》的这一史料说明，至少在3世纪以前高句丽都城一国内城曾举行所谓的“东盟”祭天仪礼。祭天仪礼，一般是神话内容的再现。从“东盟”之名可推测出，事实上东明的存在，其始祖渊源与天(神)有关，是国家性祭天仪礼。此外，又有国东大穴隧神祭祀仪礼，与前者一并举行。隧神是女神，其原形是朱蒙之母，亦名“夫余神”。

从上述史料可见，朱蒙双亲的系谱关系。以父系而言，朱蒙是太阳神解慕漱的儿子。因为解慕漱是天子，所以朱蒙被看作天孙。以母系而言，朱蒙是柳花的儿子。因为柳花是河伯的女儿，所以朱蒙又被看作河伯神(地神、河神)的外孙。也就是说，朱蒙是天地(神)之结合而出生的天地之孙。世界的基本构成要素是独自的天和地。朱蒙就是天

地之合而生的一位统治者，具有建国始祖应具备的堂堂的王者面貌风范。他以天神和地神嫡系继承者的身份一跃而成开国始祖的。由此可见，高句丽臣民是被其伟大的血缘权威，纷纷跪拜于他的新王权之下的。

朱蒙神话是以夫余东明神话为蓝本的。朱蒙成长于金蛙的宫殿中，倍受其他王子们的种种差疑和异样的待遇，其母亲也居于别宫。由此可见，朱蒙是金蛙王的庶子。但是，在高句丽的建国过程中，高句丽人把始祖朱蒙看作天地之合而生的天地神的孙子，以此来强调其始祖的神圣性。在这一过程中，出现朱蒙从东夫余的戏剧性出逃、百发百中的射箭技术、与琉璃王子的戏剧性相逢以及迁都国内城后的“国东大穴”隧神祭等国家祭礼，这些都强调朱蒙神话的神圣性和独自性。其中，尤为重要的是在国内城附近一并举行的国东大穴隧神祭和东盟祭。这是天神和隧神夫妇之结合而生东明(朱蒙)的、较为独特的、表现神圣家族关系的最为重要的契机。如上所述，高句丽人创造了神圣的始祖家族关系，完全克服了之前曾依赖于夫余或东夫余的精神世界，构造了独有的高句丽化意识形态。

III. 与古朝鲜及新罗始祖出自系谱之比较

1. 檀君出自系谱

通过檀君神话内容，拟探讨古朝鲜始祖檀君的出自系谱。

古記雲：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個，遣往理之。雄率徒三千，降于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於神雄，願化為人。時，神遣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日光百日，使得人形’。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而不得人身。熊女者無與為婚，故每於壇樹下，祝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三国遗事》紀異篇)

如上所述，檀君系谱关系是比较清楚的。其父系关系是天神(桓因)一天子(桓雄)一始祖(檀君)结构，母系关系则为熊女—檀君结构。熊女原本为熊，是原始氏族社会的一种图腾。熊女原本是穴居的熊，是与高句丽“国东大穴”的隧神一样，是一位穴居的神圣存在物。熊女是与地神相关的一种图腾，熊女之上亦有可能存在比它高贵的地神，这一点并非为没有道理。现实中存在的各种图腾，其根本性的存在或设定其父母的行为，是上古时期的人也不例外。总之，檀君的母系关系类似于朱蒙的母系关系，也是地(神)—地神之女—地神之外孙结构。

事实上，关于檀君神话和朱蒙神话中始祖的出自类同的问题，曾被日本学者关注，认为，在高丽时期就以朱蒙神话为蓝本，编造了檀君神话。但是，在20世纪前半期，韩国学者崔南善曾指出过，檀君神话含有以当时的高丽士人阶层无法认识、编造不出的图腾崇拜、农耕出现、祭政一致、君长出现等原始性社会及历史像，因此不能断定它

是编造的。

古朝鲜和高句丽始祖出自系谱如此类同，说明从时间和空间上高句丽深受古朝鲜的强烈影响，表明朱蒙神话受到檀君神话的直接或间接的影响。而且，从深层看，古朝鲜和高句丽都属于东夷文化圈，都具有其始祖是天地(神)之孙的观念和意识形态。

当然，夫余的东明神话对高句丽朱蒙神话的影响更为直接和深刻。但是，因夫余始祖东明是妊娠于天(气)而生的，所以亦可谓“天子”。于是，对他们之间的相互关系多少会产生一些疑惑。关于这一点，要分辨其影响关系虽有不少困难，但笔者认为如此理解似为恰如其分。在夫余东明神话中，橐离国(或橐离国)王侍婢被妊娠于“气大如鸡子”的“气”。就是说，参照朱蒙神话的内容可理解为，能有这种气让人怀孕的主人只有事实上存在的天上的太阳。此外，值得深思的是，虽为同一对象，但以记录流传的神话和现实中的口传神话间，在故事梗概方面可存有一定差异等问题。

2. 新罗朴赫居世的出自系谱

韩国历史上的三国时期又一强国百济王室的出自，与高句丽王室的出自是相同的。学者之间虽有不同的解释，但古代东夷国家均具有其始祖是天地神之孙的血统意识，即坚持现实的血统主义。由此可见，在前半期百济供奉的始祖东明，与其说是夫余始祖，还不如说是高句丽始祖朱蒙，即东明圣王。百济王室以天、地神之孙朱蒙，即东

明圣王之后裔而自豪，并以此来实现王室的威严。

那么，新罗始祖赫居世是怎样的存在呢？下面，主要以《三国史记》和《三国遗事》的神话内容为中心，探讨该问题。从“赫居世”之名的语意及《三国遗事》的“光明理世”之王等记载来看，他是光明的存在。

那么，应怎样看待朴赫居世的系谱呢？在史料方面，不仅没有其双亲之名的记载，甚至连他的父亲之名也未曾提及。《三国遗事》的另一传承故事认为他的母亲是西述圣母，但还是不清楚其父为何人。那么，从白马长嘶上天的蘿井傍紫卵中出生的这一男孩的父亲到底是谁呢？因赫居世出生于从天而降的巨卵中，所以亦可谓为天帝之子（天子），但他并不是桓雄或解慕漱等成年天子的形象，这一点值得深思。总体上看，以现存史书的记载尚无法断定其是天子还是另外一种存在。而且，新罗始用父系姓氏为6世纪中期的真兴王时期。因此，为了说明赫居世的姓氏“朴”，6世纪以后的新罗人搬出的就是瓠，所以也有必要再探讨原形神话中是否有过大卵（又名紫卵）之存在。

但是，如再把光明的“弗矩内”王和太阳相联系，则对问题的解释多少也有点帮助。也有可能把太阳看作人性化的解慕漱等天子。如能想到倒映于井底的太阳，则能想象得出蘿井傍的太阳，即为天子。当然，在《三国遗事》的神话故事中，新罗人把卵生的朴赫居世称作“天子”。虽为卵生，但是从天而降而卵生亦可视为天子。太阳是一颗巨卵，是所有生命的源泉，有必要参照这些理解。

但是，如果这样理解的话，天子变为新罗的始祖王，成为问题。也就是说，新罗的始祖不是“天孙”，而是“天子”，这就有别于古朝鲜

和高句丽的始祖系谱。中国的国王一般称之为“天子”，但中国的天子并不是天帝的儿子之意，被认为是受命于天帝的儿子，是拟制性的天子。

朴赫居世是国家的始祖，但其存在的渊源和出自上有含混不清的地方。不仅是他的父亲，就连母亲的存在也不甚清楚。究其原因，可能是赫居世神话本身的体系结构尚未完备之故，又有可能是在传承过程中就是如此。在口传过程中的蝉变，或在编纂和再编纂史书的过程中，对主要神话素材进行润色和加工也是很有可能的。

《三国史记》中的新罗初期记载等也有这些变化的传承过程，遂出现了有关典据研究。《三国史记》的典据研究是以《三国史记》的中国系书籍和“古记”等韩国传统史书类为中心进行的。笔者认为，不仅要包含高丽时期的古记类史书，还应把研究视角扩展到更为遥远的时代，如真兴王六年(545年)编纂的《国史》等。如要正确把握赫居世的存在，则不仅要考虑上述要素，还应正确理解见于《三国史记》的唯一的次次雄，即赫居世的儿子南解次次雄。《国史》不是一次性完成的史书，并不排除多次补修、编纂等可能性，应对这一问题引起足够的重视。

南解次次雄是赫居世的儿子，是新罗历史上的唯一的次次雄。次次雄之称谓，是与居西干、尼师今、麻立干等一样，是对新罗最高统治者的称谓。但是，《三国史记》中只有这一南解次次雄，并无其他次次雄。分明是，在编纂《国史》时，有关麻立干的史料较为俱全，因此易于编纂，对尼师今也保有一定的系谱和传说等。关于最初尼师今即儒理尼师今(在位24~57年)，尚留有围绕年龄而展开的其与脱解的争

执事件被传为传说化，所以把握他的存在也没有多大的困难。由此推论，通过南解次次雄传说可能变为儒理和脱解的尼师今传说故事，由此演变为比较具体的儒理尼师今之父。

但是，新罗人金大问对次次雄的解释是“巫”，是事鬼神尚祭祀者，遂谓尊长者。如要提及事鬼神的司祭统治者，则立马会想到古朝鲜的“檀君”。

次次雄与檀君是同类存在，这一点也值得深思。古朝鲜的檀君是天子桓雄和土著民族的图腾熊女结合而诞生的，是天、地、神的结合而产生的神化人物。次次雄亦有可能是此类存在。

关于南解次次雄，有如下引人注目的记载之残迹。《三国遗事》称之为“三皇之第一”。但是，《三国史记》和《三国遗事》新罗王条的系谱体系都认为南解次次雄是新罗的第二世王，遂“第一”就成问题了。当然，从新罗开国后的天、地、人三皇而言，赫居世理应是第一天皇。但是，至今尚难找出新罗初期就有三皇称谓的确切根据。在新罗对中国史方面具有基础性理解时，可能出现把初期王按三皇区分加以称谓。

那么，能不能把南解次次雄看作初期“三皇之第一”呢？或南解次次雄称作“三皇之第一”的时期呢？如要探讨这一问题，则有必要参见《三国遗事》的其他王的记载。如果把南解次次雄理解为“三皇之一”，是三皇之第二位，则会有怎样的解释呢？如果不是大的失误，那么理应在赫居世王或儒理王条里出现有关“三皇”之记载为是。何况，对三皇之第一没有任何涉及，却突然开始言及三皇之第二，这是极为不自

然的事情。

据《三国史记》的记载，赫居世王和南解次次雄是甲子年即位的。父子两的即位年相同的概率是极为罕见的，遂认为有意编年的可能性极大，值得深思。

下面，要重新思索真兴王六年(545年)编纂《国史》时的史料状况。在之前的麻立干时期，多少亦有文字资料。新罗的冷水里碑(503年)修于智证麻立干时期。由此可见，当时文字已被利用于宫廷和公共行政生活当中。在尼师今时期的资料也非常有限，主要通过祖先的传说故事和遗迹、遗物关联的传说等修补、完善和传承下来的。这样追溯到的尼师今就是排在第一位的儒理尼师今，是出现尼师今语神话的主人公。当然，他也有父亲，所以设定其父也是理所应当的，于是出现政教未分、祭政一致阶段的次次雄的形象。

在初次编纂《国史》的时候，南解次次雄有可能成为新罗的始祖。他是不知确切在位年数的情况下，被冠于始祖之名的。于是出现开国第一年之意的甲子年，又是万物复苏之意的春三月，这种假设也不为过分。当然，他即位之年即所谓的甲子年(4年)就有可能是新罗历史上的建国元年。因此，认为当时的新罗历史编年已在《国史》中确定。

但是，编纂《国史》后不久，真兴王开始了积极的、大规模的领土扩张，把新罗的领土拓展到汉江流域及高句丽南东部海岸一带。真兴王巡守新征服地区，修建了许多拓境碑。真兴王取得的成就是惊人的，他还编纂了新罗第一部史书。因此，认为既关心新罗历史又具有相当历史意识的真兴王有可能重新修善史书。此外，初次编纂《国史》

的负责人是居柴夫，是真兴王统治中后期的最高权势家，这一点也值得参考。当时，新罗与中国南朝的梁国间交往甚密。因南齐和梁国都编纂过史书，所以通过来往使节等形式对此给予了一定影响。真兴王曾编纂过《国史》，又随着国家的发展，他对本国历史的自豪感也越发强烈，所以有可能把本国史的渊源拓展到更为遥远的时代。如果说已往的新罗《国史》是南解次次雄为始祖的体系，则比其近邻高句丽或百济开国晚数十年。现今的《三国史记》是新罗开国最早，之后是高句丽和百济的体系。依笔者之见，这种体系是真兴王统治中期以后的产物。如要把本国历史追溯到更为遥远的时代，则有必要在现已成为始祖的南解次次雄之前，另设其父王，这是理所应当的。

此外，还有新罗始祖为南解次次雄的其他史料。

首先，有必要考察“南解”之名。先回顾一下高句丽始祖朱蒙之名为“象解”这一点。“象解”是“象太阳的人”的意思。因朱蒙为太阳解慕漱的儿子缘故，其本名为“象解”。“解”原本是高句丽的王室初期姓氏，也是百济著名的夫余系贵族姓氏。就是这一“解”字被冠于南解次次雄的名字上。以神的儿子自称的次次雄名字中的这一“解”字，增强了他就是太阳，即与太阳有关的神圣存在的可能性。

南解次次雄的夫人是云梯山圣母，它是南解次次雄曾为始祖的又一值得关注的内容。云梯山圣母是与农业相关的、对抗涝有神通的山神，可与始祖王妃地位相媲美。

其次，有必要深思赫居世为始祖时不甚清楚其父母之状况的事实。对赫居世的出自，《三国史记》没有另类内容。当然，《三国遗事》

则认为，赫居世是中国黄帝之女西述圣母所生。但是，如果西述山仙桃圣母确为始祖赫居世的生母，则新罗国家祭祀体系中的西述山圣母祭祀不应只为小祀。因西述山位于庆州的西侧，遂与西方的中国相联系产生了所谓“中国黄帝之女”等神话故事。但是，这些神话没能控扼土著的赫居世神话的继续传播，反而只限于局部残存下来。

与赫居世相比，南解次次雄的父母诞生过程可以说是非常具体和详细的。如，其父赫居世是被发现于蘿井旁，其母闕英是闕英井的鸡龙所生等等。它们不愧是反映南解次次雄出生渊源的内容。以南解为中心，则可发现其父为天子，母为龙女，南解为伟大的天神和地神结合之精华。依笔者之见，在原本的新罗神话或最初编纂的《国史》中，有可能载有这些事实的端倪，但随着赫居世横空出世于原先的始祖之上，原本有关南解父母的出生故事也转载到了赫居世本纪里，并加以润色和加工。

陪衬这些有关新罗始祖变化之可能性的史实如下。新罗炤智麻立干九年(487年)，始祖诞生处设置神宫。从此，在国家祭礼中，原本存有的始祖庙信仰渐趋衰微，以致史书中很难觅其痕迹。如果说前者为始祖南解次次雄的庙宇，那么后者则为南解次次雄之父即天子赫居世的神宫。随着赫居世被尊崇为始祖，对前者的崇拜日渐衰微，而神宫祭礼渐趋成为国王亲自主持的祭祀。至今尚流传，埋葬朴赫居世部分尸体的庆州之五陵不仅有赫居世之陵墓还包括闕英王妃等初期5位朴氏国王陵墓的异说，表明尚不能断定新罗始祖赫居世之陵寝。由此亦可窥见，新罗对其始祖赫居世的认识是比较观念性(抽象)的，所以具

体性比较差，导致了如同现在的结果。

如上所述，新罗始祖为南解次雄，则其始祖系谱关系如下：其父系为天—天子—天孙结构；其母系为地神(龙)—地神之女(閼英)—地神的外孙(南解)结构。南解次雄之母閼英生于閼英井，因庆州一带没有洞穴，所以垂直形洞窟—水井神取代了隧神。熊女、柳花、閼英属地神系，均为隧神。

IV. 结语

总之，从高句丽建国神话看到的，始祖朱蒙出自系谱为天神和地神之孙结构。至高无上的天和地，通过他们的子女，使始祖诞生。这样的结构，不仅在高句丽，而且在已存亡的古朝鲜檀君神话中也得到验证，还与高句丽并存的新罗始祖情况也一致。这些事实表明，所谓的神话之间，有可能存在相互依存和造作。但是，如仔细研究现存的韩国古代国家建国神话，则不得不承认其浓厚的历史性，认为他们不是人为造作，而是生成于共同文化意识基础上的。古朝鲜、高句丽及相对异质的新罗等韩国上古时期的建国始祖，都以对天和地的敬畏和巫术为基础，血统上渊源于两大基本神系，从中确保王权的神圣性和绝对性，以君临天下。

至少从最为原初的建国神话文化遗产可见，不仅是高句丽和古朝鲜，还是新罗都地处东夷文化圈，保有共同的文化特性。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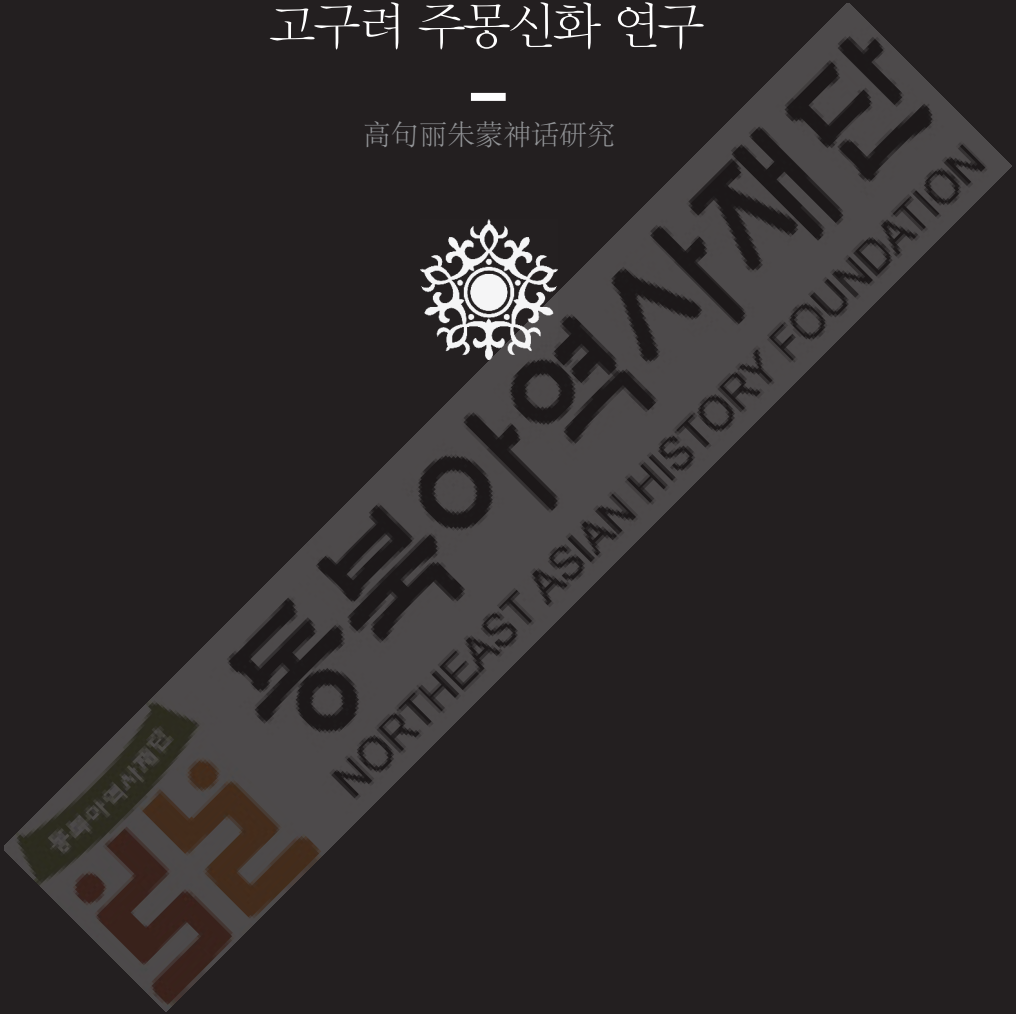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주몽신화 연구

—
高句麗朱蒙神話研究



양권 | 楊軍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주몽신화 연구

-
- **양권** (중국 길림대학문학원 교수)
-

주몽신화에 대한 사서의 기록은 곧 주몽의 신세(身世)와 고구려(高句麗) 민족의 기원에 대한 역사의 반영이라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고구려 건국 이전의 역사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고구려 족원신화(族源神話) 또는 고구려 건국신화(建國神話)라 하여 기록에서 보이는 고구려인의 다른 신화와 구별하기도 한다. 본고는 주몽신화의 원류(源流)와 신화 속의 역사적 내용을 분석하고 신화 속에 포함된 고구려인의 초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고구려 초기역사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계기로 여러 학자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I.

최초로 주몽신화를 기록한 한국 사서는 『삼국사기』 권13 「시조동명성왕 본기」이다. 『삼국사기』가 완성된 지 반세기가 되지 않아 이규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의거한 자료인 『구삼국사』를 본 적이 있다고 전한다. “越癸丑(1193)四月 得 舊三國史 見 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 金公富軾重撰國史 頗略其事 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 不可以大異之事爲示於後世而略之耶.”¹⁾ 이는 김부식이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 기록된 신이(神異)한 기사를 대거 생략했음을 의미한다.

『삼국사략』 편찬에 참여한 권근(權近, 1352~1409)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신라·고구려는 모두 본국의 역사를 편찬한 적이 있다. “新羅氏與高句麗·百濟鼎立 各置國史.” 그러나 권근은 이러한 사서를 평가함에 “傳聞失真 多涉荒怪”²⁾, “其傳聞則多涉於荒怪 錄所見則未盡其詳明”³⁾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화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은 이러한 사서의 공동한 특징이라 하겠다. 권근은 또한 “前朝文臣金富軾輯爾修之爲三國史”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서들이 기록한 신화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심지어 김부식이 인용한 『구삼국사』의 주몽신화도 각국의 구사(舊史)에서 그 내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삼국사』 「동명왕본기」가 고구려의 사서에 기초하여 기록되었음을 설명한다.

1) 李奎報, 「東明王篇序」, 『東國李相國全集』 卷3.

2) 權近, 「三國史略序」, 『陽村先生文集』 卷19.

3) 權近, 「進三國史略箋」, 『陽村先生文集』 卷24.

4) 權近, 「三國史略序」, 『陽村先生文集』 卷19.

『삼국사기』 권20 「영양왕본기」 11년(600)조에 “詔太學博士李文真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라고 기록하였다. 고구려가 어느 시기부터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소수림왕 2년(372)에 이미 “立太學 教育子弟”⁵⁾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시기가 이보다 더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자를 사용한 초기부터 한자로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였는지는 살펴보아야 하지만 600년에 산수(刪修)한 『유기(留記)』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서가 긴 시간에 걸쳐 전송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사서의 완성시기도 6세기 초를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삼국사』의 사료 내원으로서 고구려 여러 사서의 완성시기를 4~6세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범주에서 사서의 완성시기는 5세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로서 비록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되었지만 사서에 기록된 주몽신화의 의거사료는 이미 5세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주몽신화는 중국사서인 『위서』 권100 「고구려전」에서 처음 나타난다. 『위서』는 주몽신화를 기록함에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이라고 하였는데 ‘自言’인 만큼 그 기록이 고구려인의 구전(口傳)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아래 문에서 이오(李敖)가 고구려에 사절로 가서 “至其所居平壤城 訪其方事”⁶⁾라는 기사로 보아 『위서』의 기록은 고구려 현지에서의 이오의 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이오는 435년에 사절로 고구려에 머물렀으므로 『위서』에 적혀 있는 주몽신화는 5세기 전기의 고구려인의 소개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5) 金富軾, 「小獸林王本紀」, 『三國史記』 卷18.

6) 『魏書』 卷100, 「高句麗傳」.

지금까지 발견된 금석문 자료 중에 처음으로 주몽신화를 기록한 것은 414년에 건립된 「호태왕비문」이다. 이와 동시대에 속하면서 보다 뒤늦게 건립된 출토자료로 「염모모지」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금석문 자료로 주몽신화가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5세기 초이다.

중국과 한국의 사서 및 금석문에 기록된 주몽신화의 자료 내원은 그 시기가 5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신화의 내용으로 보아 3자가 의거한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다. 『위서』와 「호태왕비문」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호태왕비문」에는 『위서』에 기록된 주몽의 신이(神異)의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割卵降世, 生而有聖德」⁷⁾이라는 구절로 개괄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문의 특정된 문제요구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보인다. 첫째, 『위서』에는 비문에 보이는 ‘天帝之子’식의 구절이 없고 비문에서는 주몽이 ‘皇天之子’라고 자칭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서』는 이를 ‘我是日子’라고 고쳐 썼다. 둘째, 『위서』는 비문 중의 ‘북부여’를 ‘부여’로 고쳐 썼다. 그 원인을 말하자면 전자는 고구려인들이 이오에게 자기 민족의 신화를 이야기할 때 주제님께 주몽을 천자라고 하지 않았는가를 염려하여 그 내용을 일부러 빼놓고 서술하지 않은 것이고, 후자는 중국 사서에 기존에 북부여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에 이오 스스로 ‘북(北)’자를 생략하여 중국의 옛 기록과 통일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이로부터 「호태왕비문」과 『위서』에 기록된 주몽신화는 동일 계통으로 그 모두가 고구려 왕실이 공식적으로 국내외로 선전하는 통일된 관력(官方)의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태왕비문」의 기록은 『동국이상국전집(東國李相國全集)』 권3 「동명왕편」에는 ‘본기운(本紀云)’

7) 好太王碑 耿鐵華 釋文；耿鐵華(2003),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11쪽. 본문에서 인용한 好太王碑는 모두 경태화의 해석문을 참고하였다.

이라는 자주(自注)가 있는데 그 내용은 김부식의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인용하였을 것이다. 이규보가 인용한 『구삼국사』의 내용으로 보면 그 주몽신화는 『위서』의 그것과 확연히 구별되어 양자는 서로 다른 계통에 속한다. 우리는 이를 고구려 사서가 기록한 주몽신화 계통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신화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주(注)의 형식으로 출현하는 『구삼국사』 및 『위서』 「고구려전」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삼국사기』는 그 머리 부분에서 『구삼국사』를 인용하고는 이어 『구삼국사』의 신이 기사를 대거 삭제하고 『위서』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신화는 고구려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전한 신화와 고구려 사서의 신화기록을 종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신화의 원형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주몽신화를 연구하는 표본(標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훗날에 완성된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와 같은 성격을 지녔으며 역시 두 가지 계통의 신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삼국사기』의 신화 내용도 많이 인용하였다. 고구려 왕실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신화 내용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고구려 왕실이 고의로 어떠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아래에 주몽신화를 분석함에 고구려 사서의 신화기사, 즉 이규보가 인용한 『구삼국사』를 고찰대상으로 하겠다.⁸⁾

여기에서 설명할 바는 두 가지 계통의 신화는 주몽의 귀속(歸宿)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태왕비문」에는 “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履龍首昇天”이라고 하였으나, 『위서』는 주몽의 귀속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8) Song, Sunhee(1974), “The Koguryo Foundation Myth : An Integrated Analysis,” *Asian Folklore Studies*, vol.33, no.2, pp.37~92.

는 승룡(承龍)에 대한 피휘(避諱)로 보인다. 『구삼국사』는 “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이라고 하였는데, 이규보의 이 기록은 『구삼국사』의 일부 기록을 삭감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노가재연행 일기(老稼齋燕行日記)』 권9, 계사(癸巳) 3월 24일조에 “麒麟窟 東明王時有麟馬 出於此 王乘以昇天”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구삼국사』가 기록한 주몽이 승천하는 신화 중에 ‘기린굴출린마(麒麟窟出麟馬)’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헛된 고적(古蹟)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행(李荇, 1478~1534)의 『어별성교부(魚鰾成橋賦)』에는 “嗟麟馬之不還 但龍山之玉鞭”⁹⁾이라고 하여 인마(麟馬)와 옥편(玉鞭)을 하나로 보았다. 이는 이것이 원래 『구삼국사』에 기록된 신화이야기의 한 대목이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의 주(注)는 원문의 일부를 삭제하여 후자만을 인용하고 전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마의 이야기는 후세 문인들의 시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정홍명(鄭弘溟)의 「청학동비명(靑鶴洞碑銘)」에 “檀木之真人一去 空餘太白之山 東明之麟馬不返 只有朝天之石”,¹⁰⁾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동명왕』 시는 “麟馬有遺蹟”,¹¹⁾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의 『단군동명왕사기우제문(檀君東明王祠祈雨祭文)』에는 “允顯東明 生稟日精 威服松讓 藝絕穿楊 橋成魚鰾 窟有麒麟”,¹²⁾ 홍량호(洪良浩, 1724~1802)의 『동명왕묘(東明王墓)』에는 “蓋有東明墓 穹然若斧堂 玉魚今寂莫 麟馬竟荒唐”¹³⁾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록 『구삼국사』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에 기록된 이야기는 민간

9) 李荇, 『容齋先生外集·魚鰾成橋賦』.

10) 『孤雲集·孤雲先生事跡』 인용 鄭弘溟 「靑鶴洞碑銘」.

11) 高敬命, 『靄峰集』卷1, 「東明王」.

12) 閔維重, 『文貞公遺稿』卷5, 「檀君東明王祠祈雨祭文」.

13) 洪良浩, 『耳溪集』卷7, 「東明王墓」.

에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주몽신화를 논하는 후세 문인 중에 고구려 왕실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전한 내용을 근거로 삼는 사람 — 예를 들면 임창택(林昌澤, 1682~1723)의 『유화가(柳花歌)』¹⁴⁾ — 도 있지만 주류에 속하지 않는다.

II.

『구삼국사』에 기록된 주몽신화 중에 후세 사람들이 부가한 신기(神奇)한 대목을 제외하면 여기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시조기원(始祖起源)의 역사에 대한 어렴풋한 두 기억이 담겨 있다. 하나는 주몽의 신세(身世)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몽의 남천(南遷)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전자를 고찰해 보자.

주몽의 신세에 대하여 「호태왕비문」에는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이라고 간략하게 적고 있으나, 『구삼국사』의 그 기록은 풍부하여 천제지자(天帝之子)인 해모수와 하백녀인 유화의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를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

夫餘王解夫妻老無子 祭山川求嗣 所禦馬至鯤淵 見大石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金色蛙形 王曰 此天錫我令胤乎 乃收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 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 阿蘭弗勸王移都 號東夫餘 於舊都 解慕漱爲天帝子來都¹⁵⁾

14) 林昌澤, 『崧岳集』卷1, 『海東樂府』.

『삼국유사』 권1 동부여조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더 보인다.

古記雲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於訖升骨城 (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於東扶餘¹⁶⁾

『삼국유사』의 이 기사는 이보다 더 이른 자료 내원인 『고기』를 인용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구삼국사』에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원래 고구려 사서가 기록한 주몽신화 내용이었던 것을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天帝降於訖升骨城”이라고 한 것은 고구려의 초기 활동영역과 북부여의 초기 활동영역의 혼동이라 하겠다. 일연은 『삼국유사』 권1 고구려조에서 다른 한 고서인 『단군기』를 인용하여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名曰夫妻”라고 하고는 논찬을 덧붙여 “今按此記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壇君記云產子名曰夫妻 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라고 하였다. 일연은 위의 사서에서 기록된 천제·해모수·단군을 동일시하여 부루와 주몽을 동년배로 보고 양자가 이복형제라는 결론까지 내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그릇된 것이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일찍이 이 사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三國遺事引檀君記云 娶西河河伯女 產子夫妻 又其北扶餘篇云 解慕漱立國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3, 「동명왕편」 주 인용 ; 『구삼국사』, 「동명왕본기」.

16) 『삼국유사』 권1, 「북부여」 ; 『고기』.

於北扶餘 生子名夫婁 當漢宣帝神爵三年 又引高句麗記云 解慕漱私河伯女 產朱蒙 夫婁與朱蒙 異母兄弟也 又其王歷篇云 朱蒙 檀君子 則此以解慕漱爲檀君也 或非謂始降之檀君 而更稱懷王也 古來傳說荒誕 終無可信之文 今只從其近似者¹⁷⁾

안정복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국학자 이긍익(李肯翊, 1736~1806)도 위 사료에 대하여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⁸⁾ 『구삼국사』는 같은 내용을 기술함에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降遊扶餘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라고 한 것과 유화를 ‘천제자비(天帝子妃)’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삼국유사』가 인용한 사서인 『고기』는 ‘천제(天帝)’ 뒤의 ‘자(子)’자를 뺀 듯 하다. 일연은 세밀한 고찰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그릇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삼국유사』의 잘못된 기록을 밝혔으니 이로써 『삼국유사』와 『구삼국사』에 기록된 부여국의 역사를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천제자(天帝子)인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립하였고 그의 아들 부루에 이르러 동천하여 동부여라 개칭하게 된다. 이어 천제자인 해모수는 부루의 고지(故地)에서 새로운 북부여를 건립하였다. 신화 속에 두 부여국의 건립자를 모두 해모수라는 동일한 이름, 같은 천제지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의 해모수는 인명이 아니라 천제지자인 ‘천자(天子)’를 지칭하는 지방언어인 듯 하다. 부루를 해모수의 아들로 표기하는 것과 주몽을 ‘천제지자’로 표기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천손(天孫)’ 관점을 견지하는 동일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로서 신화 속에서 ‘천손’의 신분으로 등장하게

17) 안정복, 『동사강목』 附卷, 「考異」 夫婁當有二人조.

18) 李肯翊, 『燃黎室記述』 별집 권19, 「歷代典故」 단군조선조.

되었고 부루는 동천을 영도하여 동부여의 시조가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신화는 전설 중의 개국군주(開國君主)를 ‘천손’으로 인식하였다.

『호태왕비문』에는 주몽을 ‘北夫餘天帝之子’라고 하였다. 이를 위에서 이미 고찰한 결론과 결부시켜 보면 주몽은 부루의 고지에서 새로운 북부여를 건립한 해모수의 아들이지 부루의 아버지인 해모수의 아들이 아니다. 『호태왕비문』의 기록은 원래부터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게다가 『삼국사기』는 부여신화를 본따서 주몽의 감일이생(感日而生)을 묘사하여 주몽과 해모수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구삼국사』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해모수는 유화를 만나 “得而爲妃 可有後胤”이라고 하였다. 해모수가 부루 고지에 온 것은 신작(神爵) 3년이었는데 주몽은 신작 4년 4월에 태어났다. 이 모든 것들은 주몽이 해모수와 유화의 아들임을 암시한다.

『구삼국사』에 “女既與王定情 不肯離去 乃勸王曰 如有龍車 可到河伯之國王指天而告 俄而五龍車從空而下 王與女乘車 風雲忽起 至其宮”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유화가 해모수와의 결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설명한다. 그는 해모수에 협조하여 아버지인 하백에게 혼인을 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하백은 해모수가 ‘是天帝之子’임을 승인하고 이 혼인을 승낙하여 ‘恐王無將 女之心’이라는 염려까지 하였다. 그러나 신화 속에서 이 혼인은 성사되지 못하고 유화는 동부여의 왕인 금와의 집에서 주몽을 낳게 된다. 해모수는 신화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를 유화와 혼례를 올리기 직전에 해모수가 죽어 주몽이 유복자(遺腹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주몽 아버지의 정확한 이름은 현재로서 알 길이 없으나 신화에서 이를 해모수·천제지자로 칭한 것으로 보아 부여인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재위기간은 부루 이후였을 것이다. 신화에서 보면 금와는 부루가 입양한 것으로 등장한다. 금와의 신세가 어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루 소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신화에서 부루가 아들이 없어 부여국 내부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금와가 즉위하기 전에 이러한 내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에 주몽의 아버지는 부여의 왕위에 올랐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 부여국이 동부여와 북부여로 갈라진 사실이나 부루 각 부의 동천 등과 같은 신화내용은 곧 이 왕위계승을 둘러싼 다툼과 연관된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금와의 왕위계승으로 끝을 맺는다. 금와는 해모수의 아내인 유화를 거두고 해모수의 유복자인 주몽까지 키우게 된다. 이는 한 측면으로 해모수의 죽음이 금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다른 정치집단의 소행이었음을 시사해준다. 금와는 해모수집단과 해모수를 살해한 정치집단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이 끝난 후 혼란한 국면을 수습한 사람이다. 주몽은 금와의 집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남하한 이후에도 줄곧 금와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죽는다.¹⁹⁾ 당시의 북방민족이 보편적으로 접속혼(接續婚)을 시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주몽의 아버지와 금와는 같은 북부여 왕실출신의 동배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모수가 죽은 후 금와는 접속혼 풍속으로 유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이로써 해모수의 유복자인 주몽은 자연스럽게 금와의 아들 대우를 받게 된다. 접속혼의 풍속에 따르면 접속처(接續妻)에 딸려 온 아이는 접속자(接續者) 자신의 아들과 다름없이 평등한 계승권을 가지게 된다. 금와의 아들들이 주몽의 재능이 뛰어나 혹시나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나 오이·마리·협보

19) 『삼국사기』 권13, 「시조동명성왕본기」.

등 사람들이 주몽을 벗으로 삼았다든가 그리고 주몽이 남천할 때 자기의 대오를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사실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남편을 잃은 유화가 접속혼의 풍속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구려 왕실이 반드시 감춰야 할 일면이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왕실에서 대외로 주몽신화를 전할 때 이 내용들을 삭제하고 “北夫餘天帝之子 母河伯女郎”이라고 어렵꽃이 표현하였다.

III.

여러 판본(版本)의 주몽신화에는 주몽의 어머니가 하백의 여자(河伯之女)임을 지적한 뒤 주몽이 남하하면서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어별(魚鱗) 등 수족(水族)이 다리를 놓아 주몽을 구해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몽이 모족(母族)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음을 암시한다. 『삼국사기』는 유화에게 ‘제제(諸弟)’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주몽의 모족이 상당한 세력을 보유했음을 설명한다. 이구보의 「동명왕편」에 “城北有靑河 河伯三女美”라고 하고 주로 “靑河 今鴨綠江也”를 덧붙였다. 이는 『구삼국사』의 신화에서 말하는 하백은 압록강의 신(神)을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유화가 훗날에 우발수(優渤水)에 저지하였었고 주몽이 수족의 도움을 받은 곳이 엄체수(淹滯水)였다는 것은 하백을 대표로 하는 주몽모족(朱蒙母族)의 세력 범위가 압록강유역에 제한되지 않고 북쪽으로 엄체수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호태왕비문」에 엄체수가 ‘夫餘淹利大水’라고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 엄체수는 부여 경내에 있었을 것이다. 곧 주몽모족의 세력이 부여 경내로부터 고구려가 훗날에 터전을 잡게 된 압록강유역까지 이르렀다는 말이다.

『삼국지』 권30, 「부여전」에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

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以也”라고 하였다. 『후한서』 권85 「부여전」에도 ‘本濊地’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어 『논형(論衡)』 길험(吉驗)의 부여신화를 인용하면서 부여국의 기원을 서술하였다. 배송지(裴松之) 주(注)의 『삼국지』도 『위략(魏略)』의 동일 신화를 인용하였다. 보다시피 부여국 내의 민족은 두 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토착예인(土着濊人, 예맥(濊貊))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해온 부여인이다. 주몽신화에서 주몽의 모족은 하신(河神)출신으로 천제 지지를 자칭하는 부여왕과는 별개의 계통이다. 그 세력도 부여국의 범위를 벗어나 압록강유역까지 이르렀다. 이는 주몽의 모족은 부여인이 아닌 토착예인 계통임을 표명한다. 신화 속의 하백은 바로 이 토착예인의 수령의 상징이다.

『구삼국사』에는 해모수가 유화와 혼인하기 위해 하백을 만나 그와 재능을 겨루는 내용이 담겨 있다.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庭前水 化爲鯉 隨浪而遊 王化爲獮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豸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

이는 토착예인을 정복하는 역사에 대한 부여인의 그릇된 기억인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주몽의 아버지는 부여 왕실 출신으로 유화와 혼인은 정복민족인 부여인과 피정복민족인 예인 사이의 통혼으로 볼 수 있다. 주몽의 아버지가 왕위계승권을 둘러싸고 토착예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 중 한가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일정한 시기에 부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인의 지지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금와가 접촉혼의 풍속으로 유화를 아내로 맞이한 것도 토착예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금와

의 아들들이 주몽을 왕위계승의 유력한 경쟁자로 느낀 것은 주몽이 점차 성장하여 해모수를 지지하였던 토착예인 부락이 주몽을 옹호하여 금와를 이어 부여왕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몽이 남하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인 유화의 조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몽이 부여국과의 정치투쟁에서 약세에 처해 왕위를 계승하는 데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의 예인 지지자들이 부여 국경 밖에 있는 예인 근거지로 남하하여 새로운 정권을 건립할 것을 건의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구삼국사』에서는 주몽이 오이·마리·협보 세 사람을 벗으로 삼고 함께 남천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판본의 주몽신화에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 권13 「유리명왕본기」에 의하면 오이와 마리는 14년에 “領兵二萬西伐梁貊 滅其國 進兵襲取漢高句麗縣”이라고 하였다. 이때는 주몽이 남천하여 51년이 지난 시기로, 오이와 마리가 주몽과 함께 남천할 당시 20세였다고 보면 거의 70세에 해당한다. 고구려의 세 왕 중에 주몽은 40세, 유리명왕은 약 56세, 대무신왕은 장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61세 밖에 살지 못하였다. 오이·마리가 70세까지 살고 게다가 군사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중국 사서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위서』 권100 「고구려전」에 “朱蒙乃與烏引烏違等二人 棄夫餘 東南走”라 하여 오이(烏伊)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이와 마리는 주몽을 따라 남하한 부족의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는 오이를 조이(烏夷)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동국사략』에서는 이(伊)자를 이(夷)로 보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오이를 조이로 쓸 수도 있다. 『상서(尙書)』 우공(禹貢)에 ‘島夷皮服’이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도(島)자는 원래 조(鳥)자였던 것이 당나라 사람에 의해 도(鳥)자로 쓰여졌다. 왕숙(王肅) 주에 “鳥夷 東北夷國名也”라 하였다. 조이(鳥夷)는 예(穢) 계통의 동북고대 부족에 속하는데 오이(烏夷)가 곧 조이(鳥夷)의

대명사인 것이다.²⁰⁾ 「궐특근비문(闕特勤碑文)」은 고구려를 ‘Bokli’로 적고 있는데 한자의 표음으로 해독하면 마리에 해당된다.²¹⁾ 『후한서』 권85 「고구려전」에 “句驪一名貊耳”라 하였다. 마리가 곧 맥(貊)이니 맥계통에 속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다시 말하자면 주몽을 따라 남하한 사람들 중에 부여인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예(穢)계통의 민족과 맥계통의 민족도 있었다. 그러하기에 부여왕 대소는 주몽을 나무람에 “誘我臣逃至此 欲完聚以成國家”²²⁾라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살펴볼 때 주몽집단은 부여인을 주체로 한 것이 아니다. 주몽 본인도 부여인과 예인(穢人)의 혼혈아로서, 그가 건립한 고구려 정권도 족원으로 볼 때 부여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고구려가 원래 졸본부여라 불리다가 고구려로 개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몽의 건국에 대하여 「호태왕비문」에는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이라 하고 『위서』는 “朱蒙遂至普述水 遇見三人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藻衣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모두 예외없이 비류국과 송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대외로 전하는 주몽신화에는 주몽이 백성들의 옹호를 받게 된 원인과 수많은 부족을 융합시킨 과정을 강조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위의 기록이 『삼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구

20) 필자는 穢人을 동북의 토착민족으로 생각한다. 貊人은 원래 몽골초원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鳥夷는 사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동북의 가장 오래된 거주민이다. 穢人이 바로 이러한 鳥夷의 계승자이다. 楊軍(1996), 「穢와 貊」, 『煙台師範學院學報』 4기.

21) 돌궐문을 주석한 岑仲勉의 「闕特勤碑」는 이 단어를 ‘莫離’라고 해독하였는데 ‘摩離’와 완전 일치하다. 岑仲勉(1958), 『突厥集史』, 中華書局, 892쪽.

22) 『삼국사기』 권13, 「유리명왕본기」.

삼국사』에는 주몽과 송양 사이에 벌어진 투쟁이 상당 부분 묘사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위서』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韋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松讓舉國來降云云

주몽은 ‘霖雨’, 즉 물의 힘을 빌어서야 송양을 정복하였다. 이는 주몽의 승리의 한 요인으로 그 모족(母族)의 도움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몽이 거느린 집단은 남하한 후 그곳 토착부락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함께 내려온 주몽 모족세력의 도움으로 당시의 토착인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통치지위를 확립하게 된다. 물론 고구려 왕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할리가 없었다. 따라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하는 주몽신화에 이 부분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밖에 주몽신화에서 나타나는 부여인과 고구려인의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와의 이름만 ‘小兒金色蛙形’²³⁾이라고 한데서 유래한 한어(漢語)계 이름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해모수·부루·아란불·강력부추(強力扶鄒)·주몽·대소·송양·부분노·유리(類利) 등의 이름은 한어(漢語)계 이름이 아닌게 분명하다. 그러나 토착부락에 속하는 주몽모족의 이름은 모두 한어계에 속한다. 유화·흰화(萱花)·위화(葦花)·하백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현상은 주몽집단이 남하하기 전에 이곳 토착민족이 문화적으로 이미 한(漢) 문화의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3, 「동명왕편」 주에 인용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

高句丽朱蒙神话研究

●
杨军 (中国吉林大学文学院教授)

史书中有关朱蒙的神话，既对朱蒙的身世和高句丽民族起源的历史有所反映，也对高句丽建国前的历史有所反映，因此，我们也可以称之为高句丽族源神话或高句丽建国神话，以区别于见于记载的高句丽人的其它神话。本文试对朱蒙神话的源流和神话中与历史有关的内容进行分析，尝试解读神话中包涵的高句丽人对其早期历史的模糊记忆，以期促进对高句丽早期历史的研究，并求教于各位专家。

I.

最早记载朱蒙神话的朝鲜史书是金富轼《三国史记》卷13《始祖东明

圣王本纪》。在《三国史记》成书不到半个世纪之后，李奎报还曾见过金富轼撰写《三国史记》时依据的资料之一《旧三国史》。“越癸丑(1193)四月，得《旧三国史》，见《东明王本纪》，其神异之迹，踰世之所说者。……金公富轼重撰国史，颇略其事。意者公以为国史矫世之书，不可以大异之事为示于后世而略之耶”¹⁾。证明金富轼对《旧三国史、东明王本纪》中所载神异之事进行了大量删削。

曾参与编撰《三国史略》的权近(1352~1409)记载，百济、新罗、高句丽都曾经编修本国的历史，“新罗氏与高句丽、百济鼎立，各置国史”。但权近对这些史书的评价是：“传闻失真，多涉荒恠”²⁾，“记传闻则多涉于荒怪，录所见则未尽其详明”³⁾，可见，神话内容较多是这些史书的共同特点。权近也指出，“前朝文臣金富轼辑而修之为三国史”⁴⁾，认为这些史书中所载神话是金富轼《三国史记》的资料来源之一，将金富轼引自《旧三国史》的朱蒙神话也归为出自各国旧史，证明《旧三国史、东明王本纪》当出自高句丽的史书。

《三国史记》卷20《婴阳王本纪》于十一年(600)条记载：“诏大学博士李文真，约古史为新集五卷。国初始用文字时，有人记事一百卷，名曰《留记》，至是删修”。高句丽何时始用汉字已无法确知，但小兽林王二年(372)已“立太学，教育子弟”⁵⁾，汉字的使用显然不应在此之

1) 李奎报：〈东明王篇序〉，《东国李相国全集》卷3。

2) 权近：〈三国史略序〉，《阳村先生文集》卷19。

3) 权近：〈进三国史略笺〉，《阳村先生文集》卷24。

4) 权近：〈三国史略序〉，《阳村先生文集》卷19。

后。是否在应用汉字之初就已经使用汉字记载本国的历史是值得推敲的，但公元600年删修的《留记》当时已弄不清作者是谁，可见该书已流行了相当长一段时间，其成书当不晚于6世纪初。因此，作为《旧三国史》史料来源的高句丽诸史书，成书时间可以上溯到4世纪末至6世纪初，从这个时间段来看，当然是成书于5世纪的可能性是最大的。由此看来，金富轼《三国史记》虽然成书于1145年，但其所载朱蒙神话所依据的史料最早很可能出现于5世纪。

最早记载朱蒙神话的中国史书是《魏书》卷100《高句丽传》。《魏书》在记载朱蒙神话时称：“高句丽者，出于夫余，自言先祖朱蒙”，既然提到“自言”，说明其记载来自高句丽人的口传。下文又提到李敖出使高句丽，“至其所居平壤城，访其方事”⁵⁾，则《魏书》的记载很可能出自李敖在高句丽的实地调查。李敖于435年出使，因此可以认为，《魏书》所载朱蒙神话来自5世纪前期高句丽人的介绍。

目前发现的最早记载朱蒙神话的石刻资料是建于414年的《好太王碑》，与之同时代但稍晚的出土资料还有《冉牟墓志》。也就是说，朱蒙神话最早见于石刻资料是在5世纪初。

中、朝史书以及石刻所载朱蒙神话的资料来源都可以上溯至5世纪，但从其内容来看，三者所依据的资料不是出自同源。对照《魏书》与《好太王碑》的记载可以发现，《魏书》所载朱蒙降生后的种种神异之处，《好太王碑》一概不载，而以“剖卵降世，生而有圣德”⁶⁾一句概

5) 金富轼：〈小兽林王本纪〉，《三国史记》卷18。

6) 〈高句丽传〉，《魏书》卷100。

括，这当是碑文的特殊文体要求所致。但明显的区别也是有的，其一，《魏书》没有碑文中“天帝之子”一句，碑文中朱蒙自称是“皇天之子”，《魏书》中改为“我是日子”。其二，碑文中的“北夫余”，《魏书》改为“夫余”。究其成因，前者当是因为高句丽人向李敖讲述本民族神话时有意略去将朱蒙视为天子的僭越内容，后者当是因为中国史书中从无对北夫余的记载，因而李敖想当然地略去了“北”字以与中国此前的记载相统一。由此看来，《好太王碑》与《魏书》所载朱蒙神话可以归为同一系统，都是高句丽王室公开表述的官方正统说法，是向国内国外宣传的统一口径，《好太王碑》的记载可视为《魏书》记载的简本。李奎报《东国李相国全集》卷3《东明王篇》自注有“本纪云”的字样，而其所载内容大异于金富轼《三国史记·始祖东明圣王本纪》，应是引自《旧三国史·东明王本纪》。从李奎报所引《旧三国史》的内容来看，其朱蒙神话与《魏书》差异很大，显然出自另一系统，我们可以称之为高句丽史书所载朱蒙神话系统。

将《三国史记》所载朱蒙神话与李奎报《东明王篇》注所引《旧三国史》及《魏书·高句丽传》的记载相对照可以发现，《三国史记》开头部分基本引自《旧三国史》，而后不引《旧三国史》中的大段神异记事，转而引用《魏书》的记载，还有一些记载目前无法查明其出处。但可以肯定，《三国史记》所载朱蒙神话综合了高句丽王室公开表述的神话和高

7)《好太王碑》耿铁华释文。见耿铁华：《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中国社会科学出版社，第411页，2003年。本文所引《好太王碑》皆用耿铁华释文，以下不再一一注明。

句丽史书记载的神话，不是该神话的原型，因而不能作为研究该神话的标准文本。后来的《三国遗事》一书性质与《三国史记》相同，也是综合了两种系统的神话内容，并大量征引《三国史记》。由于高句丽王室公开表述的神话在内容方面有删节，应是高句丽王室在有意掩饰某些史事，所以，我们下面对朱蒙神话的分析是从高句丽史书记载的神话文本也就是李奎报所引《旧三国史》入手。⁸⁾

需要说明的是，两个系统的神话对朱蒙归宿的描述也略有不同。《好太王碑》称“黄龙来下迎王，王于忽本东冈履龙首升天”，《魏书》没有提到朱蒙的归宿，当是由于对乘龙说法的避讳。《旧三国史》记载：“秋九月，王升天不下，时年四十。太子以所遗玉鞭，葬于龙山，云云”。但李奎报此处对《旧三国史》的引文明显有删节。据《老稼斋燕行日记》卷9癸巳三月二十四日：“麒麟窟，东明王时有麟马出于此，王乘以升天”。说明《旧三国史》所载朱蒙升天的故事中，还有麒麟窟出麟马的情节，后人由此附会出假的古迹。李荇(1478~1534)《鱼鳖成桥赋》：“嗟麟马之不返，但龙山之玉鞭”⁹⁾，将麟马与玉鞭相提并论，证明这本来是《旧三国史》所载神话故事中的情节，李奎报《东明王篇》注中仅引了后者，未提到前者，是对原文作了删节。麟马的故事屡见于后代文人的诗文中。如，郑弘溟《青鹤洞碑铭》：“檀木之真人一去，空余太白之山。东明之麟马不返，只有朝天之石”¹⁰⁾；高敬命

8) Song, Sun-hee(1974), "The Koguryo Foundation Myth : An Integrated Analysis," *Asian Folklore Studies*, vol. 33, no. 2., pp.37~92.

9) 李荇：《容斋先生外集·鱼鳖成桥赋》。

(1533~1592)《东明王》诗：“麟马有遗迹”¹¹⁾；闵维重(1630~1687)《檀君东明王祠祈雨祭文》：“允显东明，生禀日精。威服松壤，艺绝穿杨。桥成鱼鳖，窟有麒麟”¹²⁾；洪良浩(1724~1802)《东明王墓》：“盖有东明墓，穹然若斧堂。玉鱼今寂寞，麟马竟荒唐”¹³⁾。说明《旧三国史》虽然失传，但其所载故事在民间影响深远。后世文人谈朱蒙神话，虽然也有人依据高句丽王室公开表述的内容，如林昌泽(1682~1723)的《柳花歌》¹⁴⁾，但显然并不是主流。

II.

在《旧三国史》所载朱蒙神话中，剔除那些后人附加上去的神奇情节，可能有两个方面包涵着高句丽人对其始祖起源历史的模糊记忆，其一是朱蒙的身世，其二是朱蒙的南迁。这里我们先分析前者。

关于朱蒙的身世，《好太王碑》仅提到：“出自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但《旧三国史》中的记述却非常丰富，不仅详细记述了天帝之子解慕漱与河伯女柳花的故事，在这个故事之前还有一段追述性文字：

10) 〈青鹤洞碑铭〉，《孤云集、孤云先生事迹》引郑弘溟。

11) 高敬命：〈东明王〉，《霁峰集》卷1。

12) 闵维重：〈檀君东明王祠祈雨祭文〉，《文贞公遗稿》卷5。

13) 洪良浩：〈东明王墓〉，《耳溪集》卷7。

14) 林昌泽：〈海东乐府〉，《崧岳集》卷1。

夫余王解夫娄老无子，祭山川求嗣。所御马至鯤渊，见大石流泪。王怪之，使人转其石，有小儿金色蛙形。王曰：“此天锡我令胤乎！”乃收养之，名曰金蛙，立为太子。其相阿兰弗曰：“日者天降我曰，将使吾子孙立国于此，汝其避之。东海之滨有地，号迦叶原，土宜五谷，可都也”。阿兰弗劝王移都，号东夫余。于旧都，解慕漱为天帝子，来都¹⁵⁾。

《三国遗事》卷1《东扶余》有与此相同的记载。但《三国遗事》还提到：

《古记》云：前汉书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天帝降于讫升骨城(在大辽医州界)。乘五龙车，立都称王，国号北扶余，自称名解慕漱，生子名扶娄，以解为氏焉。王后因上帝之命，移都于东扶余¹⁶⁾。

《三国遗事》这段记事，不仅明确说明引自《古记》，有着更早的资料来源，而且《旧三国史》中也有类似记载，说明这原本是高句丽史书所载朱蒙神话的组成部分。但《三国遗事》称“天帝降于讫升骨城”，明显是将高句丽早期活动地域与北扶余早期活动地域相混淆了。在《三国遗事》卷1《高句丽》中，作者一燃引另一种古书《坛君记》的记载：“君与西河河伯之女要亲，有产子名曰夫娄”，并加按语：“今按此

15) 李奎报：《东国李相国全集》卷3《东明王篇》注引《旧三国史、东明王本纪》。

以下引《旧三国史》皆同此，不再一一注明。

16) 《北扶余》引《古记》，《三国遗事》卷1。

记，则解慕漱私河伯之女而后产朱蒙。《坛君记》云产子名曰夫娄，夫娄与朱蒙异母兄弟也”。一燃将上述古籍记载中的天帝、解慕漱、坛君相等同，于是夫娄与朱蒙成为同辈人，因而才推导出二者是异母兄弟的结论，但这一结论明显是错误的。安鼎福(1712~1791)已经指出史料中的矛盾：

《三国遗事》引《檀君记》云：娶西河河伯女，产子夫娄。又其《北扶余》篇云：解慕漱立国于北扶余，生子名夫娄，当汉宣帝神爵三年。又引《高句丽记》云：解慕漱私河伯女，产朱蒙。夫娄与朱蒙，异母兄弟也。又其《王历》篇云：朱蒙，檀君子。则此以解慕漱为檀君也。此所称檀君，或非谓始降之檀君，而以檀为姓，则其子孙因以为号，并称为檀君。所谓解慕漱者，亦始降檀君之后。又名其子夫娄者，若非心之更称怀王也。古来传说荒诞，终无可信之文，今只从其近似者¹⁷⁾。

与安鼎福同时代的朝鲜学者李肯翊(1736~1806)也对此史料表示过类似的怀疑¹⁸⁾。参之《旧三国史》对此的记载为：“汉神雀三年壬戌岁，天帝遣太子降游扶余王古都，号解慕漱，从天而下，乘五龙车”；并称柳花为“天帝子妃”，显然，《三国遗事》所引《古记》在“天帝”后脱一“子”字，一燃未加细辨，才得出上述错误的结论。

澄清《三国遗事》记载中的错误之后，我们可以将《三国遗事》与《旧

17) 安鼎福：〈考异〉，《东史纲目》附卷“夫娄当有二人”条。

18) 李肯翊：〈历代典故〉，《燃黎室记述》别集卷19“檀君朝鲜”条。

《三国史》所载夫余国的历史归纳如下：天帝子解慕漱建立北夫余，至其子夫娄在位时东迁并改称东夫余，然后天帝子解慕漱又在夫娄故地建立了新的北夫余。在神话中，两个夫余国的建立者同名解慕漱，同是天帝之子，由此看来，解慕漱恐怕不是人名，而是当地语言中对天帝之子即“天子”的称呼。称夫娄为解慕漱之子与称朱蒙为“天帝之子”具有相同的内涵，是为了突出他们的“天孙”的地位。朱蒙作为高句丽的始祖在神话中被赋予“天孙”的地位，夫娄因领导东迁成为东夫余的始祖，由此分析，在当时的神话中是习惯将传说中的开国君主视为“天孙”的。

《好太王碑》称朱蒙为“北夫余天帝之子”，对比上述分析，就是指朱蒙为在夫娄故地建立新的北夫余的解慕漱之子，而不是指朱蒙为夫娄的父亲解慕漱之子。《好太王碑》的记述本来就具有模糊性，而《三国史记》模仿夫余神话描述朱蒙的感日而生，使朱蒙与解慕漱的关系更加模糊不清。但《旧三国史》称解慕漱见到柳花之后说：“得而为妃，可有后胤”，并称解慕漱来到夫娄故地是在神爵三年，而朱蒙生于神爵四年四月，都在暗示朱蒙是解慕漱与柳花之子。

《旧三国史》：“女既与王定情，不肯离去，乃劝王曰，如有龙车，可到河伯之国。王指天而告，俄而五龙车从空而下。王与女乘车，风云忽起，至其宫”。表明柳花对与解慕漱成亲持积极态度，协助解慕漱向其父河伯求婚。最终河伯也承认了解慕漱“是天帝之子”，同意了这门婚事，并“恐王无将女之心”。可是在神话中这桩婚事最终也没有结果，柳花于东夫余王金蛙家生下了朱蒙，解慕漱不知所终。比较合理的解释是，在即将与柳花举行正式婚礼之前，解慕漱去世，朱蒙是

其遗腹子。

朱蒙生父的名字已不可考，既然神话中称其为解慕漱、天帝之子，他可能曾经是夫余人的王，其在位时间当在夫娄之后。在神话中，金蛙是夫娄捡来的，不论金蛙身世如何，他不是夫娄的亲儿子是可以肯定的。这段神话反映出，夫娄无子，因而夫余国内出现了王位继承危机，很可能在金蛙即位前有过内乱，期间朱蒙的生父曾一度成为夫余王，但不久去世，很可能是被杀。夫余国分为东夫余与北夫余、夫娄所部的东迁等等神话内容实际上都与这次王位继承危机有关。最后是金蛙继承王位，才结束了由此引发的混乱。金蛙收留了解慕漱遗孀柳花并抚养解慕漱遗腹子朱蒙，说明解慕漱的死与金蛙无关，应是另一派政治势力所为，金蛙是在其与解慕漱进行激烈斗争之后出来收拾残局的人。朱蒙生长于金蛙家中，朱蒙南下后，柳花一直生活在金蛙家直到去世¹⁹⁾，如果我们结合当时北方民族普遍实行接续婚的历史来看，朱蒙的生父很可能与金蛙为兄弟行，都出自夫余王室，在解慕漱去世后，金蛙按接续婚的风俗娶柳花为妻，解慕漱的遗腹子朱蒙也就成为金蛙的儿子。按接续婚的风俗，接续之妻带来的孩子与接续者自己的亲生子女有着相同的继承权，所以金蛙的儿子们才因朱蒙能力出众而担心他继承王位，乌伊、摩离、陕父等人愿意与朱蒙为友、朱蒙南迁时能拉起自己的队伍，都是出于同样的原因。

朱蒙之父死于政争，其母按接续婚旧风俗改嫁，这恐怕都是后来

19) 〈始祖东明圣王本纪〉，《三国史记》卷13。

的高句丽王室要极力掩饰的往事，因而在王室公开讲述的朱蒙神话中，删去了这部分内容，仅以“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一句话含混带过。

III.

各种版本的朱蒙神话都承认朱蒙的生母是河伯之女，朱蒙南逃遇险时是鱼鳖等水族搭成浮桥救了他，这是朱蒙为母族所救的隐讳表达，在《三国史记》所载神话中，柳花有“诸弟”，也说明朱蒙的母族还是相当有势力的。李奎报《东明王篇》：“城北有青河，河伯三女美”，自注：“青河，今鸭绿江也”。说明在《旧三国史》所载神话中，河伯是指鸭绿江之神。但柳花后来滴居优渤水，水族救朱蒙是在淹滞水，证明神话中河伯所代表的朱蒙母族的势力并不局限于鸭绿江流域，而是北达淹滞水。《好太王碑》中称淹滞水为“夫余奄利大水”，说明此水在夫余境内。也就是说，朱蒙母族的势力从夫余境内一直延伸到后来高句丽建国的鸭绿江流域。

《三国志》卷30《夫余传》：“其印文言‘濊王之印’，国有故城名濊城，盖本濊貊之地，而夫余王其中，自谓‘亡人’，抑有以也”。《后汉书》卷85《夫余传》也称夫余国“本濊地”，而后引王充《论衡·吉验》所载夫余神话来说明夫余国的起源，裴松之注《三国志》时也引用了《魏略》记载的同一神话，可见，夫余国内的民族分成两大系统，一是土著的濊人，或者称濊貊，一是后迁入的夫余人。在朱蒙神话中，朱蒙的母族出自河神，与自称天帝之子的夫余王不是出自同一系统，其势

力又已经超出夫余国延伸到鸭绿江流域，反映出朱蒙的母族出自当地土著濊人，不是夫余人，神话中的河伯是土著濊人首领的化身。

《旧三国史》的神话中，解慕漱曾为与柳花的婚事去见河伯，并与河伯有过一番比试：

河伯曰：“王是天帝之子；有何神异？”王曰：“唯在所试”。于是，河伯于庭前水化为鲤，随浪而游，王化为獭而捕之。河伯又化为鹿而走，王化为豺逐之。河伯化为雉，王化为鹰击之。河伯以为诚是天帝之子。

这段神话内容也许是对夫余人征服土著濊人的历史的扭曲记忆。如前所述，朱蒙生父可能出自夫余王室，他与柳花的婚姻是征服民族夫余人与被征服民族濊人之间的通婚，很可能这是其在争夺继承权的斗争中获取土著濊人支持的一种手段，他能够一度成为夫余王也与濊人的支持有关。金蛙之所以要按接续婚的风俗娶柳花为妻，也是为了得到土著濊人的支持。金蛙的儿子们感觉到朱蒙威胁到自己对王位的继承，证明随着朱蒙的成年，原来支持其父解慕漱的土著濊人部族转而成为朱蒙的支持者，希望由他继承金蛙成为下一代夫余王。我们还要注意到，在神话中，朱蒙南行出自其母柳花的建议，其所反映的历史事实可能是，朱蒙在夫余国的政治斗争中处于劣势，已无望继承王位，因此其濊人支持者才建议他南下夫余国境外的濊人根据地建立新的政权。

《旧三国史》的神话提到朱蒙与乌伊、摩离、陔父等三人为友，一

起南迁。这个内容也包涵在各种版本的朱蒙神话中。据《三国史记》卷13《琉璃明王本纪》，乌伊与摩离在公元14年“领兵二万西伐梁貊，灭其国，进兵袭取汉高句丽县”，此时距朱蒙南迁已51年，乌伊、摩离即使与朱蒙迁徙时仅20岁，至此也已70多岁了。高句丽前三位王中，朱蒙享年40岁，其子琉璃明王约56岁，大武神王最高寿，也只61岁。乌伊、摩离70多岁仍健在，并能领兵远征，是很令人怀疑的事情。此三人名字也不见于中国史书，《魏书》卷100《高句丽传》称“朱蒙乃与乌引、乌违等二人，弃夫余，东南走”，而未提到乌伊。则乌伊、摩离可能是随朱蒙迁徙的部族的名称。乌伊，《三国史记》中也作乌伊，伊字《东国史略》作夷，则乌伊也可以写成乌夷。《尚书·禹贡》“岛夷皮服”，岛字原作鸟，唐人改为岛，王肃注：“鸟夷，东北夷国名也”。鸟夷是东北古部族，应属于秽系部族，乌伊即是鸟夷的代名词²⁰⁾。高句丽一词《阇特勤碑文》作“Bokli”，以汉字标音，正是摩离²¹⁾。《后汉书》卷85《高句骊传》：“句骊一名貊耳”，摩离即貊，应是出自貊系。也就是说，随朱蒙南迁的部众中，不仅有夫余人，还有大量秽系民族与貊系民族。所以夫余王带素才说朱蒙：“诱我臣逃至此，欲完聚以成国家”²²⁾。若是从这种背景分析，朱蒙所部不会以夫余人为主体，

20) 笔者认为秽人为东北土著民族，貊人原生活在蒙古草原，后迁入东北地区。鸟夷是东北见于记载的最古的居民，秽人是其继承者。参见拙著《秽与貊》，载《烟台师范学院学报》，1996年4期。

21) 岑仲勉注释突厥文的《阇特勤碑》，将此词标音为“莫离”，与“摩离”完全相同。参见岑仲勉：《突厥集史》，中华书局，第892页，1958年。

22) 《琉璃明王本纪》，《三国史记》卷13。

朱蒙本人又是夫余人与土著濊人的混血儿，其所建立的高句丽政权从族源上讲与夫余是存在明显区别的，这也是其先称卒本夫余后改称高句丽的原因之一。

对于朱蒙建国，《好太王碑》的说法是：“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魏书》记载：“朱蒙遂至普述水，遇见三人，其一人着麻衣，一人着纳衣，一人着水藻衣，与朱蒙至纥升骨城，遂居焉”。都没有提到沸流国与松让。看来，在高句丽王室公开宣传的朱蒙神话中，是强调朱蒙如何得到迁入地区民众的拥护，有大量当地部族加入其队伍。但上述记载不见于《旧三国史》，相反地，《旧三国史》所载神话用较多笔墨描述朱蒙与松让间的斗争，下面内容也不见于《魏书》：

霖雨七日，漂没松让都。王以苇索横流，乘鸭马，百姓皆执其索。
朱蒙以鞭画水，水即减。六月，松让举国来降，云云。

朱蒙借助于“霖雨”也就是水才最终战胜松让，这无疑又在隐讳地表达朱蒙的胜利得自其母族的帮助。可能朱蒙所部在南下之后曾与当地的土著部族进行过激烈的斗争，最终还是在随迁的朱蒙母族的努力下，朱蒙才得以征服当地的土著居民，确立了自己在当地的统治地位。而这一点无疑也是后来的高句丽王室所不愿意承认的，因而在高句丽王室公开宣传的朱蒙神话中就不包括这部分内容。

此外，我们还应该注意到，朱蒙神话中出现的夫余人和高句丽人

的名字，除金蛙是得名于“小儿金色蛙形”²³⁾，应是汉语名字以外，其它人名，如解慕漱、夫娄、阿兰弗、强力扶邹、朱蒙、带素、松让、扶芬奴、类利，等等，明显都不是汉语人名，而作为当地土著部族化身的朱蒙的母族的人名，却都非常明显是出自汉语，如柳花、萱花、苇花、河伯等。也许我们可以将这看作是朱蒙所部迁入之前当地土著部族在文化上已经受到汉文化影响的一种曲折的体现。

23) 李奎报：〈东明王篇〉注引《旧三国史、东明王本纪》，《东国李相国全集》卷3。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 연구

高句麗의 초기都城與沸流國研究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법중 | 趙法鍾



THE HO CHI MINH CI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 연구

- 조법중 (우석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주몽(朱蒙)은 고구려(高句麗) 건국과정에서 졸본부여(卒本扶餘)로 대표되는 세력의 협력과 비류국(沸流國) 송양왕(松讓王)과의 대립, 경쟁과정을 통해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첫 도읍 흘승골성(紇升骨城)의 경우 현재의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졸본부여의 경우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비류국의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지역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고구려 초기(初期) 도읍(都邑)에 대한 사료(史料) 검토를 통해 역사지리적(歷史地理的) 공간체계(空間體系)를 설정하고 고고학(考古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고구려 초기 도읍유적을 비정(比定)하고자 한다. 한편, 비류국 송양왕은 선인지손(仙人之孫)을 표방한 고조선(古朝鮮)계통

의 세력으로서 고조선이 한(漢)에 의해 붕괴된 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유지되었던 세력의 하나로서 이들 고조선계통 세력이 고구려로 확대 발전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¹⁾

II.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초기 도읍

1. 「광개토왕릉비문」과 「위서」, 「고구려전」의 도읍

1)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초기 도읍

고구려 초기 도읍과 관련된 「광개토왕릉비문」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2. 王於忽本東崗履龍首升天²⁾

위의 사료 A-1 문장은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으로 끊고 “비류곡 흘본 서쪽 산상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로 해석된다.³⁾ 이 기록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414년 건립된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 당대인들의 초기 도읍에 대한 이해는 산상(山上)에 건립되었으며 관련 명칭은 비류곡(沸流谷), 흘본(忽本)이고 지형 상황은 흘본 서(西), 산상 축성(築城) 등이

1) 본 논문은 필자가 2007년 『白山學報』 77집에 발표한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성 연구」를 한중학술회의를 위하여 부분수정 발표한 것임.

2) 盧泰敦(1992), 「廣開土王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8쪽.

3) 盧泰敦(1992), 위의 글, 17쪽.

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어진 A-2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시조 추모왕(鄒牟王)의 죽음과 관련된 지역으로 ‘홀본 동강(東崗)’이란 장소가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즉 앞서 도읍을 정한 홀본 서(西) 산성에 대비되어 홀본을 사이에 두고 홀본 동강에서 시조는 승천(昇天)이란 표현으로 죽음을 맞이해 장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몽은 “비류곡 홀본지역의 서쪽 산성”에 도읍하였음을 보여준다.

2) 『위서』, 「고구려전」의 초기 도읍 양상

중국 사서로서 고구려 도성 관련 언급은 『위서(魏書)』에 흘승골성으로 처음 나타나고 있다.

A-3. 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魏書』100, 「列傳」88, 高句麗)

한국 측 사료에 나타나는 홀본이나 졸본(卒本)과는 달리 중국 사료에서는 흘승골성으로 고구려 첫 도읍지역에 대한 표현이 간단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몽이 흘승골성에 이르러 거(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사료만을 보면 이미 존재하는 흘승골성을 주몽이 활용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⁴⁾ 그러나 이는 당시 상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城)의 수축과정에 대한 기록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된다.

4) 耿鐵華(2001), 「高句麗紇升骨城新考」, 『北方民族』2期; 耿鐵華(2004), 『高句麗考古研究』.

2. 『삼국사기』와 『동명왕편』 인용 『구삼국사』의 초기 도읍 기록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 주몽 건국시점의 도읍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 B-1. 始祖東明聖王 …… 至卒本川(魏書云至紇升骨城)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皇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2. 一云 朱蒙之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3. 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往尋 至沸流國 …… (朱蒙) 答曰 我是天帝子 來都於某所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日淺 爲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與之鬪 亦相射以校藝 松讓不能抗.
 4. 二年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 爲多勿 故以名焉.
 5. 三年 春三月 黃龍見於鶻嶺 秋七月 慶雲見鶻嶺南 其色青赤.
 6. 四年 夏四月 雲霧四起 人不辨色七日 秋七月 營作城郭宮室.⁵⁾
 7. 十九年 ……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
 8. 琉璃明王 三年 秋七月 作離宮於鶻川.⁶⁾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도읍과 관련하여 나타난 명칭은 졸본천(卒本川), 졸본부여(卒本扶餘), 비류수(沸流水), 비류국(沸流國), 다물도(多勿都), 골천(鶻川) 이궁(離宮) 등이고, 『백제본기』에도 졸본부여, 졸본이 나타나고 있

5)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 1

6)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3

다.⁷⁾

B-1에서는 졸본천이란 표현으로 주몽이 도착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지역 명칭임을 알 수 있다.

B-2에서는 졸본부여가 이미 선주정치체(先住政治體)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3에서는 비류수 상류에 비류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송양의 “地小不足容兩主”라는 표현은 이들 세력이 인접한 지리정황을 보여준다.

B-4를 통해 비류국 송양왕이 복속(服屬)하여 다물도로 삼아 송양왕이 계속 통치케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B-5는 골령(鵲嶺)에 황룡(黃龍)과 경운(慶雲)이 나타나 이어지는 도읍(都邑) 건축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준다.

B-6은 주몽 재위 4년에 성곽(城郭)과 궁실(宮室)을 조영한 내용이다.

B-7의 내용은 주몽을 장례(葬禮) 지낸 곳이 용산(龍山)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이후 국가적 제사공간으로서 유지되었다.

B-8은 유리왕 2년에 이궁을 골천에 새롭게 건립한 내용으로 골령과의 관련성이 있는 골천이란 표현이 유의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정황을 정리해보면 주몽이 졸본지역에 도착한 시기에 이미 그 지역에는 졸본부여와 비류국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선주정치체의 거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 주몽이 이들을 포섭한 후

7)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溫祚王 1,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或云 朱蒙到卒本 娶越郡女 生二子) (一云 …… 朱蒙不容於扶餘 …… 南奔至卒本 立都 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홀승골성을 쌓아 적어도 세 개 거점지역이 설정된다. 그리고 B-3에서 확인 되듯이 비류국의 위치는 비류수의 상류 강변지역으로 비류국 복속 후 다물도로 삼았는데 ‘多勿+都’라는 표현은 송양왕의 비류국에 구체적인 도(都)에 해당하는 공간 시설 즉, 성(城)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졸본과 관련해서는 ‘성(城)’이란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인용한 「동명왕편(東明王篇)」의 내용은 『삼국사기』보다 구체적인 위치정황을 보여준다.

- C-1. 形勝開王都 山川鬱蟬巋 自坐茆蕝上 略定君臣位 王自坐茆蕝之上 畧定君臣之位.
2. 沸流王松讓出獵 見王容貌非常 …… 王曰 寡人 天帝之孫 西國之王也 敢問君王繼誰之後 讓曰 子是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3. 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草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松讓舉國來降云云.
4. 七月 玄雲起鶻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
5. 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 (『東國李相國集』卷3, 「東明王篇」)

사료 C-1의 띠집을 의미하는 불절(茆蕝)은 『삼국사기』의 ‘오두막집[결려(結慮)]’과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C-2는 주몽과 비류국 송양왕이 서로 천제지손(天帝之孫)과 선인지후(仙人之後)를 과시하고 있으며 주몽이 ‘西國之王’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송양은 ‘地

方至小라고 표현해 주몽의 도읍지역이 비류국의 서쪽에 위치하며 두 지역이 인접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C-3은 홍수로 위기에 처한 비류국을 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漂沒松讓都’란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송양의 도읍이 존재하며 강변에 위치한 평지성(平地城)임을 보여준다.

C-4는 골령에 성곽과 궁대(宮臺)가 조성된 사실로서 “天爲我築城。城郭宮臺自然成”이란 표현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산성을 수축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어 흘승골성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C-5는 주몽의 장례처가 용산으로 хол本 동강이 용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명왕편」에 나타난 도읍 관련 내용은 비류국은 주몽 거점의 ① 비류수의 상류 동쪽에 위치, ② 비류국의 도읍인 송양도(松讓都)는 비류수 강변에 위치한 평지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III. 고구려 초기 도읍 위치 비정

1. 흘승골성

20세기 초 이후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⁸⁾ 웨이춘청[魏存成],⁹⁾ 리던푸[李殿福]¹⁰⁾ 등 학자들이 모두 현재의 오녀산성을 흘승골성으로 파악하였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¹¹⁾ 단 경태화[耿鐵華]의 경우 흘승

8) 鳥居龍藏(1976), 「南滿洲調查報告」, 『鳥居龍藏全集』 10, 朝日新聞社.

9) 魏存成(1985), 「高句麗初, 中期的 都城」, 『北方文物』 2期.

10) 李殿福(1982), 「高句麗丸都城」, 『文物』 6期.

골성을 현재의 하고성자고성(下古城子古城)으로 보는 입장¹²⁾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후 자료를 고려할 때¹³⁾ 오녀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파악된다. 특히, 1990년대 간헐적인 부분조사와 2003년 오녀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은 이 같은 추론과 정황적 설명을 확정짓는 성과를 보여주었다.¹⁴⁾

2. 졸본부여

‘졸본천(卒本川)’은 ‘卒本(=忽本)+ 주변 江’이란 지역명칭 표현으로 흘승골성과 주변을 흐르는 강을 포괄한 표현으로 앞서 흘승골성이 현재의 오녀산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이강(富爾江)과 혼강(渾江)이 합류한 이후의 혼강이 흐르는 환인현(桓仁縣) 평원 유역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1) 하고성자 고성설

졸본부여의 위치에 대해 대부분 연구자는 현재 환인지역의 대표적 평지성인 하고성자성(下古城子城)을 설정하고 있다. 이곳은 오녀산성과의 지리적

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 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94쪽.

12) 耿鐵華(1987), 「玄菟郡의西遷和高句麗의發展」, 『社會科學戰線』 2期; 耿鐵華(2001), 「高句麗紇升骨城新考」, 『北方民族』 2期; 耿鐵華(2004), 『高句麗考古研究』.

13) 耿鐵華는 『魏書』에 압축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三國史記』와 『東明王篇』에 나타난 鶴嶺의 산성에 궁실이 조영된 기사를 참조하지 못하여 이 같은 인식의 오류를 범하였다.

1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04), 앞의 책.

거리 및 비류수인 혼강과의 관계가 감안되어 많은 학자가 주목하였다.¹⁵⁾ 특히, 하고성자촌(下古城子村)에서 3리(里) 떨어진 상고성자촌(上古城子村)에 고구려고분 100여 기의 존재는 이 같은 이해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홀본 서(忽本 西)’쪽에 흘승골성이 있다는 방위와 정반대되는 동쪽에 하고성자고성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졸본부여 위치로서는 문제가 있다. 최근 이에 대해 주몽 장지(葬地)인 용산을 환인(桓仁) 망강루(望江樓)로 설정하고 하고성자고성을 졸본성(卒本城)으로 보는 입장이 개진되었지만¹⁶⁾ 이는 근본적인 방위 문제를 해결치 못해 수용하기 어렵다.

2) 나합성설

나합성설(喇哈城說)은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¹⁷⁾ 마크 바잉턴(Mark E. Byington)¹⁸⁾ 및 환인지역의 현지 연구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입장이다.¹⁹⁾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졸본성의 필수조건으로 ① 졸본성=

15) 魏存成(1985), 앞의 글; 蘇長清(1985),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省丹東, 本溪地區考古會議論文集』; 王禹浪·王宏北 編(2004), 「高句麗·渤海古城址研究匯編」(上), 哈爾濱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04), 앞의 책, 314~315쪽은 추가적인 고고학적 조사를 전제로 입장을 유보하였다.

16) 張福有·孫仁杰·達勇(2006), 「朱蒙所葬之‘龍山’及太王陵銅鈴‘峻’字考」, 『東北史地』 1期, 21쪽.

17) 田中俊明(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田中俊明(1998), 「高句麗の前期王都卒本の構造」, 『研究紀要』 2, 高麗美術館.

18) Mark E. Byington(2000), 「고구려 국가형성 세 연구에 기초한 예비적 모델」, 『동아시아의 국가형성』, 충남대 백제연구소 제10회 백제연구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19) 王從安·紀飛(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 2期; 五女山志編纂委員會編(2004), 『五女山志』, 100쪽; 紀飛·王從安(2006), 「話說喇哈城」, 『桓仁縣報』.

평지성, ② 졸본성=홀승골성인 오녀산의 동쪽 위치, ③ 졸본성은 비류수(현재 부이강)의 강변에 존재, ④ 졸본성 주변은 “土壤肥美, 山河險固”의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²⁰⁾는 내용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역사유적으로서 환인현 북전자촌(北甸子村)에 존재하고 있는 ‘나합성’이 평지성이며 오녀산성의 동쪽에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졸본성지역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오녀산성과 직선거리로 13km, 실제거리 36km 떨어져 있고 주몽이 처음 졸본천지역에 와서 홀승골성을 거점으로 확보하는 과정까지의 지리적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 즉 졸본부여는 홀승골성과 인접해 있으며 양 관계가 산성+평지 거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같은 공간적 성격은 나합성을 졸본부여로 보기 어렵게 한다.

3) 고려묘자(고력묘자)촌설

졸본부여의 위치와 관련하여 1960년대 건설된 환인댐 건설로 수몰된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최근에는 고려묘자촌(高麗墓子村)으로 부르고 있음)지역을 졸본부여가 위치한 지역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제시되었다.²¹⁾ 이곳은 1958년 부분조사 및 발굴시 상당수 초기 적석총(積石塚)과 관련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홀승골성인 오녀산성과 연결된 평지 도성(都城)의 존재 가능성이 추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사료에 졸본성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지역이 집단 거주 흔적은 있지만 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졸본부여임을 강조하였다.²²⁾ 우선 1950년대 환인댐 수몰 이전 이 지역

20) 王從安·紀飛(2004), 위의 글, 44쪽.

21) 王俊輝·梁志龍(2004), 「北甸子尋古」, 『桓仁縣報』.

에 대한 조사내용²³⁾을 보면 고령묘자촌의 남단(南端) 지석대묘구(積石大墓區)에 70여 기의 고분이 존재하고 고령묘자촌은 넓은 강안대지로서 고분군은 1000m에 걸쳐 있다. 북서방향으로 5km 떨어져 오녀산성이 있다. 이들 고분은 평지에 석대(石臺)를 쌓고, 원구식(圓邱式) 적석묘(積石墓)형식과 저부(低部)에 포난석(鋪卵石)을 깔 것 등을 고려해 고구려 초기의 분묘형식으로 파악된다.²⁴⁾ 이 같은 양상은 이 일대가 고구려 초기 거점세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였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흘본(忽本)이 중심이 되어 흘승골성과 주몽의 장례지역인 용산이 구분되고 있는 내용을 감안할 때 이곳을 중심으로 흘승골성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료의 내용을 충족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졸본부여의 위치는 고령묘자촌 일대로 비정된다.

3. 동명묘와 골천 이궁

1) 동명묘

고구려 동명성왕 즉 주몽의 죽음은 고구려 건국 역사가 신화화되는 과정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것으로 「광개토왕비문」과 「동명왕편」에 표현되고, 『삼국사기』는 승하(昇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승천처 또는 장례처로서 용산(龍山)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2) 劉素云(2005), 「高句麗的發祥地—卒本川當今何地」, 『東北史地』 6기, 32~33쪽.
 졸본천은 흘승골성 이동의 평원지대로서 현재 환인댐 수몰지역으로 750여 기의 고구려 적석총이 존재하는 곳.
- 23) 陳大爲(1960), 「桓仁縣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기.
- 24) 王綿厚(2002), 「高句麗古城研究」, 48쪽.

- D-1. 王於忽本東崗履龍首升天. (『광개토왕비문』)
2. 十九年 …… 秋九月 王升遐 時年四十歲 葬龍山 號東明聖王.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동명왕조)
3. 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 (『동명왕편』)
4. 三年 春三月立東明王廟.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大武神王조)

D-1 · 2 · 3은 홀본 동강=용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D-4에는 주몽을 모신 동명묘(東明廟)가 건립되었는데 ‘廟’는 ‘墓’ 위에 세워진 ‘寢’의 의미로서 부여(扶餘)에 세워진 태후묘(太后廟),²⁵⁾ 유리 태자 해명(解明)의 묘(廟)²⁶⁾ 미천왕(美川王)의 묘²⁷⁾ 등의 사례에서 확인된다.²⁸⁾ 이는 고구려 전기의 전형적인 묘제인 적석총²⁹⁾의 최상층부분에 구조물이 존재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합치하는 것으로,³⁰⁾ 고구려의 능묘는 계단식 구조의 상층

25)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동명왕 14년, “秋八月 王母柳花 薨於東夫餘 其王金蛙 以太后禮葬之 遂立 神廟.”

26)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유리 28년, “解明 …… 乃往礪津東原以槍插地 …… 以太子禮葬於東原立廟.”

27) 『삼국사기』 18, 「고구려본기」 6, 고국원왕 12년, “…… 發美川王廟 載其尸”.

28) 조법중(1995a),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수묘제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 ; 조법중(2006), 『고조선 ·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29) 정찬영(1973), 「기원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 李殿福(1980), 「輯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2期 ; 田村晃一(1990), 「高句麗の積石塚」, 『東北アジアの考古學』.

30) 『輯安縣鄉土志』(1915년 간행)의 지리부분에서 ‘將軍墳’에 대한 설명으로 “碑之東二里 全用大石切成 …… 極上一層 四面石條 均有柱眼 其下敗瓦堆積 ……”이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최상층에 기둥구멍의 존재와 기와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부분에 ‘묘(廟)’의 기능을 갖는 구조물이 조성되어 있어 그 명칭이 큰 구별없이 사용되었다고 이해된다.³¹⁾ 따라서 용산의 장지에 ‘동명묘’가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곳은 역대 왕들이 즉위의례(卽位儀禮) 등의 장소로서 방문하였던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역대 고구려왕들이 졸본지역의 시조묘(始祖廟)에 찾아가 즉위와 관련된 의례를 진행한³²⁾ 내용을 통해 이 같은 국

建築物이 조영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關野貞은 將軍塚 7층에 만들어진 작은 구멍들을 欄干용 구멍으로 추정하였고(關野貞(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遺蹟」, 『考古學雜誌』 5-3·4), 李殿福은 정상부에 어떤 建築物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李殿福(1980), 위의 글]. 한편, 李亨求는 난간의 존재와 함께 亨堂의 존재를 상정하였는데[李亨求(1982), 「高句麗의 亨堂制度研究」, 『東方學志』 32], 난간의 존재는 장군총 근처에서 28cm 크기의 쇠사슬 22마디가 발견되어 확인되고 있다[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縣博物館(1984), 「集安高句麗考古的新收穫」, 『文物』 第1期; 崔武藏(1985) 譯, 『高句麗·渤海文化』, 集文堂, 168쪽].

또한, 集安山城下 1411호분과 禹山下 1080호분의 정상에서 無文字石碑가 발견되어 이들 구조물을 비각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方起東·林至德(1983), 「集安洞溝兩座樹立石碑的高句麗古墓」, 『考古與文物』 2期]. 어쨌든 집안 일대의 고구려분묘의 정상부에서 발견되는 구조물의 흔적과 다량의 와전은 墓上에 구체적인 건축물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며 이는 앞서 지적된 ‘寢廟’의 성격을 갖는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 조법중(1995a), 앞의 글.

- 31) 능묘 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형당’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묘상입비’의 원칙이 광개토왕 대에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비각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바 앞서 사료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는 ‘묘’로서 표현된 ‘묘, 침’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서 후에는 ‘비각’의 기능도 포함한 구조물이었다고 이해된다.
- 32) 大武神王 三年(20), “春三月立東明王廟.”; 新大王 三年(167), “秋九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冬十月 王至自卒本.”; 故國川王 二年(180), “…… 秋九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東川王 二年(228), “春二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大赦.”; 中川王 十三年(260), “秋九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故國原王 二年(392), “春二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巡問百姓老病賑給 三月 至自卒本.”; 安臧王 三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

가적 제의(祭儀) 공간인 시조묘는 사료 D-2와 3에 나타나듯이 장지로 나타난 용산 즉, 「광개토왕릉비문」에 홀본 동강으로 표현된 승천장소로 파악된다. 먼저 하고성자고성을 졸본부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망강루(望岡樓) 일대를 용산으로 파악하고 있다.³³⁾ 또는 환인지역에서 유일하게 왕자(王子)가 써있는 미창구(米倉溝) 장군총(將軍塚)을 엄두에 두고 현재의 미창구지역 일대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³⁴⁾ 또한 나합성 일대를 졸본지역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북전자촌 나합성 맞은 편 고묘(古廟)가 있었다는 공간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⁵⁾ 그러나 앞서 현재 환인담에 의해 수몰된 고려모자촌 일대가 졸본부여로 설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 초기고분의 군장(群葬)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포괄한 지역이 홀본 동강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2) 골천 이궁

유리왕 3년 만들어진 골천(鶻川)의 이궁(離宮)은 종래 학자들의 관심이 상

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邑貧乏者 賜穀人一斛.”; 平原王 二年(560), “春二月 …… 王幸卒本 祀始祖廟 三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郡 獄囚除二死者原之.”; 榮留王 二年(619), “ ……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사료에 의하면 고구려의 역대 왕들은 즉위의례로서 즉위 직후인 춘 2, 3월에 그리고 동명왕이 승하한 9월을 중심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1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특히, 동명왕의 승하를 추모하는 9월 행차가 아닌 2월, 4월 행차의 경우 경유하는 지역민에 대한 위무행위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데서 이것이 즉위의례와 연결되어 고구려의 옛 수도지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경영이 복합된 행차였음을 짐작케 한다.

33) 張福有·孫仁杰·達勇(2006), 앞의 글, 21쪽.

34) 武家昌(1997), 「미창구 장군총벽화 및 제벽화 피장자연구」, 『고구려연구』 4.

35) 王從安·紀飛(2004), 앞의 글; 紀飛·王從安(2006), 앞의 글.

대적으로 적었던 공간이다.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E-1. 二年 秋七月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

2. 三年 秋七月 作離宮於鶻川 冬十月 王妃松氏薨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鶻川人之女也.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3년)

사료 E-1에서 먼저 주목되는 사실은 유리왕이 즉위후 다물후(多勿侯)인 송양왕의 딸과 혼인하였고 왕비 송씨(宋氏)가 결혼 후 1년만에 죽자 곧 골천인(鶻川人)의 딸[화희(禾姬)]과 한인(漢人) 여인(雉姬) 두 명을 후비로 맞았는데 그 사이에 골천에 이궁을 세운 점이다. 그런데 유리왕이 송양왕의 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골천에 이궁을 마련하고 후비로서 그 지역인의 딸과 결혼한 사실에서 정략적(政略的)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들 기사가 연결된 사료로 이해된다.³⁶⁾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골천 이궁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문제이다. 이 이궁은 앞서 주몽이 도읍한 흘승골성이 산성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편의성과 활용성을 염두에 둔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오녀산은 고구려시대 골령(鶻嶺)이었고 산성 이름이 흘승골성이고 유리왕의 이궁은 골령아래 골천(鶻川)에 만들어졌고, 골(鶻)=홀본(忽本)=졸본(卒本)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골천은 곧 졸본천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 입장을³⁷⁾ 감안할 때 이

3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논하고자 한다. 즉, 鶻川之女人 禾姬는 유리가 새롭게 마련한 이궁을 지은 곳으로 이 과정에서도 鶻川人으로 상징된 존재의 도움과 지원이 상징된다는 점이다. 특히, 漢人女를 婢妾으로 폄칭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이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일대에서 흘승골성과 연결되는 평지성은 현재 하고성자고성이 가장 적절한 위치로 파악된다.³⁸⁾ 또 골천인지녀(鵠川人之女)란 표현은 하고성자 고분군(古墳群)과의 관계를 볼 때 이 지역에 일정한 거점을 확보한 토착세력(土着勢力)과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IV. 비류국의 위치과 성격

1. 비류국의 위치

비류국(沸流國)이란 명칭의 연원인 비류수에 대해서는 대동강(大同江) 지류설,³⁹⁾ 압록강(鴨綠江)설,⁴⁰⁾ 소요수[小遼水(渾河)]설,⁴¹⁾ 혼강(渾江)설,⁴²⁾ 부이강(富爾江)설⁴³⁾로 크게 나뉘고 있다. 그런데 비류수는 앞서 문헌자료에 나타난 고구려 초기 도읍의 공간적 정황을 상정할 때 흘승골성이 오녀산성으로 줄 본부여 지역이 고려모자춘 일대로 비정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해 이루어진 혼강일대를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F-1. 王見沸流水中有菜葉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獵往尋 至沸流國

37) 李殿福·孫玉良(1990), 「高句麗的都城」, 『博物館研究』 1期.

38) 王綿厚(2002), 앞의 책, 文物出版社.

39) 『世宗實錄』 154, 「地理志」, 平安道 安州牧 成川 都護府; 『清一統志』 卷550.

40) 盧弼(1982), 『三國志集解』, 中華書局影印本.

41) 王國維(1956), 「魏母丘儉丸都山紀功刻石跋」, 『觀堂集林』, 中華書局.

42) 那珂通世, 「高句麗考」, 『外交釋史』.

43) 孫進起·王綿厚(1988), 『東北歷史地理』 1卷, 黑龍江人民出版社.

- …… 地小不足容兩主.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 1)
2. 沸流王松讓出獵 見王容貌非常 引而與坐曰 …… 王曰 寡人 天帝之孫 西國之王也 …… 讓曰 子是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3. 二年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 爲多勿 故以名焉.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東明聖王 1)
4. 霖雨七日 …… 漂沒松讓都 …… 王以葦索橫流 …… 六月松讓舉國來降.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사료 F에서는 졸본부여 상류 동쪽에 비류국이 위치하고 ‘송양(松讓)+도(都)와 다물(多勿)+도(都)’라는 표현은 비류국에 구체적인 도(都)에 해당하는 성(城)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⁴⁴⁾ 특히, 『설문(說文)』에 도와 관련되어 선군(先君)의 종묘(宗廟)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송양이 이미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하였다는 ‘我累世爲王’이란 표현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⁴⁵⁾ 한편 다물의 의미는 ‘復’을 회복하라는 의미⁴⁶⁾보다는 ‘되물리다’의 의미로 보아 송양왕에게 ‘다시 되물려주었다’의 의미⁴⁷⁾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류국은 오녀산성의 동쪽 근방(近方), 강변의 평지성임을 알 수 있다.

44) 『釋名』(1958), 國城曰都, 都者國君所居 人所都會也.

45) 『說文』 都有先君之舊宗廟 曰都.

46) 고전연구실(1958), 『삼국사기』 상, 352쪽.

47) 李丙燾 譯註(1977), 『國譯三國史記』, 219쪽. 湖岩 文一平의 說, 여기서 지적되었듯이 주몽이 회복할 역사적 주체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류국의 위치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의는 앞서 비류수가 부이강 및 부이강과 혼강이 합류한 지역 일대로 설정됨에 따라 부이강 일대의 고구려 초기 산성(初期山城)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논의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공간은 신빈현(新賓縣) 홍묘자향(紅廟子鄉) 노호구촌(老虎溝村) 북쪽 1km에 위치한 흑구산성[黑溝山城(일명 홍묘자산성(紅廟子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이다.⁴⁸⁾ 또한 흑구산성 일대에서 석봉(石棚)과 고구려의 초기 적석묘군(積石墓群)이 발견된 것을 감안하여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되었다.⁴⁹⁾ 최근까지도 이 산성을 대부분의 중국연구자들은 비류국왕성(沸流國王城)으로 설정하고 있다.⁵⁰⁾ 한편 최근, 졸본부여를 통화현(通化縣) 하룡두(下龍頭) 용강유지(龍崗遺址)로, 주몽묘를 통화현(通化縣) 토주자제사지(土珠子祭祀址)로, 그리고 비류국은 졸본천의 상류로서 통화시 왕팔발자유지(王八脖子遺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⁵¹⁾ 그러나 앞서 검토한 지리정황 등을 감안할 때 해발 700m 산성을 비류국 왕성(王城)으로 설정하거나 너무 먼 거리로 비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파악된다.

즉 중국학계가 고구려 초기 도읍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인 「구삼국사」를 인용한 「동명왕편」 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공간정형을 구성하는 한계를 노정시켜 비류국의 역사적 성격 이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⁵²⁾ 또 패왕초산성(霸王朝山城)을 비류국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제

48) 撫順市博物館·佟達·張正岩(1985), 「遼寧省 新賓縣 黑溝高句麗早期山城」, 『文物』 2期.

49) 孫進起·王綿厚(1988), 앞의 글, 262쪽; 孫進己(1994), 「高句麗王國的都城」, 『東北民族史研究』 1, 中州古籍出版社.

50) 王綿厚(2002), 앞의 책, 94쪽.

51) 王叢安·王俊輝·趙金付(2006), 「沸流王故地在桓仁」, 『東北史地』 2期.



그림 1933년 10만분의 1 지도에 나타난 부이강 훈강 합류처 일대 모습. 만룡배촌 오른쪽 표시공간이 현재 수몰된 나함산성 위치

기되었고⁵³⁾ 최근 비류국의 위치를 통화지역의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⁵⁴⁾ 그런데 이 또한 평지성이 아닌 산성이란 점

52) 중국학계의 자료 가운데 고구려 초기 유적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 자료만이 유일하게 동명왕편의 기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 파악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04), 앞의 책.

53) 方起東(1962), 『吉林輯安霸王朝山城』, 『考古』 11期.

에서 비류국 송양도로 설정하기 곤란하다.

2. 비류국의 비정

비류국을 비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리적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① 紇升骨城(=오녀산성), 卒本扶餘(=고려묘자촌 일대)를 지나는 沸流水(=부이강+혼강합류강)의 上流位
- ② 朱蒙=西國之王이므로 紇升骨城(=오녀산성)의 東쪽 위치
- ③ 松讓+都, 多勿+都란 표현에서 都=城 존재
- ④ 洪水에 漂沒된 江邊의 平地城

최근 비류수를 혼강이 아닌 부이강으로 보고 비류국의 위치를 부이강 상류 환인현 괴마자진(拐磨子鎭) 102국도(國道)와 부이강이 만나는 고성자촌(古城子村) 일대로 제시하는 입장이 제시되었다.⁵⁴⁾ 현재 이들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확정키 어렵다. 본인은 이런 조건을 감안할 때 여러 학자가 졸본성으로 비정한⁵⁵⁾ 나합성(喇哈城)이 비류국성(沸流國城)의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파악된다.

나합성에 대한 최초 기록은 1909년판 『회인현지(懷仁縣志)』 「지리지(地理志)」- 고적(古蹟) - '나합성'에 나타난 다음 기록에서 확인된다.⁵⁶⁾ 이 성은 북

54) 高於茂(2004), 「沸流國探秘」, 『東北史地』 3期, 62쪽.

55) 王叢安·王俊輝·趙金付(2006), 앞의 글.

56) 紀飛·王從安(2006), 앞의 글.

전자향(北甸子鄉) 만룡배촌(彎龍背村)의 제일촌민조(第一村民組) 소재지인 동강검(東江臉) 아래의 소평원(小平原)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성지(城址)가 확인되었다.⁵⁸⁾ 2003년 봄 환인현문물관리소(桓仁縣文物管理所)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시굴을 진행하여 85m 길이의 담장기초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후 나합성은 2004년 현지 향토사가 등의 조사내용⁵⁹⁾과 2006년도의 조사내용에서 나합성 주변 유적(遺迹)으로 고도도구(古道渡口)와 고도유(古道遺), 고묘장(古墓葬), 채석장(采石場) 등이 조사되어⁶⁰⁾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이 지역은 유리왕의 국내 천도 이후 연노부(涓奴部) 즉, 소노부(消奴部)의 거점으로서 인식되어 유지되었고⁶¹⁾ 발해(渤海)시기에는 녹주(濩州)에 속한 지역으로 편재되어⁶²⁾ 존속되었다.

따라서 나합성 또는 고성촌 등에 대한 고고학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요청된다.

57) 王俊輝·梁志龍(2004), 앞의 글.

58) 王從安·紀飛(2004), 앞의 글.

59) 王俊輝·梁志龍(2004), 앞의 글.

60) 紀飛·王從安(2006), 앞의 글.

6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伯固死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康降, 還住沸流水”

62) 『遼史』38, 『地理志』2, 東京道 濩州, “正州. 本沸流王故地, 國爲公孫康所併. 渤海置沸流郡. 有沸流水. 戶五百. 隸濩州. 在西北三百八十里. 統縣”

3. 송양왕 비류국의 성격

송양왕(松讓王)의 비류국(沸流國)은 『후한서(後漢書)』의 소노부, 『삼국지』에 언급된 연노부로서 『삼국사기』에는 송양국(松讓國)으로도 나타나고 있다.⁶³⁾ 따라서 송양은 인명(人名)이라기보다는 지역정치체명(地域政治體名)의 하나로써 비류수가 부각된 명칭이 비류국이고 송양(=소노)지역이 강조된 표현이 송양왕이라고 이해된다. 즉 송양이란 표현에서 양(讓)=양(壤)은 소노(消奴)에서 땅을 의미하는 노(奴(=내(內)=나(那))와 연결되며 송(松)은 음상사로 소(消)와 연결되고 있다. 한편, 비류국이란 명칭은 주지하듯이 백제 건국시조인 온조(溫祚)와 비류라는 인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국명(國名)과 왕명(王名)이 혼용되는 사례를 감안할 때 송양 명칭도 정치체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⁶⁴⁾

그런데 이 비류국의 계통에 대해서 복구토(復舊土(=多勿都))를 주몽이 “옛 땅을 회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들을 부여계통(夫餘系統)으로 보는 이해가 있다.⁶⁵⁾ 그러나 주몽과 서로 시조인식(始祖認識)을 달리하고 있어 부여계(夫餘系)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음 사료는 계통인식이 구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G-1. 本有五族 ……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 立宗廟·靈星·社稷。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63)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 三國有名未詳地分 ‘松讓國’.

64) 조법중(2001), 「고구려 사회의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蘇塗文化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21, 韓國古代史學會; 조법중(2006), 앞의 책.

65) 楊軍(2001), 「高句麗5部研究」,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4期, 81~86쪽.

2. 沸流王松讓出獵 見王容貌非常 引而與坐曰 …… 王曰 寡人 天帝之孫 西國之王也 …… 讓曰 予是仙人之後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東國李相國集』卷3, 「東明王篇」)
3.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 (『帝王韻紀』(下), 東國君王年代)

G-1에서 연노부(=소노부)는 별도의 종묘(宗廟), 사직(社稷)을 보유함으로써 시조 인식에 있어서 적어도 주몽의 계루부(桂婁部)와 같은 ‘동명(東明)’ 시조 인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G-2에서는 송양왕이 별도의 시조로서 선인지후(仙人之後)를 표방해 시조가 선인으로 나타나 있으며, G-3에서는 그 선인을 단군(檀君)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자에서 선(仙)이라는 것은 천(遷)한다는 것으로 옮겨져 산(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字)를 만들 때에 인자(人字) 옆에 산자(山字)를 쓴다”⁶⁶⁾고 하고 있으며,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서는 천상세계에 머물렀던 신선(神僊)이 십산유곡에서 도술(道術)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선인’을 설명하고 있어 천공(天空)보다도 지상의 산악(山岳)을 중시하는 의미로서의 ‘선’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⁶⁷⁾ 따라서 선인의 의미는 산악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⁶⁸⁾

이 같은 사실은 단군의 성격과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준다. 즉 천제자(天

66) 劉熙, 『釋名』, 『釋長幼編』.

67) 福永光司(1987), 『道敎思想史研究』, 岩波書店, 480~481쪽.

68) 조법중(1995b), 「花郎관련 用語의 검토-中國의 神仙思想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花郎의 新研究』, 경상북도, 422쪽.

帝子 환웅(桓雄)과 결합한 산신(山神) 성격의 웅녀(熊女)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檀君王儉)이 나중에 아사달(阿斯達) 산신(山神)이 되었다는 사실은⁶⁹⁾ 바로 선인의 의미와 연결되며 이같은 성격 때문에 단군의 성격이 선인으로 표현된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G-3에 언급된 선인을 단군으로 파악하는 인식은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고구려에 포용된 비류국 송양왕으로 상징되는 소노부의 성격이 단군시조인식(檀君始祖認識)을 보유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고구려 초기 도읍과 관련된 문헌자료 검토와 현지 역사유적 등을 검토하여 초기 도읍의 공간적 정황을 정립하여 고구려 건국에 앞서 존재한 선주정치체인 졸본부여(卒本扶餘)와 흘승골성(紇升骨城) 및 비류국(沸流國)의 실제 파악을 위한 연구이다. 졸본천은 현재의 환인현 중심지 일대의 혼강이고 비류수는 부이강 및 혼강이 합류한 이후의 혼강을 포함한 강으로 보았다. 또한, 흘승골성은 현재의 오녀산성이고, 졸본부여는 고려묘자촌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연결되어 동명왕의 승천지이자 동명묘 즉, 시조묘가 있는 용산(龍山)은 고려묘자촌 주변 동쪽 산으로 추정하였다. 유리왕의 골천(鵲川) 이궁(離宮)은 평지성인 하고성자고성이 가장 적합한 유적임을 상정해보았다. 송양왕 비류국의 도읍에 대해서는 나합성(喇舍城)설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는 비류국성에 부응하는 필수요건인 ① 흘승골성의 상류, ② 부이강-혼강 강변 위치, ③ 평지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

69) 『三國遺事』 권1, 「紀異」 1, 古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는 고구려 초기 유적으로서 나합성유적만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지역의 고도(古道)유적과 고도진(古渡津)은 고대부터 교통의 결절점(結節點)으로서 중요거점이었다는 점도 이를 확인케 한다.

한편, 본고는 고구려가 북부여계(北扶餘系) 주몽세력뿐만 아니라 선인지손을 표방하는 송양왕세력이 고구려의 전왕족(前王族)인 소노부로서 유지되어 주몽계와는 다른 시조인식체계와 종교 제사체계를 보유함으로써 고구려 사회의 성격이해에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였다.⁷⁰⁾ 이를 바탕으로 비류국 송양왕세력은 고구려 사회에 존재한 고조선계통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이해되며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 조법중(2001), 앞의 글 ; 조법중(2006), 앞의 책.

高句丽的初期都城与沸流国研究

• 赵法钟 (又石大学校教授)

I. 序言

朱蒙在高句丽的建国过程中，与卒本夫余为代表的势力相携手，通过与沸流国松让王间的对立和竞争，取得了高句丽国家的成长。一般认为，首次定都的纥升骨城为今五女山城，而关于卒本夫余则有诸多不同的意见。关于沸流国，最近中国以地方史研究者为中心正在进行探讨和研究。本文通过探讨高句丽初期都城的相关史料，划定历史地理上的空间体系，并利用考古学方面的资料，欲比定高句丽初期都城的遗址。另一方面，标榜自己为仙人之孙的沸流国松让王是属于古朝鲜系统的一股势力，这股势力在汉灭古朝鲜后，散居于各地区，维

持其势力。通过对他们的分析，欲要确认这股势力逐渐扩大发展成为高句丽的史事。

II. 见于文献中的高句丽初期都城

1. 载于好太王(原文为广开土王，下同)碑文与《魏书、高句丽传》中的都城

1) 载于《好太王碑文》中的初期都城

好太王碑文中与高句丽初期都城有关的记录如下。

A-1. 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2. 王於忽本東崗履龍首升天¹⁾。

史料A-1应分段为“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可解读为“在沸流谷西山上筑城并建都”²⁾。在这一记录中明显看出，414年立的好太王碑反映了当时高句丽人对本国初期都城的理解应是修建于山上的都城，与其相关的名称有沸流谷、忽本，其地形状况是修筑于忽本西山上的都城。但是引人注目的是紧接着出现的资料A-2，这一

1) 卢泰敦：〈好太王碑〉，《译注韩国古代金石文》1，韩国古代社会研究所编，第8页，1992年。

2) 卢泰敦：〈好太王碑〉，《译注韩国古代金石文》1，韩国古代社会研究所编，第17页，1992年。

资料中出现与鄒牟王之死有关联的地名“忽本东岗”。即前一资料已提出定都于忽本之西山城，后一资料则记载鄒牟王以“升天”的表现方式死于忽本之东岗，两者之间隔有忽本。因此可以看出，朱蒙应建都于“沸流谷忽本地区西边的山城”。

2) 载于《魏书、高句丽传》中的初期都城状况

中国方面的史书中，《魏书》记有关于高句丽都城的记载，在此书中首次提到了纥升骨城。

A-3. 朱蒙至纥升骨城逐居焉 号曰高句丽。(《魏书》100, 列传88高句丽)

中国方面的这一史书记录与韩国方面记有忽本或卒本等史料有所不同，这一中国方面的史料是对高句丽首次定都地区的简单记录而已，而且据A-3史料可知，朱蒙到了纥升骨城以后居住于此地。也就是说，如果只依据A-3史料，则可能认为朱蒙利用了在此地已筑有的纥升骨城³⁾。但是若要考虑这一史料是压缩具体内容而整理出当时历史状况的，所以可以推定A-3史料是省略了修筑都城过程的记录。

3) 耿铁华：〈高句丽纥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2期；耿铁华：《高句丽考古研究》，2004年。

2. 载于《三国史记》和《东明王篇》引《旧三国史》中的初期都城记录

出现于《三国史记》中的有关朱蒙建国时期的都城记录如下。

- B-1. 始祖东明圣王 …… 至卒本川(《魏书》云, 至纥升骨城), 观其土壤肥美, 山河险固, 遂欲都焉。而未皇作宫室, 但结庐於沸流水上居之, 国号高句丽。
1. 一云, 朱蒙至卒本夫余, 王无子, 见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王死, 朱蒙嗣位。
 2. 王见沸流水中有菜叶逐流下, 知有人在上流者, 因以猎往寻, 至沸流国。…… (朱蒙)答曰: “我是天帝子, 来都於某所”。松让曰: “我累世为王, 地小不足容两主, 君立都日浅, 为我附庸可乎?” 王忿其言, 因与之斗辩, 亦相射以校艺, 松让不能抗。
 3. 二年夏六月, 松让以国来降, 以其地为多勿都, 封松让为主。丽语谓复旧土为多勿, 故以名焉。
 4. 三年春三月, 黄龙见于鹞岭。秋七月, 庆云见鹞岭南, 其色青赤。
 5. 四年夏四月, 云雾四起, 人不辨色七日。秋七月, 营作城郭宫室⁴⁾。
 6. 十九年……秋九月, 王升遐, 时年四十岁, 葬龙山, 号东明圣王。
 7. 琉璃明王三年秋七月, 作离宫於鹞川⁵⁾。

4) 《三国史记》13, 高句丽本纪1, 东明圣王1。

5) 《三国史记》13, 高句丽本纪1, 琉璃明王3。

《三国史记、高句丽本纪》中与高句丽初期都城相关的名称有卒本川、卒本夫余、沸流水、沸流国、多勿都、鹞川离宫等，而百济本纪中也出现卒本夫余、卒本等记录⁶⁾。

史料B-1中，以卒本川的表现方式，大体上反映了朱蒙到达之地的地名。

史料B-2反映了朱蒙到达之前，卒本夫余在此地已经作为政治体而存在。

史料B-3中可以看出，在沸流水上流已有沸流国，而松让所言“地小不足容两主”之语则反映了两股势力相邻接的地理状况。

史料B-4反映沸流国松让王来降服，朱蒙以其地为多勿都，并使松让继续统治其地的情况。

史料B-5记载黄龙和庆云见于鹞岭，反映了与之相应的都城建设状况。

史料B-6是朱蒙即位四年时修筑城郭和宫室的内容。

史料B-7的内容中明确提出了朱蒙的葬地为龙山。此后，此地成为了高句丽的国家祭祀空间。

史料B-8是琉璃王二年新建离宫于鹞川。此史料中引人注目的是

6) 《三国史记》23, 百济本纪1, 温祚王1: 百济始祖温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夫余逃难 至卒本夫余 夫余王无子 只有三女子 见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子 未几夫余王死 朱蒙嗣位 生二子 长曰沸流 次曰温祚。(或云朱蒙到卒本 娶越郡女 生二子)(一云……朱蒙不容于夫余……南奔至卒本 立都 号高句丽 娶召西奴为妃 其于开基创业 颇有内助)。

出现了与鹤岭有关联的鹤川。

整理《三国史记、高句丽本纪》中出现的相关内容则可知；朱蒙到达卒本地区时，此地已经有了卒本夫余和沸流国为代表的两股政治体的据点。朱蒙包容这些势力后，修筑了纥升骨城，因此在此地至少可以设定3个势力据点。还有，通过史料B-3可以确认，沸流国的地理位置在于沸流水上流的江边地区，降服沸流国后，以此地为多勿都。从“多勿+都”的表现来看，给人一种提示，就是在松让王的沸流国内有相当于“都”的具体空间设施，即是说筑有“城”。但是不见有与卒本相关的“城”的记录。

《东明王篇》中有引用《旧三国史》的内容，其内容比《三国史记》更为具体的反映了地理位置。

- C-1. 形胜开王都，山川鬱嶒巋。自坐茆蕤上，略定君臣位。王自坐茆蕤之上，略定君臣之位。
2. 沸流王松让出猎，见王容貌非常。……王曰：“寡人天帝之孙，西国之王也。敢问君王继谁之后？”让曰：“予是仙人之后，累世为王，今地方至小，不可分为两王。君造国日浅，为我附庸可乎？”
3. 西狩获白鹿，倒悬於蟹原，呪曰：“天若不雨而漂没沸流王都者，我固不汝放矣，欲免斯难 汝能诉天”。其鹿哀鸣，声彻於天，霖雨七日，漂没松让都。王以苇索横流，乘鸭马。百姓皆执其索，朱蒙以鞭划水，水即灭。六月，松让举国来降，云云。
4. 七月，玄云起鹤岭，人不见其山，唯闻数千人声以起土功。王曰：“天为我筑城”。七日，云雾自散，城郭宫台自然成，

王拜皇天就居。

5. 秋九月，王升天不下，时年四十。太子以所遗玉鞭，葬於龙山，云云。（《东国李相国集》卷3，东明王篇）。

史料C-1中的“蒹蕀”之意同与《三国史记》中的“结庐”之状。

史料C-2中朱蒙与沸流国松让王各自标榜“天帝之孙”和“仙人之后”，而朱蒙是以“西国之王”的言语来表现自己，松让则说出“地方之小”之语，反映了朱蒙定都之地位于沸流国之西，而且二者的地壤相邻接的情景。

史料C-3记载的是朱蒙救出因洪水处于危机之中的沸流国的内容。但注意的是，通过“漂没松让都”的记载来看，可以确认松让的都城的确存在，而且也可以推断此城是一座位于江边的平原城。

史料C-4记录了在鹞岭修筑城郭和宫台之事。“天为我筑城，城郭宫台自然成”则意味着利用自然地形修筑山城的状况，进而反映了纥升骨城所具有的特点。

史料C-5反映朱蒙的葬地为龙山，从而可知，忽本东岗为龙山之事实。

因此在《东明王篇》中出现的有关都城之内容反映了如下几点：沸流国位于朱蒙据点的①沸流水上流之东，②沸流国的都城，即松让都是一座位于沸流水江边的平原城。

III. 高句丽初期都城的位置比定

1. 纥升骨城

自从20世纪初以来，白鸟库吉⁷⁾、魏存成⁸⁾、李殿福⁹⁾等学者们都把今五女山城比定为纥升骨城，而且大多学者们也同意这种观点¹⁰⁾。而耿铁华先生则提出了今下古城子为纥升骨城的观点¹¹⁾，但参考前后资料来看¹²⁾，还是比定为五女山城则更为适合。特别是1990年代进行间断性的部分调查和2003年对五女山城进行全面的调查发掘，进一步确认了上述观点的推论之正确性¹³⁾。

7) 鸟居龙藏：〈南满洲调查报告〉，《鸟居龙藏全集》10，朝日新闻社，1976年。

8) 魏存成：〈高句丽初、中起的都城〉，《北方文物》，1985年2期。

9) 李殿福：〈高句丽丸都山城〉，《文物》，1982年6期。

10)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城调查发掘报告》，文物出版社，第294页，2004年。

11) 耿铁华：〈玄菟郡的西迁和高句丽的发展〉，《社会科学战线》，1987年2期；耿铁华：〈高句丽纥升骨城新考〉，《北方民族》，2001年2期；耿铁华：《高句丽考古研究》，2004年。

12) 耿铁华先生只根据《魏书》中记有的压缩内容为中心，而没有参考《三国史记》和《东明王篇》中鹈岭山山上修筑宫室的记录，从而导致了认识上的错误。

1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城调查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4年。

2. 卒本夫余

“卒本川”是一个“卒本(=忽本)+周边的江”的地域名称，是指纥升骨城以及包括流经其周围的江水。纥升骨城已被确认为今五女山山城，所以把卒本川可以推定为富尔江和浑江合流以后流段，即浑江流经的桓仁县平原地区。这种观点大体上可分为3种具体意见。

1) 下古城子古城说

关于卒本夫余的地理位置，大多学者都比定为今桓仁地区具有代表性的平原城一下古城子城。考虑到此地与五女山城之间的相隔距离以及沸流水，即浑江间的关系，引起了许多学者们的关注¹⁴⁾。特别是距下古城子村3里的上古城子村分布有100余座高句丽古坟，这种状况更为上述观点提供了有力的证据。但是《好太王碑文》中所记有的纥升骨城则位于忽本之西，二者的方位以东西方向正相反，所以此说在比定卒本夫余地理位置的问题上存有疑问。最近，对此问题提出了把朱蒙的葬地—龙山比定为桓仁望江楼，而把下古城子古城比定为卒本城的见解¹⁵⁾，但是这种观点也没有解决问题的根本，即方位问题，因此

14) 魏存成：〈高句丽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1985年2期；苏长清：〈高句丽早期平原城一下古城子〉，《辽宁省丹东、本溪地区考古会议论文集》，1985年；王禹浪、王宏北：《高句丽渤海古城址汇编》(上)，哈尔滨出版社；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城调查发掘报告》，文物出版社，第314~315页中，2004年，以今后进一步的考古发掘为前提，暂且保留了观点。

也难于接收。

2) 喇哈城说

喇哈城说是以田中俊明¹⁶⁾、Mark E. Buyington¹⁷⁾、以及桓仁地区当地的研究者为主积极提出来的¹⁸⁾。持有这种见解的人认为，作为比定卒本城的前提条件需必备如下几个条件；一是卒本城=平地城，二是卒本城=纡升骨城，其地理位置应位于五女山城的东边，三是卒本城位于沸流水(今富尔江)江边，四是卒本城周围环境具有“土壤肥美，山河险固”的地形条件¹⁹⁾。因此能够符合这种条件的历史遗址应是桓仁县北甸子村的喇哈城。因为此是一座平原城，而且从地理位置上看也位于离五女山城东边不远的地方。基于这种认识他们提出了喇哈城很可能是卒本城的观点。

但是，喇哈城与现今五女山城间的直线距离有13km，而实际距离

-
- 15) 张福有、孙仁杰、迟勇：〈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陵”字考〉，《东北史地》，第21页，2006年1期。
- 16) 田中俊明：〈高句丽的兴起与玄菟郡〉，《朝鲜文化研究》1，1994年；田中俊明：〈高句丽前期王都卒本的构造〉，《研究纪要》2，高丽美术馆，1998年。
- 17) Mark E. Buyington：〈基于高句丽国家形成三个研究的试验构架〉，《东亚细亚的国家形成》，忠南大学百济研究所第十回百济研究国际学术会议上发表的文章。
- 18)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2期；纪飞、王从安：〈话说喇哈城〉，《桓仁县报》，2006年3月7日；五女山志编纂委员会：《五女山志》，第100页，2004年。
- 19)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第44页，2004年2期。

可达36km,而且从地理条件来讲也不符合朱蒙第一次到达卒本川地区,确保纥升骨城为据点的过程。也就是说,卒本夫余是邻接于纥升骨城,两者间的关系可以推断为山城+平原城的关系,而且都作为势力据点发挥作用的。从这种空间上的性质来看,很难把喇哈城比定为卒本夫余。

3) 高丽(力)墓子村说

关于卒本夫余的地理位置,还有一种观点是高力墓子村(最近称高丽墓子村)说²⁰⁾。这一观点是在1960年代因修建桓仁坝时被淹没的高力墓子村而提出来的。此地于1958年进行部分调查和发掘时,曾提出过有相当数量的积石冢和与之相关遗迹的存在之可能性,而且与纥升骨城,即五女山城相联系,推定此地可能存有与五女山城相联的平原都城。特别是持有这种观点的人注意到史料中不见有卒本城的记录这一问题,认为在此地区虽然有集体居住的痕迹,但没有发现相关“城”的遗址,从这一点上他们强调了此地为卒本夫余的遗址²¹⁾。首先查看1950年代被桓仁坝淹没以前对此地所进行的调查报告来看²²⁾,高丽墓子村南端积石大墓区内有70余座古坟,而高丽墓子村位于开阔

20) 王俊辉、梁志龙:《北甸子寻古》,《桓仁县报》,2004年6月7日。

21) 刘素云:《高句丽的发祥地—卒本川当今何地》,《东北史地》,第32~33页,2005年6期。卒本川位于纥升骨城以东的平原地带,现已被桓仁坝淹没,此地有750多座高句丽积石冢。

22)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报告》,《考古》,1960年1期。

的江岸地带，古墓群的分布也可达1000m，其北西方向距五女山城离有5km。古坟是在平地上修筑石台，呈圆丘式积石墓形，底部铺有卵石，从这一点上可以判断古坟是属高句丽初期的墓型²³⁾。这种状况充分说明此地为高句丽初期势力的重要空间据点之一。特别是以忽本为中心，划分纥升骨城和朱蒙的葬地—龙山的史料记载来看，正好补充了史料以此地为中心，纥升骨城位于其以西的空间内容。所以卒本夫余的地理位置可以比定为高丽墓子村一带。

3. 东明庙和鹞川离宫

1) 东明庙

关于高句丽的东明圣王，即朱蒙的死，《好太王碑文》和《东明王篇》以及《三国史记》都记为“升遐”，这是高句丽的建国历史被神化的过程中，对朱蒙的去世以“升天”的表现方法而描述的。而且也指出了朱蒙的升天之地或者说是朱蒙的葬地为龙山。首先考察与之相关的史料记载。

D-1. 王於忽本東崗履龙首升天。(《好太王碑文》)

2. 十九年……秋九月，王升遐，时年四十岁。葬龙山，号东明圣王。(《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东明王)

23) 王绵厚：同前书，第48页，2002年。

3. 秋九月，王升天不下，时年四十。太子以所遗玉鞭，葬於龙山，云云。（《东明王篇》）
4. 三年春三月，立东明王庙。（《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大武神王）

史料D-1、2、3中可知，忽本东岗=龙山。

史料D-4记载了修建东明庙一事。“庙”指的是修建于“墓”上的建筑，意味着“寝”。这一点可通过夫余的太后庙²⁴⁾、琉璃太子解明之庙²⁵⁾、美川王之庙²⁶⁾等事例中可以得到确认²⁷⁾。而且这一点也符合已调查发现的结果。即高句丽初期的典型墓制一积石墓²⁸⁾的最上层修建具有“庙”功能建筑物的结果²⁹⁾。高句丽的陵墓是以阶梯式的结构建造的，其上

24)《三国史记》13，高句丽本纪1，东明王14年：“秋八月，王母柳花死于东夫余，其王金蛙以太后礼葬之，逐立神庙”。

25)《三国史记》13，高句丽本纪1，琉璃王28年：“解明……乃往砺津东原以枪插地，……义太子礼葬于东原，立庙”。

26)《三国史记》18，高句丽本纪6，故国原王12年：“……发美川王庙，载其尸”。

27)赵法钟：〈好太王碑文守墓制研究〉，《韩国古代史研究》8，1995年；赵法钟：《古朝鲜、高句丽史研究》，新书苑，2006年。

28)郑灿永：〈关于公元4世纪为止的高句丽墓制研究〉，《考古民俗论文集》5，1973年；李殿福：〈辑安高句丽墓研究〉，《考古学报》，1980年2期；田村晃一：〈高句丽积石冢〉，《东北亚细亚考古学》，1990年。

29)《辑安县乡土志》(1915年)地理部分中说明“将军坟”的内容有：“碑之东二里，全用大石切成。……极上一层，四面石条，均有柱眼，其下败瓦堆积”的记载。通过最上层有柱眼和瓦片的记载，说明古坟上面曾修有过建筑物。而关野贞则把将军坟第七层的凿孔推定为用于栏杆的小孔(关野贞：〈满洲辑安县

层修建有具有“庙”作用的建筑物体，所以可理解为墓与其上的庙在名称上并没有多大的区别³⁰⁾。因此可以认为，龙山的葬地上修有“东明庙”，而且此地为历代高句丽王作为举行即位仪式等礼仪活动而访问的场所。也就是说，历代高句丽王到卒本地区的始祖庙，进行与国王即位相关的礼仪活动³¹⁾。由此可以推断，作为国家祭仪空间的始祖庙

及平壤附近的高句丽时代遗迹》，《考古学杂志》5-3、4，1914年）。李殿福认为最上层部分有某种建筑物体（李殿福：同上书，1980年）。而李亨求认为其上不仅仅有过栏杆，而且也可以推测享堂的存在（李亨求：〈高句丽享堂制度研究〉，《东方学志》32，1982）。将军坟附近已发现了22节铁链，因此可以确认其上曾有过栏杆（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县博物馆：〈集安高句丽考古的新收获〉，《文物》1984年1期；崔茂藏译：〈高句丽、渤海文化〉，集文堂，第168页，1985年）。而且集安山城下M1411号坟和M1080号坟顶上发现了无文字石碑，据此有人提出了应把古坟上的建筑物体与碑刻相联系的观点（方起东、林至德：〈集安洞沟两座树立石碑的高句丽古墓〉，《考古与文物》，1983年2期）。总的来说，在集安一带高句丽古坟上面发现有建筑物的痕迹和大量的瓦砖，说明墓上曾有过某种具体的建筑物体，而且其作用是具有“寝庙”性质的可能性很大（赵法钟：同上论文，1995年）。

30) 关于陵墓上修建的建筑物体性质有不同的观点。有些人认为是享堂，而有些人考虑到墓上立碑的原则是制定于好太王时期，因而认为墓上的建筑物体是碑刻。对此，根据史料可以理解为墓上的建筑物具有“庙”和“寝”的作用，后来渐具有了碑刻的作用。

31) 大武神王三年(20年)春三月，立东明庙。

新大王三年(167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故国川王二年(180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东川王二年(228年)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大赦。

中川王十三年(260年)秋九月，王如卒本祀始祖庙。

故国原王二年(392年)春二月，王如卒本祀始祖庙，巡问百姓老病赈给。三月，至自卒本。

的地理位置是史料D-2和D-3所记的葬地一龙山，也就是好太王碑文记载的升天之地—忽本东岗。但是，也有不同的意见，主张下古城子古城为卒本夫余的学者们则把其位置比定为望江楼一带的龙山³²⁾；还有学者根据桓仁地区唯一刻有“王”字的米仓沟将军冢，且据此比定为今米仓沟一带³³⁾；而主张今喇哈城一带为卒本地区的学者认为，古庙应位于今北甸子村喇哈城对面的空间范围内³⁴⁾。但是如前已述，已被桓仁坝淹没的高丽墓子村一带为卒本夫余的可能性最大，而且分布有高句丽初期的古墓群，因此可以认为包括这一带地区为忽本东岗的主张最有说服力。

安臧王三年(521年)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所经州邑，贫乏者赐谷一斗。

平原王二年(560年)春二月，王幸卒本祀始祖庙。三月，王至自卒本，所经州郡，狱囚除二死者，原之。

荣留王二年(619年)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庙。五月，王至自卒本。

据史料记载，高句丽历代王作为即位礼仪，各代王即位后多选择春二、三月和东明王“升遐”的九月，访问卒本，在此地滞留约一个月的时间。特别是二月、四月间“王幸卒本”活动并不是为纪念东明王的“升遐”而进行的。据二、四月间“王幸卒本”或“王至自卒本”的途中，安抚所经由地区的百姓等记录来看，可以推断国王到卒本地区的活动不仅仅具有“祀始祖庙”的性质，而且还具有与之密切相联系的意图，即反映了高句丽对其旧都的关心和对其进行积极经营意图的一种复合表现活动。

32) 张福有、孙仁杰、迟勇：〈朱蒙所葬之龙山及太王陵铜铃“峻”字考〉，《东北史地》，第21页，2006年1期。

33) 武家昌：〈米仓沟将军冢壁画和诸壁画被葬者研究〉，《高句丽研究》4。

34) 王从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2期；纪飞、王从安：〈话说喇哈城〉，《桓仁县报》，2006年3月7日。

2) 鹞川离宫

以往，学者们对琉璃王三年修建的鹞川离宫的研究相对较少。对此列举相关的史料如下。

- E-1. 二年秋七月，纳多勿侯松让之女为妃。
 2. 三年秋七月，作离宫于鹞川。冬十月，王妃松氏死，王更娶二女以继室。一曰禾姬鹞川人之女也。（《三国史记》卷13，高句丽本纪1，琉璃明王3年）

首先在史料E-1中引人注目的是，琉璃王即位后与多勿侯松让王之女结为婚姻，婚后过了一年王妃松氏去世，于是迎娶鹞川人之女禾姬和汉人雉姬2人为妃，在鹞川修建离宫的时间也正是在这一期间。但是从琉璃王不仅与松让王之女结婚，而且在鹞川修建离宫，娶当地之女为后妃的上述史料中可以看出，琉璃王的婚姻具有某种政治策略性质，因此可以认为上述两条史料是互相有联系的³⁵⁾。琉璃王的婚姻和修建离宫的过程中注意的是鹞川离宫的地理位置为今何地的问题。考虑朱蒙定都的纥升骨城是一座山城，相比之下这一离宫可能是更多地考虑了便利性和实用性的空间。根据“五女山是高句丽时期的鹞岭，当时的山城名为纥升骨城，琉璃王的离宫则修建于鹞岭之下的鹞川，而

35) 对此问题另作探讨。也就是说，鹞川之女禾姬的出身是琉璃王新建的离宫之地—鹞川。由此可以推测，在这一过程中很可能有过以鹞川人为代表的势力和这些势力对琉璃王的帮助和支持。特别是对汉人之女的称谓上使用了“婢妾”贬称，更好地说明了此问题。

史料的记载是鹞=忽本=卒本，因此鹞川即为是卒本川的另一种称谓”的观点来看³⁶⁾，在这一带能够与纥升骨城相关的平原城则为现今的下古城子古城，其所处的地理位置最为适合³⁷⁾。而且从“鹞川人之女”与上古城子古墓群两者之间的关系来看，在这一地区已经存在确保据点的土著势力，而高句丽与此地土著势力互相结有连带关系的可能性大。

IV. 沸流国的位置及其性质

1. 沸流国的位置

沸流国一名源于沸流水。迄今为止，学界对沸流水的比定大体分为大同江支流说³⁸⁾、鸭绿江说³⁹⁾、小辽水说⁴⁰⁾、浑江说⁴¹⁾和富尔江说⁴²⁾。但考虑前面所举文献资料中出现的高句丽初期都邑的地理范围来看，纥升骨城是今五女山山城，卒本夫余的范围在高丽墓子村一带。那么，沸流水最有可能是富尔江与富尔江同浑江汇流后的浑江一带。

36) 李殿福、孙玉亮：〈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1期。

37)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

38) 《世宗实录》154，地理志，平安道，安州牧，成川，都护府；《清一统志》卷550。

39) 卢弼：《三国志集解》，中华书局影印本，1982年。

40) 王国维：《魏毋丘俭丸都山记功刻石跋》，《观堂集林》，中华书局，1956年。

41) 那柯通世：〈高句丽考〉，《外交绎史》。

42) 孙进己、王绵厚：《东北历史地理》1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8年。

- F-1. 王见沸流水中有菜叶逐流下，知有人在上流者，因以猎往寻，至沸流国。……地小不足容两主。（《三国史记》13，高句丽本纪1，东明圣王1）
2. 沸流王松让出猎，见王容貌非常，引而与坐曰：……王曰：“寡人天帝之孙，西国之王也”。……让曰：“予是仙人之后，累世为王，今地方至小，不可分为两王”。（《东国李相国集》卷3，东明王篇）
3. 二年夏六月，松让以国来降，以其地为多勿都，封松让为主。丽语谓复旧土为多勿，故以名焉。（《三国史记》13，高句丽本纪1，东明圣王1）
4. 霖雨七日……漂没松让都……王以苇索横流……六月，松让举国来降。（《东国李相国集》卷3，东明王篇）

从史料F可知，卒本夫余上流以东有沸流国，而“松让+都”、“多勿+都”等表述内容说明在沸流国曾存在相当于“都”的“城”⁴³⁾。值得关注的是，《说文》解释“都”为“有先君之宗庙”，而松让所言“累世为王”之语更为直接的反映了其内涵⁴⁴⁾。至于多勿的含义，比“复”之意⁴⁵⁾更具有“还”之义。由此把“复”解释为“重新还给”松让之义的可能性更大⁴⁶⁾。

由此可以看出，沸流国是位于五女山山城以东附近江边的平原

43)《释名》：“国城曰都，都者，国君所居，人所都会也”。

44)《说文》：“都有先君之旧宗庙，曰都”。

45) 古典研究室：《三国史记》上，第352页，1958年。

46) 李丙焘译注：《国译三国史记》，第219页中，1977年，列举(湖岩)文一平观点时指出，朱蒙所要恢复的历史主体不明确，因此这种主张需要进一步的探讨。

城。

如前所述，中国学界把沸流国的位置比定为富尔江以及富尔江同浑江汇流的地带。因此对沸流国的研究主要是以富尔江一带的高句丽初期山城为中心而展开的。其中，大部分学者提出新宾县红庙子乡老虎沟村北侧1公里的黑沟山城(又称红庙子山城)为沸流国空间范围的观点⁴⁷⁾。而且在黑沟山城一带发现有石棚和高句丽初期的积石墓群，这一点进一步支持了上述观点⁴⁸⁾。最近为止，大部分中国学者们都把这一山城视为沸流国王城⁴⁹⁾。最近还有人主张卒本夫余的位置为通化县下龙头龙岗遗址，朱蒙庙则是通化县土珠子祭祀遗址，而沸流国的地理位置是卒本川上流通化市王八脖子遗址⁵⁰⁾。但是若要考虑前已述的地理状况来看，把海拔高达700米的山城比定为沸流国的王城，而且其位置在距离上偏远等等存在很大的问题。

中国学界对高句丽初期都城的研究过程中出现的最大的问题是没有参考《东明王篇》引《旧三国史》的内容，因此在空间结构研究方面表露出其局限性，所以在正确理解沸流国的历史性质方面也出现了问题⁵¹⁾。有

47) 抚顺市博物馆、佟达、张正岩：〈辽宁省新宾县黑沟高句丽早期山城〉，《文物》，1985年2期。

48) 孙进己、王绵厚：《东北历史地理》1卷，黑龙江人民出版社，第262页，1988年；孙进己：〈高句丽王国的都城〉，《东北民族史研究》1，中州古籍出版社1994年。

49)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第94页，2002年。

50) 王丛安、王俊辉、赵金付：〈沸流王故地在桓仁〉，《东北史地》，2006年2期。

些学者提出了霸王朝山城为沸流国的观点⁵²⁾，最近又提出通化地区的赤柏松古城为沸流国的主张⁵³⁾，但是这些古城都不是平原城，而是山城，所以很难比定为沸流国的松让都城。

2. 沸流国位置的比定

若要符合沸流国的位置条件，则需要如下四个方面的地理特点。

- ① 位于流经纥升骨城(五女山山城)和卒本夫余(高丽墓子村一带)的沸流水上游。
- ② 朱蒙=西国之王，因此位于纥升骨城(五女山山城)以东。
- ③ 从松让+都、多勿+都来看，修有都=城。
- ④ 是被洪水淹没的江边的平原城。

最近有人提出了沸流水为今富尔江，而不是指浑江，沸流国的位置在富尔江上流桓仁县拐磨子镇102国道和富尔江交接的古城子村一带的观点⁵⁴⁾。但是至今还没有对这一带进行考古调查发掘，所以很难

51) 中国学界关于高句丽早期遗迹的理解方面，只有下面资料引用了《东明王篇》中的内容，但并没有达到完全理解的程度。即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编写的《五女山城—1996~1999、2003年桓仁五女山山城调查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4年)一书。

52) 方起东：〈吉林辑安霸王朝山城〉，《考古》，1962年11期。

53) 高于茂：〈沸流国探秘〉，《东北史地》，第62页，2004年3期。

54) 王丛安、王俊辉、赵金付：〈沸流王故地在桓仁〉，《东北史地》，2006年2期。



图. 1933年拍摄, 比例为10万分之一富尔江与浑江合流处, 所标出的弯龙背右方方框内为被淹没的喇哈城位置。

做出进一步的确定。笔者认为, 考虑以上诸多条件来看, 被许多学者比定为卒本城的喇哈城⁵⁵⁾最具有符合沸流国的条件。

关于喇哈城的最早记载是见于1909年出版的《怀仁县志》(地理志, 古

55) 纪飞、王丛安:〈话说喇哈城〉,《桓仁县报》,2006年3月7日。

迹，喇哈城)⁵⁶⁾。此城位于北甸子乡弯龙背村第一村民组东江脸下方的小平原，而且通过调查在此地发现了城址⁵⁷⁾。2003年春，桓仁县文物管理所对此地区进行了试掘，通过试掘在此地确认有长85m的围墙基地。此后于2004年当地史学者们对喇哈城进行了调查⁵⁸⁾，在2006年再次进行调查。通过这些调查内容来看，喇哈城周围地区分布有古道渡口、古道、古墓葬、采石场等遗址⁵⁹⁾。因此，喇哈城为沸流国的可能性最大。

另一方面，这一地区在琉璃王迁都国内以后，被认为是涓奴部，即涓奴部势力的据点⁶⁰⁾。到了渤海时期被编入为淶州⁶¹⁾。

所以，更具体的内容则通过对喇哈城或古城村的考古调查后，需要进一步的确认。

56) 王俊辉、梁志龙：〈北甸子寻古〉，《桓仁县报》，2004年6月7日。

57) 王丛安、纪飞：〈卒本城何在〉，《东北史地》，2004年2期。

58) 王俊辉、梁志龙：〈北甸子寻古〉，《桓仁县报》，2004年6月7日。

59) 纪飞、王丛安：〈话说喇哈城〉，《桓仁县报》，2006年3月7日。

60) 《三国志》卷30，魏书30，乌丸鲜卑东夷传30，高句丽：“伯固死有二子，长子拔奇，小子伊夷模。拔奇不肖，国人便共立伊夷模为王。自伯固时，数寇辽东，又受亡胡五百余家。建安中，公孙康出军击之，破其国，焚烧邑落。拔奇怨为兄而不得立，与涓奴加各将下户三万余口，诣康降，还住沸流水”。

61) 《辽史》38，地理志2，东京道，淶州：“正州，本沸流王故地，因为公孙康所并，渤海置沸流郡。有沸流水，户五百，隶淶州。在西北三百八十里，统县”。

3. 松让王沸流国的性质

关于松让王的沸流国《后汉书》记为消奴部，《三国志》记为涓奴部，而在《三国史记》中则以松让国的词语出现⁶²⁾。因此与其说是松让人名，不如说是一个地域政治体的称谓。对此可理解为：冠有沸流水的称谓指的是沸流国，而强调松让(=消奴)地区，并以此表现松让王。也就是说所谓“松让”意味着“让=壤”，而在消奴部“奴(=内=那)”意味着土地，两者互有相连；而“松”与“消”则是音像词，两者同样也相连。另一方面，关于沸流国的名称，众所周知，百济的建国始祖记录中出现温祚和沸流人名。若要考虑这种国名和人名相混用的事例，那么所谓“松让”的名称也很可能是对某一政治体的称谓⁶³⁾。

对沸流国的系统，有些人把“复旧土(=多勿都)”理解为朱蒙“恢复了故地”，进而认为是属于夫余系统⁶⁴⁾。但是这一系统的始祖意识与朱蒙不同，所以是否属于夫余系统的问题，需要进一步的探讨。而下面列举的史料可以提供区分系统意识的可能性。

62) 《三国史记》卷37，杂志6，地理：“三国有名未详地分松让国。”

63) 赵法钟：〈高句丽社会的檀君认识与宗教文化的特征—以与苏涂文化的关联性为中心〉，《韩国古代史研究》21，韩国古代史学会，2001年；赵法钟：《古朝鲜、高句丽史研究》，新书苑，2006年。

64) 杨军：〈高句丽五部研究〉，《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第81~86页，2001年4期。

- G-1. 本有五族 …… 本涓奴部为王，稍微弱，今桂娄部代之。…… 涓奴部本国主，今虽不为王，适统大人，得称古邹加，亦得立宗庙、灵星、社稷。(《三国志》30，魏书30，乌丸鲜卑东夷传30，高句丽)
2. 沸流王松让出猎，见王容貌非常，引而与坐曰：……王曰：“寡人天帝之孙，西国之王也”。…… 让曰：“予是仙人之后，累世为王，今地方至小，不可分为两王”。(《东国李相国集》卷3，东明王篇)
3. 东明本纪曰：“沸流王松让谓曰：‘予以仙人之后，累世为王，今君造国日浅，为我附庸可乎？’则此亦疑檀君之后也。(《帝王韵纪》下，东国君王年代)

通过史料G-1可知，涓奴部(=涓奴部)另有宗庙和社稷，说明涓奴部的始祖意识中没有如同朱蒙桂娄部“东明”的始祖意识。史料G-2中松让王标榜自己为仙人之后，表现出其始祖是为仙人，也具有不同的始祖意识。史料G-3中提出把此仙人视为檀君的观点。特别是在汉字中“仙”之义为“迂”，意味着“入山”。因此造“仙”字时，“在‘人’字边加了‘山’字”⁶⁵⁾。《史记》封禅书解释仙人为滞留于天上世界的神仙在深山幽谷中修行道术的一种存在，反映了“仙”之内涵具有要比天空更重视地上的山岳之意⁶⁶⁾。从而可知，仙人的含义指的是在山岳中不老长生的一种存在⁶⁷⁾。

65) 刘熙：〈释名〉，《释长幼编》。

66) 福永光司：《道教思想史研究》，岩波书店，第480~481页，1987年。

67) 赵法钟：〈花郎相关用语的探讨—与中国神仙思想的相关性为中心〉，《花郎

这种情况反映出与檀君神话很类似的性质。也就是说，檀君王俭出生于具有山神性质的熊女与天帝之子桓雄之间，后来成为了阿斯达山神⁶⁸⁾，这一点与仙人的含义有着联系，而且正因为如此，檀君的性质被表现为仙人是很自然的。所以把G-3中记有的仙人作为檀君的主张是具有很重要的意义，反映了被高句丽所包容的以沸流国松让王为代表的消奴部性质是具有檀君始祖意识的集团。

V. 结论

本文通过探讨与高句丽初期都城相关的文献记载和历史遗址，欲要确认初期都城的空间状况和高句丽建国之前已经存在的政治体——卒本夫余、纥升骨城、沸流国的实体。卒本川是指今桓仁县中心地区的浑江，而沸流水则包括富尔江和与浑江合流后的浑江流域。纥升骨城是指现今的五女山城，而最符合于卒本夫余的地理位置是高丽墓子村。与此相关，既是东明王的升天之地，又是东明庙的所在地，即始祖庙的所在地龙山是指高丽墓子村周围的东边某山，而最符合琉璃王鹞川离宫的遗址是下古城子古城(平原城)。而且本文中提出了松让王的沸流国都城为喇哈城的观点。若要符合沸流国城的条件，则必需具备如下三种前提；一是位于纥升骨城的上流，二是位于富尔江和浑

新研究》，庆尚北道，第422页，1995年。

68)《三国遗事》卷1，纪异1，古朝鲜：“坛君乃移于藏唐京，后还隐于阿斯达为山神，寿一千九百八岁”。

江江边，三是平地城。因为在高句丽初期遗址中，只有喇哈城最能符合或满足此三个条件，而且从周边地区的古道和古渡津遗址的分布来看，进一步确认此地从古开始为交通的联结点，也是重要据点。

另一方面，本文阐述了在高句丽社会不仅有北夫余系统的朱蒙势力，而且也有标榜仙人之孙的松让王势力，而他们是以高句丽的前王族消奴部的身份维持其势力的，并拥有与朱蒙系统不同的始祖意识体系和祭祀体系，从而强调要从新的角度理解高句丽的社会性质⁶⁹⁾。基于这种认识可以确认，在高句丽社会内部存在属于古朝鲜系统的势力，而沸流国松让王正是这种势力集团的代表，从而也可以确认高句丽的古朝鲜继承性。

69) 赵法钟：同前书，2001年；赵法钟：《古朝鲜、高句丽史研究》，新书苑，2006年。



PHILOSOPH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초기 도성과 천이

—
高句麗의 早期都城及遷徙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신취안 | 李新全



THE HOLOCAUST CENT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초기 도성과 천이

- 리신취안 (중국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연구원)
-

고구려의 초기 도성은 국내외 학자들이 1세기의 노력을 거쳐 대부분 오늘날의 중국 요령성(遼寧省) 동부산구에 자리하고 있는 환인현(桓仁縣)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보고 있다.¹⁾ 우월한 지리환경, 풍부한 자연자원은 오녀산 부근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에 적합한 이상적인 주거지역으로

1) 劉永智(1981), 「고구려 초기유적 오녀산성조사」, 『조선사통신』 제3집 ; 劉永智(1994), 「고구려, 발해연구집성·고구려권 3」, 할빈출판사, 1~6쪽 ; 王承禮(1984), 「길림·요령의 고구려유적」, 『고고와 문물』 ; 王健群(1984), 「호태왕비연구」, 길림인민출판사, 204쪽 ; 魏存成(1985), 「고구려 초, 중기의 도성」, 『북방문물』 ; 郭俊武(1985), 「紇昇骨城初探」, 『요령성 본계, 단동지역 고고학술토론회문집』 ; 譚其驥(1988) 주편, 『중국역사지도집 석문회편 동북권』, 중앙민족학원출판사, 30쪽 ; 孫進己·王綿厚 주편(1989), 『동북역사지리 제1권』, 흑룡강인민출판사, 264쪽 ; 李殿福·孫玉良(1990), 「고구려의 도성」, 『박물관연구』 제1기.

만들었다. 고구려 민족은 바로 이곳에서 쫓겨하였으며 또 이곳에서부터 동북아시아의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녀산성은 고구려가 건국하여 세운 첫 도읍이며 고구려 민족의 초기 활동중심지이고 고구려 정권의 발상지로서 오늘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고구려 초기 유적, 유물들이 널려 있다.²⁾

I. 오녀산성의 개황

오녀산성은 요령성 본계시(本溪市) 환인현 현성에서 동북쪽으로 8.5km 떨어진 오녀산 위에 위치해 있는데 혼강(渾江)이 산의 동남쪽을 굽이쳐 흘러 지난다. 산 아래 동남쪽에는 현재 요령성 경내에서 제일 큰 댐인 환인저수지가 건설되어 있다. 산의 동북쪽은 대동구촌(大東溝村)이고 서쪽은 유가구촌(劉家溝村)이다. 혼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이강강구(富爾江江口)와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에 이르게 되며 강을 따라 내려가면 압록강의 물길과 마주한다. 지금 대련(大連), 단둥(丹東)에서 통화(通化), 집안(集安)으로 통하는 도로, 요양(遼陽), 본계(本溪)에서 통화, 집안으로 통하는 도로, 심양(沈陽), 무순(撫順)에서 통화, 집안으로 통하는 도로가 모두 이 산 아래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을 경유하고 있다. 오녀산성은 수륙교통의 요지를 장악하고 있어 그

2) 李新全(2000), 「고고발견으로부터 오녀산성의 시대와 성격을 논함」, 『동북지역의 1세기부터 10세기 고대문화학술토론회』; 李新全(2003), 「고구려 초기의 도성에 대한 고찰」, 『요령고고문집』, 요령민족출판사, 254~262쪽; 李新全(2005), 「오녀산성 및 그 부근의 고구려 초기 유적」, 『고구려 문화의 역사의의』, 고구려연구재단·중국사회과학원.

위치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1996~1999년, 2003년에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와 본계시박물관(本溪市博物館), 환인현문관소(桓仁縣文管所)에서는 산성 전체에 대해 대규모적인 조사, 측회(測繪) 및 발굴을 하였다.

오녀산성의 평면은 대체로 화형(靴形)처럼 생겼다. 오녀산성의 남북 길이는 1,540m, 동서 너비는 350~550m이고, 둘레의 길이는 4,754m이며, 면적은 60만 m²이다. 산성은 해발고도가 640~820m되는 오녀산 위에 쌓여져 있다. 산성의 성벽은 거의 모두가 천연적인 험요한 절벽과 산등성이들을 이용하여 병풍으로 하고 동남쪽 산골짜기의 산세가 좀 완만한 곳만 둘로 성벽을 쌓아 막아놓았다.

산성은 산 위와 산 아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산 윗부분은 오녀산의 주봉(主峰)으로 해발고도가 800m쯤 된다. 오녀산의 주봉은 산의 중턱쯤 되는 곳에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면이 모두 도끼와 칼로 깎아 만든 듯이 험한 낭떠러지이다. 그 높이는 약 100m쯤 되는데 산세가 아찔하고도 험준해 보인다. 산꼭대기의 지세는 평탄하고 널찍한데 남북 길이는 약 600m쯤 되고 동서너비는 110~200m이며 면적은 9만 m²이다. 산성 안의 주요 유적들은 대부분 산 윗부분에 분포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생활하던 주요한 구역으로 보인다. 주요 유적들로는 1호 대형건축지, 2호 대형건축지, 3호 대형건축지, 병영유지, 초소유지, 거주지, 저수지, 망대, 서문, 1호 방어성벽, 2호 방어성벽 등이 있다.

산 아랫부분은 산성의 동쪽, 북쪽과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이 완만한 비탈들이지만 유적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요 유적들로는 남쪽 성벽과 남문, 동쪽 성벽과 동문, 초소유지 등이다.

1. 성안의 주요 유적

1) 성벽

성벽의 짜임새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천연 성벽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으로 쌓은 성벽이다. 천연 성벽이란 바로 산과 산 사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혹은 두드러져 나온 산등성이와 산마루 등을 직접 이용하여 병풍으로 삼은 것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연형태에 따라 천연 성벽을 낭떠러지 성벽과 산등성이 성벽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공 성벽이란 사람의 힘으로 쌓은 성벽을 가리킨다. 오녀산성의 인공 성벽은 모두 돌로 쌓았지만 일부 구간의 내벽과 꼭대기 부분에는 흙을 북돋아주었다. 산성의 성벽 대부분은 천연 성벽이지만 산 아래의 동쪽, 남쪽의 산세가 조금 완만한 곳과 산 위의 중요한 돌린 골 활구(豁口)에는 인공 성벽을 쌓아놓았다. 성벽 둘레의 길이는 4,754m이다. 그중 천연 성벽의 전체 길이는 4,189m인데 성벽 전체 길이의 약 88%를 차지한다. 인공성벽의 전체 길이는 565m인데 성벽 전체 길이의 약 12%밖에 되지 않는다.

① 남쪽 성벽

전체 길이는 424m이며 그 평면은 대체로 ‘ㄱ’자[절척(折尺)]형태이다. 남쪽 성벽은 산 윗부분의 서남쪽 모퉁이에서 시작되어 산 아랫부분의 남쪽 성문의 서쪽에서 끝나는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천연 성벽 두 구간과 인공 성벽 두 구간으로 서로 교체하면서 구성되었다.

② 동쪽 성벽

전체 길이는 1,847m이며 안으로 휘 형태이다. 동쪽 성벽은 남쪽 성문의 동쪽에서 시작되어 북쪽의 절벽에 이르러서는 다시 서쪽으로 꺾어드는 곳

까지인데 모두 6개 구간의 천연 성벽과 6개 구간의 인공 성벽으로 이루어졌다. 인공 성벽은 주로 비교적 가파른 비탈지대와 골짜기 입구에 쌓여 있고 천연 성벽은 모두 수직으로 된 험요한 절벽들이다.

③ 북쪽 성벽

전체 길이는 475m이며 모두 천연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평면형태는 안으로 휘 형태이다. 동쪽 성벽의 북쪽 끝에서 시작되어 절벽을 따라 서북쪽으로 꺾어들어 약 65m쯤 가다가 다시 구불구불한 한 갈래 산등성이를 타고 가는데 둥근 형태를 이루며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다가 두드러져 나온 한 산봉우리에 이른다. 산마루는 바깥이 가파르고 안쪽이 완만하다. 그 밖에 약 50~100m 되는 곳에 한 갈래의 서북-동남으로 된 절벽이 있다.

④ 서쪽 성벽

전체 길이는 2,008m이다. 서쪽 성문 부근에 있는 아주 짧은 인공 성벽 외에는 모두 천연 성벽들로 구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불규칙적인 둔각모양이다. 성벽은 북쪽 끝의 작은 산에서 시작되어 산꼭대기의 서남쪽 모서리에 까지 이르게 된다. 성벽은 부동한 자연형태와 그 산세에 따라 대체로 4개 구간으로 나뉜다.

2) 성문

산성에는 세 개의 성문이 있는데 바로 남문, 동문과 서문이다. 그중에서 남문과 동문은 산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고 서문은 산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남문은 전체 산성의 동남쪽 귀퉁이에 있는데 너비가 약 2.3m쯤 된다. 그 서쪽은 남쪽 성벽의 종점이고 동쪽은 낙차(落差)가 약 10~20m쯤 되는 낭떠러지이다. 남문 밖에는 한 갈래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남문을 드나들려면 반드시 남쪽 성벽 밖 산골짜기 북쪽 기슭의 마도(馬道)를 경과해야만 하는데

너비가 2m 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은 산세가 험요하고 위에서 아래를 굽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동문은 남문에서 북쪽으로 약 15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된 동쪽 성벽의 인공성벽 첫 번째 구간에서 밖으로 4m 떨어진 곳에 이 구간의 성벽 벽체와 수직이 되도록 성벽을 쌓아 성문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 너비가 약 4m되는 문도(門道)를 남겨놓았다. 동문의 동쪽 벽체는 약 20m쯤 쌓여진 뒤 다시 북쪽으로 꺾인다. 꺾인 곳은 원각을 이루고 있다. 동문으로부터 성을 빠져 나오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혼강 강변으로 통한다. 입성(入城)은 환성마도(環城馬道)와 연결되어 있어 남문 및 성 안의 북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서쪽으로 가면 한 갈래의 길이 성 안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통하여 서문과도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서문은 주봉의 서쪽 중간에 위치한 한 터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문도의 너비는 약 3m이고 문계(門階)와 문주문추초(門柱門樞礎)가 수축되어 있으며 성문 안쪽의 좌우에는 문위실(門衛室)이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성문의 남, 북 양쪽은 성벽을 쌓아 봉하였다.

3) 축수지(蓄水池)

저수지는 성 안의 산 윗부분의 중부에서 서쪽으로 좀 치우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산 윗부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산 바위를 쪼아 파서 만든 것이다. 그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길이는 12m이고 너비는 5m이며 깊이는 1.1~2m이다. 저수지의 변두리에는 돌로 낮은 흙막이담장을 쌓아놓았다. 저수지의 서벽 중간에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있다. 그 밖에는 큰 구덩이를 파서 저수지에서 넘쳐흐르는 물을 받게 하였다.

4) 1호 대형건축지

1호 대형건축지는 산 윗부분에서 북쪽으로 좀 치우친 곳에 자리하고 있다. 편호(編號)는 J1이며 지금은 주춧돌 6개와 주춧돌 구덩이 1개가 남아 있다. 이것은 원래 이곳에 주춧돌이 7개가 있었다는 것을 표명한다. 주춧돌은 서북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주춧돌에서 북쪽으로 5m 떨어진 곳에는 흙더미가 한 곳 있으며 흙더미 아래는 암석이다. 주춧돌과 흙더미 사이는 평탄한 지면인데 밟아 다져 딱딱하게 굳어 있다. 건물터 안의 지면에서 ‘오수(五銖)’, ‘대천오십(大泉五十)’ 동전이 출토되었다. 이것을 이 시기의 재구덩이와 건물터 안에서 출토된 세로 달린 귀항아리의 특징과 결부해보면 그 연대가 고구려 초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2호 대형건축지

2호 대형건축지는 망대북쪽의 건축군터와 저수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번호는 J2이다. 이곳은 지세가 낮은 우묵한 땅이며 동남쪽은 흙 둔덕이고 북쪽은 평탄한 산지이다. 반지혈식건축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남북 길이는 24.5m이고 동서 너비는 16m이며 깊이는 0.3~1.4m이다. 유적의 밑바닥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남쪽, 서쪽, 북쪽 세 벽은 설형석(楔形石)으로 축조되었다. 동쪽은 지세가 높은 특징을 이용하여 흙 둔덕을 파 만들었다. 돌로 된 벽은 안팎 두 겹으로 되었으며 그 사이에는 도랑이 있다. 서쪽은 지세가 낮아 제일 높게 4층으로 된 설형석이 쌓여져 있다. 남, 북 양쪽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지세가 높아짐에 따라 설형석을 쌓은 층수가 점점 적어진다. 이 건축의 서쪽 벽에서 밖으로 4m 떨어진 곳으로부터 흙으로 된 둔덕이 한 곳 시작되는데 둔덕은 느슨한 등성이 형태(만강장(漫崗狀))를 하고 있다. 밑바닥의 너비는 약 4~5m쯤 되며 안쪽의 높이는 1m이고 바깥쪽의

높이는 2m이다. 이 둔덕[토릉(土楞)]은 건물유적에서 파낸 흙을 쌓아 만든 것이다.

6) 3호 대형건축지

3호 대형건축지는 성 안의 산 윗부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으로 망대와 약 120m 떨어져 있으며 인공으로 고른 평대(平臺)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번호는 J3이다. 인공으로 고른 평대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로 나뉜다. 큰 평대는 동쪽에 자리하고 작은 평대는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평대는 큰 평대보다 0.2m 낮다. 두 평대의 앞 부분은 만과장(漫坡狀)이다. 평대 앞의 지표(地表)보다는 0.4~0.6m 높다. J3 건물터의 주요한 부분은 모두 큰 평대 위에 위치해 있다. 주춧돌은 모두 세 줄로 서북-동남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지금 매 줄에 남아 있는 주춧돌은 9~11개이며 가로 간 길이(橫向間距)는 1.4~2.4m이고 세로 간 길이(縱向間距)는 1.4~1.7m이다. 주춧돌은 대부분 자연석인데 서로 크기가 같지 않다. 일부 주춧돌의 아랫 면 및 그 주 위에는 작은 돌들이 보충되어 받쳐져 초석권(礎石圈)이 형성되어 있다. 그 길이는 보통 20~80cm이고, 너비는 15~20cm이며, 두께는 8~20cm이다. 일부 주춧돌들은 소열(酥裂)되어 있는데 불에 타서 인기된 것 같다. 지면의 어떤 곳에는 두께가 약 1cm 안팎의 검은색 재구덩이가 남아 있으며 재위에는 홍소토괴(紅燒土塊)들이 많이 널려 있고 그 위에는 목봉(木棒) 혹은 목조(木條)의 인흔(印痕)이 있다. J3의 길이는 20m이고 너비는 9.5m이다. 작은 평대 위에 평평하게 깔았거나 절반쯤 파묻힌 주춧돌들이 있는 것을 보아 이 건물은 웅당 J3의 부속건축으로 보인다. 큰 평대와 작은 평대의 서남쪽은 높이가 약 4m쯤 되는 절벽이다. 절벽 아래에는 한 갈래의 자연황토방(自然黃土塋)이 있다. 이 둔덕 위에서 집터 2기가 발견되었다.

7) I유형의 집터(병영)

I유형의 집터는 점장대(點將臺)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서 모두 20기의 집터를 발견하였다. 집터는 모두 방형(方形) 혹은 장방형(長方形)에 가까운 반지혈식인데 길이는 대체로 4.5m이고 너비는 4m이다. 집터 안에는 ‘ㄱ’자형의 온돌이 구축되어 있는데 1~3줄의 방고래[연도(煙道)]가 설치되어 있다. 온돌의 한쪽 끝은 부뚜막(灶)과 다른 한쪽 끝은 굴뚝과 연결되어 있다. 집터 안에서 질그릇, 철기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철족(鐵鍬)과 철갑편(鐵甲片)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군사시설의 성격이 아주 짙은 유적임을 시사한다.

8) II유형의 집터(초소)

초소(哨所)유적은 산성 안의 산 위와 산 아래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데 산성 방어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산 위의 초소유적은 주로 산 어귀 및 그 부근에 위치해 있고 산 아래의 초소유적은 주로 동쪽 성벽 연선의 골짜기 어귀의 양측 및 성벽에 가까운 산지에 위치해 있다. 동쪽 성벽 연선의 골짜기 어귀의 양측에는 모두 밖으로 내뺀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자연적인 ‘마면(馬面)’과 같았다. 망을 보고 골짜기 어귀를 공제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소는 모두 이러한 독특한 지리형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대부분 이러한 큰 바위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초소는 반지혈식 건축이며 안에 온돌시설이 있다. 발굴 전의 지표에 노출된 유적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약간 안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흙구덩이 상태였다. 일부 초소는 외딴 1채로만 되어 있고 일부 초소는 또 2~3채가 서로 한 조가 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다.

9) 망대

망대를 보통 점장대라고 부른다. 망대는 성 안의 산 윗부분의 동남쪽 귀퉁이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산 위 통제고지이며 동쪽, 남쪽, 동북쪽, 서남쪽의 4개 방향의 망을 보는 데 제일 훌륭한 지점이었다. 그 길이는 17m이고 너비는 15m이다. 망대 아래에는 성 둘레를 따라 만든 마도와 남쪽 성문이 있다. 먼 곳에는 혼강골짜기길[혼강곡도(渾江谷道)]이 있다. 망대 위에 올라 서면 위에서부터 아래를 굽어 살펴볼 수 있고 아무 곳이나 막힘이 없이 모두 내다볼 수 있다.

2. 산 윗부분의 발굴

산성 안에서 모두 5개 구역을 발굴했는데 모두 산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각각 I구역, II구역, III구역, IV구역이라는 번호를 붙였다. 발굴을 통하여 도합 5개 시기의 문화층들이 발견되었는데 질그릇, 석기, 자기, 청동기, 철기, 은제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물들이 1,000여 점 남짓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제3기 문화는 고구려 초기의 문화층유존이다.

제3기 문화유존은 J1, F47, H5, H10을 그 대표로 한다. 집터는 둥근 모양의 반지혈식과 장방형의 지면건축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재구덩이는 원형 혹은 타원형인데 깊이는 낮은 편이다. 구덩이 안에는 흑, 회색의 흙들이 쌓여 있으며 풀과 나무로 된 숯, 탄화알갱이, 붉게 탄 흙 알갱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질그릇이다. 토질은 모두 곱돌이 섞인 사질 회갈색과 황갈색 질그릇이며 그릇 표면은 갈아서 윤기가 나게 했다. 그릇은 분(盆), 수이관(豎耳罐), 절연관(折沿罐), 횡이호(橫耳壺), 단파배(單把盃) 등이 있다. 질그릇들은 언저리가 꺾어지고 아가리가 크며 입술이 네모나고 목

이 좁고 바닥이 작고도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세로로 달린 손잡이가 성행하였지만 소량의 가로로 달린 손잡이와 납작한 기둥모양의 손잡이도 있었다.

J1에서 출토된 ‘오수’, ‘대천오십’ 동전과 이 시기의 재구덩이 및 집터 안에서 출토된 세로 달린 손잡이 항아리 등 질그릇의 특징을 종합해 고찰하면 그 연대를 양한(兩漢)시기로 볼 수 있다.³⁾

다년간 국내외의 수많은 학자들이 문헌기록과 고고학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오녀산성을 고구려의 건국 초기의 도성으로 고증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에서 문헌의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또 추기(追記)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또한 고고학 조사 자료가 너무 빈약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줄곧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몇 년에 걸쳐 얻어낸 오녀산 조사발굴 자료 및 이와 연관이 있었던 이전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를 근거로, 또 이를 문헌의 기록과 결부해보면 오녀산성이 바로 고구려 건국 초기의 도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첫째, 오녀산성 산 윗부분의 해발고도는 800m 안팎이며, 사면은 모두 가파른 낭떠러지로서 높이가 약 100m나 되어 보기만 해도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산 위는 비교적 평탄하고 광활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적합하다. 산 위에는 또 저수지, 망대 등 군사와 생활시설들이 있다. 산 위의 망대에 올라서면 오녀산 주위의 산과 물, 오고 가는 행인 등의 정황을 속속들이 굽어 볼 수 있어 마치 높은 곳에 군림하여 아래에 있는 아무 곳이나 막힘 없이 굽어보는 기세를 띄고 있다. 산꼭대기는 단지 세 곳의 터진 곳(豁口)으로만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몹시 가파르고도 험준하여

3)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2004), 『오녀산성』, 문물출판사.

공격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쉬운 천연 군사요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꼭대기의 중심부근에서 북쪽으로 좀 치우친 곳에서 고구려 초기의 큰 건물터 J1을 발견하였다. J1의 방향은 얼굴은 남쪽을 향하고 등은 북쪽에 돌리고 바람을 피해 양지 바른쪽을 향하고 있으며 천지와 약 100m 안팎의 거리를 사이 두고 있어 물을 마시는데 아주 편리하다. 이 건축지는 좋은 위치와 큰 규모가 산 위에서 발견된 같은 시기의 다른 건물터들에 비길 바도 안 된다. 이것은 J1이 비교적 높은 등급의 건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산꼭대기에서 고구려 초기의 유적과 유물들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이미 발굴을 거친 5개 구역 가운데서 고구려 초기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3개 구역이나 된다.

넷째, 고구려 초기의 도성을 천연적인 군사보루인 오녀산성의 산 윗부분이라고 보는 비정은 문헌의 기록에 부합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시조 동명성왕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주몽은 모둔곡(『위서』에는 보솔수에 이르렀다 함)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 ……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 토양이 비옥하고 산과 강이 험고함을 보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려 하였는데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단지 비류수가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거처하였다(朱蒙行至毛屯谷『魏書』云：“至普述水”，遇三人……與之俱至卒本川『魏書』云：“至紇升骨城”。觀其土壤肥美，山河險固，遂欲都焉。而未遑作宮室，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오녀산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바로 ‘산하험고(山河險固)한 천연 군사요새와 같다하여 이곳은 처음으로 당도하여 발을 붙이고 건국의 틀을 잡아 위업을 펼치려 하였던 주몽 등 통치자들이 집을 짓고 거처하는데 아주 적합하였던 곳이다.

오녀산성의 산 아랫부분의 성벽구축 특징으로부터 볼 때 성벽을 쌓은 연대가 대체로 위(魏), 진(晉) 시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가 산 아래의 성벽에 대해 자세한 정리발굴을 할 때 발견하였던 질그릇의 연대와도 서로 부합된다. 그러나 이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건국연대와는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산꼭대기에서 발견된 고구려 초기, 즉 오녀산 제3기 문화층의 연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남아 있는 오녀산성의 성벽은 고구려 건국 초기에 쌓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쌓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녀산성이 산 위와 산 아래 두 개 부분으로 나뉘는 것은 지형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사용연대 상에서의 차이에서도 기인된 것이라고 보인다.

다섯째, 오녀산의 산꼭대기부분을 고구려 초기의 도성이라고 명백히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단지 통치자들만 생활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고 면적이 작으며 사람들의 오르내림과 운수에 불편하여 도성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 복무하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많은 봉사인원들과 일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현지 고찰을 거쳐 환인현 현성 부근의 오녀산 아래에 있는 혼강곡지(渾江谷地)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혼강은 길림으로부터 요령의 환인 경내에 흘러온 후 굴곡적으로 굽이쳐 구곡회장(九曲回腸)의 기세를 내며 흘러가다가 오녀산 부근에서 합달하(哈達河), 육도하(六道河), 아하(雅河) 등 비교적 큰 지류들과 합수하여 험산준령에서 비교적 면적이 광활한 충적평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하곡충적평원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에 아주 적합하였다. 물 흐름길이 구불구불하고 물 흐름이 유유하여 어류의 성장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에도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른바 “흔히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들판과 진떨이 없다”고 하는 고구려의 생활구역 안에서 가히 “토지가 기름지고 아름답다”고 이를

수 있는 농사와 고기잡이에 모두 적합한 어미지향(魚米之鄉)인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환인담을 쌓을 때 고고사업조사단은 이곳에서 수많은 옛 유적과 고구려시기의 적석고분군들을 조사, 발견하였다. 이는 이곳이 확실히 고구려 초기의 활동 중심구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⁴⁾

특히 주목할 것은 1950년대 말과 1990년대 중기에 고고사업조사단이 오녀산 아래와 혼강 동쪽 기슭의 고력묘자(高力墓子)고분군에 대해 발굴을 진행하였는데 발굴자들이 모두 이 묘지와 오녀산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다.⁵⁾ 발굴된 고분형태는 고구려의 계장적석석곽관묘(階牆積石石壙串墓)에 속하는 것인데 연구자들은 이것을 고구려의 적석고분에서도 제일 이른 형태라고 주장한다.⁶⁾ 이러한 유형의 고분에서 출토된 질그릇들은 대부분 모래가 섞인 홍갈색 혹은 황갈색의 질그릇이며 굽는 불의 온도가 높지 않고 그릇의 생김새는 불규칙적이고도 정연하지 못하다. 기물의 특징으로는 입술이 네모나며 언저리가 ‘ㄱ’자형이고 목이 좁은 편이고 바닥이 평평해 서한 말부터 동한 초기 질그릇의 풍격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무덤연대는 기원전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주의할 것으로는 위에서 서술한 무덤들에서 출토된 질그릇과 오녀산 산꼭대기에서 발견된 고구려 초기 즉 오녀산 제3기 문화층의 질그릇들

4) 陳大爲(1960), 「환인현고고조사발굴간보」, 『고고』 제1기.

5) 陳大爲(1960), 위의 글;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1998), 「요령환인현고려묘자고구려적석묘」, 『고고』 제3기.

6) 孫仁杰(1993), 「고구려적석연접묘연구」, 『고구려연구문집』, 연변대학출판사; 柳嵐(2004), 「고구려적석연접묘연구」, 『박물관연구』 제4기.

이 그 품질, 색깔, 생김새 풍격 등에 있어서 모두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오녀산의 산꼭대기를 고구려 초기의 도성으로 보고 오녀산 아래에 있는 혼강곡지를 ‘졸본’, ‘홀본’이라고 비정하는 유력한 증거인 것이다.

여섯째, 오녀산 아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되는 곳의 하고성자촌(下古城子村)에서 고구려 초기의 평지성을 발견하였다. 이곳에서 늘 고구려시기의 질그릇, 철족(鐵鍬), 환수철도(環首鐵刀) 등 유물들이 출토된다. 조사단에 의하면 그 시대를 이르게는 고구려의 초기로 잡을 수 있다고 한다. 하고성자촌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상고성자촌(上古城子村) 부근에는 상고성자고분군이 있는데 모두 고구려의 적석연접묘와 방단적석묘이다. 그 연대의 상선도 이르게는 기원전후로 즉 고구려 건국초기의 것으로 본다.⁷⁾ 하고성자촌에서 동남쪽으로 2km 되는 혼강의 강가에는 망강루(望江樓)적석고분군이 있는데 발굴을 통하여 고구려 건국전후의 무덤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⁸⁾ 망강루고분군의 서남쪽에는 고구려의 초기유적인 남변석합달(南邊石哈達)유적이 있다.⁹⁾ 이 두 곳의 고분군과 하고성자성터 및 남변석합달유적의 존재가 바로 오녀산의 산꼭대기가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며 산 아래의 혼강곡지가 고구려 초기의 활동중심인 ‘졸본’, ‘홀본’이라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결국 오녀산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서 발견된 궁전 모양의 건축 및 그와 같은 시기의 수많은 문화유존들과 산 아래의 하고성자성터, 남변석합달

7) 『환인만족자치현문물지』(1990), 제2장 제2절, 제3장 제3절.

8) 梁志龍·王俊輝(1994), 「요령환인에서 청동유물이 출토된 고분 및 그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박물관연구』 제2기.

9) 『환인만족자치현문물지』(1990), 제2장 제1절.

유적, 망강루적석고분군, 고령묘자적석고분군, 상고성자적석고분군에서 출토된 질그릇의 풍격은 서로 일치하며 그 연대도 서로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녀산의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바로 고구려 정권을 건립한 자들의 최초의 활동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후세의 사람들이 호태왕비문에 추술(追述)한 바와 같이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으로 하였다”는 초기의 도성이며 오녀산 아래에서 여러 갈래의 혼강 지류들로 충적되어 이루어진 혼강곡지가 바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홀본’, ‘졸본’ 혹은 ‘졸본천’이며 또 여기에 평지성이 수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표명한다. 이 지역이 바로 고구려 민족 정권이 굴기한 땅이다.

II. 고구려 초기 도성의 천이

1. 고구려 초기 도성의 천이 시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 유리왕조에는 유리왕이 “22년 10월에 왕이 도읍을 국내로 옮기고 위나암성을 쌓았다(二十二年冬十月, 王遷都國內, 築尉那巖城)”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편년체계에 따르면 유리왕 22년은 기원후 3년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제1차 천도시기가 기원후 3년이라는 것을 표명한다.

2. 고구려 초기 도성의 천이 지점

1) 국내와 국내성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에서 유리왕이 “22년 10월에 왕이 도읍을 국

내로 옮기고 위나암성을 쌓았다(二十二年冬十月, 王遷都國內, 築尉那巖城)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주몽이 흘승골성에 도읍한 후로 40년이 지난 유리왕 22년에는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겼다(自朱蒙立都紇升骨城, 歷四十年, 孺留王二十二年移都國內城)”라고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 자체가 서로 모순됨을 알 수 있다. 국내와 국내성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렇다고 양자를 완전히 동등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유리왕은 국내로 천도한 것인가? 아니면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국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국내성’ 연관 기록으로는 고구려 고국원왕 12년(342년) “2월에 환도성을 수축(修葺)하고 또 국내성을 쌓았다(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는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국내’와 연관된 기록만 보이고 ‘국내성’과 연관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삼국사기』 「지리지」에 “국내에 도읍한 지 425년이 지났다(都國內, 歷四百二十五年)”라고 기록되어 있지, “국내성에 도읍한 지 425년이 지났다(都國內城, 歷四百二十五年)”라고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고구려가 국내로 천도할 때 아직 국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바이다.¹⁰⁾

국내는 한 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점은 『삼국사기』 유리왕 21년 조의 기사로 증명할 수 있다. “3월에 교시(郊豕)가 달아나매 왕이 희생(犧牲)

10) 李健才(2004a), 「고구려중기도성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탐구」, 『동북사지』 제1기; 李健才(2004b), 「고구려가 국내 천도 이전에 한조 현성의 존재 여부 문제에 대한 재검토」, 『동북사지』 제6기.

을 맡은 설지(薛支)로 하여금 뒤를 쫓아가게 하여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 잡았다. 그것을 국내인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였다(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厨那巖得之, 拘於國內人家養之).” 이 기록으로부터 국내는 한 개 지역을 가리키며 위나암은 국내지역에 속하고 또 위나암은 사람이 생활하지 않아서 성 밖에서 포획한 돼지를 “국내인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였다(拘於國內人家養之)”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국내에서 인가가 있던 지방이 위나암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성은 국내지역에 쌓은 한 성이다. 이에 대하여 사서에 명확한 기록이 있다. 『신당서』 「지리지」에는 “압록강 어구에서 배를 타고 500여 리를 가서 다시 작은 배로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작구에 이르는데 발해의 경계이다. 다시 물을 거슬러 500리를 가면 구[환]도현성에 이르는데 옛 고구려의 도읍이다(自鴨綠江口舟行五百餘裏, 乃小舫泝流東北三十裏至泊溝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裏, 至丸都縣紉城, 故高麗王都)”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나라의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는 “압록강은 동북의 말갈백산지역에서 발원한다. 강물의 색깔이 압두(鴨頭)와 같아서 이와 같이 속명한 것이다. 요동과는 500리 떨어져 있고 국내성의 남부를 흘러 지난다. 또 그 서쪽에서 한 갈래의 하천과 합수하게 되는데 바로 염난수(鹽難水)이다(鴨綠江, 水源出東北靺鞨白山, 水色似鴨頭, 故俗名之. 去遼東五百里, 經國內城南, 又西與一水合, 卽鹽難水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문헌기록으로부터 국내성은 압록강 강변에 있었으며 박작구와는 500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작구가 바로 고구려의 박작성 부근에 있던 하구인 것이다. 고구려의 박작성은 최근에 고고사업 조사단의 노력에 의하여 다소나마 일부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단동(丹東) 호산(虎山)에 있는 명나라 장성 부근의 호산산성(虎山山城)이라는 것이다.¹¹⁾ 이 곳에서부터 강을 거슬러 500리를 가면 곧 오늘의 집안현성에 이르게 된다.

지금 현성 안에는 확실히 옛 성터가 한 곳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국내성이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고고발견들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 있다.¹²⁾

국내성이 확정되었다면 국내성이 자리하고 있는 통구(通溝)평원 및 그 부근지역이 바로 국내라는 것이 자명하다.

2) 위나암성과 환도성(丸都城)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나암(尉那巖)은 국내지역에 속하고 유리왕이 국내로 천도할 때에 이곳에 성을 쌓은 적이 있었으며 위나암성은 유리왕이 천도한 국내라는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또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2 대무신왕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대무신왕 11년에 한나라의 요동태수가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고구려왕이 위나암성에 들어가 성을 고수하였다. 좌보(左輔) 을두지(乙豆智)가 고하기를 “漢人謂我巖石之地，無水泉，……”라고 하였다. 다음의 기록으로부터 위나암성은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집안 국내성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바로 고구려시기의 산성인 환도산성(丸都山城)이 자리하고 있다.¹³⁾ 일부 학자들이 ‘환’을 ‘위나암(尉那巖)’의 음전(音轉) 혹은 음변(音變)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지 못한 해석이다. 이것은 한어로 고구려의 언어를 기록할 때

11) 任鴻魁(1994), 「泊州城方位考述」, 『遼海文物學刊』 제2기.

12) 집안현문물보호관리소(1984), 「집안 고구려 국내성터의 조사와 시굴」, 『문물』 제1기;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2004), 「국내성-2000~2003년 집안 국내성과 민주유적시굴보고」, 문물출판사.

13) 李殿福(1981), 「고구려의 환도성」, 『문물』 제6기.

에 그 음을 급히 읽을 경우와 천천히 읽을 경우가 다름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아진다. ‘위나암’을 급히 읽으면 ‘환’이 된다.

환도성은 이미 문헌기록과 고고발견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집안현성부근의 환도산성이다. 산성 서북쪽의 소판차령(小板岔嶺)에 서는 관구검기공비(桓丘儉記公碑)가 발견되었으며¹⁴⁾ 성 안에서는 발굴을 통하여 고구려 중기의 대형 궁전건축터가 발견되었다.¹⁵⁾

국내성과 환도산성 부근에는 고구려의 수많은 왕릉과 호태왕비가 자리하고 있다.¹⁶⁾ 그것들은 모두 국내성과 환도산성 부근의 통구평원이 바로 유리왕이 천도한 지점인 국내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위에서 서술한 고고발견들이 바로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 옮겨간 국내가 오늘의 집안현 성 부근이며 천도할 때에 쌓은 위나암성이 훗날의 환도산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필자의 관점을 아래와 같이 개괄하려 한다.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은 오늘의 요령성 환인현 부근 혼강 서안의 오녀산성인데 바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흘승골성이다. 기원후 3년에 유리왕이 도성을 오녀산성에서 국내로 옮겨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의 집안현 성 부근이며 위나암성을 쌓았다. 위나암성이 바로 훗날의 환도산성이다.

14) 王國維(1959), 『魏桓丘儉丸都山紀功石刻跋』, 『觀堂集林』 권20, 중화서국.

15)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2004), 『집안고구려왕릉』, 문물출판사.

16)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2004), 위의 책.

高句丽的早期都城及迁徙

● 李新全 (中国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研究员)

高句丽的初期都城，经过国内外学者一个世纪的努力，大多数认为就是位于今中国辽宁省东部山区的桓仁县五女山山城¹⁾，优越的地理环境、丰富的自然资源使五女山周围很早就成为了人们理想的聚居地，

- 1) 刘永智：〈访高句丽早期遗址五女山城〉，《朝鲜史通讯》第3辑，1981年。转引至《高句丽渤海研究集成·高句丽卷三》，哈尔滨出版社，第1~6页，1994年；王承礼：〈吉林辽宁的高句丽遗迹〉，《考古与文物》，1984年第6期；王健群：《好太王碑研究》，吉林人民出版社，第204页，1984年；魏存成：〈高句丽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1985年第2期；郭俊武：〈纥升骨城初探〉，《辽宁省本溪、丹东地区考古学术讨论会文集》，1985年；谭其骧主编：《中国历史地图集·释文汇编·东北卷》，中央民族学院出版社，第30页，1988年；孙进己、王绵厚主编：《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第264页，1989年；李殿福、孙玉良：〈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第1期。

高句丽民族就是从这里崛起并走上东北亚历史舞台的。五女山城作为高句丽建国的第一个都城，高句丽民族早期的活动中心，高句丽政权的发祥地，至今仍保留着大量的高句丽早期活动的遗迹、遗物²⁾。

I. 五女山山城概况

五女山山城位于辽宁省本溪市桓仁县县城东北8.5公里处的五女山上，浑江在山的东南部曲折流过。山下东南部现建有辽宁境内最大的水库—桓仁水库。山的东北部为大东沟村，西为刘家沟村。溯浑江而上，可至富尔江江口，霸王朝山城；顺江而下，可入鸭绿江水道。大连、丹东至通化、集安；辽阳、本溪至通化、集安；沈阳、抚顺至通化、集安的公路均在山下不远处经过，五女山山城控扼水陆交通要道，地理位置十分重要。

1996~1999、2003年，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馆、桓仁县文管所对山城进行了大规模的调查、测绘与发掘。

五女山山城平面略呈靴形。南北长1540米，东西宽350~550米，周长4754米，面积60万平方米。山城建在海拔640~820米的五女山上。绝大部分城墙是利用天然的悬崖峭壁和山脊作屏障，仅在东南部

2) 李新全：〈从考古发现论五女山城的时代与性质〉，《东北地区一至十世纪古代文化学术讨论会》论文，2000年；李新全：〈高句丽初期都城考〉，《辽宁考古文集》，辽宁民族出版社，第254~262页，2003年；李新全：〈五女山山城及其周围的高句丽早期遗迹〉，《高句丽文化的历史意义》，高句丽研究财团、中国社会科学院，2005年。

山谷地势稍缓处筑石墙封堵。

山城分为山上、山下两部分。山上部分即是五女山的主峰，海拔在800米左右。五女山主峰在山的半山腰处突兀而起，四壁断崖有如斧劈刀削一般，落差在百米左右，山势挺拔险峻。山顶地势平坦、开阔，南北长约600米，东西宽110~200米，面积9万平方米。城内的主要遗迹多分布在山上部分，是古代人类活动的主要区域，主要有一、二、三号大型建筑址、兵营遗址、哨所遗址、居住址、蓄水池、瞭望台、西门、一、二号防御墙等。

山下部分位于山城东部、北部和东南部，虽然多为平缓的坡地，但遗迹却较少，主要有南墙和南门、东墙和东门、哨所遗址等。

1. 城内主要遗迹

1) 城墙

城墙形制可分两类，一类是天然墙，另一类是人工墙。天然墙是指直接利用山间陡峭的悬崖或突起的山脊岗梁作为屏障，不见人工痕迹。根据天然墙的自然形态，又可分为峭壁墙和山脊墙两种。人工墙系指人工修筑的城墙，五女山山城人工墙均为石筑，局部段落内壁与顶部培土。山城城墙大部分为天然墙，仅在山下东、南部山势稍缓处和山上重要豁口处筑有人工墙，进行封堵。城墙全长4754米，其中天然墙总长4189米，约占城墙总长的88%，人工墙总长565米，仅占城墙总长的12%。

南墙：全长424米，平面略呈折尺形，起于山上部分的西南角，止于

山下部分的南门西侧，自西向东由两段天然墙和两段人工墙交替组成。

东墙：全长1847米，呈内弧形，自南门东侧起，至北部山崖向西转折处止，共由6段天然墙和6段人工墙组成，人工墙主要建于较陡的坡地和谷口，天然墙皆为垂直的峭壁。

北墙：全长475米，全部为天然墙，平面呈内弧形，自东墙北端起，沿崖壁折向西北，约65米后，又沿着一条弯曲的山梁呈圆弧形内凹，至一突起的山包止。山梁外陡内缓，外侧50~100米处，有一道西北至东南走向的断崖。

西墙：全长2008米，除西门附近有极短的人工墙外，其余全部是天然墙，平面呈不规则钝角形，自北端山包起，至山顶西南角止，按照不同的自然形态及其走势，可以分作四段。

2) 城门

山城设有三门，分别为南门、东门和西门。其中南门、东门位于山下部分，西门位于山上部分。

南门位于整个山城的东南角，宽约2.3米，西为南墙终点，东侧是落差在10~20米的断崖。南门外是一条深谷，出入南门，必须经过南墙外的山谷北岸马道，宽仅2米，地势险要，居高临下，易守难攻。

东门位于南门之北约150米处，系在南北向的东墙第一段人工墙外4米处垒筑垂直于此段墙体的城墙而成。中间留出宽4米的门道，东门以东的墙体垒筑20米后，转折向北，转折处形成一圆角。从东门出城，有下山道路通往浑江岸边，入城与环城马道相连，可至南门及城内北部。向西有道路可至山的顶峰，与西门相通。

西门位于主峰西部中间一豁口处，门道宽3米，修建有门阶、门柱、门枢础，门内左右各设一门卫室。门的南北两侧筑墙封堵。

3) 蓄水池

位于城内山上部分的中部偏西处。系于山上部分最低处开凿山岩而成，平面呈长方形，长12米、宽5米、深1.1~2米。池边沿用石头砌筑挡土矮墙。池塘西壁中间有流水的孔道，其外挖大坑，接收池塘溢出的水。

4) 一号大型建筑址

位于山上部分偏北处。编号为J1，现存六块柱础石和一柱础坑，表明原应为七块础石，呈西北东南一线排列，距础石北5米有一道土坎，土坎下为基岩。础石与土坎之间是平坦的地面，踩踏板结。屋内地面出土“五铢”、“大泉五十”铜钱，结合本期灰坑和房址内出土的竖耳罐的特征来看，时代当在高句丽初期。

5) 二号大型建筑址

位于瞭望台北部建筑群址和蓄水池之间，编号为J2。此处地势低洼，东南部为一土坎，北部是一片平坦的山地。半地穴式建筑，平面呈长方形，南北长24.5米，东西宽16米，深0.3~1.4米。遗迹底部呈东高西低之势。南、西、北、三面用楔形石砌筑，东面借助较高的地势挖成土坎。石墙分内外两重，中间有沟相隔。西面地势低，最高砌筑4层楔形石，南北两边由西向东随着地势的升高砌筑的楔形石层数逐渐

减少。距此建筑西壁外4米处，起一土楞，楞呈漫岗状，底宽约4~5米，内侧高1米，外高2米。土楞系用挖出的建筑遗迹的土堆积而成。

6) 三号大型建筑址

位于城内山上部分东南部，东距瞭望台120米，建于人工修整的平台上，编号J3。人工修整的平台分大小两块，大平台居东，小平台居西，低于大平台0.2米，两平台前部呈漫坡状，高出台前地表0.4~0.6米。J3主要部分位于大平台上，共有三排础石，呈西北—东南方向排列，每排现存9~11块，横向间距1.4~2.4米，纵向间距1.4~1.7米。础石多为自然石块，大小不一，有的础石下面及周围补垫小石块，形成础石圈，一般长20~80、宽15~20、厚8~20厘米，部分础石酥裂，似经火烧。地面局部地方留有厚约1厘米左右的黑色灰烬层，灰烬上散落大量红烧土块，上有木棒或木条印痕。J3长20、宽9.5米。小平台上有平铺或半埋的础石，推测应为J3的附属建筑。大、小平台西南为高约4米的崖壁，崖下有一道自然黄土塬，塬上发现房址两座。

7) I类房址(兵营)

位于点将台北部，共发现房址20座。房址均为略呈方形或长方形半地穴式，长一般为4.5米、宽4米。房址内构筑有折尺形火炕，有1~3排烟道，炕的一端有灶，另一端有烟囱。房址内出土有陶器、铁器，其中以铁镞、铁甲片居多，表现出浓厚的军事气息。

8) II类房址(哨所)

哨所遗址在城内山上和山下均有分布，是山城防御体系的重要组成部分，山上哨所遗址主要位于山口及其附近，山下哨所遗址主要位于东墙沿线的谷口两侧及靠近城墙的山地上。东墙沿线谷口两侧一般都有外突的砬头，形如自然“马面”，为了便于守望和控扼谷口，哨所充分利用了这种独特的地理形势，大都建于砬头上面。哨所为半地穴式建筑，内设火炕，发掘前暴露于地表的迹象多为略凹的土坑。有的哨所仅是孤立的一座，有的则是2、3座一组，紧密相接。

9) 瞭望台

俗称点将台，位于城内山上部分的东南端，实际上是山上的制高点和控制东、南、东北、西南四个方向的最佳瞭望地点。长17、宽15米。台下即是环城马道，南门。远处是浑江谷道。站在台上，居高临下，一览无余。

2. 山上部分发掘

山城内共发掘了5个区域，均在山上部分，分别编号为I、II、III、IV、V区。经过发掘，共发现了五个时期的文化遗存，出土陶、石、瓷、铜、铁、银等各类文物1000余件。其中第三期文化为高句丽早期遗存。

第三期文化遗存：以J1、F47、H5、H10为代表。房址有圆形半地穴式和长方形地面建筑两种。灰坑为圆形或椭圆形坑，较浅。坑内堆

积为黑灰色土，含有大量的草木灰、炭粒、红烧土粒。出土遗物多为陶器。陶质均为夹砂含滑石粉灰褐陶和黄褐陶，器表抹光。器型有盆、竖耳罐、折沿罐、横耳壶、单把杯等，陶器特点为折沿、大口、方唇、束颈、小平底。盛行竖耳，但也有少量的横耳、柱状扳耳。

根据J1出土的“五铢”、“大泉五十”铜钱，结合本期灰坑和房址内出土的竖耳罐等陶器特征来看，此期的年代应在两汉之际³⁾。

多年来，国内外许多学者依据文献记载和考古调查资料，将五女山山城考定为高句丽建国的初期都城，但因文献记载的内容简单，且为追记性质，加之考古调查材料较少，这个问题一直悬而未决。根据几年来的五女山调查发掘资料及以往相关的考古发现与研究，结合文献记载，现在我们完全有理由认定，五女山山城的山上部分就是高句丽建国初期的都城。理由如下：

第一、五女山山城的山上部分海拔800米左右，四周悬崖峭壁，落差在百米左右，令人望而生畏。而山上却较平坦，开阔，适于人类活动。又有蓄水池、瞭望台等军事、生活设施。站在山上的瞭望台，可俯视五女山周围的山山水水，过往行人等情况，具有一种居高临下、一览无余的气势。山顶仅有三个豁口可供行人上下，且十分陡峭险峻，易守难攻，可以说它是一个天然的军事要塞。

第二、山顶中心区稍偏北发现了高句丽初期的大型建筑址J1，面南背北，避风向阳，距离天池仅百米左右，饮水方便。该建筑址位置

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五女山城》，文物出版社，2004年。

之佳，规模之大远非山上发现的同时期的其它建筑可比，表明它是一座高等级的建筑。

第三、山顶发现了较多的高句丽初期的遗迹和遗物。在已发掘的5个区中，有3个区发现了高句丽初期的遗迹和遗物。

第四、将高句丽初期都城考定在天然的军事城堡五女山山城的山上部分与文献记载相符合。《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始祖东明圣王条载：“朱蒙行至毛屯谷（魏书云至普述水），遇三人……与之俱至卒本川。观其土壤肥美，山河险固，遂欲都焉，而未遑作宫室，但结庐于沸流水上居之”。五女山顶峰恰好是一座“山河险固”的天然军事城堡。正适于初来乍到欲建国立业的朱蒙等统治者“结庐”居之。

五女山山城山下部分的城墙构筑特点表明，城墙的建造年代约在魏晋时期。这一点与我们对山下城墙的清理解剖发现的陶器年代相符。而与文献上记载的高句丽建国年代相差较远，与山顶发现的高句丽初期、即五女山第三期文化遗存的年代亦不符。也就是说，现存的五女山山城的城墙并非高句丽建国初期所筑，而是后来修筑的。因此，把五女山山城分为山上、山下两部分不仅有其本身地理形势的原因，而且还有使用年代上的差别。

第五、确定了五女山山顶为高句丽初期都城后，很显然，它只是统治者活动的地方。海拔高、面积小、人员上下和运输不便，不适合为都城统治集团服务的众多平民百姓居住。那么，大量的服务人员和平民百姓住在哪里呢？经实地考察，桓仁县城附近五女山下的浑江谷地非常适于大量的人口居住、生活。

浑江自吉林流入辽宁桓仁境内后，呈蜿蜒曲折、九曲回肠之势，

在五女山附近，由于汇入了哈达河、六道河、雅河等较大的支流，在崇山峻岭中形成了相对面积较开阔的冲积平原。这些河谷冲击平原，土地肥沃，适于耕种。河道曲折，水流平缓，即适于鱼类生长，又为人们捕捞提供了便利条件。在“多大山深谷，无原泽”的高句丽活动区域内可谓是“土壤肥美”，是一处宜农宜渔的鱼米之乡。

二十世纪50年代末至60年代初，这里修建桓仁水库时，考古工作者调查发现了众多的古遗址和大量的高句丽积石墓群，表明这里确实是高句丽早期活动的中心区域⁴⁾。

值得注意的是，50年代末和90年代中期考古工作者曾对五女山下、浑江东岸的高力墓子墓群进行了两次发掘，发掘者均指出该墓地与五女山山城有着密切的关系⁵⁾。发掘的墓葬形制属于高句丽的阶墙积石石圻串墓，研究者指出，它是高句丽积石墓中最早的形制之一⁶⁾。这种墓中出土的陶器多为夹砂红褐或黄褐陶，火候不高，器形不规整。器物特征为方唇、折沿、束颈、平底，具有西汉末至东汉早期陶器的作风。因此，把这种墓葬的年代定在公元前后应该是没有问题的。

还需注意的是：上述墓中出土的陶器与五女山山顶发现的高句丽初期即五女山第三期遗存的陶器在陶质、陶色、造型风格方面均一致，表明二者确实存在着密切的关系。它是我们考定五女山山顶为高句丽

4)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第1期。

5) 陈大为：〈桓仁县考古调查发掘简报〉，《考古》，1960年第1期；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辽宁桓仁县高丽墓子高句丽积石墓〉，《考古》，1998年第3期。

6) 孙仁杰：〈高句丽积石串墓研究〉，《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1993年；柳岚：〈高句丽积石串墓研究〉，《博物馆研究》，2004年第4期。

初期都城、五女山下的浑江谷地为“卒本”、“忽本”的有力证据。

第六、在五女山下西约10公里的下古城子村发现了高句丽早期的平地城，这里经常出土高句丽的陶器、铁镞、环首铁刀等遗物，据调查者介绍，其时代可早到高句丽初期。在下古城子村北约1.5公里的上古城子村附近，有上古城子古墓群，均为高句丽积石串墓和方坛积石墓，其年代上限也可早到公元前后，亦即高句丽建国之初⁷⁾。在下古城子村东南2公里处的浑江岸边，有望江楼积石墓群，经过发掘，表明是高句丽建国前后的墓葬⁸⁾。在望江楼墓群的西南部，有高句丽早期遗址—南边石哈达遗址⁹⁾。这两处墓群和下古城子城址、南边石哈达遗址的存在，为五女山山顶是高句丽的初期都城、山下的浑江谷地为高句丽初期活动中心“卒本”、“忽本”提供了重要的佐证资料。

综上所述，五女山顶峰发现的王宫式建筑以及与之同时的大量文化遗存与山下的下古城子城址、南边石哈达遗址，望江楼、高力墓子、上古城子积石墓群出土的陶器风格一致，年代相同，表明五女山顶峰即是高句丽政权建立者的最初活动之地，亦即后人在《好太王碑》中追述的“城山上而建都焉”的初期都城；五女山下由数条浑江支流冲击而成的浑江谷地即是文献上记载的“忽本”、“卒本”或“卒本川”，并建有平地城。这一地区就是高句丽民族政权崛起之地。

7) 参见《桓仁满族自治县文物志》，第2章第2节、第3章第3节，1990年。

8) 梁志龙、王俊辉：〈辽宁桓仁出土青铜遗物墓葬及相关问题〉，《博物馆研究》，1994年第2期。

9) 参见《桓仁满族自治县文物志》，第2章第1节，1990年。

II. 高句丽早期都城的迁徙

1. 高句丽早期都城迁徙的时间

据《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琉璃明王条载，琉璃明王“二十二年冬十月，王迁都国内，筑尉那岩城”。按照《三国史记》的编年体系，琉璃明王二十二年相当于公元3年。表明高句丽第一次迁都的时间是在公元3年。

2. 高句丽早期都城迁徙的地点

1) 国内与国内城

《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一》载，琉璃明王“二十二年冬十月，王迁都国内，筑尉那岩城”。

《三国史记、地理志》载：“自朱蒙立都纥升骨城，历四十年。孺留王二十二年移都国内城”。

从上述《三国史记》的两处记载来看，本身既存在着矛盾。很显然，国内与国内城的关系密切，但二者又不能完全等同。那么，琉璃明王究竟是迁都国内，还是迁都国内城？这个问题我们可以从《三国史记》中找到答案。《三国史记》中最早出现有关“国内城”的记事是高句丽故国原王十二年(公元342年)，“春二月，修葺丸都城，又筑国内城”。此前《三国史记》中仅见有关“国内”记事，未见关于“国内城”的记事。此外，《三国史记、地理志》言：“都国内，历四百二十五年”，

而不言“都国内城，历四百二十五年”，亦表明高句丽迁都国内时尚无国内城¹⁰⁾。

国内是指一个地区，这一点可由《三国史记》的琉璃明王二十一年的记事得到证明。“春三月，郊豕逸。王命掌牲薛支逐之。至国内尉那岩得之，拘于国内人家养之”。上述记载表明国内是一个地区，尉那岩属于国内地区，并且尉那岩无人居住，所以才将抓到的郊豕“拘于国内人家养之”，可见国内有人家的地方距尉那岩并不远。

国内城则是筑于国内地区的一座城，史书上有明确的记载。《新唐书·地理志》载：“自鸭绿江口舟行五百余里，乃小舫泝流东北三十里至泊沟口，得渤海之境。又泝流五百里，至丸都县城，故高丽王都”。唐杜佑《通典》载：“鸭绿江，水源出东北靺鞨靺白山，水色似鸭头，故俗名之。去辽东五百里，经国内城南，又西与一水合，即盐难水也”。由上述文献记载可知国内城在鸭绿江边，距泊沟口五百里，泊沟口既是指高句丽泊沟城附近的河口。高句丽的泊沟城近年考古工作者有所发现，既是位于丹东虎山明长城附近的虎山山城¹¹⁾。那么，由这里上溯五百里，既是今天的集安县城。县城内确实存在着一座古城，就是史书上所载的国内城，这已为众多的考古发现所证实¹²⁾。

10) 李健才：〈关于高句丽中期都城几个问题的探讨〉，《东北史地》，2004年第1期；李健才：〈再论高句丽迁都到国内以前有无汉代县城的问题〉，《东北史地》，2004年第6期。

11) 任鸿魁：〈泊沟城方位考述〉，《辽海文物学刊》，1994年第2期。

12)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高句丽国内城址的调查与试掘〉，《文物》，1984年第1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国内城—2000~2003年集

确定了国内城，那么，国内城所在的通沟平原及附近地区就是国内便不证自明。

2) 尉那岩城与丸都城

据上文所述，尉那岩属于国内地区，琉璃明王迁都国内时曾在此筑城，并且尉那岩城距琉璃明王迁都国内的地点不远。又据《三国史记·高句丽本纪·第二》大武神王条载，大武神王十一年，汉辽东太守将兵伐高句丽，高句丽王入尉那岩城固守，左辅乙豆智曰：“汉人谓我岩石之地，无水泉，……”的记事可知，尉那岩城是一座山城¹³⁾。而在今集安国内城北2.5公里处正有一座高句丽山城—丸都山城。一般学者认为“丸”是“尉那岩”的音转或音变，不确。应是汉语记录高句丽语言时对急读和缓读的记音不同所致，“尉那岩”急读为“丸”。

丸都城已由文献记载和考古发现所证实，既是今集安县城附近的丸都山城。在山城西北处的小板岔岭发现有毋丘俭记功碑¹⁴⁾，城内经过发掘，有高句丽中期的大型宫殿建筑址¹⁵⁾。

在国内城和丸都山城附近，有众多的高句丽王陵和好太王碑¹⁶⁾，

安国内城与民主遗址试掘报告》，文物出版社，2004年。

13) 李殿福：〈高句丽的丸都城〉，《文物》，1981年第6期。

14) 王国维：〈魏毋丘俭丸都山纪功石刻跋〉，《观堂集林·卷二十》，中华书局，1959年。

1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调查试掘报告》，文物出版社，2004年。

1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集安高句丽王陵》，文物出版社，2004年。

它们都是国内城和丸都山城附近的通沟平原就是琉璃明王迁都的地点—国内的确证。

上述考古发现证明，高句丽早期都城迁往的国内就是指今天的集安县城附近，迁都时所筑的尉那岩城就是后来的丸都山城。

综上所述，概括我的观点如下：高句丽第一个都城是位于今辽宁省桓仁县城附近浑江西岸的五女山山城，即史书上记载的纥升骨城。公元3年，琉璃明王将都城由五女山山城迁往国内，即今天的集安县城附近，并筑尉那岩城，尉那岩城既是后来的丸都山城。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7년 한중 고구려역사 학술회의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高句麗早期歷史研究

초판 1쇄 인쇄 2008년 11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08년 11월 7일

편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사회과학원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05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69-6-9390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